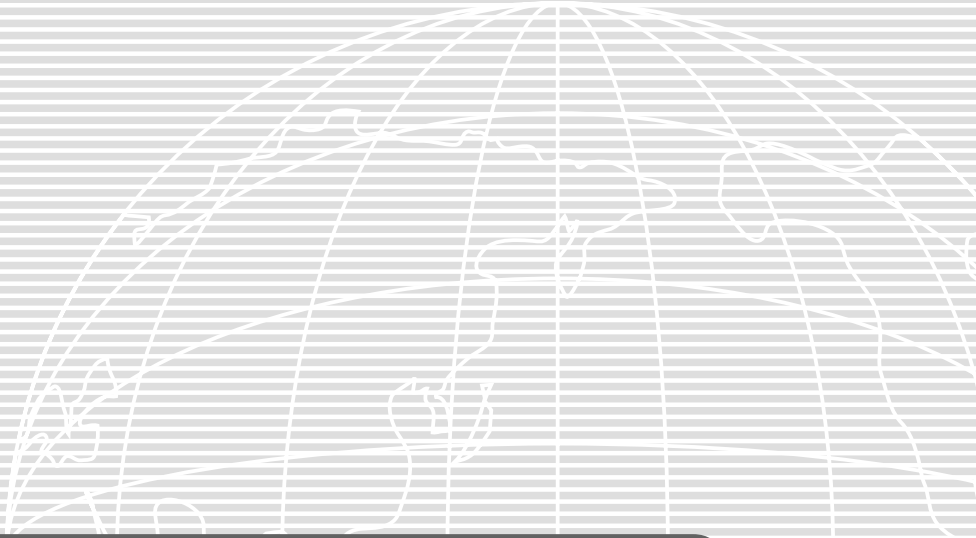




조정아 · 서재진 · 임순희 · 김보근 · 박영자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 서재진 · 임순희 · 김보근 · 박영자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인 쇄 2008년 12월 29일

발 행 2008년 12월 31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2285-0936)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조정아, 서재진, 임순희, 김보근, 박영재[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KINU 연구총서 ; 08-07)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68-9 93340 : ₩10,000

조선 민주 주의 인민 공화국(국명)[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309.111-KDC4

951.9-DDC21

CIP2008003883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II.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양식 .....	29
1.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	31
2. 북한 주민의 식의주 .....	58
III. 키워드로 보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109
1.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비법, 생존 일당, 브로커 .....	111
2. 지식인계층의 일상생활: 부업, “거두매”, 지식 판매, 비법과 뇌물, 공동생산과 직업세 .....	147
3. 권력엘리트계층의 일상생활: 제도기생 .....	180
4. 신흥상인계층의 일상생활: 경쟁, 범죄, 뇌물, 규칙 변화 ..	200
5. 여성의 일상생활: 부양, 출혈노동, 여권, 자립, 차별, 홀로서기 .....	227

---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IV. 일상생활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	263
1. 계층 구조의 변동 .....	265
2.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	273
3. 통제와 일상의 저항 .....	278
4. 국가에 대한 불신과 금전만능주의 심화 .....	288
V. 결론 .....	297
참고문헌 .....	313
최근 발간목록 .....	323

# 표목차

<표 I -1> 심층면접 대상자 기본 인적 사항 .....	19
<표 I -2> 심층면접 대상자 직업별 인원 .....	22
<표 I -3> 심층면접 대상자 성별 인원 .....	22
<표 I -4> 심층면접 대상자 연령별 인원 .....	22
<표 I -5> 심층면접 대상자 거주지역별 인원 .....	22
<표 I -6> 주요 면담 내용 .....	23
<표 I -7> 질적 자료에서 도출한 범주별 주제 .....	24
<표 II-1> 1990년대 경제난 이전 북한 노동자의 하루 일과 .....	33
<표 II-2> 1990년대 경제난 이전 북한 농민의 하루 일과 .....	34
<표 II-3> 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의 하루 일과 .....	37
<표 II-4> 광산연합기업소 수출피복공장 노동자의 하루 일과 .....	38
<표 II-5> 외화벌이 노동자의 하루 일과 .....	39
<표 II-6> 전화교환수의 하루 일과 .....	42
<표 II-7> 판매원의 하루 일과 .....	43
<표 II-8> 미용사의 하루 일과 .....	44
<표 II-9> 농민의 하루 일과 .....	50
<표 II-10> 시당학교 교원의 하루 일과 .....	52

---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표 II-11> 연구원의 하루 일과 .....	53
<표 II-12> 인민보안원의 하루 일과 .....	55
<표 II-13> 여성 시장생활자의 하루 일과 .....	57





# I

## 서론





## 1. 연구 목적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양식을 뿌리째 흔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후 십여년간 북한 주민들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다양한 생존전략을 통해 경제난이 야기한 기아와 궁핍, 기본적인 안전의 위협이라는 ‘비일상적’ 충격을 자신들의 일상 속으로 흡수하면서 생존을 이어갔다.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공백을 시장이 대신했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중심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생산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거주하고 쉬는 방식, 국가, 가족, 이웃과의 관계,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통하는 틀과 방식도 변화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세계를 통해 경험한 변화들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해석과 확대·변형 과정을 통해 북한의 거시적 체계 및 제도의 변화와 연계되고 있다.

우리들의 삶은 일상적 과정을 통해 구조와 행위가 만난다. 일상생활 세계는 개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이 작동하는 공간인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와 규칙을 해석하고 타협과 갈등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를 변형시키는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구조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한다.<sup>1</sup> 일상은 미시권력이 작동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미시권력에 맞서서 ‘미시저항’을 끝없이 펼칠 수 있는 장소이다. 일상이란 실천하는 주체가 죽어있는 소외의 공간이 아니라 지배와 저항의 긴장과 모순의 변증

---

<sup>1</sup> 여기서 ‘전유(專有, appropriation)’는 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가 개진한 핵심 개념이다. 소유는 소유이되,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 혹은 원래 자기 것이었어도 빼앗겨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신의 육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시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 장악하고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05), pp. 36~39.

법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sup>2</sup> 이 점에서 일상생활세계는 구조가 재생산되는 공간인 동시에 구조를 변화시키는 미시적 조건이 잉태되는 공간이다.<sup>3</sup>

따라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정치담론이나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제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생한 일상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정치적 권력과 지배관계의 작동을 그것들이 현실로서 구체화되는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고정적인 이데올로기 담론과 정치권력에 간혀있는 듯 보이는 북한 사회의 역동성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 연구는 주로 정책, 담론, 전략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시각에 있어서도 특히 구조 중심적, 정치 중심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일상영역을 정치에 종속된 영역으로 취급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행위자 차원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연구 분야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주목하고 이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경제난과 시장화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와 일상에서의 통제와 일탈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서재진(1995; 2004), 김병로·김성철(1998), 김귀옥 외(2000), 박형중·정세진(2003), 박현선(2003), 이정운(2003), 임순희

---

2- 김기봉, “주체사상과 ‘일상의 정치화,’”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제1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토론회 자료집), p. 9.

3- 행위와 구조의 역동을 설명하는 역사사회학 이론이나 기든스의 “구조화”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반복적인 사회생활의 특성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시간 반복되는 일상의 과정을 통해 관행의 매개이자 결과로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2004), 박영자(2004; 2005), 조정아(2004; 2005; 2006), 최완규 외(2004; 2006, 2007),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역음(2006), 양문수 외(2006), 홍민(2006), 김종욱(2006), 이교덕 외(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다루고 있거나, 북한 주민의 일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하기에는 연구의 관점이나 범위 측면에서 제한적이며,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일상생활 세계를 구체적이며 총체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세계와의 상호작용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 속의 역동과 북한 체제 사이의 구체적 연계고리들을 잡아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일상의 변화를 탐색하고, 주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의 정치’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사의 중심적인 사건이나 시대이념, 현저한 전환점 등을 다루기보다는 “반복되었던 것, 반복되는 것,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것, 모름지기 변화 가운데서 일상적인 실재”에 관심을 기울인다.<sup>4</sup>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일상’의 개념

독일에서 1970년대 중엽에 싹트기 시작한 일상에 대한 연구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등 거대 담론과 구조 중심적 사회사 연구에 대한

---

4- 문기상, “일상생활사,” 『역사연구』, 57호(1995), p. 71.

비판 속에서 1980년대에 본격화되어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냉전체제와 거대담론의 20세기에 대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성찰적 인식과 함께, 그간 거대담론과 구조에 묻혀 있던 개개인들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생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삶의 층위에서 생존을 위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행위하는 자기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었다. 사회주의체제 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이후 소련의 스탈린 시기 기밀문서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 작동 양식을 위로부터의 지배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또한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 변화를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sup>5</sup>

이같은 일상 연구는 평범한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세계와 주관적 의미 맥락, 행위를 포착하여 그들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 다가가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핵심은 일상적 경험에 대한 사람들의 ‘처리방식’ 혹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과 ‘생활방식’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개별 대상의 의도와 희망, 욕구와 경험이 표출된 자취와 징후들을 발굴하여 그것들을 하나의 텍스트로서 해독한다.<sup>6</sup>

일상에 대한 연구는 또한 ‘아래로부터 역사’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계급·성·인종·종교 등 각종 사회적 불평등 구조 속에서 희생과 고

---

5- 대표적 연구로는 피츠패트릭(Fitzpatrick, 1993; 1994; 1999; 2000; 2002)의 연구를 비롯하여, 사라 데이비스(Sarah Davies, 1997), 히로아키 쿠로미야(Hiroaki Kuromiya, 2003), 스티븐 코트킨(Stephen Kotkin, 1995), 요진 헬벡(Jochen Hellbeck, 2006) 등이 있다.

6-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안병직 외 지음, 『오늘의 역사학』,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2), pp. 36~40.



통을 받아온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에 찬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동시에 그것은 패배와 좌절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억압과 규제에 부단히 맞서온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의 양상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을 밝혀내고자 한다. 현실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서술에서도 종종 소외되고 침묵을 강요당해 온 여러 사회 집단들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삶의 조건에 따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꾸려왔다는 점에 착목한다.<sup>7</sup> 이는 단순히 아래층에서 사회를 보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때로는 실제로 지도자, 중앙관료의 힘보다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있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음에 주목하는 것이다.<sup>8</sup>

일반적으로 ‘일상’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 사회의 일반적인 개인 또는 집합적 존재가 영위하는 생활이며, 특정한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되는 생활이며, 목적의식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의 연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일상의 범주를 ‘하층’ 주민들의 일상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엘리트나 관료, 지도자를 포함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사생활의 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과만이 아닌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상’ 개념에 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

7- 위의 글, p. 35.

8- 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제2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토론회 발표 자료), p. 21.

I
II
III
IV
V



지 않고,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현상학적 전통에서는 “자연적 태도에 기초하여 경험, 사유, 그리고 행위가 상호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개인의 재생산 활동의 총체”라는 점이,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서는 “자아의 형성, 발전, 표현의 환경으로서의 사회적인 상호 작용 상황, 특히 대면적인 상호작용 상황”이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된다. 이외에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에서는 일상생활이 합리화됨으로써 “상징적 재생산의 영역”으로 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축소된 기능의 측면이 강조되었다.<sup>9</sup>

학자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엘리야스(N. Elias)는 ‘비일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일상’의 특징을 평일, 통상적인 사회 영역, 작업일, 민중의 생활, 매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 사생활, 자연적·자발적·성찰되지 않은 체험과 사유의 영역, 일상의식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0</sup>

헬러(A. Heller)는 “개별인간의 재생산을 종합한 것을 나타내는 모든 행위”로 일상생활이 지나는 사회적 재생산의 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재생산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개인적 재생산 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 그녀는 사람은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조건과 제도 내에서 태어난다는 점에

9-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 민음사, 1998), p. 35.

10- 이와 대립개념인 “비일상”은 축일, 특별한 비통상적인 사회 영역, 시민, 즉 노동하지 않고 이윤으로 호화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영역, 고위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전통적인 정치적 역사 서술이 유일하게 적합한 것이라고 간주하며 ‘큰’ 사건이라고 파악하는 모든 것, 즉 역사에서의 주요한 국가적인 행위, 공적인 혹은 직업적인 생활, 성찰된, 인위적인, 비자발적인, 그리고 특히 학문적인 체험과 사유의 영역, 올바른, 순수한, 참된 의식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본다. (N. Elias(1978); 위의 책, p. 32에서 재인용.)

주목한다. 인간의 재생산은 언제나 구체적 세계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간’의 재생산이고, 인간 역사에서 자발적이며 의식적인 행위는 언제나 예외적이며, 대부분의 인간 행위는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적 통일성을 이룬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성이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는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이질성을 드러낸다. 그녀에게 있어 일상생활은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며 갈등하는 영역이다.<sup>11</sup>

르페브르(H. Lefebvre)는 일상생활을 노동,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산과 재생산의 동질성을 주목했다. 그에 의하면 생산이란 사회적 시간과 공간까지를 포함하는 정신적 생산과 물건의 제조를 칭하는 물질적 생산, 그리고 인간 존재의 생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 생산은 총체적인 사회관계의 생산이며 재생산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경제적 토대와 사회구조, 그리고 국가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상부구조만으로 삶의 조건을 분석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역동성을 상쇄하는 도식이 된다.<sup>12</sup>

하버마스는 체계와 전략적 행위의 영역과 구분되는 생활세계와 의사소통행위의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체계와 전략적 행위의 영역과 구분되는 생활세계와 의사소통행위의 영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국가기구의 행정적인 하위체계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생활세계를 침식하는 양상을 국가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정의한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명제로 일차적으로 서구의 후기자본주의를 비판하였고, 이후 현존

<sup>11</sup>- 아그네스 헬러, “일상생활의 추상적 개념,” 박재환 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2002), pp. 111~116; 아그네스 헬러, “인간생활의 이질성,”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기파랑, 2005), p. 376.

<sup>12</sup>-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05), p. 66.

I
II
III
IV
V

사회주의 사회, 즉 국유화된 생산수단과 제도화된 일당지배를 바탕으로 정치-행정 체계가 비대해진 사회에서 벌어지는 생활세계의 식민화 역시 비판하였다.<sup>13</sup>

이 연구에서는 엘리아스의 개념과 같이 ‘일상’을 ‘비일상’과 명백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일상과 비일상의 연관성과 일상이 갖는 수렴적 성격을 염두에 둔다.<sup>14</sup> 권력엘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일상을 다룰 것이며, 그들이 생산, 재생산, 여가생활의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면서 일상의 변화를 도모해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일상의 변화가 북한 체제의 변화와 연결되는 몇 가지 주요한 연결고리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상 연구의 관점과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일상을 안정이 지배하는 정적이고 종속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가, 참여자의 주체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가라는 점에 관한 입장의 차이이다. 전자의 입장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서의 일상이 지니는 반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둔다.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상은 비록 고립되고 고정된 세계는 아니지만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고, 안정과 평온이 유지되는 세계이다. 일상에서는 습관화된 사고나 행위에 의해 외부에서 나타나는 비일상적인 자극과 충격이 흡수되거나 조정됨으로써 혼란이 수습되고 평정이 회복되기 때문이다.<sup>15</sup> 일상적 반복행위의 관례화는 ‘안정’의 조건으로서

<sup>13</sup>- J. Habermas, 강수택 역,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 민음사, 1998), p. 268~272.

<sup>14</sup>- 모든 것은 일상성을 통해 일상생활에 수렴된다. 일상성은 전쟁이나 혁명의 비일상조차도 압도해버린다. 북한의 경제난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붕괴시켰지만, 계획경제 중심적 삶의 일상성이 시장교환 중심적 일상성으로 변화하면서 곧바로 새로운 일상생활의 균형이 만들어진 것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모든 사건과 비일상은 일상으로 수렴된다. 그러한 수렴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보존의 일상성을 갖기 때문이다. 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p. 19.

사회집단들과 제도들에 대한 ‘종속’을 의미한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일상  
 상은 사람들이 계층 혹은 계급별로 특수한 ‘문화적 생활방식’에 따라  
 사회적 삶의 현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해석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생되  
 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부단하게 현실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영역  
 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일상이란 구조화된 사회적 현실을 개  
 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인식과 경험으로 매개하는 장으로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삶의 실천방식과 ‘전략’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려  
 는 시도가 나타나는 세계라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들이  
 ‘그들의’ 세계를 ‘전유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형식들이 중심에 놓이게 된다.<sup>17</sup>

또 한가지 쟁점은 일상에 대한 연구가 일상생활에 드리운 다양한 소  
 외와 억압을 확인하고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생생한 경험  
 의 영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느냐 하는 점이다. 르페브  
 르(H. Lefebvre), 기 드보르(Guy Debord) 등은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핵심적 장  
 소로, ‘일상생활의 식민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사회 변혁의 과제  
 로 일상생활의 ‘탈식민화’와 변환, 인간의 잠재력의 부활을 주장했다.<sup>18</sup>  
 마페졸리(M. Maffesoli)의 경우 구조결정론의 경향을 반박하며 생생한  
 일상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일상의 가능성을 찾는 후자  
 의 관점을 취한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자의 관점 중

15-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p. 30.

16- 위의 글, p. 30.

17- 알프 쿠틀케, “일상이란 무엇이며, 누가 이끌어가는가?,” 『일상이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pp. 19~23.

18-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전남사학』, 제25집, p. 304.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일상의 파열을 야기한 요소인 경제난과 시장화라는 사회구조적 변동에 처하여 북한의 주민들이 어떠한 실천과 대응전략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모색해 나갔는지, 그 역동적 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질곡과 억압 구조에 대한 비판보다는 북한주민들이 권력과 지배를 우회하며 재전유하는 다양한 실천전략<sup>19</sup>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나.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여 '아래로부터' 진행된 북한 일상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계층별로 수집·정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일상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 특징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근래 들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사건은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추세 역시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난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되, 경제난 이전 시기의 일상생활과의 비교의 관점을 견지하였다.

II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양식을 하루 일과와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추적하여 기술하는 생활시간연구를 통해 경제난을 전후로 해서 노동과 여가시간, 직장에서의 노동과 사적인 개별노동 시간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계층별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도 분석하

---

<sup>19</sup>- 홍민,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p. 16.

였다. 의식주 생활의 계층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 구체적인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 실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Ⅲ장에서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계층, 직업별로 구분되는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존전략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을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한 경제난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뒤이은 시장의 확산을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 경제난 이후 십여년의 시간을 경유하면서 구조적 변화의 충격이 주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은 각기 어떠한 전략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재구축해 나갔는지에 주목한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계층을 구분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경제난 이전 시기의 북한의 계층구조는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계층구분보다는 성분이라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구분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과거에 정치적 측면에서 고착되었던 사회계층구조가 경제난과 더불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사회 계층화에 대한 가장 주류적 시각은 직업을 각종 경제, 사회자원의 점유를 보여주는 계층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층기준은 직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자원 점유 상태와 사회, 경제적 지위 상황을 고려해 계층을 구분한다.<sup>20</sup> 예를 들어 중국의 사회계층 연구에서도 직업을 기본적인 계층구분 기준으로 삼고 업종지위, 문화기술, 경제상황, 정치지위 등

<sup>20</sup>- 김도희, 『전환시대의 중국 사회계층』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 54.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체 구성원을 10대 사회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sup>21</sup>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층구조의 변동이 시장적응능력을 갖춘 일부 노동계층의 상향이동, 암시장 경제와 공공권력의 유착을 통한 정치적 권력의 경제적 자산으로의 전환,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지식인 계층의 하향이동 등 직업과 관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닌 전체 생산관계 속에서의 위치와 직업, 사회정치적 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층, 지식인계층, 권력엘리트계층, 신흥상인계층 등으로 나누어 이들 집단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계층을 망라해서 현재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각 계층별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성을 갖는 사회계층의 변동,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통제와 일상의 저항, 주민 의식의 변화라는 네 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구조적 변화에 주는 영향을 탐색하고, 북한 체제 변화의 동력으로서 일상의 기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아울러 이 글의 II장 1절, III장 1절은 박영자, II장 2절, III장 4절은 김보근, III장 2절, IV장은 조정아, III장 3절은 서재진, III장 5절은 임순희가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

<sup>21</sup>- 중국의 10대 사회 계층은 국가·사회 관리자 계층, 경영인 계층, 사영기업주 계층, 전문 기술자 계층, 사무직 계층, 자영업자 계층, 서비스직 계층, 산업노동자 계층, 농업노동자(농민) 계층, 무직·실업·반실업자 계층 등이다. 위의 책, pp. 56~63.

## 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계량적 연구가 조사의 대상과 모형을 설계하고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계량적 지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의 경험을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현재 북한 사회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문서자료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공식간행물이다. 이러한 공식간행물들은 현실 은폐성, 관점의 일방성, 이중성<sup>22</su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의 현실을 실재의 현실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러한 문헌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일상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행위자의 목소리를 담은 역사적 자료와 현장연구를 통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자료는 현장연구가 불가능한 현재의 조건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sup>23</sup> 구술자료는 문

---

<sup>22</sup>- 사회주의 사회의 공식문헌에는 지도부의 희망, 현실, 현존체제의 속성과 가공의 사회주의 체제의 기대가 혼합되어 있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공식문헌은 당지도부의 공식적인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와 반대되는 견해나 일반 민중의 관점을 읽기 어려운 점을 말한다. 북한문헌의 담화의 이중성이란 문헌에서 나타나는 주장이나 표현이 때때로 “현실과 반대되는 양상”을 표상하는 경우가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44.

<sup>23</sup>- 구술사의 경우처럼 일상사의 연구에도 역사 연구의 대상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획득한 구술자료를 토대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인적·집단적 기억에 의존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구술사는 일상사



헌자료가 지니는 ‘위로부터의 시각’을 극복하고 행위자, 특히 공식적인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어 온 기층민중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시각’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폭과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구술자료는 그들의 반복되는 일상적 활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그들의’ 세계를 ‘전유하는’ 방식을 드러내 준다. 또한 다양한 집단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다층성과 다차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북한 사회 연구에서 구술자료의 활용은 당국에 의해 생산된 일차적 자료가 갖는 시각의 일방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행위자의 행동, 경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술자료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구술자료 자체가 기록의 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sup>24</sup> 또한 북한 연구에서는 구술자료의 생산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경계의 정도가 높아진다.<sup>25</sup> 북한이탈주민이 결코

---

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출현한 것이고, 구술사의 방법도 대부분 제한된 시간의 영역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술사와 일상사는 몇 가지 점에서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우선 경험의 재구성을 역사 연구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일상사가들에게 구술사가 수집하는 경험자의 증언만큼 더 중요한 자료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역사 연구의 대상을 분석적 시각으로 객체화하기보다 이해와 공감으로 일체화하려는 일상사가들에게 대화를 통해 대상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큼 바람직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구술사는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의 서민들이 역사 서술에 참여하여 스스로 말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지향하는 일상사가들에게 기존의 사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pp. 42~43.

<sup>24</sup> 이에 대한 반론은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고육사교 연구노트 제9호』 (1998) 참조.

<sup>25</sup> 이 점에 관해서는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 2003).

전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정치적 성향 측면에서는 특정한 경향성을 지니며,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구술 내용을 주관적으로 가공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북한에서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와 재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비판의 요지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들은 모두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일상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자료가 여전히 유의미한 이유는 일상의 생생한 재현 못지않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사실이나 정보의 요소와 함께 구술자가 그것에 부여한 의미와 감정을 담고 있다. 그 점에서 볼 때 구술자료를 활용한 일상 연구는 가시적, 객관적 사실만이 아니라 구술자의 주관적 인상, 신념, 의식과 감성의 구조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술자료가 ‘과거의 체험에 대한 현재의 기억’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구술자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를 과거 사실에 대한 재현으로 보고 특정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전개과정에서 쌓이는 체험과 구술상황에 의해 서사적으로 조직되는 측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sup>26</sup>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속에서 왜곡되거나 생략되거나 과장된 요소들을 다른 구술자료와 문헌자료와 교차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41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형태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심층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연구(pilot study)로 직업집단별로 북한이탈주민 4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sup>26</sup>-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2005), p. 123.



조사(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탐구 분야를 설정하고 자료 수집 전략을 수립하였다. 심층면접은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진이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추천받은 북한이탈주민들 중 탈북시기와 직업, 지역,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련 단체 실무자를 통해 먼저 접촉하여 면접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전화로 연락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와 면접 대상자간의 신뢰 형성이 면접의 내용과 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변 안전의 문제에 대해 예민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개자에 대한 신뢰 여부가 면접 자료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화를 통해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 참가의사를 타진한 후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등에서 2~3시간 정도에 걸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대, 직업, 지역, 탈북연월 등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다음 <표 I-1>과 같다. 면접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직업은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보고서의 본문에서 면접내용을 인용할 때는 코드명만을 명시하였다.<sup>27)</sup>

---

<sup>27)</sup> 이 이외에 통일연구원에서 최근에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면접 자료를 비롯한 구술 자료 활용시에는 그 출처와 기본 인적사항을 각주로 명기하였다.

<표 I -1> 심층면접 대상자 기본 인적 사항

코드	성별	연령대	직업	지역	탈북연월	면접일
사례1	남	40대	철도부문 노동자	함남 함흥시	2004.2	4.11
사례2	남	30대	청년동맹 지도원	함북 청진시	2006.1	4.11
사례3	남	40대	대학 교수	함남 함흥시	2003.11	4.11
사례4	여	30대	공장 노동자	함북 온성군	2006.7	4.22
사례5	여	40대	교원	함남 함흥시	2005	4.23
사례6	여	40대	광산 통계원, 식당 운영	함북 무산군	2007.3	4.29
사례7	남	40대	외화별이 사업소 외화별이일꾼	함북 청진시	2006.12	4.29
사례8	여	40대	농장원, 전업주부	함북 청진시	2005.11	5.23
사례9	여	40대	공장 기술준비소장	평양시	2006.2	5.2
사례10	여	40대	식당 운영	함북 청진시	2007.1	5.2
사례11	여	30대	공장 노동자	함북 무산군	2007.7	5.26
사례12	여	40대	공공기관 산하 국수가공반 운영	함북 무산군	2005.12	5.6
사례13	여	40대	중등교원, 사무직노동자	평북 삭주군	2006	5.7
사례14	여	40대	유치원 원장, 병원 사무직	함북 회령시	2006.1	5.7
사례15	남	40대	연합기업소 자재상사 관리자	함북 이온군	2004.8	5.7
사례16	여	40대	공장 노동자	함북 회령시	2007.3	5.8
사례17	여	30대	외화별이회사 소속 개인장사	함북 청진시	2006.1	5.13
사례18	남	40대	무역회사 외화별이 무역지도원	함북 청진시	2006.1	5.14
사례19	여	60대	개인장사	평양시	2007.2	5.16

I  
II  
III  
IV  
V

코드	성별	연령대	직업	지역	탈북연월	면접일
사례20	여	30대	의사	함북 청진시	2000.3	5.19
사례21	남	40대	중등교원, 전문학교 교원	함북 청진시	2006.4	5.20
사례22	여	60대	부양	함북 나진시	2006.1	5.20
사례23	여	50대	협동농장원	함북 회령시	2006.8	5.21
사례24	남	40대	작가	양강도 혜산시	2006.8	5.23
사례25	여	30대	운동구 협동조합, 개인장사	양강도 혜산시	2006.8	5.26
사례26	여	40대	달리장사, 대중국밀무역	함북 무산군	2007.6	5.27
사례27	남	40대	군수동원과 관리직	평남 남포시	2002.8	5.28
사례28	남	50대	외화별이 사장, 냉동차 구입해 “씨비차” 운행	함북 청진시	2007.12	6.3
사례29	남	30대	대외사업부 부원	평양시	2007.11	6.9
사례30	여	40대	농근맹 해설강사	함북 함주군	2005.12	6.10
사례31	여	40대	협동농장원	함북 회령시	2005.11	6.11
사례32	남	60대	의사	함북 부령군	2007.6	6.12
사례33	남	70대	외화별이 지도원, 최고인민회의대의원	평양시	2005	6.13
사례34	남	30대	대학 교원, 연합기업소 기술자	함북 청진시	2007.5	6.28/7.13 /11.22
사례35	남	50대	피복공장 기술자	함북 무산군	2007.11	6.28/7.13
사례36	여	50대	인민학교 교원, 공장 사무원, 가내편의	함남 함흥시, 평양시	2006.12	6.28
사례37	여	30대	양정사업소 계량원, 외화별이, 휘발유 압거래	함북 회령시, 청진시	2007.9	7.21

코드	성별	연령대	직업	지역	탈북연월	면접일
사례38	남	30대	기자	양강도 혜산시	2004.1	7.22
사례39	여	40대	협동농장원	황해도 해주시, 함북 온성군	2006.11	7.25
사례40	여	40대	의사	함북 회령시	2007.5	7.31
사례41	여	40대	탁아소 보육원, 양정사업소 사무원, 약초재배 사업소 8·3노동자	함북 온성군	2007.6	8.7
사례42	남	30대	대학 교원	양강도 혜산시	2004	1.29

면접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계층과 거주지역, 성별 등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려고 했으나,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보하는 스노볼링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령 및 거주지역별로 인원이 균형있게 안배되지는 못하였다. 연령별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고, 지역별로도 함경북도 출신자가 주를 차지했다. 특히 면접대상자의 지역적 분포가 주로 함경북도 지역 거주자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 내용에 있어 국경연선지역과 내륙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의 지역별 차이가 크게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임을 밝혀둔다. 직업별, 성별, 연령별, 적응기간별 면접인원은 다음의 <표 I-2>, <표 I-3>, <표 I-4>, <표 I-5>와 같다.

I
II
III
IV
V

<표 I -2> 심층면접 대상자 직업별 인원<sup>28</sup>

직업별 인원(명)	노동자	협동농장원	지식인	신흥상인	권력엘리트, 행정관료	부양	합계
	12	4	12	11	5	1	44

<표 I -3> 심층면접 대상자 성별 인원

성별 인원 (명)	남성	여성	합계
	17	25	42

<표 I -4> 심층면접 대상자 연령별 인원

연령별 인원 (명)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11	23	4	3	1	42

<표 I -5> 심층면접 대상자 거주지역별 인원<sup>29</sup>

거주지역별 인원(명)	평양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양강도	합계
	4	29	4	1	1	1	4	43

심층면접시 연구자가 중점적으로 질문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 -6>과 같다.

<sup>28</sup> - 직업별 인원은 면접대상자가 탈북이전 5년 기간에 이직을 한 경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합계가 전체 면접대상자수보다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수적인 장사 활동을 한 경우에는 신흥상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본 직업으로 분류하였다.

<sup>29</sup> - 거주지역별 인원은 면접대상자가 탈북 이전 5년 기간에 거주지역을 옮긴 경우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합계가 전체 면접대상자수보다 많다.

<표 I -6> 주요 면담 내용

질문 대상	면담 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대 이후부터 생활의 변화</li> <li>- 하루 생활과 요일별, 월별, 계절별 변화</li> <li>- 수입과 지출의 항목, 규모, 원천</li> <li>- 정규 직장생활 이외의 생계 방법</li> <li>- 식생활 실태(배급 공급 빈도 및 공급 물품, 식생활, 잉여식량 보유, 주요 식품 시장 가격 등)</li> <li>- 의생활, 소비품 사용 실태</li> <li>- 주거실태(주택사정, 가구와 가전제품 보유, 주택 거래·신축 실태 가격 등)</li> <li>- 여가생활(문화생활, 휴식, 학습 등)</li> <li>- 사회통제와 조직생활 실태</li> <li>- 직장동료, 이웃간 인간관계의 변화</li> <li>-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li> <li>- 부부관계, 부부간 역할분담 변화</li> <li>- 주민들의 계층 구분 기준과 계층별 구성분포, 계층분화 시기</li> <li>- 계층 표현의 상징적 요소</li> <li>- 신흥부유층의 특성과 영향력</li> <li>- 주민 인식 변화</li> </ul>
노동자,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출근 실태</li> <li>- 직장, 협동농장 내 연령 구성이나 남녀 비율 구성 변화</li> <li>- 직장 이외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li> <li>- 본업과 장사, 개인경작 등 부업에 들이는 시간의 비중</li> </ul>
지식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일 이외에 생계 유지 방법과 부업 실태</li> <li>- 지식인계층의 사회적 위신, 만족도, 자부심의 변화</li> <li>- 이직 및 전직 사례와 이유</li> </ul>
신흥 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참여 시기, 업종, 방법, 자본금</li> <li>- 시장 운영 방법, 국가 규제 변화</li> <li>- 시장 내 직업 종류</li> <li>- 개인수공업 제품, 조직, 규모, 수입</li> <li>- 상인 구성과 계층</li> <li>- 유통망 실태</li> <li>- 상품의 종류와 유통상황</li> <li>- 시장 성공 및 실패 사례</li> </ul>

I
II
III
IV
V



질문 대상	면담 내용
권력 엘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력 엘리트 층의 구성</li> <li>- 권력 엘리트 세대 구분</li> <li>- 권력 엘리트들의 의식 변화</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경제활동 실태</li> <li>- 여성의 가사노동 실태</li> <li>- 여성에 대한 인식</li> <li>- 결혼, 가족제도의 변화</li> </ul>

면접 내용을 전문(全文) 녹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및 코딩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의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연구자가 각각의 사례별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을 통하여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 하는 절차를 거쳤다. 질적 자료에서 도출한 범주별 주제들은 다음 <표 I -7>과 같다.

<표 I -7> 질적 자료에서 도출한 범주별 주제

범주	중분류	소분류 및 주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경제난 이전의 하루 일과	
		경제난 이후의 하루 일과	노동자의 하루 일과
			사무원, 판매원의 하루 일과
			지식인의 하루 일과
			권력 엘리트의 하루 일과
	시장 생활자의 하루 일과		
북한 주민의 의식주생활	북한 주민의 소득 분포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층의 식생활</li> <li>- 중산층의 식생활</li> <li>- 하층의 식생활</li> <li>- 빈곤층의 식생활</li> </ul>	

범주	중분류	소분류 및 주제	
		의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층의 의생활</li> <li>- 중산층과 하층의 의생활</li> <li>- 한국산과 중국산</li> </ul>
		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층별 주거생활 차이</li> <li>- 주택의 매매와 신축</li> <li>-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li> <li>- 고급 주택단지 형성</li> <li>- 5장 6기</li> </ul>
주민 일상생활 양식의 변화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정상노동생활의 주변화	
		비공식적 생존시스템 작동	
		주변 직업	
		자생적 노동시장 형성	
	지식인의 일상생활	지식인의 생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연계 부업</li> <li>- 관계망에 의존</li> <li>- 정보와 지식 활용</li> <li>- 비법과 뇌물</li> <li>- 기관차원의 공동대책</li> </ul>
		사회적 지위와 자긍심의 하락	
	권력엘리트의 일상생활	권력엘리트 집단 구분	
		감시·통제와 생활고	
		생계별이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부 격차</li> <li>- 생활수준 하락과 중간층 붕괴</li> <li>- 권위 상실</li> <li>- 특권층 일상생활</li> </ul>
		새세대 엘리트	
		아래계층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인식	
의식 변화와 제도기생			
신흥상인의 일상생활	상인계층의 형성과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상행위와 시장참여자의 증가</li> <li>- 장사 밀천의 조성</li> <li>- 시장의 허용</li> <li>- 상인계층 구성</li> </ul>	

I
II
III
IV
V

범주	중분류	소분류 및 주제	
		시장의 확대와 상인계층의 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상의 출현</li> <li>- 시장 실패자</li> </ul>
		일상생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노동강도</li> <li>- 불규칙한 생활, 범죄 노출</li> <li>- 일탈, 뇌물 일상화</li> <li>- 정책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li> </ul>
	여성의 일상생활	가족부양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	
		과도한 노동과 건강 악화	
		가부장권 약화와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성차별적 직장생활	
		독신 선호, 이혼율 증가	
	일상생활에 나타난 북한 체제 변화의 양상	사회계층의 변동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통제와 일상의 저항			
국가에 대한 불신과 금전만능주의 심화			

심층면접 이외에도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월 27일과 28일 북한이탈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51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시간 및 의식주 실태에 관한 1차 설문조사와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는 주로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시간표, 수입과 지출 내역, 의식주 생활 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9월 13일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연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이외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북한의 문헌 및 영상

자료와 선행연구와 통일연구원에서 최근에 수행하였던 북한이탈주민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I

II

III

IV

V



# II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양식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양식을 하루 일과와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장기간 반복되는 생활’이라는 의미에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양식은 매일매일 동일한 양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하루 일과일 것이다. 일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은 이전까지 반복되어 왔던 일과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변화가 굳어지면 생활시간의 리듬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하루의 일과는 개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양식이자 일상생활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척도이다. 이 장에서는 생산적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과 여가시간의 구조, 직장·가정 생활·기타 영역에서의 생활시간 비중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본다.

또한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인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 의식주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다.

## 1.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과에 큰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 공장과 기업소, 농장 등지에서 생산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주민들은 ‘극한상황 속의 일상’<sup>30</sup>을 살아야 했다. 2000년대 들어 경제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주민들은 일상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지만 이전 시기와 같은 일상생활 양식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배급의 안정성 여부와 개인 상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계층별, 직업별, 개인별로 하루 일과의 차이가

<sup>30</sup>- 김용우, “프리모 레비의 회색지대와 수용소의 일상,”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3』 (서울: 책세상, 2007), p. 349.



발생하고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이 절에서는 경제난과 이후 자생적 시장화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직업군별로 살펴본다.

### 가.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1990년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배급제와 직장 및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생활체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직장에 소속되어 직장 조직에 따라 분배되는 배급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했기 때문에 유사 직군에 소속된 사회 구성원의 하루 일과에서 직업이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이질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해본 경제난 이전 시기 노동자와 농민의 하루 일과표는 다음의 <표 II-1>, <표 II-2>와 같다.

<표 II-1> 1990년대 경제난 이전 북한 노동자의 하루 일과

구 분	시 간	비 고
기상	06:00	6시경에 기상, 주부는 한시간 일찍 기상하여 아침식사 준비
아침	06:00~06:50	인민반 동원사업(마을청소 등)과 아침식사
출근	06:50~07: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탁아소에 맡김
독보회	07:00~07:30	지역과 단위 상황에 따라 오전 강연회 등이 있는 날은 강연회로 대체하기도 함. 그러나 가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임
작업준비	07:30~08:00	아침 조회 포함
오전작업	08:00~12:00	유아 수유시간 30분
점심	12:00~13:00	유아 수유시간 30분
오후작업	13:00~18:00	13:00~17:00 사이 유아 수유시간 30분
강연 및 학습회, 조직생활	18:00~20:00	작업 정리 및 총화 후 퇴근, 또는 각 조직생활 단위 생활총화 실시
귀가와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20:00~22:00	주부는 퇴근시 탁아소에서 유아 찾음, 귀가 후 가사 및 저녁식사 준비, 저녁식사와 여가
취 침	22:00~	취 침

I

II

III

IV

V

<표 II-2> 1990년대 경제난 이전 북한 농민의 하루 일과

구분	시간	비고
기상	05:00	5시 마을 단위로 종이나 사이렌 울림
아침조회	05:00~05:30	지정된 장소에 작업반 또는 분조별 집합 독보 (오전작업 시작하기 전인 7시 30분이나, 점심시간에 하기도 함) 작업반장 또는 분조장 지휘로 아침 조회 (15분 정도, 내용은 당의 새 정책과 당면 과제와 업무지시)
동원사업, 새벽작업	05:30~07:00	각종 작업도구들을 가지고 식사 전 작업 실시
아침식사	07:00~08:00	귀가 후 아침 식사
오전작업	08:00~12:00	오전 10시경 15분간 휴식/ 수유시간 30분 아이어머니들은 탁아소 가까우면 가서 수유하고, 멀면 보모가 데리고 와서 수유 후 돌려보냄
점심	12:00~13:00	작업장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먼 사람은 도시락을 먹음. 수유시간 분조별로 독보, 노래연습, 주의사항 듣기 등 진행
오후작업	13:00~19:00	휴식 15분/ 수유시간 30분
작업총화	19:00~20:00	작업 총화 후 귀가 귀갓길에 주부들은 탁아소에 들려 아이 데려옴
가사와 자유시간	20:00~22:00	청소와 집안일, 식사 준비 등 저녁식사와 자유시간
학습회, 강연회	22:00~23:00	10시 이후 각종 회의와 강연회 (수시 강연회, 수요 학습회, 학습에 관한 수시 시험, 목요 강연회 등) 생활총화 중 농장 생활총화는 10일에 1회, 당 생활총화는 3일에 1회, 기타 사로청 등 조직생활 총화 일주일에 1회 실시
취침	23:00~	계절과 농번기 여부에 따라 취침 시간 차이

농민의 경우에는 일출, 일몰 시간에 따라 생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농번기에 집중적인 농업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일과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농한기인 겨울에는 위의 <표 II-2>보다 귀가 시간이 이른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난 이전 시기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직장에서의 노동, 휴식과 여가 등의 재생산, 가사노동, 사회동원과 정치학습 등 정형화된 하루 일과의 양식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축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직장에서의 생산노동시간이 자리잡고 있었다.

## 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생산 현장의 질서가 복구되어 가는 가운데 배급의 안정성 여부와 개인 상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계층별, 직업별, 개인별로 하루 일과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진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하루 일과를 재구성해본다. 공장·기업소 및 외화벌이 회사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 농민, 교원·연구원 등 지식인 계층, 관료, 시장상인으로 나누어 이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살펴본다.

### 1) 공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생산직 노동자의 하루 일과

2000년대 들어서도 전력과 자재 문제로 인해 공장의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생활은 생계 해결 문제에 밀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무직 및 하층간부층과 농

I

II

III

IV

V

민들은 정상출근이 강제되고 있으나 공장 가동율이 20%대에 그침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의 출근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시간에 생산노동이 아닌 사회동원이나 공장·기업소별 식량생산 및 생계비 확보를 위한 노동과 개인 장사 등을 하고 있다.

기업소에서 배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전력과 자재 부족으로 인한 유희노동시간과 학습회와 강연회 등에 할당되던 시간에 개인이 생계를 위한 각종 부업 및 장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소 책임자 선에서 조정하는 유동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기업소별로 노동자의 하루 일과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급기업소 및 1·2급 기업소로 배치되어있는 군수공업과 주요 광업 및 채굴업은 다른 산업 부문의 공장에 비해 정상가동되고 배급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의 노동자들은 경제난 이전 시간과 유사한 하루 일과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비해 작업조건 미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많고 배급도 잘 되지 않는 기업소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중에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노동자 하루 일과의 구체적 사례로 첫째, 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의 하루 일과, 둘째, 광산연합기업소 노동자의 하루 일과, 셋째, 외화벌이 노동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겠다. <표 II-3>은 건설연합기업소 기술자의 하루 일과로, 이 노동자는 기업소로부터 매월 본인과 자녀 몫의 배급을 옥수수 24.8kg 씩을 받았고, 김장철에는 배추, 무등 김장용 채소를 공급받았다고 한다. 매월 노임도 9,000원씩을 받는 등 비교적 정상적으로 공장이 운영되었던 경우이다. <표 II-4>는 광산 수출피복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하루 일과로, 이 노동자가 다니던 공장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 날은 각자가 알아서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을 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5일을 개인적인 시간으로 쓰는 대신에 한달에 6,400원을 직장에 납입하고 매월 20일분 정도의 배급과 노임 1,500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표 II-3> 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의 하루 일과(설문지 사례50)<sup>31</sup>

시 간	일 과
05:00	기상, 아침 운동
06:00~07:00	아침식사 및 출근 준비
07:00~08:00	독보 및 아침조회
08:00~12:00	오전 작업
12:00~13:00	점심 식사
13:00~18:00	오후 작업
18:00~19:00	작업 총화 및 다음날 사업 포치
19:00~20:00	퇴근 후 저녁식사
20:00~23:00	TV, 냉장고, 변압기 등 가전제품수리(사적 영업)
24:00~	취침

I
II
III
IV
V

<sup>31</sup>- 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기사), 함경북도 청진, 30대 남성, 2007년 5월 탈북.

<표 II-4> 광산연합기업소 수출피복공장 노동자의 하루 일과  
(설문지 사례51)<sup>32</sup>

시 간	일 과(수요일, 토요일만 출근)
06:00~07:00	기상, 간단한 집안일, 창고정리, 나무패기 등
07:00~08:00	아침식사 후 출근
08:00~09:00	출근 후 조회, 작업지시, 방침 전달
09:00~12:00	작업조건이 구비되면 작업하고, 없으면 직장에서 제기되는 사회동원 등의 일을 한다
12:00~13:00	점심 식사
13:00~19:00	집에서 개별 장사제품 및 임가공 옷을 만든다
19:00~20:00	저녁 식사
20:00~24:00	급한 일감이 있을 때에는 밤늦게까지 일한다. 일이 없으면 휴식 또는 TV 시청
24:00~	취침

<sup>32</sup>- 광산연합기업소 수출피복공장 직장 노동자(기사), 함경북도 무산, 50대 남성, 2007년 11월 탈북.

<표 II-5> 외화벌이 노동자의 하루 일과(설문지 사례15)<sup>33</sup>

시 간	일 과
06:00	기상
06:00~06:50	식사 및 출근 준비
07:00~08:00	식사 및 출근
08:00~09:00	직장 도착 및 작업 시작
09:00~12:00	오전 작업, 중간 휴식 1회
12:00~13:00	점심 식사
13:00~18:00	오후 작업, 중간 휴식 1회
18:00	퇴근
18:00~21:00	개인적으로 주류점이나 장사관련 일을 봄
21:00~	저녁 식사, 전기사정으로 TV 시청 못함
22:00~	개인적으로 일보러 나가거나 손님이 오지 않으면 취침

위의 일과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력과 자재가 불안정하게 공급되는 공장상황에서 대개 공장 노동자들은 전력 및 자재를 비롯한 작업조건이 구비되면 정상적인 노동을 진행하고, 작업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정상 노동업무 대신 주어지는 농업노동 및 동원노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3>의 경우는 공장의 가동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가동율이 70~80% 대를 유지했다고 한다. 출근율도 평균 65~70%까지는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에 사회동원노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표 II-4>의 경우처럼 공장 가동율이 낮고 전력공급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전력과 자재 공급 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이 결정되거나 아예 일

<sup>33</sup>- 외화벌이 노동자, 함경북도 청진, 40대 남성, 2007년 3월 탈북.





주일 중 며칠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 날은 각자가 알아서 생계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 II-4>의 노동자는 공장에서의 하루 일과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일감이 없으니까 직장에 나간 날은 계속 놀죠. 그러다가 주변 농장들에 김매기가 있으면 가서, 남새를 해결하게 해요. 일감이 없으니까, 사람을 계속 놀리지 못하고 주변 농장에 가서 김매기도 조금 해주고 그래요. 정일이 없으면 도로 닦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길이란 것이 비가 많이 오면 엉망이 되니까요. 농장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해주면, 남새를 주고, 남새를 주면 그것을 직장에 넣어서 그것으로 점심 한 끼 먹는 식사를 해결하고 그래요. 또 우리 수출피복이란 것이 공장 자체가 일감이 있어도 전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밤에 야근을 한단 말입니다. 밤에는 전기를, 새벽에 좀 주기도 하니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불이 오는 때가 있으니까, 낮에 일을 못하면 밤에 가서 많지 않은 일감이러도 해요.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간부들이라도 먹고 살겠으니까 밤에 나가서, 일의 양에 따라서 100% 출근을 안할 때도 있고 그래요. 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전기만 오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일을 해요. ... 전기가 오지 않으니까 교대로 하지 못하고, 낮에 쉬다가 밤에 8시 40분에 차를 타고 가서 일하고 아침까지 일을 해요.(사례35)

공식적인 노동 시간을 사적인 노동 등으로 보내는 것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배급을 완전히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장의 규모와 가동률 등에 따라 배급량이 달라지며,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오후 작업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개별 장사에 치중하거나, 생계를 위한 개인적인 노동을 진행한다. 노동시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어려운 노동자들도 위의 일과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퇴근 후에는 개별 장사제품이나 임가공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장사관련한 일을 보거나, 기술이 있는 경우 자신의 기술로 가전제품 수리 등 사적 영업에 종사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장에 출근해서 일감이 없으면 낮에 공장안에서 카드놀이 등 여가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례15).

이렇게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시간이 다양하게 전유되고 있는 현상은 중앙 국가권력의 강제에 의한 일상생활의 식민화가 장기 지속되면서, 내부로부터 “일상생활의 탈식민화”(박영자, 2004), 즉 일상생활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북한 중앙권력이 다수 노동계층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주민 일상생활의 탈식민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 2) 사무직·서비스직 노동자의 하루 일과

국가기관 사무원으로 각종 하급간부들을 대표하는 사무직 노동자들과 판매원들은 현장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강제되고 있다. 이들은 생산량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따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더라도 생산직 노동자들처럼 노동현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의 노동시간 역시 직장의 기본 과업 수행뿐만 아니라, 배급 대신 각 기관 및 기업소에 할당된 농지 경작이나 가축 기르기, 개인적 장사 등 기초적 생계유지를 위한 시간으로 구성된다.

2003년 종합시장제 실시 이후 기관 및 기업소의 장사행위 등에 이들 사무직 노동자들이 투입되기도 하며, 상업망의 판매원들은 개인적 능력을 살려 소속기관의 허가 하에 생계유지 활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 개인 농지 및 텃밭 생산과 소규모 장사 등에 통제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사무직 노동자 및 서비스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전화교환수, 판매원, 가내편의 미용사의 하루 일과는 다음의 <표 II-6>, <표 II-7>, <표 II-8>과 같다.

I
II
III
IV
V

<표 II-6> 전화교환수의 하루 일과<sup>34</sup>

시 간	일 과
06:00	기상
06:00~07:00	아침식사 및 출근 준비
06:50~07:30	직장 출근
07:30~8:00	직장 도착 후 아침 독보 및 조회
08:00~12:00	오전 근무
12:00~13:00	점심 식사
13:00~18:00	오후 근무
18:00~18:30	인계인수 후 매주 작업총화, 화요일, 토요일은 오후 6시~7시까지 강연회 및 학습
19:00~19:30	퇴근 및 저녁식사
19:30~22:00	TV 시청
22:00~03:00	새벽 3시 정도까지 녹화기로 한국드라마 시청
03:00 경	취 침

<sup>34</sup>- 전화교환수, 함경북도 무산, 30대 여성, 2007년 탈북.



<표 II-7> 판매원의 하루 일과<sup>35</sup>

시 간	일 과
06:00	기상
06:00~07:00	아침식사 준비 및 식사
07:00~08:30	기업소 출근
08:00~09:00	독보 및 아침 조회
09:00~12:00	오전 작업, 10~20분 휴식시간
12:00~14:00	점심 식사 후 오후 작업
14:00~17:00	장사 관련된 개인일 보기
17:00~	기업소 정식 퇴근시간(유동적)
17:30~19:00	사상학습 및 직맹학습
19:00~22:00	간단한 식사 후 개인시간
22:00~	어두워 취침에 들어감

I

II

III

IV

V

<sup>35</sup>- 판매원, 함경북도 청진, 40대 여성, 2008년 탈북.

<표 II-8> 미용사의 하루 일과(설문지 사례49)<sup>36</sup>

시 간	일 과
06:00	기상
06:00~07:00	아침식사 준비 및 식사
07:00~08:00	직장 출근(일주일에 두번)
08:00~09:00	주간 총화 및 계획받기(출근 시)
09:00~10:00	생활 총화(출근 시)
10:00~11:00	집으로 퇴근
12:00	점심 식사
12:30~20:00	장사 또는 미용 작업
20:00~21:00	저녁식사 준비 및 식사
21:00~24:00	TV 뉴스 및 영화 보기
24:00~	취 침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직군이 다양하고 간부와 비간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운영의 공통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간부층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특급 연합기업소나 국가운영의 필수기관 소속 노동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업으로 <표 II-6>의 전화교환수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 직업은 체제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기초 식량배급을 받고 있으며, 일과 또한 식량위기 이전과 유사한 양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배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무직에 포함되는 <표 II-7>의 판매원의 경우, 기업소에 출근해서 출근여부를

<sup>36</sup>- 가내편의(미용사), 함경남도 함흥, 50대 여성, 2006년 12월 탈북.

확인하고 오전 작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이후 점심부터는 장사와 관련한 개인 일을 보거나 시장에서 활동하는 등의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표 II-8>의 미용사는 ‘편의봉사’로 지칭되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일과표이다. ‘편의봉사’직은 ‘종합편의’와 ‘가내편의’로 구분된다. 종합편의는 일정한 장소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반면에 가내편의는 며칠에 한번씩 정해진 날에만 잠깐 출근을 해서 출근 확인을 하고 실제 노동은 각자의 집에서 진행한다. 경제난 이후에는 가내편의로 적을 걸어두고 집에서 개인장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 II-8>의 미용사도 그에 해당한다. 세대주였던 <표 II-8>의 미용사는 한달에 1,600원을 직장에 넣기만 하면 실제로 무엇을 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용작업을 하기 위해 “집을 꾸리지 않고 간판만 걸어놓고” 실제 미용은 “형제들하고 동무들”만 해주고, 대신 각 도시들을 오가며 잣을 넘겨주는 장사를 했다고 한다.

<표 II-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한가지의 중요한 하루 일과의 변화는 여가시간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여가 생활은 하루의 주요 일과에 포함되지 못한다. 소수의 부유층에게서 휴양과 주패, 당구<sup>37</sup> 등의 여가 시간 활용이 확인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장생활과 장사 등의 부업이라는 이중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느라 별다른 여가를 즐기기는 어렵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은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여가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남한 비디오 시청이라는 새로운 여가 활용 방식이 등장하여, 여가 활용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는 북한 당국이 금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전력 공급도 여의치가

<sup>37</sup>- 주패나 당구 등의 경우 2006년 집중단속으로 인해 현재에는 권력계층 내부에서나 이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I
II
III
IV
V

않기 때문에, 모든 북한 주민들이 남한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의 거래가 활성화된 국경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남한 비디오 시청은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표 II-6>의 노동자도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종종 녹화기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고 하고 있다. 여가 시간에 남한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한다는 증언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직장에서는 작업반끼리 모여서 시청을 하기도 하고, 건설기업소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할 때 “개인 집들에 단골을 하나 잡아서 단골집에 내려가서” 다같이 녹화물을 시청하기도 한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충전해 놓았다가 연결해서 보는데 드라마같은 경우에는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두 시간씩 연속적으로 시청하면서 시리즈물을 다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속이 심한 지역에서도 “통제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더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집에 그 테이프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돌려 돌려 보거나”, “들길까봐 녹음(소리)는 못 켜놓고, 그림이라도 앉아서 보고”, 비디오 검열을 나온다는 사실을 인민반장이 미리 귀뜸해주어서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사례34, 사례15, 사례25, 사례38, 사례40). 경제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은 퇴근 후에도 각자 장사 준비나 부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여가시간 활용의 새로운 양상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 3) 협동조합에 매여 있는 농민의 하루 일과

식량생산이 우선 과제인 농민은 노동자들에 비해 자율적 시간을 갖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1980년대와 유사한 일과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농



장에서 아침조회 및 오전 교양은 단위에 따라 다르나 대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수 일반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식량난 이전 일과와 가장 큰 차이는 조합에서 인정해준 개인농지나 자신이 산간지역 등에 일군 개인토지에서의 사적 농사 시간이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녁총화 시간이 줄어들거나, 학습회 및 강연회 횟수가 줄거나 토요일 집중학습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위 농장의 식량상황과 농장간부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분배량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고, 가족단위로 주어진 비법 경지 농사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법 경지 농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여 하루 일과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 규모는 다양하지만 권력밀집도와 능력에 따라 개인농지를 개척하고, 이 생산물을 유통하는 부유 농민층도 등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 농민의 하루 일과를 심층인터뷰 사례 23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일반 농민들은 대개 새벽 다섯시경 기상해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해 먹고 농장으로 출근한다. 아침 일곱시 반이면 농장에서 점심을 한다. 아침에는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 배급과 노임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일곱시 반까지 아침조회나 학습, 강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일곱시 반에 농장에 가서 30분 동안 아침 조회를 한 후 여덟시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열두시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점심시간 두세시간 동안 가사 및 개인 농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오후 작업을 나가 일을 하고 여덟시 경에 퇴근을 한다. 퇴근 후에는 대충 저녁을 먹고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녁 10시경에는 잠자리에 든다.

농민의 하루 일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장세대도 직장세

I
II
III
IV
V



대와 동일하게 마을 청소를 하는 등 아침식사 전 동원사업을 진행한다. 일상적 동원은 기본적으로 청소는 매일 진행되는 데, 큰 동원사업의 경우 “위에서부터 제기되면” 한다. 대개 아침 여섯시부터 30분 정도 하는데, 직장이 먼 사람은 하다가 도중에 오기도 한다. 식전 동원은 주로 ‘수로과기’, ‘자기 시·도·마을 꾸리기’를 위해 자갈을 모은다든지, 모래를 모은다든지 하는 작업을 한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인민반 별로 동네 청소를 한다.

아침 조회에 포함되는 교양사업은 일주일 내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생활총화, 화요일에는 기계 기술학습, 수요일에는 강연회 등 월요일부터 아침 조회 및 교양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당 및 근로단체 생활총화의 경우, 직장원들은 일주일에 1회 진행하는 것에 비해 농장원들은 휴일이 열흘 단위로 있기 때문에 생활총화도 열흘에 한번씩 진행한다. 당과 근로단체 생활총화는 당원은 당원끼리, 농근맹은 농근맹원끼리, 청년동맹은 청년동맹원끼리 조직별로 진행한다.

대개 오전 작업은 여덟시부터 열두시까지 진행하는 데, 그 사이에 3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다. 그리고 농촌은 10일 단위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모두 출근을 한다. 매월 1일, 11일, 21일이 휴일인데, 농번기인 5월 달이나 모내기철, 김매기철에는 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한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농장에 말하고 집 안일을 보기도 한다.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의 농민의 정기 휴일이라 할 수 있는 매월 1일 날, 11일 날, 21일 날에는 농촌 장날이라 장마당에 나간다. 그 때 필요한 공산품 등을 사거나 집에서 가져온 것 등을 팔기도 한다. 2003년 이후 매일 시장이 열렸지만 농장원들은 정기 휴일 외에는 장마당을 갈 수가 없다. 대개 장마당은 걸어서 가까우면 30~40분, 멀면 두시간 정도 걸리

는 거리에 있는데, 여성 농민들이 팔거나 공산품 등으로 교환할 물건을 등에 메거나 들고 장에 나간다.

농업노동의 특성상 농민의 하루 일과는 계절과 농번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월별로 진행되는 노동생활 세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겨울 같은 때는 다음 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2월부터는 농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벼 모판을 하자면 나래도 생산해야 하고 새끼도 까야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4월부터는 씨뿌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4월부터는 씨뿌리기를 시작해서 모를 키워서 또 논에다가 5월에 모내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6월부터는 김매기를 들어가고 8월, 9월까지는 김매기를 하고 9월 중순부터는 벼가 크니까 벌초하고 가을 들어가서는 10월부터는 또 탈곡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쉼 새가 없어요.(사례23)

농촌의 경우, 농사가 잘 안되어도 어쨌든 계속 나가서 출근 확인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별다른 부업이 없는 농민들은 “만가동을 해서 일하는 것”이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개 추수 후인 11월부터 12월까지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자녀 한명과 함께 사는 이 여성농민의 경우, 2006년 겨울 탈북직전까지 본인이 기본으로 200kg, 가족인 자녀가 150kg를 받게 되어 있었으나 추수량이 적어 이보다 적게 받았다고 한다. 돈으로 받는 것은 북한 돈으로 3만원 정도로 1월 말에 지급받았지만, 춘궁기에 식량이 모자라 사서 먹거나 고리로 빌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돈을 조금 받아도 식량을 팔아서 살림살이를 했다고 한다. 이 시기 중고품 중국산 겨울잠바 하나의 가격이 3~5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볼 때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할 수 있다.

I  
II  
III  
IV  
V

앞에서 설명한 농민의 하루 일과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II-9>와 같다.

<표 II-9> 농민의 하루 일과(인터뷰 사례21에 기초)

시 간	일 과
05:00	기상, 이후 아침식사 준비
06:00~06:30	마을 청소 및 각종 인민반 식전 동원 사업
06:30~07:30	아침 식사 및 출근
07:30~08:00	아침 조회 및 교양사업
08:00~12:00	농장 현장으로 이동해 오전 공동작업
12:00~14:16:00	점심식사 및 가사(개인농사 포함), 개인농사 시간은 2~4시간으로, 이는 농번기 여부와 지역 및 단위별로 차이가 남.
14:16:00~19:00	오후 공동작업 (농번기 여부와 지역 및 단위별 농업상황에 따라 오후 노동시간의 차이 있음.)
19:00~20:00	작업총화 및 조직생활, 10일에 1회 조직생활 총화
20:00~22:00	저녁 준비 및 식사, 가사 및 가족생활
22:00~	취침

위의 사례는 도시와 떨어진 내륙 산간 농촌지역 출신 농민의 하루 일과로 1980년대 농민의 전형적인 일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시 내 농민이나 도시 근교 농촌의 농민들의 경우의 일과의 변화가 노동자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출근율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이나 농장에 따라 이러한 편차는 있지만 2000년대 북한 농민들의 하루 일과는 일반적으로 그림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나 사무원,

지식인 및 간부층의 하루 일과에 비해 경제난 이전의 하루 일과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연고와 능력이 없는 다수의 일반 농민들의 경우, 개인 토지를 일구더라도 협동조합에 매여 있는 생활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농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생활공동체이고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살고 있는 한 개인적 자율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4) 직장에 매여 있는 지식인계층의 하루 일과

교사, 의사, 연구원 등 일정한 근무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일과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기관의 사무직 노동자들과 유사하게 일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는 교사, 의사, 연구원 등 지식인계층의 일과는 사무직 노동자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과나 편의봉사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비해 직장 노동시간을 형식적이라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는 점이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지식인계층의 하루 일과는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와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식인계층의 하루생활을 다음의 <표 II-10> 교원의 일과표와 <표 II-11> 연구원의 일과표를 통해 살펴보자.

I
II
III
IV
V

<표 II-10> 시당학교 교원의 하루 일과(설문지 사례30)<sup>38</sup>

시 간	일 과
04:30	기상
04:30~06:00	아침식사 준비 및 식사, 가사일 보기
07:00~07:20	7시 출근, 7시 20분 직장도착
07:30~07:50	독보
08:00~13:20	8시 수업 시작 후 수업
13:20~14:00	오후 1시 20분 수업 끝, 2시 까지 점심식사 시간
14:00~17:00	2시 수업 또는 과외 수업
17:00~18:00	작업 총화
18:00~20:00	다음날 수업 준비 후 저녁 8시 퇴근
21:00~22:00	9시 귀가 식사준비 후 10시 저녁식사
22:00~01:00	식후 장사 준비
01:00	취침

<sup>38</sup>- 시당학교 교원, 함경남도 함흥, 40대 여성, 2005년 탈북.

<표 II-11> 연구원의 하루 일과(설문지 사례39)<sup>39)</sup>

시 간	일 과
07:00	기상
07:00~08:00	아침 준비 및 식사, 출근
08:00~08:30	직장도착 후 청소 및 독보
08:30~09:00	아침 조회
09:00~12:00	9시 작업 시작 후 오전 작업
12:00~13:00	점심 식사
13:00~18:00	오후 작업
18:00~19:00	강연, 학습, 회의(요일에 따라, 없는 날도 있음)
19:00~19:15	퇴근
19:15~21:00	귀가 후 저녁식사
21:00~23:00	휴식 및 개인일
23:00~24:00	취침준비 및 취침

지식인계층의 하루 일과는 위의 <표 II-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녁 식사 후 몇 시간을 부업으로 하는 장사 준비에 할애하는 것 이외에는 이전 시기의 하루 일과와 큰 차이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일과표에 표시된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물어보면 지식인계층 역시 이전 시기와 다르게 근무시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장, 병원장 등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사례가 있다. 학교 교원의 경우 대개 과외 수업이나 학부모 관리

<sup>39)</sup> 연구원, 평안북도 신의주, 40대 남성, 2006년 탈북.

등을 통해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고 있으며, 이도 어려울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락이나 동료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오후 노동시간을 조정하여 각종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간을 장사나 부업 등 생존을 위한 다른 경제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표 II-11>의 연구원의 경우 일과표로 보면 안정적인 하루 일과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경우에는 부인이 장사를 해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했으며, 다른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의사의 경우 학교 교원이나 연구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생계비를 보충하거나 ‘허위 요양증’ 발급 등을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일이나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나, 지금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과 휴식시간까지도 생계 유지를 위한 장사나 부업에 할애하고 있다.

## 5) 관료의 하루 일과

북한의 관료는 최고위층의 권력엘리트부터 당 및 행정기관의 책임자급 간부, 경제난 이후 권한이 강화된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 소속의 하급관료까지 다양한 층을 이룬다.

이들은 대개 7~8시 경 직장에 도착하여 오전 조회 준비 및 각종 업무를 보고 8~9시부터 행정사업을 시작한다. 당원이고 간부층인 이들은 일반 직원들에 비해 한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들의 출퇴근시간과 업무내용은 각 기관의 조직비서나 조직부원들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 노동자 계층에 비해 엄격한 규율의 노동통제가 시행된다. 일찍 출근해서 독보회 및 조회를 조직하고, 오전 조회



이후 당위원회에 가서 그날 할 일을 보고하고 일을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민보안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자.

<표 II-12> 인민보안원의 하루 일과<sup>40</sup>

시 간	일 과
06:00	기상
06:00~06:50	아침식사 준비 및 식사
06:50~07:30	회사 출근
07:30~8:00	독보 및 아침 조회
08:00~12:00	오전 작업
12:00~13:00	점심 식사
13:00~18:00	오후 작업
18:00~19:00	일과 생활총화 및 퇴근 준비
19:00~20:00	퇴근 및 귀가
20:00~20:30	저녁 식사
21:00~01:00	TV 시청 또는 컴퓨터 작업
01:00	취침

<표 II-12>의 인민보안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일과의 외형적 구성은 경제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난 이후 이들의 하루 일과에서 나타난 변화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된다. 시장생활자에 대한 점검부터 시장관련 통제, 비사회주의 검열, 마약 및 도박 등 각종 범죄 및 불법적 행위 처벌과 관련된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다. 청년동맹 지도원으로 일했던 사례<sup>2</sup>도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비디오와 자본주의 문화에

<sup>40</sup>- 인민보안원, 황해남도 해주, 30대 남성, 2007년 탈북.





대한 ‘투쟁’과 ‘단속’이 탈북 직전에 수행했던 주된 업무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료계층은 각종 이권과 연계되어 있어 뇌물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기관과 위치에 따라 여타 계층에 비해 높은 소비생활 수준을 누리고, <표 II-12>에서처럼 컴퓨터나 각종 비디오 시청 등 개인적 여가 생활도 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6) 대부분 여성인 시장생활자

직장을 나가지 않고 소규모 상행위를 통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주체는 대개 북한의 가정주부들이다. 이들은 대개 해뜨는 시간인 5~6시경에 일어나 전기나 가스가 없어 직접 불을 피워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7시 경에는 장사준비나 사회동원 사업을 수행한다. 아침 식사 후 남편과 자녀가 출근, 등교를 하고 나면 8~9시경에 시장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4~5월 모내기철, 7~8월 김매기철, 9~10월 추수철 등 농촌 총동원령이 내려지는 시기에 이들의 하루 일과는 더욱 바빠진다.

소수 상류층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시장을 통해서 소규모 음식점이나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시장에서 팔다 남은 음식이나 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집으로 돌아와 대충 점심 끼니를 때우고 일을 한다. 오후 시장 개장 시간이 되면 다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한다. 이들은 대개 시장에 가지고 간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있거나, 저녁 7시~9시 경까지 시장에 있다가 저녁식사거리와 다음날 먹을 식료품을 구입해서 귀가한다. 집에 오면 바로 저녁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한다.

다음날 팔 물건을 준비하거나 집안청소, 빨래 등 가사일을 하면 대개 밤 11시 경이 된다. 전기가 불안정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전력 사정에 따라 새벽 1~2시까지 장사 준비를 하거나 10시 경 잠들기도 하는 등

저녁의 일과가 상당히 불규칙하다.

여성 시장생활자의 하루 일과를 다음의 <표 II-13>을 통해 살펴 보자.

<표 II-13> 여성 시장생활자의 하루 일과<sup>41</sup>

시 간	일 과
06:00~07:00	기상 및 동원사업
07:00~08:00	아침식사 준비
08:00~09:00	식사 및 가사일
09:00~12:00	돈벌이 위한 사업 진행
12:00~13:00	점심식사 준비
13:00~14:00	식사 및 가사
14:00~19:00	돈벌이 위한 사업 진행
19:00~20:00	가사와 저녁 식사
20:00~24:00	장사 준비, TV 시청(전력 있을 시), 일과 총화 등
24:00~	취침

위의 일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북한의 대다수 주부들은 각종 동원사업과 가사, 가족생계를 위한 시장 장사 등으로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장세를 내야 하는 종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 입구나 근처에서 소규모의 음식 장사를 하거나 등집장사의 규모로 집에서 만든 음식을 비롯한 각종 물건을 판매한다. 이 경우에는 장사 이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보내도 하루 벌여 하루 먹고사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sup>41</sup>- 사회금융 담당책임자, 함경북도 무산, 40대 여성, 2007년 탈북.



## 2. 북한 주민의 식의주

2000년대 들어 나타난 북한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북한 주민의 식의주 생활이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런 차별화는 2002년 시행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을 거치면서 더욱 뚜렷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식의주 생활이 계층별로 차이가 뚜렷해진 것은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북한’을 분석하는 전통적 시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sup>42</sup> 실제로 이렇게 북한 내 계층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 사회를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을 탈북해 남한에 온 새터민 중 일부는 현재 “북한은 현재 밑바닥은 자본주의”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런 일부 새터민들의 증언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을 일부 허용하면서 평등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sup>43</sup>

---

<sup>42</sup> 물론 북한의 계획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에도 북한 주민은 식의주 차이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때는 금전적 차이가 아니라, 배급 대상에서의 차별이 주요한 차이의 원인이었다. 북한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금전적 수익은 큰 차이가 없었다. 북한의 핵심 간부층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지 않았다. 이들을 차이지게 하는 것은 배급의 등급이었다. 식의주 모두 핵심 배급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위세가 달라졌다. 하지만, 이런 배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된 최근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당시의 식의주 생활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배급제도에 대해서는 김보근, “북한 노동보수제의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pp. 62~64.

<sup>43</sup> 북한은 2000년대부터 ‘실리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대학 학습에서 없애고 사회주의만을 가르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대학에서 강의를 받으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의문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공산주의는 누구나 다 잘 먹고 잘살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충족시키는 사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한처럼 그렇게 한심하고 여기 남한하고

이 절에서는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계층화 양상을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식의주 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한 사회의 계층화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식의주 생활을 차례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북한 사회 계층화 현상이 입체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절은 북한주민들의 현재 소득수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 사회의 계층화 현상은 주민들이 소득 수준 차이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 가. 북한 주민들의 소득 분포와 특징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당시 북한 주민들의 식의주 생활은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배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점차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시장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더욱 시장에 의존할수록, 시장은 훨씬 큰 소득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번 과제를 위한 심층면접조사에 참가한 총 41명의 새터민들의 경우도 다양한 소득분포를 보였다. 그 중 소득수준이 적은 경우는 북한돈 몇천원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월 1백만원이

---

60년이나 떨어졌는데, 저렇게 열악한 농업국가도 아직 벗어도 못한 그런 북한 형태에서 잘 먹고 잘사는 수요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없거든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되니까 이제 그 잘못을 깨달았는지 북한에서 그 단어를 일체 없앨 테 대하여 다 선포했어요(사례40).”

넘는 소득을 올렸던 사람도 존재한다. 배급체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득수준의 차이는 바로 주민들의 계층화를 강화하는 원인이 된다.

아래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들을 식생활을 기준으로 ‘상층’, ‘중산층’, ‘하층’의 세가지 계층으로 나눴다. 즉, 상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이에 반해 중산층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데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또 하층은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했다.<sup>44</sup>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지, 반대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월 소득이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1) 상층: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

<sup>44</sup> - 이들을 소득수준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으나, 위의 기준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북한의 식량가격이 계속 크게 변동하고, 비공식 달러 환율도 시기마다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 증언을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층면접 대상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이렇게 식생활을 중심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후 북한 사회계층에 대한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사례7: 월 소득 300만원, 가족과 함께 외식 자주하고 가라오케도 즐겨  
 사례41: 월 소득 100만원, 소득 중 30만원은 뇌물로 써  
 사례9: 한달 지출 200달러, 시장에 나온 중국물건은 ‘싸구려’라 구입 안해  
 사례28: 한달 120~130달러 지출, 냉동차를 구입해 ‘씨비차’로 운영함.  
 사례17: 월 최고 소득 150만원, 소득의 30%는 뇌물로 써

우선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상층’으로 분류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례9를 제외하면 모두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사례7과 사례17은 청진에 있는 서로 다른 외화별이회사에 다녔다. 또 사례41은 시장에서 휘발유를 몰래 파는 장사행위를 했으며, 사례28은 외화별이사업을 하다가 냉동차를 구입해 원거리로 물건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했다. 사례9의 경우도 평양시에서 피복공장 관리자로 일했으나, 피복공장 차원에서 대일 성계 수출사업을 하는 등 끊임없이 시장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모두 식생활에서 쌀밥을 넉넉하게 먹는 생활을 했다. 또 일부는 시장에 나와 있는 중국 물건을 ‘싸구려’라고 생각해 구입하지 않고, 외화상점이나 일본상품 암거래상에게 일제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다.

먼저 청진에 있던 39호실 산하 외화별이회사에 다녔던 사례7은 씬 씬이가 꽤 큰 경우다. 이 새터민은 한달에 약 1,000달러, 즉 북한 돈 약 300만원을 벌고 썼다고 한다. 이 새터민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즐겼으며,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방도 90년대말부터 다녔다고 한다. 또 출장이 잦았던 그는 국경지역에 ‘사택’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사택이란 국경지역 출장 때 자유롭게 이용하는 조건으로

I
II
III
IV
V

현지의 주민과 이용계약을 맺어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그는 그 집 사람이 다섯이든 여섯이든 다 먹여살릴” 정도로 풍족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시장에서 암거래를 통해 디젤유, 휘발유를 판매했던 사례17은 잘 벌 때는 한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벌었다고 한다. 이 새터민은 약초재배사업소에 8:3 노동자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시장 참여를 통해 풍족한 삶을 누린 셈이다. 이 새터민은 한달 수익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뇌물이라고 밝힌다. 이 새터민은 가령, 100만원을 벌면 30만 정도는 없거나 생각하고, “그걸(뇌물) 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전한다.

사례9는 탈북 직전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200달러를 소비했다고 한다.<sup>45</sup> 이 새터민은 특히 북한에 있을 때 시장에서는 물건을 잘 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제인데, 중국제는 질이 낮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례28은 쌀과 기름을 제외하고 한달에 120~130달러(북한 돈 35만~4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쓴 경우다. 이 새터민 가족의 월 지출액 중에서는 특히 10대 후반이었던 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다고 한다. 또 가족 전체가 물이 좋은 신선한 물고기, 돼지고기 등을 부식물로 즐겼다고 한다. 또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 DVD를 보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한다.

2) 중산층: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데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

<sup>45</sup>- 북한 원화의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례9의 경우, 2006년 2월 탈북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례6: 월 10만원 소득, 그러나 남편 약값 지출 탓에 저축도 못해  
 사례5: 교원생활하면서 옥수수 술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  
 사례22: ‘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장사를 통해 일정한 수익 확보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데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상층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유롭게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쌀밥을 거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들도 주로 시장을 매개로 수입을 창출했다. 하지만 같은 시장참여 자라 하더라도 상층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산층에 속하는 새터민 중 많은 경우가 시장에서 단순 판매를 하는 일에 종사했는데, 상층이 주로 외화별이회사에 다니거나, 차를 구입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과 대비된다. 일부 노동자 교원 등은 일과시간을 마친 뒤 집에서 빵이나 술을 만들어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근처에서 고기국밥집을 운영했던 사례6은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지병이 있었던 남편과 같이 생활한 탓에 남편 약값으로 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소비했다고 한다. 이 새터민은 우선 월 평균 쌀 40kg을 3만원 정도에 구입하고(당시 시세는 1kg에 700~800원), 고춧가루, 조미료, 남새 등 양념과 부식물을 사는데 1만5천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나머지 5만원 정도는 남편의 약값과 신발 값 등 목돈이 들어가는 데 썼다는 것이다.

사례5는 함흥에서 교원생활을 했는데, 교원의 수입으로는 정상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2005년 탈북을 하기 직전 받았던 월급이 3,400원이었는데, 이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몇kg 밖에

I
II
III
IV
V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례5는 저녁마다 집에서 옥수수로 술을 만들어 시장에 파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보탤다. 사례5는 이런 방식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도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라진·선봉지역 출신인 사례22는 옷을 만드는 편의관리소에서 정년퇴직한 뒤,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사례22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장사를 해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했다고 한다. 1999년에 남편과 사별한 사례22는 장마당에서 그릇이나 신발도 팔고, 거리에서 매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례22는 밑천이 없어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떼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장사행위를 통해 혼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약간의 저축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례22는 2006년 초 탈북할 때에는 약 2년 동안 모아둔 40만~50만원 정도의 돈을 북에 남은 이들에게 주고왔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3) 하층: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

사례19: 5만~6만원 수입, 매끼 밥을 먹기는 힘들어

사례10: 하루 수입 2천원, 아이 학교가져가야 할 돈 없을 때도 있어

사례30: 7천~3만원 소비, 시장 매출 적으면, 때때로 장거리 행사 나서

면접 대상자들 중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층’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끼니를 거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들은 시장활동과 괴리돼 있거나,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적은 자본으로 공식 시장 바깥에서 장사를 하는 이른바 ‘메뚜기’들이 많았다.

평양 모란봉 구역에서 개인장사를 한 사례19는 한달에 5만~6만원 정도를 벌고 소비했다고 한다. 이 새터민은 자신의 수입에 대해 “인간 많은 집에게는 박하고 인간 없는 집은 잘 조절하면 되는” 정도의 수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새터민은 혼자 사는 경우였는데도 이 수입으로 매끼 쌀밥을 먹고 살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새터민은 하루 한끼는 무조건 국수로 먹고, 반찬도 김치 하나와 국 하나로 살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의 수입으로 값나가는 부식물을 사 먹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새터민은 명절날 정도를 잘 먹는 날로 생각했다고 한다.

청진에서 개인식당을 운영한 사례10은 탈북 직전의 하루 수입이 평균 2천원 정도였다고 한다. 영업일수를 25일 정도로 잡을 경우, 월 5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셈이다. 이 새터민은 하루 수익 중 1,300원으로 쌀 1kg을, 450~500원으로 국수 1kg을 샀다고 한다. 쌀은 대부분 남편의 도시락을 쓰는 데 사용하고, 국수 1kg으로 주로 가족들의 하루 3끼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인민반에 내는 세외부담, 여맹에 내는 돈, 아이들 학교에 내는 돈을 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나 돈이 부족함을 느꼈으며, 아이가 학교에 내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장사 밀천에서 잘라서 주기도 했다고 한다.

사례30은 함경북도에서 농근맹 해설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생계는 시장을 통해 해결했다. 사례30은 한달에 적게는 7천원에서부터 많게는 3만원 정도까지 소비했다고 밝힌다. 여성 농근맹 해설강사에게는 배급이 나오지 않아 시장에서 국수를 팔았는데, 워낙 자본금이 적어 수익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새터민은 시장에서 국수를 팔다가 판매가 매우 부진하면, 함흥에 있는 공장에서 식초가 생산되는 시기에 식초를 구매한 뒤, 그것을 황해도나 평안남도에서 가지고 가서 옥



수수과 바퀴와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위에서 제시된 새터민의 월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월 수입이 300만 원에 이르는 사람에서부터 몇 천원에 불과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 내부의 수익 및 지출 규모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이들이 영위하는 식의주 생활도 크게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게 됐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도가 크게 훼손되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이 바로 그들의 소비행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음 소절에서부터는 이런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식의주 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낳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나.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북한에서는 ‘의식주’라는 표현 대신 ‘식의주’라는 표현을 쓴다. 그만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sup>46</sup>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먹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아사자를 낼 정도로 악화됐던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일정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sup>47</sup> 2007년과 2008년에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총 식량 소비량은 2000년 401만 톤에서 2005년 477만 톤까지 높아졌다가, 그 뒤 하락해 2008

---

<sup>46</sup>- 이 글에서도 논의의 순서를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의 차례에 따르기로 한다.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식생활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sup>47</sup>- 물론 이 기간에도 아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례9는 2002년에도 평양에 있는 한 연구소 준박사가 배급식량에만 의존한다고 굶어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구술했다.

년도에는 식량생산량이 300만 톤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8</sup>

인터뷰에 참여한 새터민들이 주로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탈북한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2000년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졌던 시기와 다시 악화돼가던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 시기는 북한이 종합시장을 허용(2003년 3월)하는 등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 시장 참여자의 나이를 제한(2006년)하는 등 시장 규제를 재강화했던 시기와의 일치한다.<sup>49</sup>

하지만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북한 식량문제의 이러한 부분적인 완화와 악화 속에서도 전반적인 식생활 수준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나아가 그 이전 배급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와 비교할 때도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쌀밥을 먹는 북한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잡곡밥은 별로 안 먹으려” 하고 “이밥을 먹겠다”고 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사례10). 특히 혜산이나 청진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절반 정도는 쌀밥을 먹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의 식생활이 전반적으로는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의 확대에 따른 식생활 차이는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sup>50</sup> 앞 소절에서 살펴봤듯이 높

48- 김보근, “북한의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과 2008년 식량위기,”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2008), pp. 340~345.

49- 사례31은 고난의 행군 때는 흠까지 먹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2000년 이후의 상황은 이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2008년 식량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인터뷰에 참여한 새터민들이 대부분 2005~2007년에 탈북했기 때문이다.

50- 사례38은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절반 정도는 힘들어도 이밥 생활”을 한다고 평가했다. 사례35는 청진시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이밥생활’을 한다고 증언했다. 사례38은 또 혜산시의 경우 쌀밥 생활자를 제외하면, 30% 정도는 입쌀에다가 옥수수쌀 섞어 먹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식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구술했다.

은 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에서 쌀 이외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구입”(사례5)할 수 있는 반면, 일부는 배급에서 소외된 데다가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마저 없어 크게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절에서는 이런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의 형태를 상층, 중산층, 하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밝힌 계층 구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상술해보면, 상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즐기고, 낙지(오징어),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는 데 크게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이에 반해 중산층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데서는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하층은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 1) 상층의 식생활

북한에서 상층의 식탁은 풍성하다. 상층에 속하는 북한 주민은 시장을 통해서 쌀과 다양한 부식물들을 구입해 식탁을 꾸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돼지고기 등 육류에서부터 신선한 해산물, 다양한 과일 등 일반주민들이 명절 때나 먹는 것으로 여기는 비싼 음식들을 큰 부담없이 식탁에 올린다.

이들에게는 돼지고기도 싼 음식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잦은 접촉을 하는 외화벌이 관계자 같은 경우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와 또 돼지고기를 마음껏 사먹을 수 있는 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사례7). 이에 따라 북한 상층 주민들은 아이들의 영양섭취를 고려해 이들에 한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는 등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사례14).

이들 상층 주민들은 또 과일 등 다양한 기호식품을 즐기기도 한다. 특히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상층 주민들은 중국에서 과일을 날라도 먹기도 한다. 북한에는 과일이 사과 등 몇가지 종류에 불과한데, 중국에는 남방과일을 비롯해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 이를 들여다 먹는다는 것이다(사례37). 일부 상층 주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 음식이 아니라 외화상점에서 구입한 일본 식품 등을 중심으로 식탁을 꾸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은 질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사례9).

상층 주민들은 이와 함께 또 커피, 우유, 사탕가루,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기호식품을 즐기기도 한다. 사례9의 경우 이런 기호식품을 모두 외화상점에서 산 탓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특히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한번 외화상점에 갈 때마다 돈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몇 개씩이나 계속 먹었다고 한다. 회령시의 한 유치원 원장이었던 사례14도 12살에 함께 탈북한 큰 아이의 경우,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탈북 직전까지 가루우유를 계속 먹었다고 한다.

이들은 또 해변가가 아니더라도 싱싱한 횡감을 즐기기도 했다. 회령에 거주했던 사례37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낙지(오징어) 회를 즐겼다. 바다에 접한 청진 등 항구도시와 달리 회령의 경우, 횡감으로 먹을 싱싱한 낙지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고 한다. 하지만 사례37은 “다른 사람들은 못 사먹을 비싼 낙지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수입”이 됐다고 밝힌다. 중학교 교원이면서 시장에 물품을 공급했던 사례13는 딸과 둘이서 생계를 꾸린 경우다. 사례13은 한달에 쌀을 20kg 정도(1만 5천~2만원 정도)를 소비했지만, 부식물을 사는데 한달에 6만~9만원 정도를 소비했다. 싱싱한 수산물을 좋아했던 사례13 모녀는 매일매일 장에 가서 선어를 중심으로 200~3000원 어치의 장을 봐서 식탁을 꾸몄다.



이들은 식당에서의 외식도 즐기는 편이다. 한번 몇사람이 외식을 하게 되면 1만~2만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민들에게는 외식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층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즐긴다고 한다(사례7).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꾸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 주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된다. 특히 일반 주민들은 상층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얻으려고 상층 가구에 몰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돼지 사료, 개 사료가 없는 북한에서는 돼지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부유한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개, 돼지를 키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돼지사료, 개사료가 없으니까 가축을 하는 분들은 구정물을 받아가려고 해요. 대량적으로 돼지랑 키우는 사람은 저희같은 집들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맡아 놓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구정물을 받아달라. 불고기를 하고 씻은 물도 여기에서는 그냥 버리지만 거기에서는 귀한 사료거든요. 돼지들이 먹는 것이 풀에다가 해서 먹으니까 그냥 가마 씻은 물도 다 받아달라고 해요. 그게 자료인거예요. 어느 집에서 돼지갈비 나왔다, 소가죽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것이 자료이기 때문에 그 물에서 인심이 벌어지는 거예요.(사례14)

그러나 이 경우 상층 주민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내주기를 꺼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통해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 찌꺼기를 통해 무엇무엇을 먹었다는 것이 알려지는가 하면, 음식을 찌꺼기 제공을 중단할 경우, “자기에게 감정이 있냐? 왜 주다가 안주는냐?”라는 항의를 듣기도 한다는 것이다(사례14).

한편, 일부 상층 주민들은 과시용으로 세파트를 직접 키우기도 한다. 주로 군견으로 쓰는 세파트는 호신용도 되지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과시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견 같은 거 데려

다 키우려면 고기 먹여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써 집에 그런 개가 있다는 건 그 사람 생활수준이 그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27).

## 2) 중산층의 식생활

식생활에서 북한 중산층을 “쌀밥을 먹지만 기타 부식물을 풍성하게 먹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할 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밑반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 밑반찬들이 식탁을 풍성하게 꾸릴 수 있는 주요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회령직물공장에 다녔던 사례16의 경우, 부식물을 사기 위해 시장에 나간 경우가 거의 없다. “명절 혹시 생일날이라든가 남편이 동무들하고 청해 오는 날”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반찬거리를 사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sup>51</sup> 대신 사례16의 경우, 겨울철에 1년 먹을 밑반찬을 모두 해놓는다. 이렇게 밑반찬 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부업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시부모님 덕이다. 사례16은 김치, 깍두기, 오가리, 오이절임 등 각종 절임형태의 밑반찬을 겨울에 저장한 뒤, 이를 다음해 겨울까지 먹는다는 것이다. 김치의 경우는 다음해 4월까지 묵은 김치를 먹고, 다음해 6월에 개인농사 짓는 사람들이 배추를 내다팔 때 다시 사다가 김치를 담가 먹는다는 것이다.

구역당학교 교원 생활을 하면서 옥수수술을 빚어 시장에 팔아온 사례5도 밥, 국, 젓갈, 전, 김치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힌다. 사례5는 함흥의 경우 산나물이 많이 나와 두릅 등 철따라 나오는 채소를 식탁에 올리기

<sup>51</sup> 사례16은 특히 해산물과 돼지고기 등은 명절일 경우에 사먹고, 달걀은 간혹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갈 때 넣어주기 위해 사기도 한다는 것이다.





도 한다고 말한다. 사례5는 이런 식단 구성도 “다른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힌다.

쌀밥을 중산층 중에서는 이런 기본 밑반찬을 마련해놓고 먹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홀로 생활했던 사례22의 경우도 “혼자였기 때문에”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례22는 반찬은 기본이 남새이며, 때론 그것도 없을 때는 소금이나 장으로 반찬을 해 먹었다는 것이다.

또 매일 쌀밥을 먹는다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에 따라 kg당 쌀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낮추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 모습도 보인다. 가령 한 탈북자는 중국에서 밀수한 쌀이나, 한국에서 보낸 쌀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이 두 쌀은 묵은 쌀이어서 “밥을 하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하층의 식생활

매일 쌀밥을 먹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하층으로 분류했을 때, 그 범위는 사실 상당히 넓다. 이 경우 옥수수 등 잡곡을 섞어서 식생활을 해결하는 사람들로부터, 국수로 세끼를 떼우는 사람, 감자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 등이 ‘하층’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래에서는 차례차례 이들의 식생활을 살펴보도록 한다.

쌀밥을 못먹더라도 옥수수밥이라도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농장원이었다가 아이를 낳고 주부로 생활한 사례8은 아이까지 셋인 가정인데, 한달에 강냉이를 60~70kg씩 소비했다고 한다. 이 정도 양을 쌀로 소비한다면 가계에 재정적 부담을 너무 크게 주기 때문이다. 사례8은 여기에다 부식물을 사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부식물의 경우, 얻을 수 있을 때 많이 얻어서, 삶아서 말리

거나(오이, 파, 마늘, 고추), 소금에 절이는 방법 등으로 저장해 부식거리를 오래 유지했다고 한다.

함북도에서 농민생활을 한 사례31의 경우도 식사는 주로 옥수수로 해먹었다고 한다. 기본 반찬은 된장국(토장국)이었으며, 고기는 1년에 한두번 먹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사례31은 특히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도 아까워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고, 돼지를 팔 때나 한번씩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종이공장 기술준비원이었던 사례4는 강냉이 옥수수 밥에 국과 김치가 기본 식탁이었다고 한다. “배추국이면 배추국, 된장국이면 된장국에 김치하고, 거기다 다른 반찬 한 두가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옥수수밥을 먹는 사람보다 좀더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은 국수로 끼니를 떼우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국수 1kg으로 온 가족의 식사를 해결한다고 한다.<sup>52</sup> 농근맹해설위원이면서 장마당에서 국수장사를 했던 사례30의 경우도 매일 저녁 아이들과 국수죽을 끓여먹었던 경우다. 국수죽은 보통 통강냉이로 만든 국수가 모두 풀어질 때까지 계속 끓여서 만든다. 이렇게 거의 토막날 때까지 끓이면 국수가 붙어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다 말사로 같은 값싼 사료를 넣고, 호박잎 같은 것도 섞어넣으면 그게 가족의 한끼를 책임질 국수죽이 된다.<sup>53</sup> 사례30은 국

52- 회령시 남새농장 농장원이었던 사례23은 분조장이었던 자신의 집의 경우 그래도 옥수수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그 옆집은 국수 1kg을 사다가 국수죽을 쑤어 먹는 형편이라고 구술한다.

53- 체신소 교환원이었던 사례11은 이 통통 불어터진 국수가 식량을 빼돌리는 농간에도 쓰인다고 밝힌다. 직장에 붙어 있는 현장식당에서 낮에 점심을 보장해주는 경우, 정량 200g을 채우지 않으려고 국수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수를 통통 불게 하면 좀더 적은 양의 옥수수 국수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점심을 나누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족만을 계속 먹을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1주일에 한번 혹은 열흘에 한번은 옥수수밥에 풀이라도 넣어 먹으면서 견뎠다고 한다. 사례30은 반찬도 주로 ‘장국’(된장국)을 끓여 먹는데, 때때로 채소를 파는 사람과 얘기를 해서 자신의 국수와 그 사람의 채소를 교환해서 먹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농장원이었던 사례39는 더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이런 국수죽도 “있는 날은 먹고, 없는 날은 못 먹기도 한다”고 말한다.

북한 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 가정의 경우 대부분 ‘하층의 식탁’에 속한다고 한다. 무산광산의 수출피복 책임기사였던 사례35는 노동자의 경우 ‘이밥생활’ 대열에 끼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사례35는 그 예로, 그의 동생이 청진에 위치한 중요한 생산품 공장 지배인인데도 ‘이밥생활’을 못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배급이 기본적으로 쌀이 아닌 강냉이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동생의 경우 배급을 탄 옥수수과 쌀을 반반씩 섞어 먹는데, 쌀은 장사를 하는 동생 부인이 들여오는 것이라고 한다.

사례21은 이렇게 배급으로 나온 옥수수도 제일 싸구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구술한다. “중국에서 돼지도 먹기 싫어하는 통강냉이”, 즉 “그 안에 곰팡이 다 낀 거. 이젠 이걸 버릴까 하는 것, 버려도 어떤 방식으로 버려야 되겠는가” 고민하는 것이 배급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싸구려 통강냉이는 “중국 돼지들도 이젠 살이 찌워서 그 곰팡이 낀 이런 건 안 먹”고 “오직 조선사람만 먹는다”고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 4) 빈곤층의 식생활

북한의 계층을 상층, 중산층, 하층으로 나눴지만, 심층면접 대상자들

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하층의 식탁에도 끼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빈곤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침 먹고 점심꺼리 얻고, 점심 먹고 저녁꺼리 얻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sup>54</sup> 이렇게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층의 식단은 상층이나, 중산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인 고려 사향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빈곤층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깡치<sup>55</sup>로 만든 인조고기, 술을 빚고 남은 술지게미, 목지가루 등으로 식생활을 영위한다.

우선 두부를 만들기 위해 콩을 짠 뒤 남은 찌꺼기로 만든 ‘인조고기’는 가격이 제일 싼 먹거리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빈곤층이 애용하는 것이다. ‘인조고기’는 이 콩 찌꺼기에 물을 조금 붓고 잘 반죽한 다음, 국수 내리는 기계로 내리면 완성된다. 국수기계를 거치면서 익어서 나오는 ‘인조고기’는 찢어서 생채나 여러 가지 반찬으로 이용된다(사례 11). 술 지게미는 옥수수 등 곡식으로 술을 만든 뒤에 남은 것을 말한다. 이 술 지게미는 그 자체에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목지가루란 옥수수를 옥수수알과 그 알을 제거한 자루까지 다 가루를 내고, 여기에 쌀을 도정하고 남은 벼까지 섞어 놓은 것을 말한다(사례21).

이런 음식들은 주로 술과 두부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파는 집에서 나오는데, 보통은 돼지 사료로 쓰인다. 하지만, 사례21은 한 바케스에

<sup>54</sup> 사례22. 라진에서 생활한 사례22는 라진이 북한에서 유일하게 개방된 곳이고, 살기가 괜찮은데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약 30%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22는 나진 이외 지역의 경우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구술했다.

<sup>55</sup>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깡치, 대박, 비지 깡치 등으로 다르게 표현했다. ‘인조고기’는 이것으로 가공한 음식을 가리킨다.



북한돈 80원씩 하는 콩 찌꺼기를 사서 식용으로 먹었다고 한다. 그는 이 콩 찌꺼기는 역하고 술 지게미보다도 못하지만, “최악으로 배고팠을 때 그거라도 먹게 되더라”고 말한다. 양강도에서 개인장사를 했던 사례 25도 “술을 만든 뒤 남은 술 찌꺼미를 우려서 먹을 정도로 열악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약 40%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극빈층은 여름의 경우 최악의 경우 풀을 뜯어 풀죽을 끓여 식량대용으로 먹기도 한다고 한다.

#### 다.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

북한 주민들은 2000년 이후 식생활 못지 않게 의생활에서도 빈부 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경우, 어떤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이 첫눈에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 보이는 구실도 한다. 북한에서는, 의복에서도 역시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분야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 사이의 수입 차이가 커짐에 따라 소비 양태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상층에서는 일본옷이나 한국옷을 개당 북한돈 10만원 이상씩의 높은 가격에 구입해 입는가 하면, 하층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옷을 사입거나, 상층에서 입다 버린 옷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심층면접 조사에 응한 새터민들은, “현재 의생활이 북한 사람들의 계층 차이를 가장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한의 경우 옷차림을 보고 사람의 빈부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북한은 빈부에 따라 옷차림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사례18). 무역회사 외화벌이 무역지도원이었던 사례18은 “평균 생활이 못하기 때문에 좀 생활이 있는 것은 딱 알겠” 된다고 말한다. 무산에서 고깃국집을 운영한 사례6은 ‘먹은 티는 만나도 벗은 티는 난다’는 북한 사회의 격언을 전해주면서, 특

히 평양 사람들의 경우 옷차림을 중요시한다고 구술했다. 회령시에서 농장원을 지낸 사례23도 옷차림을 보면 “저 집은 좀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힌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옷 등에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옷 잘 입는 것은 먹는 문제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사람들은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벌써 돈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사례13).<sup>56</sup> 라진에서 살았던 사례22도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다”고 말한다. “다 바빠 살고 다니는데 잘 입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 1) 상층의 의생활

의복은 개별적으로는 한 개인의 모습을 바꾸어 놓지만, 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도시와 나라 전체의 인상을 바꾸어놓기도 한다.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1990년대 중반의 경우 의복의 색깔은 까만색 일색이었지만, 최근의 옷색깔은 충천연색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일본옷의 영향이다. 북한 내에서 중고 일본옷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를 충천연색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일본 옷은 주로 원산 등지로 들어와서 큰 보따리(통구리) 단위로 장사꾼에게 판매된다. 보통 큰 보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장사꾼들에게 넘어가는데, 그 속에서 여성 속옷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그 장사

<sup>56</sup>- 개인장사를 한 사례19는 상류사람들의 경우 옷차림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다른데, 우선 피부부터 다르다고 말한다. “햇볕 하나 안 쬐 것 같은 우유살”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옷차림에서도 구별된다는 것이다.



큰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한다(사례3).

그게 한 통구리가 300달러인가 해요. 그걸 열어서 운수가 좋을 때는 좋아요. 보고 못 사거든요. 뭘지는 몰라요. 막 쌓아놓았죠. 좋은 것을 만나면 이건 운수 좋은 거죠. 그것을 전문으로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원래 개인한테 못 팔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건 또 다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 열었는데 여성들 란제리가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나 상층에 속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일본옷 중에서도 ‘상중고’ 옷을 선호한다. 상중고는 일본 중고 옷 중에서도, 매우 깨끗해서 새것이나 거의 다름 없는 옷을 가리킨다. 평양 시내 피복공장 관리자였던 사례9는 이 ‘상중고’ 옷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한다. 한 벌에 250달러 정도 하는 높은 가격이었는데도, 사례9는 일본옷이 개성 있고 특이한 점이 많아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사례9는 1년에 한차례 정도 약 1천달러를 들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한꺼번에 준비했다고 한다.

회령사에서 유치원 원장을 지낸 사례14은 북한의 상층 여성들이 옷을 구매하는 또 다른 경로로 외화상점을 꼽았다. 외화상점은 엔이나 유로로 의복의 구입이 가능하지만, 일본 ‘상중고’ 옷이나 시장 물품에 비해 비싼 것이 흠이다. 사례14는, 그런데도 자신은 외화상점에 있는 이탈리아 옷을 선호했다고 밝혔다.<sup>57</sup>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 옷이 점차 일본 옷을 대체하면서 최고급 옷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sup>57</sup> - 사례14는 이렇게 옷을 통해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해 사치, 부와 방탕 문제를 많이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수수해라, 검손해라, 인민들의 본보기가 되어라 이런 사명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치스럽게 가방이라든가 거기에 크게 신경 안쓰게 된다고 말한다. 대신 그냥 항상 전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현찰을 보유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다. 청진시에서 가정주부였던 사례8의 경우에도 부자들이 차츰 한국옷을 많이 입었다고 평가했다. 사례14는 여성들이 “한국제를 입었는지 중국제를 입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패션 수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구술했다.

상층에 속한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옷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만드는 옷도 고급을 지향한다. 사례9의 경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만들어 입힐 때도 남들과 다르게 만들어 입혔다고 한다. 즉 일반 학생은 일반적으로 교복을 시장에서 싼 값에 구입해 입는데, 사례9의 경우에는 고급 천을 2.4m 정도 사와 직접 교복을 만들어줬다고 한다. 이 고급천은 미터당 32달러짜리로, 이 교복은 옷감 값만으로도 76.8달러가 든 셈이다.

이밖에 여자들의 경우 악세사리나 남자들의 경우 구두도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잣대로 활용한다. 북한에서 일반적인 여성들은 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귀걸이 같은 악세사리를 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악세서리를 할 정도면 잘 사는 집 출신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 악세서리의 수준에 따라 그 집의 잘 사는 정도를 가늠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사례40). 남자들의 경우 구두가 이렇게 신분을 표시하는 구실을 한다. “국산을 신었느냐 중국제를 신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다. 사례38은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 구두도 북한산이 아닌 “중국제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라고 구술했다.

이렇게 의복과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모습을 좇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북한에서도 유행이 생겨나고 있다. 중학교 교원이었던 사례21은 “어느 간부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아주 신식으로 나온 새로운 옷이다 그러면 그 유행을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도도를 한 옷 모양이 달라지면, 간부들이 그것을 1주일 만에 따라





서 해 입을 정도로, 일부 간부들이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고 밝힌다(사례38).

옷의 재질이 다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대개 나일론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여기는 면제품을 사용하고 그 나일론 제품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요. 벌써 보면 옷 재질을 알거든요. 그리고 어느 만큼 유행을 빨리 따라가나. 유행도 계속 바뀌어요. ‘점퍼다’ 할 때 점퍼는 이 앞단을 단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앞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퍼를 안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단을 따로 달아서. 김정일이 많이 달았어요. 김정일이 이번에 어디 현지도도를 했다 하는데 앞단을 단 그런 점퍼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게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다음번 현지도도를 나갔을 때 앞단이 없는 개방식의 이런 점퍼를 많이 입거든요. 그걸 입었다고 할 때 또 빨리 바꾸는 사람이예요. 어디를 현지도 했다. 강원도를 현지도 했는데 그 TV를 보니까 이런 점퍼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주일이면 그런 점퍼가 나오거든요. 그걸 간부들이 입고 다녀요. 대다수 간부들이 입고 다녀요. 그럼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빨리 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런 유행이 뒤떨어진 점퍼, 그런 새로운 점퍼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단이 달린 점퍼를 입었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옷 질이 좋아도 못사는 거예요.<sup>58</sup>

## 2) 중산층과 하층의 의생활

상층의 의생활의 초점이 ‘멋’이라면, 이들 중산층의 의복선택 기준은 ‘싼 가격’과 함께 ‘편안함’이다. 나진에 살았던 사례22는 중산층의 경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생활전선에 다니는” 바람에 옷을 화려하게 입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언제나 “그저 바지에다가 세수나 대충하고” 다니는 게 중산층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다.<sup>59</sup> 온성중공업공장 기술준비

<sup>58</sup>- 사례38. 하지만 유행이 꼭 상층에 속한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유행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옷을 입는 경향도 나타나기도 한다. 중학교 교원이었던 사례21의 경우 “유행된 옷은 못살아도 입는” 경향이었다고 한다.

<sup>59</sup>- 사실 장마당에 나와 있는 여성들은 옷차림에 신경쓸 여지도 없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여성들의 옷차림에 관해 사례21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성들은 장마당 여성들

원이었던 사례4도 편한 것 위주로 옷을 선택했다고 한다.

저는 지방이니까 치마같은 건 1년에 한번이나 입고 그러면 잘해요. 그냥 바지를 입어야만 편하고, 바지에다가 가을엔 잠바 같은걸 입다가 한달정도 있으면 바로 겨울이 오는데요. 10월이면 날씨가 차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동복을 입어요. 다음에 4월까지의 동복을 입어요. 그다음에 동복을 벗으면 잠바를 입어요. 봄 가을 옷이 그냥 잠바예요. 양복 정장 같은 것도 불편해서 안입어요. 잠바가 제일 편안하죠.<sup>60</sup>

편안함과 함께 중산층의 또 다른 옷 선택 기준인 ‘싼 가격’은 이들을 중국에서 들어온 기성의류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만든다. 청진에서 주부로 지낸 사례8은 상층 사람들이 한국옷이나 일본옷을 사입는 반면, 일반사람들은 이보다는 “가격이 싼” 중국 옷을 사입는다고 구술했다. 사례22는 속옷 같은 경우도 “장마당에 나가서 제일 낮은 걸로 사서” 입는다고 말한다. 사례23도 겹옷은 한국옷이 인기지만, 속옷은 중국옷을 많이 입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제가 많이 소비되는 것은 중산층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제가 그나마 소비할 수 있는 제품군이 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가령 양말 한 켤레가 천오백원인데, 이 양말이 두달을 못 간다고 털어놓는다. 따라서 적지 않은 금액이 양말을 비롯해 옷값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사례4). 이들은 가격대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런 조건에 맞는 것은 “보통 다 중국제”라는

---

은 장마당에서 쌀 데꼬 자리는 쌀만 하다보니까 옷을 구질하게 입고 또 고기 데꼬, 고기 판매원들은 고기 장사하니까 또 지지분하고 옷을 파는 여자들, 판매원들만 곱게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음식 파는 것도 기름이 자글자글해가지고, 석탄도 팔고, 나무파는 애들은 새까맣고요. 겨울에는 더해요.”

<sup>60</sup>- 특히 사례4는 정장은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입는 것이지, 노동자들의 경우는 잠바가 편하다고 말한다. “정장을 입으면 항상 일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것이다.<sup>61</sup>

하지만 하층에 속하는 주민들의 경우 시장에서 옷을 구입하는 게 여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먹고 산 뒤 나머지를 가지고 옷을 사야” 하는데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옷 같은 것은 우리는 크게 사서 입지 않았습니다. 파이지 않거나, 엉덩이가 보이지 않고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지 옷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사례10)

이에 따라 북한에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1년을 통틀어 옷을 한번도 못사입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한다. 이들이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 사입는 옷의 가격은 보통 시장에서 삼천원 정도 하는 것이다(사례30). 이에 따라 양강도에서 개인장사를 했던 사례25는 옷을 2년에 한번 정도씩 사입는다고 말한다.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협동농장 농장원이었던 사례31은 “남들이 옷지 않을 만큼 사입”는다는 것이다. 사례31은 가을철 추수 뒤 농장에 오는 장사꾼들에게 주로 옷을 샀는데, 가격대는 강냉이 5kg 정도를 주고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많았다고 한다.<sup>62</sup>

하층 사람들은 특히 겨울옷 같은 것은 한번 사면 보통 5년까지 입는다고 한다(사례25). 북한의 하층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북한에 있을 때 겨울이 다가오면 의복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컸다고 구술했다. 북한의 하층 사람들은 남한보다 훨씬 더 추운 북한의 겨울 동안 변변한 입을거리도 없이 버터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례30). 하

---

<sup>61</sup> 사례4에 의하면 2000년 이후부터는 의류시장에 중국 상품뿐만 아니라 나진선봉의 합작(합영)회사 제품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품질은 중국제보다는 좀 나은 정도라고 한다.

<sup>62</sup> 하지만 잠바 같이 좀 비싼 것은 강냉이 15kg 정도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 비싼 것은 25~30kg을 줘야 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층의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가령 “엄마 옷을 정 못 입을만한 것을 줄여서 입힐 때가 많고,” “학교에 가려고해도 애들이 신발 앞에 구멍이 이렇게 난 것을 끌고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사례30). 시장에서 약 1만원 정도 하는 신발을 사줄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층 사람들은 “잘사는 집에서 입다가 자기네가 좀 그래서 버린 옷들을 입”기도 한다는 것이다(사례30).

### 북한 시장의 한국제와 중국제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제, 한국제, 일본제는 어떤 의미를 줄까. 현재 북한 시장에서는 북한 자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탓도 있지만, 북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일부 공산품은 대부분 계획에 물려 있어 시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sup>63</sup>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접하게 되는 공산품은 대부분 중국제, 일본제, 한국제다.

중국제는 “중국제가 없다면 북한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북한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또 일본제는 전통적으로 고급제품의 대명사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돼 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제가 급속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북한 시장에서 고급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최근엔 가짜가 범람하는 데다, 2008년 들어서는 남북관계마저 경색되면서 한국제품을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제품과 한국제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I
- II
- III
- IV
- V

## 중국제

중국제는 북한 사람들의 식의주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하와 평가절하의 대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그 상품의 질은 남한에 들어오는 중국 상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질이 나쁘고, 심지어는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까지 버젓이 유통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80~90%는 중국제”이며, “조그만 애들도 옷차림을 봐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중국제”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신발, 양말, 아이들 팬티도 중국에서 생산한 게 나온다”고 한다(사례7). 국경지대의 경우 중국 화장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에 이르며(사례4), 빨랫비누 등 생활필수품에서도 중국 제품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사례6).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손발부터 머리 끝까지 다 중국 걸로” 치장하게 되면서, “중국제품이 없으면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못 간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사례22).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비하와 평가절하의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주로 쓰는 “동북3성 거지들을 우리가 먹여 살렸다”는 말이 대표적인 예다. 면접 대상자들은 이 말은 북한에 들어오는 중국상품이 “중국 연변상점이나 중국 동포상점에서 최하되고 최하되고 진짜로 이제는 낭마로 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구술했다. 특히 중국 과자나 사탕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많이 팔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정상가격보다 훨씬 싸게 들여온 뒤 거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서 팔

있다는 것이다(사례37).

예를 들어, 청진의 외화별이 회사에 소속돼 있었던 사례17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닥치는 대로 숨이면 숨, 매트리스면 매트리스 일단 중국에서 외상주는 것은 아무거나 다” 들여왔는데,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사례17은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콩기름이나 식초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드럼에 날짜가 지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뜯어 버”린 뒤 판매했다고 한다.<sup>64</sup>

중국제가 이렇게 범람하게 된 것은 중국과 북한의 무역회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돈 없는 북한 무역회사는 외상으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회사에서는 이렇게 외상으로 주는 상품의 경우 질이 낮은 것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북한에 많이 수출했다고 한다(사례28).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북한 무역회사는 외상으로 상품을 주는 중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고, 중국 무역회사는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할 상품들을 파는 것이므로 설사 외상으로 대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도 손해가 없다.

개인들이 공장을 건설하는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잘 팔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들이 실제 팔리는 가격 가지고는 이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맥주를 하나 있습니다. 맥주를 중국에서 파는 가격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팔고, 그 가격을 우리가 사서 판다면 똑같은 가격에 팔면 중국 사람들이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제값으로 못 파니까 기간이 지났다는가 이런 것을 가져온 것이죠. 제가 가져 온 것은 그런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이윤이 남도록 판매를 합니다. 쌀 같은 경우에도 햇살 10분도는 잘 안 줍니다. 묵은 쌀, 쌀에 이물질이 많은 것 쌀이 변질 된 것, 이런 것을 먹는 거예요. 북한에서 생산품도 옷이다 이러면은 거기서 제품으로서 검사해서 불

I  
II  
III  
IV  
V

합격을 받은 것, 도매가격으로 개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났지요. 북한이 저렇게 침체 된 것은 경제가 마비되고 나니까 그거 없으면 벌거벗어야 되고 그거 쌀이 아니면 굶어야 되는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죠.(사례28)

## 한국제

‘한국제’는 이제 북한에서도 낫익은 상표이며 선망의 제품이다. 상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가장 고급스러운 상표로 인식을 굳혔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한국제의 품목도 다양하다. 옷가지에서부터, 화장품, 신발, 컵라면 등 먹거리, 가전제품, 심지어 한국제 약과 커튼<sup>65</sup>까지 거래가 된다.<sup>66</sup>

한국제는 이제 북한 시장에서 중국제는 물론이고 일제보다도 높게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사례6). “일본제하고 남조선제하고 놓으면 남조선 것을 잘 보게” 된다는 것인데, “좀 민족성이 자극되는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사례15). 이에 따라 “옛날 같으면 일본제 상품에 대해 환상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남한상품에 대한 환상이 엄청 높아졌”다. 또 옷을 입어도 “‘made in korea’가 붙어야 옷 잘 입는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제가 일본상품보다도 높은 값에 팔리기도 한다는 것이다(사례40). 심지어는 “한국 상품이라고 하면 서로 가지려고 싸우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사례37). 국경지역인 회령에서도 한국 옷 가격이 5만~6만원 정도로 비싼데도 사람들이 한국 옷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67</sup>

내가 올 때 당시에는 회령 시장에서, 장마당에서는 한국 옷티를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옷티가 세관을 못 넘어와요. 두만강으로 밀수장사를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장마당에 놓으면, 중국상품은 질이 낮고 한국상품은 질이 높고 하니까 다들 한국

상품에 붙지 중국상품에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국하고 일본상품이 들어오면 일본 것이 기성이라고 해서 일본 것을 입었는데 한국 것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한국 옷티를 밀어 주니까요. 한국 옷티(점퍼)를 거기에서 하나 사 입자고 하면, 우리 딸을 옷을 사 입히자면 5, 6만원씩 줬어요.(사례23)

한국제가 북한 시장에 등장한 것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다. 아직까지 한국제가 합법적으로 팔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북한의 상인들은 우선 한국 상표를 떼어놓았다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 손님이 와서 한국제 옷을 보자고 하면 먼저 상품을 보여준 뒤 보여주고 흥정이 진행되면 떼어낸 상표를 옷에다 맞추어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제라는 것이 확인되면 판매를 한다고 한다(사례15).

한국제가 널리 팔리게 된 계기 중 하나는 2004년 룡천폭파사고였다. 이 사고로 남한의 구호물품이 룡천으로 대거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시 시장에 나왔다는 것이다. 룡천사고 때 남한에서 보낸 지원물품은 처음에는 룡천의 이재민들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룡천 이재민에게는 당장 식량이 급했기 때문에, 구호품으로 전달된 치약 등 한국제 생필품을 팔아 식량을 사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에서 상인들이 룡천으로 가 한국제를 산 뒤 다시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룡천에 지원됐던 “치약에서 비누제품까지 전부 북의 가정으로 들어갔다(사례13).”

이렇게 한국제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는 “단속하다 단속하다 너무 많으니까 단속도 못”할 정도로 북한 시장에 한국제가 넘쳐난다고 한다(사례40). 그런데 문제는 이 넘쳐나는 한국제의 대부분이 짝퉁이라는 데 있다.

가짜 한국제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옷을 놓





고 하나는 중국 상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한국제라고 해도, “그들을 서로 다르게 볼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사례37). 이에 따라 “일부러 한국제 상표를 가져다가 중국제 옷에 가공”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옷을 살 때 “상표부터 보기” 때문이다.<sup>68</sup>

옷뿐만 아니라 상당수 한국제 상표가 붙은 공산품도 가짜가 많다.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인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한국제 짝퉁 신발까지 자체로 생산한다. 신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몰려 있는 평성 주례동에서는 “우선 한국 제품을 뜯은 뒤 원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온 뒤 짝퉁을 제작한다”는 것이다. 이 짝퉁 신발은 “처음에는 곱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발전돼나왔다”고 한다(사례19).

사례37도 날짜가 지난 한국 스킨을 시장에서 팔았다고 고백한다. 사례37은 중국에서 생산한 한-중 합작 스킨 화장품을 들여왔는데, 날짜가 지난 것이었다고 한다.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버려야 할 제품인데, 북한에서는 날짜를 다 떼어내고 다시 새로 붙인 뒤 시장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sup>69</sup>

이렇게 가짜 한국제가 늘면서 한국제를 꺼리는 현상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사례4는 한국제가 좋다고 해도, 화장품 등은 한국제를 사지 않았다고 한다.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인데, “시장에 나가서 좋다 하는 소리가 퍼지면, 벌써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은 “그냥 그대로 자기가 써서 괜찮았던 거 그대로 쓰게” 됐다는 것이다(사례4).

일반적인 사람은 다 중국산을 써요. 한국산을 쓰고 싶어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해서 못써요. 뚜껑은 다 한국 것인데, 내용이

다 가짜거든요. 거기서부터 알고 있기는 한국산이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좋다고 해서 사서 써보면, 다 가짜니까. 그러니 좋은 것 쓰기가 힘들고.(사례4)

이에 따라 북한 시장에서 한국제의 진위를 둘러싼 마찰과 다툼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제가 일반적으로 비싼 값에 팔리는 데 만약 가짜를 사기라도 하면 큰 낭패이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에서 남한의 꿀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남조선 꿀로 만든 약”이 인기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또 “여자들 유방암 약” 등도 인기가 높아 이런 것들이 무려 “100달러, 50달러”씩에 거래됐다고 한다(사례37). 하지만 이 제품들은 대부분 가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품들의 진위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거의 다 가짜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가짜라면 죽인다고 칼을 이렇게 들이미는 순간에도 그때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하죠. … 죽인다고 해도 벌써 그거 하나에 100달러라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나가니까요. 우리 북조선에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그거면 한 달 잘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제 대단한거죠. 그러니까 칼을 들이밀어도 가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죠.(사례37)

63- 북한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 공산품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도록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북한 공산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한 제품만이 아니라 그것과 맞물려 있는 전체 계획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64- 사례17은 당시 시장에서 콩기름이 리터당 2,800원에 거래됐는데, 중국에서 날짜가 지난 것을 1,800원에 넘겨줬고, 사례17이 소속된 회사는 이것을 다시 시장에 정상제품보다 200원이 싼 2,600원에 팔았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사례28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65- 청진시의 한 시장에서 상업행위를 했던 사례37의 경우는 한국제 커튼을 100달러에 팔았다고 한다. 사례37은 “한국제 커튼이라고 하니가 중국 물건보다 훨씬 잘 팔렸

## 라.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 주택은 철저히 배급에 의해 분배됐으며, 이에 따라 집의 크기는 그 사람의 북한 사회 내에서의 위세의 크기를 나타내주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는 북한의 주택은 위세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로동당이나 행정기구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여부에 좌우됨에 따라, 좋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는 북한 주택이 매매되고, 투자 목적으로 매입되고, 개인에 의해 새롭게 건축되고, 지리적 여건 등에 의해 부촌이 형성되거나 하는 최근의 북한 주택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런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다.

### 1) 계층에 따른 주거생활의 차이

북한에서 주택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상층과 중산층, 하층으로 구분할 때 가장 유효한 준거점 중의 하나가 됐다(사례14). 돈 있는 북한 사

---

다”고 밝힌다. 사례37은 이 커튼이 개성공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sup>66</sup> - 이와 관련하여 사례11과 사례13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계 좋다는 거 알고, 한국 것을 쓰려고 해요.(사례11)” “뉘, 화장품, 애들 옷. 애들도 국내산도, 중국제도 안보는 거예요. 꼭 (일)본산제 아니면 한국제품으로 가지려 해요.(사례13)”

<sup>67</sup> - 사례23은 회령에서도 한국 옷은 그전까지 최고의 인기였던 일본옷보다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말한다.

<sup>68</sup> - 사례14, 사례39도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한국 것이 가격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다 가짜예요. 다들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팔아요. 샴푸 ‘하나로’를 내가 써봤는데 머리에 발랐는데, 거품이 한 줌을 발라도 안나요. 그게 다 중국에서 생산한 가짜인데 한국 것이라고 팔거든요.”

<sup>69</sup> - 사례37은 한국 화장품을 공개적으로 팔수는 없기 때문에 화장품 판매상에게 하루 5개씩 넘겨준 뒤 팔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 화장품 매대에서는 그 화장품을 아래에 놓아 두었다가 한국제를 찾는 사람이 오면 판매한다는 것이다.

람들은 크고 넓은 집에 거주하면서,<sup>70</sup> 집을 거주 목적만이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내부에 화장실도 없는 자그마한 집에서 생활하는 등 빈부격차 확대에 따라 주거 환경 차이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집은 넓고 클 뿐만 아니라, 전력, 난방, 상하수도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선 북한의 부자들은 큰 집을 좋아한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에서는 집이 50평은 돼야 잘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71</sup> 사례37은 회령에서 ‘지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집이 컸기 때문이다.<sup>72</sup> 사례37의 주택은 사람이 사는 방이 3칸, 창고도 3칸이나 됐다.

사례9도 남한의 70평 아파트보다 조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밝힌다. 특히 평양 시내에 위치한 사례9의 아파트는 위치가 좋아 “겨울에도 온수가 잘 나왔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살 정도로 따뜻하게 지냈다”고 한다.<sup>73</sup>

이렇게 자금력을 갖춘 상층에 속한 주민들이 더 큰집과 더 좋은 집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금력이 없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작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게 됨을 의미한다. 이들은 난방 등도 제대로 되지 않는 좁은 집에서 많은 식구가 한꺼번에 생활하기도 한다.

하층에 속한 주민들이 주거에서 느끼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공동

70- 이와 관련하여 사례25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단독주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정원도 있고 하니까 단독주택을 선호하죠.”

71- 사례17. 북한은 평방미터를 단위로 쓰기 때문에 북한 평방미터로 따진다면 165평방미터에 해당한다.

72- 사례37은 “내가 그렇게 집을 그렇게 큰 집을 쓰고, 땅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로 사니까 우리 회령 사람들이 나를 지주라고 했다.”고 한다.

73- 사례9는 이 집을 1990년대 중반 배정받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례9는 풍족한 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집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화장실 문제다. 무산 시내에서 살았던 사례6은 아파트의 3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3층 거주자의 공동화장실은 1층으로 내려온 뒤에도 다시 100m를 가야만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례6은 당시 그 아파트에는 100호가 넘는 가구가 있었는데, 화장실은 단지 5칸이었다고 한다. 한 가구에 3~4명씩 산다고 했을 때, 300~400명의 주민들이 5칸의 화장실을 아침에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따라서 사례6은 “애들은 급해서 위생칸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일을 보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택상황이 안좋다보니, 하층의 경우 가족이 많아도 한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기다가 특히 최근엔 연료난이 심각해져 “가족이 10명이 되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사례31). 사례23은 방 두 개짜리 집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다(사례23). 방 한칸에 10명이 함께 자는 생활은 아니라도 주거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하층 주민들의 경우 집 내부에 제대로 된 가구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정말 열악한 경우에는 밥 해먹을 그릇이나 수저, 덮고 자는 이불도 제대로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집은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자기도 한다는 것이다.<sup>74</sup> 사례32는 이런 경우가 전체의 30~40% 정도는 된다고 설명했다.

## 2) 주생활의 변화-주택의 매입과 신축

어떻게 ‘사회주의’인 북한 사회에서도 부자는 큰집에서, 가난한 사람은 작고 불편한 집에서 생활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일까.

---

<sup>74</sup>- 사례31도 하층 주민은 집에서 진흙바닥에 그냥 레자를 깔고 생활하기도 한다고 구술했다.

북한에서는 집이 대부분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주택을 배급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 ‘배급 제도’에서는 집의 크기 등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재산이 아니라 당·군·정에서의 지위 등이 되어야 한다.<sup>75</sup> 하지만 북한 주민의 실제생활에서는 점차 돈 있는 사람들이 크고 좋은 집들을 차지해나가고 있다.<sup>76</sup>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주택 매매’와 ‘주택 개조’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확대되어 나간다. 우선 북한에서 주택 매매와 교환이, 합법은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 매매와 교환은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공급)과 사겠다는 사람(수요)이 일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이런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당국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있어야 합법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매매를 통한 좋은 집 확보하는 방법 외에 또다른 방법은 자신이 직접 집을 좋게 신축하는 것이다. 이 또한 당국의 묵인 내지 방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에서 현재 부유한 정도가 주택 소유 규모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일정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해보도록 하자.

### 가) 주택의 매매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과 같다. 이 주택 공급자는 바로 예전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sup>75</sup>- 사례3은 이와 관련해 “예전에 좋은 집은 간부들이 살았다. 간부들이 잘 살고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아주 한심한 집에 살았다”고 증언한다.

<sup>76</sup>- 사례16은 이와 관련해 “그런데 미공급이 들어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사를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해서 못 살고 하나까 사람이 세대교체가 되더라고요.”라고 증언한다.

2000년 들어 크게 활성화된 시장경제에서 소외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선 정년퇴직한 옛 간부들이 주택의 공급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간부들은 “일단 정년퇴직하고 집에 들어 앉으면 아무런 맥도 없게” 된다. “간부가 일단 집에 들어 앉으면 끝”이라는 것이다(사례3). 이 간부들은 연금을 받지만, 쌀 1kg 값이 노동자 한달 월급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금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큰 주택을 팔고 작은 주택으로 옮기면서, 그 차액으로 생활을 유지해나간다는 것이다.

꼭 정년퇴직한 간부들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국가에서 주택을 배정해줬을 때의 기준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큰 집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령 평양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는 고급 아파트의 거주민들 중에도 이런 잠재적 공급자가 다수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거주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일부 거주자들은 “옛날에 부모들이 물려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사는” 사람들, 즉 “집만 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택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사례9). 북한 주민들은 이런 주택 소유와 현재의 재정상황이 극단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빗대어, “꽃제비도 광복거리에 큰 집에서 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사례19).

이렇게 벌써 못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집을 파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딱 앞집에도 있었는데 할머니 한분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무슨 환자, 장애자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결국은 집을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소식이 없어요.(사례27)



이밖에도 주택 공급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겨난다. 일부는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긴 뒤 그 돈을 장사밑천으로 쓰기도 한다(사례20). 장마당의 매대 허가권이 50만~15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반 북한 주민들이 이 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긴 뒤, 그 차액으로 장사밑천을 삼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주택 공급자에 맞춰 이 집을 갖고자 하는 수요층도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상행위를 통해서, 혹은 외국에 나가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부를 축적해나가는 사람들이 고급 주택의 새로운 수요자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여유가 생겼지만, 주택에 대한 국가 배정 시스템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위상에 비추어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 주택에 대한 수요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사례3).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면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이 연결자, 혹은 거간은 한 구역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큰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거간이 생기는 거죠. 이 거간은 어떤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큰 집이 모두 50채 있는데 저 집은 팔자하고 저 집은 안팔고, 저 집은 돈 얼마 받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이 생긴 계층에서 꼭대기 맥이 없는 간부들 집을 거간꾼을 통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집을 사는 것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때는 적당한 근거를 대는 거죠. “출근거리가 가깝기 때문에”라고 하는 등 말이에요. 돈 주고 샀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2000년 쯤, 2001년, 2002년쯤 되면서 옛날에 못살고 볼품없던 사람들이 다 간부들이 쓰고 살던 두 칸, 세 칸짜리 좋은 집으로 다 바뀐 거죠.(사례3)

I

II

III

IV

V



## 나) 주택의 신축

재정적으로 새롭게 상층을 형성하게 된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매매를 통해 집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낡은 집을 개조하거나 신축해 크게 키우기도 한다. 집을 새로 짓는 것은 국경 지방의 간부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한다. 1990년대 하반기에 농촌 등에 부임한 간부들이 옛집을 헐고 새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77</sup> 하지만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여유자금이 있는 일반 상층 주민들까지 이런 집짓기 흐름에 합류했다(사례2).

돈을 가진 상층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는 이유 중 하나는 큰 공간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유치원 원장을 지낸 사례14는 국가에서 배정받은 집이 있는데도 방 5개 짜리 70평형대의 큰 ‘땅집’(개인주택)을 지었다. 넓직한 텃밭도 갖춘 곳이다. 사례14는 이렇게 집을 크게 지은 이유에 대해 차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례14는 사업용 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를 둘 공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사례14는 개인 집을 지은 또다른 이유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라고 밝혔다.<sup>78</sup>

개인 소유권은 북한에서 안되죠. 저희도 9급, 10급 단위 사람들은 다 국가에서 주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간다고 하면 반환을 해야 해요. 그 위치로 발령받고 온 사람에게 내줘야 해요. 그걸 대비해서 집을 따로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지었다고 해도 그 명목이 개인으로 안돼요. 북한에서는 다 국가 입사증으로 발급을 하되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자기 집안사람에게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개인증서라는

<sup>77</sup>- 사례1은 이런 집짓기 현상이 중국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sup>78</sup>- “아무리 회사차라고 해도 사장이 차를 자기 가정에서 쓰는데. 그리고 운전기사분도, 애 아빠한테는 부관이나 같거든요.”

것이 명의가 개인이지 국가증서거든요.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사증이라는 증서가 있거든요. 그게 자기 개인 명의나 같죠. 그렇게 입사증을 받으면 그게 아무리 국가집이라고 해도 다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사례14)

부유층이 새롭게 집을 짓는 데는 중국이나 남한의 영향을 받은 새롭고 편안한 건물에서 살고 싶은 요구도 한몫 했다. 북한의 ‘문화주택’처럼 정형화한 형태의 낡은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장사해서 돈이 좀 생겼거나 중국 등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 어찌되었든 돈이 있다는 사람들은, 제가 있을 때는 보니까 집을 좋은 것을 산다는 개념은 없고 집을 짓더라구요. 멋있게 기와집으로 해서 두 칸짜리, 전실도 만들구요. 예전 집 구조대로 짓지 않고, 선진적인, 발전된 아파트 쪽으로 해서 집을 지었어요. 원래 있던 집들은 원래 값 자체가 싼데도,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새 집들이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구조들이 원래 있던 집들보다 형태들이 남다른 규모를 갖추고 그랬어요. 본래 있던 집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sup>79</sup>

79-북한에서 주택은 원래 국가의 소유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도시경영사업소에 신청을 한다고 한다. 도시경영사업소는 신청을 받으면,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그 도면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집이 지어지면 이제 경영권은 도시경영사업소에 넘어간다. 주택 소유자는 소유만 할 뿐이지 처분권이 없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개축하거나 증축한 개인주택은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택을 다 짓고 나서 정부로부터 ‘입사증’을 받으면 자기 주택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택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자신의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적절한 이유 아래서는 주택 교환이 가능하다. 이때, 웃돈은 정부 모르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오고 간다(사례15).

특히 큰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때 웃돈을 받고 넘기게 된다. 이때 국가에서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집을 다 빼앗기게 된다(사례22).

이밖에도 구역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 소속 주택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원주민의 입사증 문건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기도 한다. 이때는 경찰에 등록돼 있는 것도 함께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의 단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사례27).



이렇게 새집을 짓지 않고, 기존 주택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집 수리의 목적은 우선 집 내부를 편리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의 주택은 대부분 집 안에 화장실이 없는데, 최근 집안에 욕조와 화장실을 갖추기 위한 수리도 많이 진행됐다는 것이다.<sup>80</sup> 주로 유리식 창문, 화장실 욕조 등이 주요한 개량 대상이라고 한다. 이런 개조는 주로 라진을 통해 중국 제품을 들여와 이루어진다(사례11).

그러나 간혹 집의 외부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평안남도 남포시의 군수동원과에서 근무했던 사례27은 일본제 컬러텔레비전을 개조해 파는 사업으로 돈을 번 돈주가 집을 산 뒤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집을 높게 올린 경우를 구술했다. 높아진 집 때문에 “다른 집들이 완전히 햇볕이 못 받게” 될 정도였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주택의 매매와 신·개축을 통해 좋은 집의 주인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운 집의 주인은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이 많은데, 이들은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만 해도 ‘못사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주택관계가 과거의 사회주의적 국가 공급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주택으로 갈 수 있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사례3). 이런 ‘주택 소유의 역전 현상’은 북한의 내부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 3)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상층에 속해 있는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주택을 매매하고 신·개축을

---

<sup>80</sup>- 사례11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들었다. “미공급 끝난 이후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고 ‘이제는 한국식 집처럼 개조하자’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다.

하면서 주택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다. 바로 주택을 짓고, 사고파는 것 자체가 유용한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도 최근 집이 두채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sup>81</sup> 국가에서 배정받은 한 채는 언제든지 국가에서 재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입사증’을 가진 주택을 가짐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두 채 이상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배경에는 집이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상층 계층의 일부는 사업을 해서 자체로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는 자기가 돈을 벌자면 다시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사례25).

무엇보다 이렇게 주택이 투자 대상이 된 것은 북한의 집값 인상폭이 결코 작지 않다는 데서도 영향을 받았다. 온성에서 장사를 했던 사례41은 여러해 전에 20만원도 안주고 산 집이 2007년 6월 탈북할 시점에서 200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또 사례21은 2006년 1월에 탈북할 때 방 2개짜리 주택을 200만원에 팔았는데, 북한에 남은 친척과 통화한 결과, 2008년 5월 현재 500만~600만원 정도로 올랐다고 한다. 물론 탈북 시점에서도 그 집은 300만~400만원 정도의 시세가 있었으나, 급히 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싸게 팔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300~400만이라고 해도 불과 2년반 사이에 50% 이상 집값이 오른 셈이다. 북한에서도 특히 개발 소문이 돌면 집 값은 더욱 크게 오른다. 가령 사례1은 2001년도 신의주에 방문했을 때 집값에 놀랐다. 당시 신의주특구가 논의되던 시점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sup>82</sup>

<sup>81</sup> 사례21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집이 두채채 있는 재력이 집에 묵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가 묵었던 집은 마흔 두 명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큰 집이었다고 한다.

<sup>82</sup> 사례1은 특구에 대한 기대감이 빠진 지금은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내가 신의주에 2001년도에 가서 한 석 달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신의주 시내 같은 경우는 홍콩사람 양반이든가 그 양반이 신의주 시를 한다고 하면서 신의주 중심가 같은 경우 집 한 채가 두 칸짜리 1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게 최고가가 되었어요. 허술한 집이 두 칸 짜리지만 크지는 않아요. 한 25평 정도가 만 달러 부르거든요. 신의주 중심가에. 내가 출장 갔다가 석 달 있었는데 그런 집이 1만 천 달러 부르는 거예요. 왜 이러나 했더니 신의주 중심가고 그 분이 지금 들어와서 한다니까, 그 당시 신의주 시 정부에서 잘사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 내면 영주권을 준다, 이렇게 까지 얘기했어요. 신의주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평양시내에 있는 분들도 신의주 시내로 나온다는 거죠. 신의주가 국제도시로 넘어가면 장사가 좋거든요. 물류도시라 하니까, 허브도시가 되거든요.(사례1)

집은 또 일부 품목에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관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또한 장사를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시집을 안가고 우선 집을 마련하겠다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들은 부모들이 결혼을 하라고 하면 “결혼식 하지 말고, 나한테 그 결혼 비용을 달라.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 데 쓰겠다”고 말한다는 것이다(사례25).

집이 하나의 그런 거예요. 무조건 집을 사면, 집만 있으면, 조그만 집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장사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 없이 남의 집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 집에 들어 놓게 되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들도 여기처럼 웬만하면 시집을 안가고 하고, 웬만큼 돈이 없는 남자라면 안가려고 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집을 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사례25)

집을 신축하는 것이 투자로서 인식되면서, 개인적 신축이 아닌 사업으로서 주택 신축을 꾀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돈을 별 목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장사의 목적으로 집을 짓는”



전문 장사꾼들이 생겨났다는 말이다(사례3). 사례9는 2006년 2월 탈북할 당시 평양 시내에서는 각 구역마다, 제일 좋은 장소에 5만달러짜리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었다고 한다. 사례9는 이 주택들이 국가가 아닌 개인들 주도로 건축되고 있었다며, 이것을 보면서 북한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생각했다고 구술했다. 그런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의 높은 단위에서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눈감고 허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국가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하면, 국가가 개인한테 땅을 주는 격이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집을 짓는데, 시멘트랑 그런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다 모아서 자기가 알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분할하면 거기에서 구역에다가 두세대 내고, 정부에다가는 아파트 몇 세대 내고, 그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라고 해라, 우리에게는 돈만 주면 되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집들이 엄청 좋아요. 화장실이 두 개고, 방이 8칸이에요. 제가 설계를 봤거든요. 100평 넘을 것 같아요. 한 층에 두 개의 집이 있는데, 한 면이 몽땅 한 집의 발코니예요. 진짜 멋지더라구요. 그리고 각 구역에서 제일 노란자위에, 제일 좋은 위치에 세워지고 있었어요.<sup>83</sup>

#### 4) 고급 주택단지의 형성

어떻게 북한의 부유층이 주택을 새로 건축하고, 투자가치로서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들의 주택단지’가 형성됐다. 특히 ‘부자 주택단지’는 “역전하고 가깝고 장마당하고 가깝고

<sup>83</sup>- 사례9. 그러나 2007년 9월에 청진에서 탈북한 사례37은 자신이 탈북할 당시에는 그런 집들의 집값이 이미 5만 달러가 아니라 7만 달러 정도로 올랐다고 말한다. 이 청진시 고급주택도 역시 청진시 최고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청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라는 “포항구역에서도 제일 물도 잘 나오고, 또 거기가 보위부 앞이라서 전기도 잘 나오고 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사례37은 이 집의 경우 입주할 사람들이 먼저 돈을 내면 그 돈으로 집을 지었다고 구술했다.

교통에 유리한 곳”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사례38).

그러니 시내 중심으로 역전동, 성천동, 오산덕동 이런데에 있던 잘 사는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갔어요. 장사라는 것이 엄연히 시내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나, 시내 중심지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2000년도 즈음, 그 때부터 아마 사람들이 집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내 중심의 좋은 아파트를 우리 수복동의 나쁜 집과 바꾸면서 웃돈을 꺼 가지고 주었어요.(사례16)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부자 주택단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전과 시장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서, 시장과 장사가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자리잡으면서 “장사하기 좋고 유통하기 쉬운” 시장 가까운 곳이 주목받게 됐고, 집값도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84</sup> 역전과 시장을 중심으로 ‘부자 주택단지’가 형성되다보니, 시장에서 먼 곳인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다.<sup>85</sup> 해산시의 경우에는 이런 변화의 영향을 받아 간부들이 살던 “가장 좋은 아파트가 가장 싼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한다. 역시 시장과의 먼 거리 탓이다(사례38).

간부들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거든요. 보위부아파트, 도당아파트 이런 곳인데, 도당아파트 주변이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정하게 시대가 지나면서 변한 거예요. 해산시 같은 경우에는 성우동쪽에 당 일꾼들의 아파트가 많거든요. 도당간부들의 아파트 그 다음에 예술인들의 아파트, 그런 게 다 성우동쪽에 몰려 있었어요. 그땐 그쪽에 집값이 제일 비싸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불편한 곳이었어요. 제일 첫 교외쪽이었죠, 끝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그

---

<sup>84</sup>- 사례40. “사회적 경제관리 체계가 무너지면서 시장과 가까운 곳은 장사하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까이에 위치한 집들은 비싸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하고 멀리 있으면 싸요. 시장근처, 역전근처는 교통이 편하니까 장사하기도 그렇고.”

<sup>85</sup>- 무산군에서도 역전 앞이 집값이 가장 높고, 역전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거리에 반비례하여 집값은 싸진다고 한다(사례26).



리고 역전하고도 꽤나 멀어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제일 값이 싼 아파트로 전락을 한 거예요. 혜산역전에서 얼마 안가면 혜산 장마당이예요. 여기가 혜산시 노른자가 된 거예요. 그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런 거예요.(사례38)

청진에서는 각 동네마다 주택가격이 달라지면서, 그런 빈부차이를 풍자하는 별명들이 각 동네에 붙었다고 한다. 청진에서는 북한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남시장이 가까운 포항구역이 최대의 부촌으로 떠오른 상태다(사례37). 이 포항구역은 ‘포촌’이라고 불린다. 해외의 친척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돈이 많아진 ‘교포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어 수남구역은 수수하게 산다고 해서 ‘수수촌’, 그 다음에 서민들이 사는 송평구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송구스럽게 산다”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이다(사례2).

이 절에서는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쌀밥과 기호식품을 얼마만큼 풍족하게 먹느냐에 따라, 상층과 중산층, 그리고 하층으로 나눈 뒤 각 계층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을 살펴봤다. 이 절에서는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적게는 몇 천원에 이르는 월 수입을 올리는 등 월 수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월 수입의 차이는 바로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먼저 식생활에서는 상층은 쌀밥은 기본이고, 각종 기호 식품이나 외식을 즐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된 반면, 하층은 국수 등으로 매일 가족의 끼니를 떼워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 의생활의 경우, 상층은 멋을 중시해 비싼 일본제 ‘상중고’ 옷 등을 구입해 입는 반면, 중산층은 ‘싼 가격’과 ‘편안함’을 강조해, 중국산 의류의 주요 소비 계층으로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도 경제적 능력이 주택 소유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I
II
III
IV
V



드러났다.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기존의 ‘국가의 배정에 의한 주거’에서부터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른 주거’로 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도 주택의 매매, 신축, 투자, 부촌의 형성 등 ‘시장을 매개로 한 부동산문제’가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나타나고 있다.

## 5장6기

‘5장6기’는 북한에서 결혼을 할 때 가져가는 기본혼수품을 뜻한다. 북한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장만하는데, 이 5장6기의 질과 양에 따라 그 부모들의 재산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 5장6기는 따라서 북한에서 상층, 중산층, 하층 계층의 차이를 드러내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5장6기’는 가정에서 쓰이는 가구와 가전제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구나 가전제품이 ‘장’이나 ‘기’로 끝나는 것이 많다는 데서 착안한 말인데, 꼭 5개의 ‘장’과 6개의 ‘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서 6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세탁기, 냉동기, 선풍기, 녹음기, 온풍기, 극동기<sup>86</sup> 등을 꼽으며, 5장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옷장, 이불장, 장식장, 책장, 경대, 단스 등을 꼽는다(사례10).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점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5장6기 보유 가정의 수가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가령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5년도엔 컬러TV를 가진 집이 한 40%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끝난 1990년대 말에는 80~90% 정도가 컬러TV를 가지게 됐다(사례3). 이렇게 5장6기 보유 가정이 늘면서 어떤 5장6기를 갖추는가가 중요하게 됐다. 즉 일본제로 5장6기를 갖춰야만 누구나 “있는 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을 때 상층



에 속했던 사례9는 자신의 집에 있던 5장6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티브이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새것으로 사준 히타치, 대각선으로 62cm 짜리요. 냉장고는 도시바것으로 시댁에서 선물해준 1대와 원산출장 다니면서 100불에 2003년에 산것 1대 총 2대가 있고, 아마하 피아노하고, 카세트 녹음기는 일제, 그 J로 시작하는 거 있죠. 가구는 중고 일본제, 아들에게는 혼다 오토바이를 중학교 졸업하고 군대 잠깐 갔을 때 기념으로 2003년도에 170불을 주고 사주었고, 자전거는 일본제로 피복공장 관리자 사업하기 전에 구매했어요.<sup>87</sup>

이렇게 5장6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목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경우도 부부가 합심해 몇해에 걸쳐 5장6기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한다. 부모들이 상층에 속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많은 신혼부부들은 부모가 쓰던 장을 몇가지 물려받는 정도로 신접살림을 시작한다.<sup>88</sup>

제가 시집을 갈 때 집에서 뭐 장농, 가구는 일절 다 해줬어요. 잘해가지고 간 편이었죠. 선풍기 이런거는 없고 그냥 가구 종류만요. 제가 시집갈 때는 가전제품도 없었거니와 사용을 못했어요. 전기가 있어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뭐 이런 장롱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이 쓰시던 거, 이런거 물려주시는 것도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불 같은 것도 몇 채를 해가지고 갔어요.(사례8)

2003년에 결혼한 사례10의 경우도 5장6기 없이 출발한 경우다. 사례10은 부부가 돈을 모아 차근차근 5장6기를 모어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사례6은 “2005년도까지 단스 다하고, 장을 이불장하고 이런 것

I
II
III
IV
V

들 다하고 세탁기하고 녹음기하고 티브이, 냉동기까지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10은 먹을 것을 아껴가며 절약하고 긴축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하나에 20만~30만원을 하는 5장6기를 1년에 하나 장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5장6기 중에서 6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1년 먹을 식량가격과 맘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사례21).

못 먹었습니다. 5장6기를 갖추다 보니까 먹는 것을 절약을 했거든요. 그 5장6기 중에서 티브이를 한 대 사자고 해도 30만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탁기 하나 사자고 해도 20만 들어가고, 냉동기도 그렇고요. 30만원이란 것이 파나소닉, 중국에서 다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파나소닉, 샤프 이런 것이었어요. 그게 가격이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28만에서 30만이에요. 저는 일제로 많이 갖추었어요.(사례10)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5장6기를 갖추어도, 가전제품들은 장식품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어려운 전력사정 때문이다. 전력사정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전제품이 관상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래도 이 5장6기를 선호하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서의 “자기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89</sup>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는 상층에 속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5장6기’를 넘어서는 부의 상징들이 등장하고 있다. 피아노, 컴퓨터,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피아노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의 상징’이다. 일제 가와이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례17은 집에 있던 가구나 가전제품 중 가장 값나가는 것이 피아노였다고 한다. 사례17은 “집에 피아노 한 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제법 산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한다. 사례26도 집에 중국제 피

아노를 들여놨는데, 피아노를 들여놓음으로써 “남 해놓고 사는것 만  
큼은 다 해 놓고 살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컴퓨터 또한 새롭게 등장한 대표적인 ‘부의 상징’이다. 사례37은  
2007년 9월 탈북할 때 ‘컴퓨터 4’(펜티엄4)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37  
이 ‘컴퓨터 4’를 산 것은 당시 북한에 나돌던 컴퓨터 1, 2, 3, 4 중에서  
“4를 가장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올때까지 4가 제일 멋있게 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도 4가 있는 집을 그렇게 알아봤는데 내가 그것을 놓  
고 살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4같은 것은 물건도 아  
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란 말입니다.(사례37)

사례37은 이 컴퓨터를 700달러에 산 뒤 탈북할 때 130만원에 팔고  
왔다고 한다. 당시 환율이 100달러에 30만원이라고 할 때, 약 400달  
러 이상 받은 셈이다.<sup>90</sup> 사례37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컴퓨터를 쓰지  
는 않았다고 한다.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북한에서는  
컴퓨터로 크게 할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례37이 컴퓨  
터4를 산 이유는 자신도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나도 잘 산다는 것을 내세우려고요. 나도 못 살고 싶지 않았으니  
까요. 새끼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저 봤다 뿐이죠. 우리 북한  
은 인터넷도 소용이 없습니다.(사례37)

<sup>86</sup> - 극동기는 얼음을 얼리는 것임(사례16).

<sup>87</sup> - 사례9. 물론 하층 사람들에게 5장6기를 잘 갖춘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꿈이다. 이번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새터민 중 상당수도 제대로 5장6기를 갖추지 못하고 살았다  
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가구라는데 다

옛날가구 놓고 엄마 아빠가 예전에 60년대 해왔던 그가구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티브이밖에 없었어요. 티브이하고 녹화기 하나 있었어요. 장농은 있었죠. 장농 같은 게 하나 있고 이불장 두개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사례4); “5장6기 같은 것 없었어요. 조금 있는 집이 재봉기나 있고, 흑백티브이나 있고 그랬어요. 다 중고품이죠. 그 다음에는 선풍기, 선풍기나 조금 있으면 있을까. 크게 없었어요.”(사례31); “가구는 단스같은 것, 옷장, 이불장 같은 것을 하나씩 놓고서 그렇게 살아요. 티브이도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많아요. 저는 있었어요.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가져다 줘서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정말 바빠요.”(사례23)

- <sup>88</sup>-사례10. “우리 북한에서는 결혼할 때 여자들이 단스나 이불장, 장식장 등을 해서 가져가고, 중기들은 들어서 합심해서 벌어서 일군단 말입니다.”
- <sup>89</sup>-사례14. 이런 5장6기를 장식품의 용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자동차용 배터리다. 1kw 짜리 자동차 배터리 세개를 연결하면 냉장고하고 세탁기 등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배터리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충전을 해두어야 했다(사례17); 이런 열악한 전력사정 때문에 컬러티브이를 장만하고도 흑백티브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다. 왜냐하면 “색티브이는 전기가 많이 들어서 밧데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흑색티브이는 배터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사례10).
- <sup>90</sup>-사례37은 판매가격은 당시 시세에 비해 매우 싼 금액이지만, “탈북을 앞두고 급히 컴퓨터를 팔아야 하는데, 그만큼 돈이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III

## 키워드로 보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북한주민들의 생존전략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을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한 경제난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뒤이은 시장의 확산을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 경제난 이후 십여년의 시간을 경유하면서 구조적 변화의 충격이 주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은 각기 어떠한 전략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재구축해 나갔는지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북한 주민들을 노동계층, 지식인계층, 권력엘리트계층, 신흥상인계층 등 직업, 생산관계 속에서의 위치, 사회정치적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 이외에 여성의 일상생활에 관해서도 별도로 살펴본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북한 사회의 계층 변화에 대한 엄밀한 연구의 결과로 도출한 것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집단별 차이를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구분한 것이다. 각 집단별로 이들 집단의 일상생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1.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비법, 생존 일당, 브로커

한 사회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총체적 인식’은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북한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계층의 일상생활의 변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중앙권력이 다수 노동계층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북한 노동계층 내 일상생활의 이질성이 강화되었고, 동시에 식량난 이전과 다른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양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북한의 각 노동단위와 개인들의 비공식적 생존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노동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I

II

III

IV

V



또한 팽창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 및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동자와 농민 등 노동계층 내부에서도 상류층·중류층·하류층으로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북한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는 ‘비법’, ‘생존’, ‘일당’, ‘브로커’ 이다. 그 주요 특징은 첫째,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 둘째, 비공식적 생존시스템 작동, 셋째, 일당과 주변 직업, 넷째, 자생적 노동시장 형성이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고난의 행군을 경유한 후 북한 체제가 지역의 각 단위별 노동조직 운영을 관장할 수 없게 되면서, 중앙권력의 암묵적 묵인과 아래로부터의 생존전략이 맞물려, 즉 생계해결을 위한 노동조직 운영과 하층관료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 가. 비법: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

2000년대 북한 노동계층의 일상생활의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 “비법”이다. 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법에 어긋나게 일하는 것을 비법”이라고 한다(사례35). 비법은 불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북한사회에서 비법적 행동은 법에 걸리는 것이 있고, 안 걸리는 것이 있다. 비법적 행동의 구체적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노동자 및 농민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다.

비법이나 불법이나 말은 비슷한데요. 그것이 다 비사회주의, 비법행위라고 말하지 불법이란 말을 잘 안하죠. 비법에는 걸리는 것이 있고, 안 걸리는 것이 있고요. … 바치면 안 걸리는 것이고, 안 바치면 걸리는 것이 고요. … 장사하는 것도 실제는 똑같은 일인데, 법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산물도 국가에서 대주는 물건이 아닌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장사를, 천을 사다가 하는 건데 국가



에다가 몇 %라도 바치지 않으면 법에 걸리고 바치면 괜찮고 그런 거지요. 다 비법은 같은 비법행위인데, 국가에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주면 괜찮은 거고 그래요.(사례35)

비법경지 관리, 비배관리라고 하는데 ... 우리가 그렇게 말을 붙인 거죠. 비배라고 하기도 하고 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저 '비'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요. ... 내가 소토지 일을 너무 못할 때에는 하루 걸근을 해요. 걸근을 해서 또 자기 집 일을 할 때도 있고요. 조화를 맞추는 거죠. ... 그런데 이게 원래는 비법인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면 다 그렇게 살아요.(사례31)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층 면접에 기초할 때, 공장 가동율이 20% 내외인 북한사회에서 재직노동을 통해 월급 및 식량을 받는 이들 또한 전체 노동자·사무원 중 20% 내외로 증언된다. 가동되는 공장이 주로 군수공업이나 핵심기관 산업으로, 군부 및 체제 유지의 핵심적인 기관 산업 노동자들만이 식량난 이전의 노동계층과 유사한 노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임금 현실화 정책으로 북한정권은 임금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제 때 월급을 타는 이들은 시당 간부, 법을 다루는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재판소, 군대 성원들이다. 하급 당간부, 책임비서, 조직비서들도 부정기적으로 배급을 받기는 하지만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므로 생계해결을 위한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 노동계층의 정상적인 노동생활은 전력 및 자재문제로 인한 공장 가동의 부정기성과 생계해결 문제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장 및 기업소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20%대에 그침에 따라 출근율 또한 2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사무직 및 하층간부 층과 농민들은 정상출근이 강제되고 있으나 전력과 자재, 식량 공급

I
II
III
IV
V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량난 이전의 작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관·기업소·농장 단위 별 식량생산 및 생계비 확보를 위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위별 ‘생존문제 해결’, 즉 ‘자력갱생’ 기치에 따라 암묵적으로 비법 업무와 비법 경지(개인 및 가족 소토지) 경작, 합법 업무와 협동농장 경지(합법 경지) 경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법 노동이 생계해결을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시간 투여가 늘어나면서 처벌을 받는 비법노동과 처벌을 받지 않는 비법노동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상황과 단위 간부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뇌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전부와 보위부 등 국가 감시기구에 의해 시기별·상황별로 집중 단속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즉,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의 생존위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추고 ‘스스로 생존하라’는 당국의 지시와 더불어, ‘합법과 비법이 공존하는 노동계층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구조화되면서 전력 및 자재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2급 이하 공장 및 기업소 노동자들은 장사나 가내작업, 각종 일당 노동 등을 통해 하루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에 따른 정상노동이 주변화’된 상황이다. 공장생산이 마비되면서 정상적 노동생활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양상 변화 과정 및 2000년 이후 구체적 실태를 다음 증언들을 통해 살펴보자.

모든 것을 공장기업소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기업 관리하는 책임자도 힘들어지고, 공장기업소에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어요. … 5년을 일하고 보니까 계속 공장이 후퇴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나도 힘든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희생만을 요구하는데



그런 희생을 해가지고는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나가서 장사를, 남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나서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가 다시 말하자면 공장의 조치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벌써 2년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제가 원래 있었을 때보다 현실이 더욱 암담했어요, 본래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조각 하나하나 얻기가 어려웠어요. 용접봉 하나를 구하기도 더 힘들어졌고, 공장에 있는 모든 자재가 다 소멸되어 있었고, 공장을 우리 힘으로 이끈다는 것이 너무도 많이 안보였어요. 그리고 원료, 자재, 전기문제도 너무나도 말이 아니었고, 전기도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오면 잘 오는 그런 정도였고...(사례4)

저는 철도에서 근무했어요. ...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나오면서 자체로 가라, 그런 게 나오면서 철도도 원래는 소비단위인데 국가에서 모든 일체 자재를 공급 못해주니까 자체로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철도가 유지되어 왔는데, 내가 들어올 때까지 가슴 아픈 것이 사실 나무를 베서 침목을 하는데, 그것이 생나무를 깔아요. 그게 3년 못 넘어요. 20년씩 쓸 나무를 막 베서 내버리니까. 그것도 국가의 투자가 아니고 한 사람당 과제가 있어요. 겨울에 가서 나무를 해 와요. ... 그리고 들어올 때까지도 철도 부문에 동맥이라 하면서도 식량공급이 없었어요. 다 자체로 했어요. 나도 보다시피 철도사람이지만, 중국 TV, 녹음기를 향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리해서 시장에 매매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았거든요.(사례1)

이 같은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 양상은 북한정권이 각 단위 및 개인의 생존 자구책 지시로 비배관리(비법 재배 관리) 토지를 각 기관 및 기업소에 나누어 주면서 더욱 일상화되었다. 하급 사무기관인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 일하던 한 사무원(사례2)은 “사무기관에서 내가 일한 내 수입을 가지고, 제가 다닌 거기에서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못되죠.”라며 생존을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 사례로 먼저 사무직 노동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기관인 공장 유치원 직원 노동생활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I
II
III
IV
V

저희는 유치원이라고 해도 유치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애들을 안보고 거기는 경비원만 남겨두고 다들 비배관리 가는 거죠. 유치원도 오전만 보고, 오후에는 유치원을 보는 야간반에 선생을 한명 뒀요. 그 선생 한명이 애들 전부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농번기에는 다들 밭에 가서 하는 거죠. 유치원에서는 유아들 먹거리를 해결하라고 좋은 땅을 가지고, 비배관리를 하는 곳에서는 콩이라든가, 조라든가, 수수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은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옥수수만 바치고 그런 것은 바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옥수수를 피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유치원이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그런 생산물이 있어야 일체 모든 것을 국가가 대주는 것이 없으니까,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로 보장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는 거죠.(사례14)

이 공장 유치원의 경우 직원인 교양원들이 열명이었는데, 열명이 한 분조가 되어 자체 농장을 운영하고, 유치원 원장이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대개 국가 하급 사무기관의 경우, 이렇듯 단위책임자가 작업반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증언한다.

이렇듯 정상 노동생활이 주변화되는 과정에서 매일이다시피 있던 학습, 토론, 회의 총화까지도 다 한달에 한 번으로 몰아서 진행하기도 한다. 2000년 이전까지는 연간 4회 진행했던 분기별 회의도 상하반기에 각 한 번씩, 일년에 두 번 진행하게 되었다. 즉, 각종 회의가 합쳐진 것이다. 구체적 공장 사례증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 합쳐졌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학습을 합치고, 주간 생활총화를 합치고, 그 다음에 월요일, 월의 마지막 월요일 날은 월 총화 겸 다음 달 계획을 비준하고 그제 좀 그래지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은 출근을 못 시켰어요. ... 2000년부터는 그랬어요. ... 그래서 이제는 정상출근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출근한다는 기업소는 수출을 한다는 기업소라든가 봉제공장이라든가 전문부서 공장이 있어요. 시약, 화약 군수... 이것도 국가경영이 아니에요. 칠월, 팔월, 유월, 이때 수력. 우리는 수력발전소가 다 기본이에요. 그 때 이제 집중적으로 출근하는 것이지 가뭄철

에는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때 전문으로 하고 정상출근 못하고, 쌀이 남(남한)에서 들어와서 중국 쌀이 들어와서, 배급을 줄 수 있을 때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나은 거지. 그러나 연합기업소는 (결근을) 절대로 할 수가 없고.(사례15)

부분적이라도 가동되는 공장일지라도 이처럼 불안정하게 운영되다 보니, 출근율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사례15가 다녔던 공장의 경우 2000년 이후 출근율이 10%로,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더 낮아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통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sup>91</sup> 이 중 출근 대신 돈을 내는 사람은 출근으로 인정되기에 형식상 출근율은 30~40%로 집계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90%는 안 나오는 데, 돈 다 내나요. 그 돈 내는 것도 어려워요. ... 한 달에 만원인데, 오천 원짜리는 없어요. 거의 만 원이에요, 그 때(2004년) 돈으로. 그럼 제 월급이 이천 오백 원인데 만원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중산층들이 한 달에 4, 5만원 벌기 엄청 힘들어요. 하루에 천원 벌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원 벌잖아요, 삼십일. 그거 만원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50 프로, 40 프로는 8:3이라고 했거든요. 가내 8:3이라고. 출근율을 삼사십 프로로 보면 되요. 실제로는 10 프로가 출근을 하는 거고 이삼십 프로는 돈으로 출근하고 나머지는 아예. 우리도 통제 안 하고 그 사람들도 나올 것을 생각 안하고.(사례15)

돈으로 출근을 대신하는 20~30%의 경우, 그 돈을 안내면 출당되고 가족과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다고 한다.<sup>92</sup>

<sup>91</sup>- 이에 대해 사례15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고난의 행군 때는 그래도 더 많이 나왔지요. 그 때는 시작이니까 무서웠잖아요. 그 때는 통제도 좀 심했고, 안 나오면 출당도 시키고 출당되면 다 추방가고 그럴 때니까 나왔지요. 그러다가 서서히 서서히 그렇게 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왔다 가고 남북관계가 긴장이 좀 완화되고 그러니까 사회통제가 좀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 열 명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얼굴이 나 집이나 지키다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 출근하는 10%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90%의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일상 노동생활을 꾸려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까? 노동자 백 명을 기준으로 그 중 90명은 시장에서 노동과 생계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유하고 김정일체제로의 체제재정비 사업이 완료된 2000년 이후 직업에 따른 정상적 노동생활이 주변화되고, 생계를 위해 개인 및 단위별로 다양한 노동이 북한 노동계층의 일상적 노동생활로 자리 잡은 것은 국가에 의한 공식·비공식적 허가가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기점은 북한의 사회주의경제 부분개혁이라고 평가되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경제관리체계가 나오면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인 이런 것을 국가 자체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기업관리체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개인관리 체제처럼, 실체는 기업관리면서도 개인관리처럼. 어떤 식인가하면 내가 쌀을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옛날에는 농장도 협동식으로 해서 농장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외화벌이 기업소라고 하면 우리 외화벌이 기업소에 농장의 땅을 떼어 줬어요. 떼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분배 식으로 배급을 주지만 그게 국가의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

92- 이에 대한 사례15의 증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부와 당원들. 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고, 집에 가 봐요. 노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원이 아니더라도, 간부가 아니더라도 집에 가 볼 수 있잖아요. 가요. 이렇게 사는 데 너희 이것도 안 내? 너 저 집이나 같이? 양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주의인데. 그리고 너 어디 다른 어디 기업소 가! 그럼 다른데 가서 8:3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출근해야 돼요. 처음에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받는 기업소도 없어요. 그러면 붕 떠요. 뜨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식들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무직이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아파도.”

법관들이라면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넘기게끔 변화가 되었던 말이에요. 2002년 7·1조치 이후 그때가 기본 그렇게 달라졌지.(사례18)

이같은 중앙조치의 변화는 사회통제 양상의 변화도 초래했다. 법제도상으로는 여전히 비법행위임에도 처벌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랐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법이 일상적 생활화된 것이다.<sup>93</sup>

또한 공장가동이 불안정하다보니 생산 계획이 ‘현물계획’ 위주에서 ‘현금(액상)계획’으로 대체되면서,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의 공식·비공식적 단위운영 계획에 따라 정상노동의 주변화는 일상화되었다. 이에 대한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관리체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 기업소 책임자, 여기로 말하면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제철소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한 명 빠져도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철소가 국가에서 주는 계획을 가지고 하면 개별 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들 회식할 때 술을 사줘야 하는 그런 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장사를 잘 한다든가 그런 사람을 내부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넣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내준단 말이에요, 국가에다가는 이 사람이 다니는 길로 해놓고.

<sup>93</sup>- 2006년 탈북한 사례18은 사회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2002년 이후 사회통제가 형식적으로는 더 강해졌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더 강해지지가 못했죠. 왜 그러냐면 통제하는 사람 자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러졌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약한 사람이 죽게끔 되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국가로부터 직책을 받은 이들은 말하자면 비행적인 것을 단속하고 통제해야 자기 성과가 되잖아요. 일이 국가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자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실제 약한 것들을 잡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분명히 법은 어겨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살당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실제 쉰 놈도 안 죽고 중간 놈들, 그런 놈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마당에 나오죠.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기업소는 돈을 주니까 이득이고 이 사람은 장마당에 나와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사례18)

다음으로 농민들의 정상 노동생활이 주변화된 실태를 살펴보자. 농민의 경우, 노동자에 비해 출근과 생활 통제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정상 노동생활 역시 주변화되고 있다. 대개 작황 상황이 부진한 농장의 출근율은 20~30% 정도로 상당히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농장원들이 19명이라고 해도 실제 나오는 것은 6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파서 못 나오고, 식량 사정으로 해서 일하러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볼 때 6명으로 농사짓는” 상황이라고 한다(사례23).

전체적 농장 상황과 농민들의 노동양상에 대해 회령시 농장원 출신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우리 농장은 작은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농장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800명 정도 있어요. 작업반이 다섯 개 작업반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관리 일꾼들도 있고요. 분조는, 작업반 밑에 분조가 다섯 개씩이에요. 분조의 출근률이 19명에서 6명이 했다면 20내지 30 프로 정도. ... 어떻게 되냐면 농번기 들어가서 6월부터는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출근률이 더 없어요. 공식 분배 탕을 때는 그래도 모두 출근을 많이 해요. 그런데 6월부터는 식량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출근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사례23)

다음으로 현재 북한 주민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화벌이 사업소의 운영 및 노동양상을 통해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 실태를 살펴보자.

국가계획은 없어요, 그저 돈(액상) 계획이지. 그게 계획이지 물건 쪽으로 무엇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있으면 무엇이 있냐면

무슨 계획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렸나하면 각 회사당 비료를 200톤씩 해라. 그런데 만약에 200톤씩 하지 않으면 대방(중국 거래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안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일이 농사를 지으라고, 비료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정책적으로 그것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자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내가 중국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중국 사람을 만나려면 이제처럼 절차가 있는데 이런 권한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 그렇게 계획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달에는 낙지 몇 톤을 수출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또 중국 대방이 말하자면 약초가 필요한데 좀 달라 그러는데 장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도 내가 북한에 5월이면 낙지가 나오는데 그걸 할라고 하지 5월 달에 겨울에 나오는 명태를 찾지 못하단 말이지요. 그렇게 돼요.(사례18)

대개 기업의 발전 경로를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자연 생산물을 중심으로 한 단순 무역 위주의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기업의 내포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시기별 생산품과 사업 진행자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94</sup> 그러다보니 무역회사들끼리 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정식 노동자를 고용하기 보단 그때그때 필요 물품과 거래 성격에 따라 일시적 노동을 고용한다. 그 중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있을 경우 간혹 장래성을 보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그 양상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sup>94</sup>- 이에 대한 사례18의 증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역회사가 발전할수록 전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전문이 되지 않고 시기별로 따라가는 그것을 많이 따라가요. 전문으로 하려면 여기는 그렇잖아요. 송이라 하게 되면 봄부터 송이를 가꿔서 그 철에 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송이철이라고 하면 송이로 짝약 돌고, 그리고 낙지철이라고 하면 짝약 낙지로 돌고 그래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 거기는 원천을 자기 자체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처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하잖아요. 그래서 합영기업을 해서 양식같은 것을 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는 자기가 못해요.”



여기(한국)는 회사라 하게 되면 전문적인 말하자면 내가 사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면 그런 규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예요. 함남도 덕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채마가 많이 난다고 하게 되면 거기 가서 거기 주변 사람들이 산에서 캐온 것을 수집 하지요. 돈을 주고 쓰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제 내가 거기 파약을 못 하잖아요. 그 지역을 모르면 그 지역 사람 중에서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돈을 대불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실에 가까운 사람이 정보도 많이 알고 사기도 잘 살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럴 때 채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업으로 하죠. 그런데 나부터도 그 사람이 회사에 이익을 많이 준다고 한다면 입직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입직시켜서 그 사람이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사례18)

비법과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는 계속 확장되어 2007년 이후에는 특급 연합기업소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2007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현재(2007년)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뒤 끝에 장사업이, 말하자면 자유 경제의 흐름이 농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에서 버는, 직장에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버는 수익금 가지고는 생활상 너무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에 많이 매달립니다.”라고 증언한다(사례34).

## 나. 생존: 비공식적 생존시스템 작동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가 확장된 이유는 북한당국의 암묵적 묵계에 의해 ‘생계해결을 위한 노동조직 운영’과 ‘하층관료의 자율성 증대’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나 농민들은 비공식 생존시스템을 형성했다. 시기적으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제도화된 북한당국의 단위별 ‘자력갱생’ 정책<sup>95</sup>은, 배급과 공적 부조

<sup>95</sup>- 한편 생산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 발전된 국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북한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인민의 주체적인 생활개혁, 절약 및 내핍 정책, 자립경제 등이 주체

(扶助)를 책임질 수 없는 국가경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각 직장 및 기업 소 별 생존을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직장 및 단위들이 자체로 직원 및 구성원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운영이 일상화되었다.

또한 이 과정은 각 기관 및 작업장의 상대적 독립성과 함께 하층관료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더불어 공장에서는 ‘8:3노동자’로 등록하거나 현금으로 출근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연해지고 일반화되었다. 이들은 가내작업이나 시장, 각종 개인적 또는 비법적 생계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수입 중 직장별로 정해진 금액을 출근 대신 직장에 지불한다. 물론 이 같은 상황도 지역별 및 단위별로 차이가 있으며, 노동조직 운영의 변화도 컸다. 이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2000년 전에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은 다 잘 아시겠지만, 시련, 고비 시기가 지난 이후 북한의 경제 체계라는 것이 전에 없이 다 달라졌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체계라는 게 하나의 일련의 공급체계라면 그 공급체계의 흐름이 완전히 마비상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죠. 시장이 많이 생겨나고 그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돌아갔죠. … 기초 생활식품을 다룬다거나 철도, 광산 중요 실태가 그렇다보니

사상과 연결되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자력갱생’으로 제도화된 정책의 연장선에서도 이해 할 수 있다. 북한의 역사에서 제도적으로는 1960년대 중반이후 사회주의권 원조가 대폭 감소된 이후 군(郡)단위 ‘자력갱생’과 각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 실시, 그리고 1973년 지방예산제 도입 등 중앙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경제자립 정책이 실시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경제난 이후 행정·경제적 독립채산과 ‘실리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전에 비해 지역 및 부문별 생존체계 구축이 용이하게 되었다. 물론 그 수준은 체제개혁기 소련과 중국의 지역·부문별 자율정책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도’ 등에서 나타나듯, 아래로부터 형성된 팽배한 자생적 생존체계를 북한정권이 허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영자, “북한 지방정권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2005).

I
II
III
IV
V

까 여느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것은 전기 사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본 철도를 비롯한 주요 요충지들이 전기 공급량이라든지 일체 자재 공급량이 거의 마비상태니까 중소기업은 아예 없고, 대체적으로 한달에 중소기업들은 아예 공장기업소가 돌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자체로 먹을 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서 찾아라, 너네 자체 기업소 안에서 먹을 것을 풀어 줘라. 이런 내적인 것들이. 공식적으로 노동자의 연간 공식휴가 외에도 8:3이라 해서 시간을 줘서 한 달에 만원부터 2만원, 그 사이에서 돈을 걷고 공장 기업소가 그 돈을 가지고 기업소를 유지해 나가는 실태로 되어 나가고 있죠.(사례2)

농민들의 경우, 농장의 공동 합법경지 생산물 전부와 가족단위 비법 경지 생산물 중 30%정도를 농장 중앙에 바치면, 노동일과 노동량에 따라 일년에 한번 추수 후 그에 대한 분배를 받는다. 그러나 그 양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대부분 가족단위로 분배된 소토지 생산을 더 열심히 하여 식량을 마련하거나, 개인이 농장 몰래 경작한 비법경지 생산에 더 힘을 기울인다. 즉, 농촌의 경우도 농민들의 생계해결을 위해 합법과 비법 경지가 공존하고, 농장 하층 간부들이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조직 운영에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합법과 비법이 공존하는 노동조직 운영과 하부 생산단위 운영, 그리고 관리 주체인 하층관료들의 자율성 증대로, 이들 생산 단위 책임자들의 능력이 소속원의 생계와 직결되거나 안면관계와 뇌물관계가 일상생활화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계층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생존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본적인 식량문제가 10년 넘게 체제 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지속되는 결핍생활에 북한 노동계층은 상당한 적응력을 체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의 중앙-지방 관계의 이완’, ‘지방 및 각 단위의 독자적 생존방식 구축’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권력과과의 관계에서 통제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권력이 지역과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정치사상적 통제를 지속하니 각 지역·단위·개인별로 생계를 위한 독립적 행위와 의식이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북한권력층이 집중되어 있는 평양과 황해도 지역은 불안정하더라도 배급이 지속되고 곡창지대로 감시 및 통제가 심하기에 중앙권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함경북도, 신의주 등 국경지역에서 중앙권력의 통제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주민들이 독자적인 생존체계를 구축하여 생존하고 있다. 생존체계 구축정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식량배급 문제와 시장 형성과 발전 정도, 그리고 중국과의 왕래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의식과 생활 변화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 배급제가 1980년대 말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함경북도는 생활의 변화가 크고, 97년에 배급이 끊긴 황해도는 변화가 느렸다.<sup>96</sup>

한편 개인별 생존능력과 장시능력 정도에 따른 노동계층 일상생활 변화는 이들의 비공식적 생존시스템을 강화하게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첫째, 배급체계 와해와 공장가동률 저하, 둘째, 공장 및 기업소에서의 이탈, 셋째, 개인 생산의 확대, 넷째, 규제와 반발의 동시작동이다.<sup>97</sup> 특히 2003년 ‘종합시장제’ 실시로 인해 생계해결은 노동계층 개개인의 생존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직 운영과 하층관료의 자율성 증대가 제도화되었다. 종합시장제는 북한 상업·유통 분야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2003년 3월말부

<sup>96</sup>- 박영자, 위의 글.

<sup>97</sup>- 이영훈, “농민시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경제』 (서울: 한울, 2005), pp. 166~183.

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허용한 것이다.

종합시장제 이후 개인 뿐 아니라 기관·기업소의 판매 관련 조직도 상행위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일부 허용되었다. 과거 농민시장에는 개인만 참여했으나, 종합시장에서는 농민이나 일반주민뿐 아니라 국영기업소·협동단체도 시장 활동에 참여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의 경우 판매 매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고 하며, 외국인도 시장 판매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들에게 ‘시장사용료’를 내게 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sup>98</sup>

그렇다면 북한의 노동계층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생존 시스템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주요 증언 중심으로 확인해 보자.

2000년 이후에 출근율이, 맨 처음에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김정일의 방침이 떨어지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한 번 총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기업소에 가족까지 배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우리 연합 기업소에 있으면 가족까지 배급을 줬어요. 그러던 것이 기본 출근율이 하락된 이유가 거기에서 가정부인들을 다 뺐어요. 빼서 가정부인들은 무슨, 이런. 인민소비품 작업반 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대상으로

---

<sup>98</sup> - 평양의 경우, 2004년 여름 시장사용료는 만원 안팎이고 국가납부금은 품목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공업품 500원, 육류 300원 등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함남 단천, 함북 회령 등 지방의 경우 품목 대부분의 국가납부금이 100원 미만이라고 한다. 함남 단천의 경우 2004년 봄 현재 공업품은 60원선, 생선·식용유·쌀은 40원, 농토산물은 20원이고, 회령에서는 공업품이 50원, 식품류는 20~30원이라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전한다. 또한 2004년 4월부터 통일거리 시장은 시장 내 도매반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200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경제학회, 2005), pp. 6~7.

해서, 26호 대상<sup>99</sup>으로 배급소에 가서 제 돈을 내고 사먹게 했거든요. 조금 싸게는 사는데 쌀은 또 쌀대로 약간 싸지만 질이 완전히 한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죠. … 여성들이 장사를 하는데 남성들이 많이 종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남편보고 무엇을 좀 도와 달라, 무엇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무를 해다가 안주인한테 해주면 나무를 파는 사람이 있고, 목수재간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삽자루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안주인한테 주면 안주인이 또 이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연합이 되어야 장사가 되니까.(사례34)

97년도까지는 일 년에 며칠을 못 돌려도 그래도 약간의 자재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97년도 이후에는 원래 거기 공장이 480명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2명 그렇게 밖에는 없습니다. 일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다음에는 동원 다니고, 도로 닦기에 가고 밭에 김매려 농촌에 집체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피복부분이라는 것이 처녀애들하고 여성들이 많은데 직장에서 배급을 못주고 이러니까 하나 둘 나간 것이, 그 480명 되던 것이 그렇게 인원이 쭉 가고. 마지막에는 종래 피복 공장이 해산되어서 군에 있는 피복 공장들을 하나로 만들었다고요. 직물 공장하고 피복 공장을 하나로, 너무 일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동원을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서 자체적으로, 기업소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을 지배인들이 몰래 팔죠. 8·3제품은 아닌데, 자기네 천을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대흥단 같은데 농촌에 갖고 가서 감자랑 이런 것을 바꿔 와서 종업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사례35)

국가의 법제도와 규칙에 따라 생활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생존을 위한 자생적 메카니즘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각종 이탈행위가 증대한다. 특히 기업 및 권력층의 이탈행위가 노동계층의 생존을 위한 이탈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즉, “외화벌이도 도둑놈이고, 돈 내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지만, 기본 그 사람들 때문에 도적이 성행하고”(사례34) 있다는 것이다.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

<sup>99</sup>-사례35에 의하면 26호 대상은 “장마당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늦게 살 수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





에서 돈이 도는 것은 외화벌이 관련 직장이기 때문에, 특히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외화벌이는 노동계층의 중요한 생계해결 기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무산광산에만 17개의 외화벌이 단위가 있고 청진은 약 300개 이상의 외화벌이 기업소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수많은 외화벌이 기업소의 각종 비법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를 통해서 ‘비공식적 생존시스템’이 형성되기도 한다.

평양지역 공장노동자 출신으로 가내편의에 적을 두고 장사와 미용을 해서 살아갔던 한 여성노동자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비공식적 생존 시스템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국경하고 장사를 했어요. … 적은 두었어요, 가내 편의, 여자니까. 놀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세대주로 남편이 없으니까요. 가내 편의에 적만 걸어두고 장사를 해서, 돈을 넣으면 돼요. 미용으로서 한 달에 그저 1,600원 넣었어요. 그렇게 넣어 가지고 미용으로 해서 가내 편의 미용사로 적을 걸어 놓고. 그런데 미용이라는 것이 또 이미 항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 토대를 닦아 놨으니까. … 그러다보니까 집을 꾸리지 않고 간판만 걸어놓고. 또 이제 언니가 외화벌이 기지국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넣고 같이 따라도 다니고, 이제처럼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고, 또 아들이 계속 돈을 대주고 그렇게 하다가 무산 쪽으로 장사를 왔어요. 사실 방향을 바꿨어요. 평양 장사가 너무 많고 그래서 다시 무산 쪽으로 장사를.(사례36)

한편 정상가동 기업소 노동자 경우에도 생존을 하려면 공장 노동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통제와 출근 대신 내는 현금을 내지 않고 자기 개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대표적 현상이 병원 ‘요양 진단서’ 제출, ‘8·3노동자’로 등록, 직장 ‘격차 노동(격차 로력)’ 등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2007년 북한의 한 연합기업소 실태를 통해 살펴보자.

진단서를 끊는 사람이, 어쨌든 고정 환자들은 매 직장별로 우리도 통계를 해보니까 7, 8 프로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어쨌든 자기 노동 연한을 채워야 노동 연금이라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거든요. 자기가 이것 이상년만 있으면, 60을 채우면 보장이 되거든요. 이 보장하고 일을 하다가 그냥 늙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자지만 해주고, 그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적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년이 되면 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60이 넘어서 돈을 받거든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직장에서 너는 직장에 나와서 일도 못하는 데 나가라고 하면 완전히 증오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북한은 그 체계가 있으니까요.(사례34)

8·3은 그것도 기업소 별로 다릅니다. 우리 기업소는 그 인원이 10 퍼센트 됩니다. 그리고 격차노력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한 15에서 20 프로 정도 돼요. ... 33 프로 이상이잖아요, 세 개를 다 합치면. 그러니까 보통 만가동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을 다 빼고 하는 것이 60에서 70 프로가 되는, 보통 70 프로로 보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새는 노력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장한테 이렇게 따져보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새는 노력이 많아요. 그런데 출근율하고 이것하고 퍼센트 수가 안 맞는데요. 아까 70 프로를 보통이라고 했죠. 70 프로가 보통인데요, 환자 수가, 실질적인 환자 수가 칠팔 프로가 됩니다. 매 직장별로 통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180명, 25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직장이요. 그것을 보면, 어쨌든 장기 환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계절 감기라든가 계절병으로 해서 앓는 사람이 있고, 또 여성들이 병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 매 직장별로 칠팔 프로는 꼭 올라옵니다, 병결하는 사람들이요.(사례34)

북한에서 반드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기에 배급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이루어지는 특급 건설연합기업소 경우가 이렇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했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기업소에서 현금계획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격차 노력’이다. 격차 노동은 기업소에서 소속 노동자들을 외부 일터에 내보내

I
II
III
IV
V

일을 시키고 출근을 인정해주면서, 보수를 현금으로 받아 그 중 10%를 직접 외부 일터에서 일을 한 개별 노동자에게 주는 형식으로, 규모가 큰 특급 연합기업소나 1급 기업소에서 작업조를 편성하여 돌아가면서 외부 일을 시키고, 그 수입으로 기업소 운영과 배급 비용을 보충하는 것이다. 격차 노동 초기에는 기업소 노동 대신 외부 노동으로 월급과 배급을 탈 수 있도록 기업소 차원에서 배치했는데,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의견이 너무 많아서 어떤 직장에서는 규정을 그렇게 했어요. 원래 규정은 직장에서 다들 10 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면 세 끼를 공짜로 다 먹여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해서 만원에 1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만원은 먹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그 돈을 먹고 식사까지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동한 것처럼 해주니까요. ... 격차 노력이라는 것이 자기 직장에서 타는 월급 만이천원이 있어요. 그것이 있고 자기가 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인은요. 그런데 자기가 외화벌이 직장 격차 노력으로 가서, 하루에, 한 달에 자기가 십만원을 벌었어요. 1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만원을, 다른 사람은 한 달에 만이천원을 받는데요, 이 사람은 이 만이천원을 받으면서 이 돈을 받거든요, 이만이천원을. 그러니까 직장에서 격차 노력으로 나가면 자기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로임을 받으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나가서 또 10 프로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다들 와 하면서 거기로 가자고 했거든요. ... 그런데 눈이 트면서 저것들이 돈은 그렇게 많이 벌면서 우리한테는 10 프로밖에 안준다고 이러면서 다른 일을 찾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개별 샅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샅발이들이 그렇게 생겼죠.(사례34)

격차 노동은 일상화된 8:3노동이 아니라 특급이나 건설 연합기업소 등 조직과 운영 능력이 있는 큰 기업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운영 및 생계비 보충을 위해 고안해 낸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비법적인 노동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8:3노동자들과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한 증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자인데 8·3소비품을 생산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노동자라고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기업소에 할 것이 없으면요. 기업소에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표별 계획하고 액상계획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 중에서 기업소에서 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너희 액상계획이라도 해라. 너희가 그 계획을 위해서 나가서 무엇을 해먹든지 목공으로 벌어먹든 건설로 벌어먹든 여기에다가 내라. 그리고 나머지 떨어지는 것은 너가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사례34)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생존을 위한 노동 양상도 지역별, 노동자, 농민별로 차이가 있다. 일례로 평양 노동자의 경우, “평양에서 있을 때의 공장 생활은 어떻게 보면 수도생활이니까, 수도니까 평양은 심장부는 공급이 정상화되었어요. 정상화되고, 월급이 정상화되고, 북한의 수도로서 자기 정규생활을” 했다고 한다(사례36).

농민들의 경우, “분조 15명이면, 대여섯명이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든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고 그래요. 도매로 해다가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만큼의 경제가 있어야 그 도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농민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장사를” 하곤 했다고 한다(사례39).

#### 다. 일당: 주변 직업

앞서 서술한 ‘정상 노동생활 주변화’는 북한의 직업세계가 와해되고 있음과 연계된다. 북한 노동계층 다수가 식량난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한 정상적 직업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이후 10여 년 이상 직업적 정상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직업 노동세계’는 와해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한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I
II
III
IV
V

사전적 의미로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하는데,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직업구분은 대개 ①입법직,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전문가 ③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사무직원 ⑤서비스근로자 ⑥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⑧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⑨단순노무직 근로자 ⑩군인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사회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이 노동자, 사무원, 농민에 속하는 ③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사무직원 ⑤서비스근로자 ⑥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⑧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⑨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이다.

그런데, 2007년 현재를 기준으로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 시기와 같은 정상적 직업구분은 무의미해졌고, 평균적 출근율이 20%내외로, 나머지 80%는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거나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일이 드문 상태이다. 출근율이 높은 단위는 국가관리기관, 당전문기관, 군대이고, 산업분야로는 군수산업, 외화벌이 산업, 국경지역의 중국 합작(대방)산업, 그 외 농장 등이다. 이중 농장의 경우, 도시와의 근접 정도와 협동농장 노동에 따른 분배상황, 지역 및 경작 작물, 비법경지 비율 등에 따라 출근율의 차이가 크다. 전체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직업세계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주변 직업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 직업(marginal working)은 최저의 생계수준 유지 정도의 보상만이 주어지거나, 공식적 경제활동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일의 내용상 사회규범을 벗어난 주변적 노동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위세의 서열구조에서 최하층을 차지하는 농업 임금노동자, 가정부, 개인서비스업, 음식서비스업, 세탁업 등 몇몇 서비스업 종사들이 이에 분류된다. 또한 매춘부, 도둑, 도박꾼 등 일탈적 일도 이에 포함된다. 이런 일들은

공식 경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직업’이라 보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이에 종사하고 있기에 주변적 노동 또는 주변적 직업이라 사회학적으로 칭한다.<sup>100</sup>

본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북한 주민 일상생활 실태 관련 2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직업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보편적인 것으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은 일당제이거나 주변 직업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것들은 규찰대, 소토지 생산자, 소작인, 가정부, 페인트공, 대리동원 노동, 개인교사, 샛군, 외화별이 고용원, 8·3작업반과 가내반 등이라고 한다.<sup>101</sup>

위에서 지적했듯 주변 직업 내에는 일탈 노동이 포함되는 데, 북한 노동계층 내에도 일탈 노동이 증대한 것이다. 일탈 노동(deviant working: 비정상 노동)은 사회적, 도덕적, 법적 기준에 어긋나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이다. 일탈 노동의 유형은 법적 인정에 따라 합법과 불법,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따라 불승인과 묵인으로 나눌 수 있다.<sup>102</sup>

이 중 북한 노동계층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노동 유형이 ‘비법(불법)적 사회적 묵인’ 노동이다. 대부분 정상 직업은 합법적이며 사회적으로

<sup>100</sup> - 유홍준, 『직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2000), pp. 189~193.

<sup>101</sup> - 물론 이 중 8·3작업반원과 가내작업반원 등은 1984년 김정일의 지침에 따라 확산되었으나, 일상생활 노동으로 북한 전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은 90년대 중반 식량위기 이후이다.

<sup>102</sup> - 자본주의의 경우, 불법적 불승인 유형 노동-부정한 직업(매춘, 도박, 마약거래), 불법적 묵인 유형 노동-규범위반 직업(보따리 밀수), 합법적 불승인 유형 노동-주변적 직업(스트립쇼걸), 합법적 묵인 유형 노동, 정상적 직업으로 분류된다. Rothman, *Working*(1987), p. 225; 유홍준, 『직업사회학』, pp. 194~195. 그러므로 북한의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법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에 기초한 북한 노동자, 농민의 주변노동 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승인된다. 그러나 북한 노동계층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때, 법적 일탈과 사회규범적 일탈은 일치하지 않기에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관리기관 내에서도 법적 일탈과 주변 직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묵인되기에 일상적 사회규범은 국가 법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규범 역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됨을 주목해야 한다.

비법이나 사회적 묵인을 통해 상당히 보편화된 신생 주변 직업의 대표적 사례는, 다양한 현금 일당노동(삭밭이)과 식량공급을 위한 일당노동, 계절노동, 식모, 품삯노동, 소작, 가정교사, 대리동원 노동(동원사업 대신 나가는 댓가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이나 식량을 받는 것) 등이다. 한편, 주변 직업 중 비법적이고 일탈적 특성이 강한 직업으로 마약장사, 매춘, 도박 등이 있다. 노동여성의 경우, 북한 노동계층 내에 여성들이 많고 가족 생계를 위한 여성의 내핍 및 출혈 노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시와 향구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소작농·고용농·가정부 등과 가내생산과 서비스 및 상업 분야에서 주변직업과 함께 일탈 노동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노동계층 사이에 확장되고 있는 일당과 주변 직업에 대해 그 구체적 양상 및 실태를 증언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국이 직업이 한 5만개가 된다면, 북한의 살아가는 방법은 5만개는 안 되더라도 몇 만개는 될 겁니다. 단지 장사라고 해도 수만 갈래가 있죠. 식료품 파는 거, 천 파는 거, 물고기 날라 오는 거, 쌀 파는 거, 하루 종일 누가 사갈지도 모르는 자전거 베어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차려 놓고 하루 종일 하나라도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역에서 리어카 끌고 나와서 짐을 끌어다 주는 것, 사람도 싣고 짐도 싣는 것, 큰 역전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소 같은 곳에 와서도 기다리구요. … 가정부들 같은 것, 먹고 자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고 … 그리고 그 위에는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기중기라 해서 열차 편성해서 가져가고, 막 천태만상이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구성되면서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식의주 문제에서는 국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사례3)

머슴을 뒹요. 그래도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못 뒹요. 그제 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내가 일당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 아무리 못 벌어도 이삼천원은 번다고 하면 오천원 줄테니 와서 일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수도가, 물이 잘 나오지를 않잖아요. 아파트 높은 곳도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없어요. 12층, 13층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요. 그런 것을 물을 길어다 줘요. 천 리터에 천 원, 이런 것이 있어요. 물을 길어다 주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 출퇴근이죠. 아침 8시부터 저녁에 밥을 먹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녁을 7시부터 8시에는 먹거든요. 그것을 거두고 오면 9시, 10시까지요. ... 하루 종일 내가 벌어서 이삼천원 밖에 못 번다고 한다면 내가 오천원 줄게. 오천원이면 그때 당시에는 쌀을 3kg 정도는 살 수 있었거든요.(사례25)

물을 길어주고 머슴식으로 잡일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백 명 중에 열명은 되는 데, 이것은 못 사는 동네의 경우이고 잘 사는 동네는 훨씬 많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시라도 우리가 사는 동네는 조금 못 사는 동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면 강남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국경도 끼고 계산의 중심 이런 곳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정 도우미는 열명의 두세 명 정도밖에 안돼요. 나머지 한 일곱 명 정도는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라고 증언한다. 다음으로 집을 수리한다고 하면 “오늘 와서 미장을 조금 해 달라. 미장을 해주면 오늘 어느만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자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백 명 중에서 한 일곱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사례25).

주민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들 다양한 일당 노동자들은 주로 남성들인데,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아니면 아내의 장사를 도와주거나 할

I  
II  
III  
IV  
V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곤 한다. 이에 관한 증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남자들이 집을 고치는 미장일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씩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에는 가서 그 집에서 자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일하면 돈도 벌어오고 집에서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 비법이죠. 노골적으로 못하죠. 비법으로 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기 전 2006년도까지는 다 비법이었어요.(사례25)

다음으로 농촌 동원과 각종 인민반 동원사업 등 각종 국가동원사업을 대신 해주는 대리동원 노동도 발전하였다. 모내기나 추수 때에 도시 사람들이 동원을 나가야하는 데, 장사하느라고 동원에 나가지 않고 대신 돈을 내거나 사람을 사서 국가통제를 피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농촌지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장마당을 못 나가게 막아요. 그런데 우리같은 장사는 놓고 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없어요? 하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은 장사는 타산을 해봐요. 내가 오늘 천 원을 내고 나가서 이만한 돈을 벌 것인가, 그 이상은 못 벌더라도 천 원은 벌 수 있는지 타산을 해 보거든요. 내가 벌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힘들게 가서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겠어요? 그럼 돈을 내거든요. 돈을 내면 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점심을 사먹고 일하고 그렇게 해요.(사례25)

만약에 생활총화가 한 달에 네 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 번을 하고 두 번을 빠지잖아요. 두 번을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것을, 위원회에서 물건을 낼 때나 돈을 모아서 어디에 지원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백 원을 모은다고 하면, 만약 모든 사람이 오백 원을 낸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 원, 남들보다 좀 더 내요. 그 동안에 학습도 못 참가하고, 생활총화도 못 참가하고 그

렸으니까 그렇게 더 내요.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여자들 자체가 다 집에서 놀고 장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번 주에 네번의 생활총화에 한 번 못 참가했다고 하면, 사회노동이 있거든요. 집체적으로 모아서 이 만큼의 일을 하라는 과제를 주거든요. 그럴 때는 그 돈을 모아서 사람을 사서 일을 한다고. ... 인민반장이 아니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집에서 노는 사람대로 여맹조직이 있거든요. 그 여맹조직에서 그렇게 다 조직해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같아요. 위원회에서 보면 안 나오고 했으면 돈으로라도 그만한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 도로공사나 뭐 아무거나 어쨌든 모아서 하는 일에는 꼭 해야 하니까요.(사례30)

다음으로 농촌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방문 장사(등짐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도시지역과 거리가 멀고 시장이 멀어서 일상적인 공업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거나 농산품과 교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들 주변직업의 실태를 증언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방문장사라고 해서 시골에 다 싸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바꿔 입고, 또 그 사람들은 그 강냉이 가지고 가서, 한 두 kg 이득 본 것을 가지고 가면, 또 시내에 가면 농촌보다 강냉이 값이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떨구어 먹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득금을 보는 거예요. ... 여러 가지요. 사람 쓸 것은 다요. 여기 슈퍼마켓에 있는 것처럼요. 등에 짊어지고 와서. ... 혼자, 동무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서로 따로 따로 장사하는데 묻혀서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쪽에는 셋별 군이 제일 못 살았어요. 셋별 군에서 많이, 우리 동포, 여기는 또 땅이 많다 보니까 농사지를 기본이 되니까 여기 와서 식량이고 뭐고 다 바뀌서 갔어요. 소금도 가져오면 소금 바꾸고 일체 다요.(사례31)

한편 정상 노동생활이 주변화되면서 다양한 주변 직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특급 연합기업소 노동자들도 조직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부업 또는 ‘교차 노동(교차 노력)’ 형태로 일당 또는

I
II
III
IV
V

주변직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기업소 노동자들은 어떤 경로로 주변 직업을 획득하는지, 2007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살펴보자.

우리 북한에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어쨌든 자유경제체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자체 자기네 기업소들, 회사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집, 저택, 그 다음에 건물들,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것 많이 짓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짓는데 기업소랑 체중을 하면요. ... 연합 산하에 있는 직장하고 직접 붙는 거예요. ... 직장장하고 그 곳 사장하고 둘이 하죠. 둘이 해서, 우리 미장공이 세 명이 한 달간 필요한데 내가 그 일을 해주면 얼마 주겠다고 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장은 이 공수를 직장에다가, 이 공수를 이 세 사람이 건설에서 빠지는 공수를 채워요. 그러면 그것을 나머지 성원들이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라진 건설에 갔던 사람을 세 명을 뽑았어요. 미장공을 세 명을 뽑아서 외화벌이 사업소 주택 건설에 넣었는데요. 라진에 갔던 그 세 명 대신에 라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 명의 일까지 채우는 거예요. 어쨌든 행적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실제로는 65명이 가동을 했는데 68명이라고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 달은 벌어요. 그러면 이 돈은 그 본인이 10 프로를 먹고, 90 프로가 직장에 반납이 되요.(사례 34)

일당을 직장에 반납한다는 것은 직장장하고 부기, 초급당 비서, 이 3명이 90%의 돈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상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어떤 행위를 보이고 있는지를 다음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그래서 이것을 해서 차를 쓰고, 기름을 넣고 하는 것이 공동으로 쓴다고 해서 잡아 놓은 것과 같아요. 아까 내가 말한 보험금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뜯어 먹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에 분개를 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개인들이 기업소에다가 내가 몸이 약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놀겠다고 하면, 병원하고 해서 진단만 나라

고 그러면, 진단을 돈을 들여서 세달 동안 장기진단을 냈어요. 그러면 장기진단을 내면 세달 동안 자기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장기진단을 내는 것이 있고 8:3이 있어요. 내가 8:3을 들어가겠는데 한 달에 기업소에다가 얼마 내겠다고 하면 직장에서 타산을 해요. 애가 분명히 개인 일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네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건설 인력이 아니고 빠져도 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해주고 그렇게 공동으로 일해 줘도 돈을 벌 것도 없으니까 8:3으로 빼줘서 오천 원에서 만 원이라도 받자고 해서 빼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3만원 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외화벌이들 주택들 다니면서 보수도 해주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자기가 일을 해주고, 개인의 일을 맡아서 해요.(사례34)

8:3 노동자들도 가동이 되는 연합기업소 등의 소속 노동자일 경우 출근대신 돈을 내기 때문에 정상적 배급이 이루어진다. 일당제 노동이 가장 보편화되고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 건설업인데, 이들은 대개 2007년 기준으로 북한 돈으로 일당 오천 원을 받는다고 한다. 일자리만 있다면 훨씬 좋은 노동조건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주택 신증축과 연계되어 일상화되자 북한당국이 2006년 11월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당제 노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이 조치가 아래로부터의 흐름을 차단하진 못했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일당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형태의 노동을 “삿발이”라고 지칭하는 데 이에 대해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내가 어쨌든 기업소를 출근을 하면서도 개인 배를 두 척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여기서는 그것을 보고 알바라고 하는데, 우리는 삿발이라고 해요. 삿발이 선장한테 배를 맡겨가지고 그 선장이, 수익금에서 너하고 나하고 절반씩 먹자고 하면, 그 선장은 자기가 채용한 선원들하고 절반을 뜯어 먹고 나는 그저 절반을 먹는 거예요. 여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돈을 좀 만들어 썼는데요.(사례34)

I
II
III
IV
V

광산에서도 일당제로 인력을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 생산한 정광을 기차로 수송할 때 철도변에서 유실되는 정광을 회수할 때 임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일당 오천 원을 주고 정광 회수하는 일을 시킨다고 한다(사례35). 농촌의 경우에는 가장 하층 노동생활자로 계절노동이나 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먹거리를 얻는 형태의 노동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농사철에 가서 농사일을 해주고, 분배 몫을 주는 것처럼 준단 말입니다. 일당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을에 가서, 강냉이 200kg에 감자 300kg를 주겠다. 그러면 겨울에는 직장에 매여서 일을 하고, 여름철에는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일감이 없으니까 뽕밭 가서 계약을 하는데요. 나를 봄, 가을에 가서 몇 kg 주겠는가, 그러면 농사짓는 것을 내가 여름에 도와주겠다 해요. 같이 가서 그 밭에서 농사를 짓고 나를 몇 kg 달라고 해서 그래요.(사례35)

주로 농번기와 추수기 농촌에 고용계약을 해서 소작농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직장에서 허가를 해주었고, 전체 노동자 중 15% 이상이 이같은 주변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주변 직업 중에서 일탈적 직업으로 매춘과 도박, 마약거래 등과 연계된 노동이 증가하였다. 도박의 경우 2006년 북한당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검열하여 음지로 가라앉았지만,<sup>103</sup> 마약 거래는 대대적

---

<sup>103</sup>- 대표적 증언은 다음과 같다. “도박, 그것은 옛날에도 많고요. 지금은, 지금 더 많다 고는, 지금 더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게, 95년도, 2003~2004년도 그때는 도박이란 것이 집까지 다 팔아먹는 정도였는데요. 마지막에 도박이 그랬어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비사 검열 때마다 몇 집씩 잡혀가고 그랬어요. 화도, 주패, 그리고 당구요. 당구장 그래서, 도박을 너무 해서 북한에 당구장을 다 없었던 말입니다. 2005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에 없었어. 어쨌든 작년도(2007년)에 없어졌으니까요. 센 것은 만원까지 가고요. 한 판에 만원, 십만 원씩 하는 것도 있던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직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산에는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1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기본 넷이 있는데, 둘은 형제지간이란 말입니다.



인 처벌과 단속으로 잦아든 도박과 달리 더욱 번성하였다. 도박과 달리 마약이 번창하는 이유는 마약 거래의 주체가 주로 외화벌이 사업소이기 때문이다. 보따리 밀수도 2006년 이후 대대적인 단속조치로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요한 주변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다.<sup>104</sup>

보따리 밀수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옛날에는 그저 30%지만, 지금은 5%도 안 될 것 같아요. 2003년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5% 넘기가 힘들어요. 국경을 너무 봉쇄하고, 철조망도 그렇고요. 국경 연선에서 2005년도, 2006년도부터는 경비대원들이 돈을 받아먹고 한 번만 밀수를 시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제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대 사람들도 조금 떨어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비대 수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애네도 어려우니까 한 번을 해도 많이 받아먹는단 말입니다.(사례35)

유흥업과 유사한 직종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작년도(2007년), 오기 전에 그것을 없앴단 말입니다. 원래는 큰 호텔, 그런 곳에 가면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산에서 먼저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여자들이 개별적으로 몰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지방도, 일반적인 관참다는 식당에는 다 방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작년도 5월인가 그 일이 제기되면서 칸막이를 전국적으로

---

그 사람은 도박으로 해서 무산시장 경제 다 산다니까요. 북한은 한 번씩 잡혀 들어갔다 와도 돈이 어떻게 있는지. 가면 순 도박을 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그래요. 요술사처럼 주패랑 그렇게 다루고 그래요.”

<sup>104</sup> - 보따리 밀수 실태에 관해 사례35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보따리 밀수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옛날에는 그저 30%지만, 지금은 5%도 안 될 것 같아요. 2003년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5% 넘기가 힘들어요. 국경을 너무 봉쇄하고, 철조망도 그렇고요. 국경 연선에서 2005년도, 2006년도부터는 경비대원들이 돈을 받아먹고 한 번만 밀수를 시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제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대 사람들도 조금 떨어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비대 수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애네도 어려우니까 한 번을 해도 많이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몽땅 없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란 것이 다 없어졌죠. 그랬는데 청진 시내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돈을 내고 그런 것이 지금은 조금 덜 해요.(사례35)

## 라. 브로커: 자생적 노동시장 형성

주변 직업의 확장과 연계되어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변화에서 특히 주목할 것이 ‘자본-임금노동자’ 관계가 제도화되는 노동시장의 형성이다. 2000년대 이후 광산과 철강 등 주요 국영·기간산업 부분에는 불안정하게나마 배급이 이루어지나 다른 일반 노동계층에게는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상업부문에서 고용계약 및 소작농 출현 등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경영일지라도 서서히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길, 이는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곧, 노동력 상품화가 진척되면서 노동시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1987년 ‘개인적 노동활동법’이 시행되어, 본래 중앙경제체제와 어울리지 않는 가내수공업이나 생활서비스 부문의 개인기업이 장려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되던 시기 이미 이 부문의 전체 노동자 수가 37만 명이었는데, 1년 후인 1988년 4월 이 부문 노동자 수는 73만 명으로 증가했다. 당시 이 ‘개인기업’은 가족노동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었으며, 그 점에서는 ‘자본-임노동 관계’의 창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내수공업과 개인기업의 발전은 암시장 확장과 함께 역행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확대의 길로 나아갔다. 더욱이 당시 소련 경제가 인민생활품 공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소련당국은 이미 현실화된 사회흐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배경에서 개인기업에 의한 노동자 고용을 허가하는 단계로 진행되게 한 것이 1988년 시행한 ‘협동조합



법'이었다. 당시 소규모 협동조합들은 평균 25.1명의 종업원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시점에서 상당한 자본-임노동 관계가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법이 시행된 후 1년 여 동안 이러한 임노동체계를 가진 기업은 약 17만 개였고, 1989년 시점에서 이미 총 403만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었다.<sup>105</sup>

21세기 들어 북한 노동계층 내부에 고용계약 관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노동시장 형성으로 인한 사회균열과 체제이완 현상이 증대되자, 2006년 3월 김정일이 '노동자 개인고용금지' 조치를 하달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발전하였다. '좋은벗들'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3월 15일에 경제 관련 방침을 시달하여 개인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각종 기술 및 기능직 노동자들이 소속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주는 개인 사업자의 일을 해주며 돈을 버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조치는 개인이 간단한 기계설비를 구비해 생산하는 사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침은 각급 당 조직들에 통보되어 소속 직장을 이탈하여 개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을 해당 직종에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토의되었다고 한다.<sup>106</sup>

노동시장 형성·발전 과정은 불가역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회 체제 내부 작동 메카니즘이 되어 제도화될 경우, 국가권력이 생필품 공급을 책임지지 않는 한 강한 규제로 인한 일시적 수축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음성적 고용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며, 일시적 통제만 벗어나면 다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피고용자들인 하층 노동계층의

<sup>105</sup>- 오니시 히로시 저·조용래 역,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서울: 한양대학교출판사, 1999), p. 33.

<sup>106</sup>-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16호.



생존을 국가권력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층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지속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권이 노동시장을 제어하려 한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개인고용 금지조치에 관해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노동시장’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개인 고용이라는 것이 어쨌든 빈부차가 생기면서 나온 건데요. ... 자기 노동력을 개인이 써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기업소에서 써 주길 바라는 생각은 안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졌으면 하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고용이 되면 그것이 다 돈이니까 이런 방침이 떨어졌는데요. 개인이 고용 노동을 하지 말라, 노동자를 고용해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머슴이라고 했거든요. 방침 풀이에서도 딱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주 자본가들이 어쨌든 자기 집에 종이라든가 머슴이라든가 두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깎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자들이 좋아서, 고용이 되기를 많이 요구하고 여기에서처럼 고용센터는 아니지만, 그 고용에 종사하는 이런 거래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별이자들하고 이런 노동자들하고 연결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사례34)

이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용에 종사하는 이런 거래인들”, “외화별이자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연결”해주는 이들, 이들이 바로 노동시장의 브로커들이다. 예를 들어 외화별이하고 노동자를 연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양쪽에서 소개비를 받거나, 외화별이 기업소에서만 소개비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북한사회에서 일반화된 노동시장의 거래 주체라고 한다. 즉, “고용 체계를 이어주는 브로커”(사례34)가 사고용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과정의 심층 면접대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용체계를 연결하는 브로커가 최근 북한사회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수준이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소개소와 같은 수준은 아니며, 개인적이며 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상업이나 부동산 및 건설업이 발달한 국경지역의 경우는 상당히 발전하였으나, 내륙의 평안도나 평양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연계하는 이들은 브로커뿐만이 아니라 안면관계에 있는 각종 연줄망이나 기업소 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브로커가 한국처럼 직업적이고 일상적인 소개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식량난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식량난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공공연하게 등장한 것으로, 개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소에 소속된 간부층, 또는 장사꾼, 국기기관 하층간부 등 인간관계가 넓고 수단이 좋은 사람들이 부업형태로 브로커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양상은 다양하나 2000년대 일당 노동 증가와 함께 최소한 함경북도나 신의주 등 국경지역의 경우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차 주급제, 월급제 형태의 개인고용도 나타나고 있다. 브로커나 광고를 통해서 고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노동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사례는 그런 개인노동 양상을 상세히 보여준다.

식당은 두세명, 그리고 한 때에 집에 가서 애를 봐주고 그런 보모들이 많았는데요. 또 그런 것이 제기되어서 방침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 법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본은 보모들이 많고, 또 집을 봐주고, 그런. ... 시내 같은 곳은 오천 원 준다던데, 우리는 삼천 원이요. ... 그것이 주단위로 주는 데가 있고, 월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바쁘다고 하면, 주 단위로 주는데요, 기본은 다 월단위예요. ... 일감이 없어서 노는 사람은, 모든 직장, 우리 같은 곳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I

II

III

IV

V

한 달에 만원 바쳐라. 공장에 나와 봐야 오히려 손해니까, 그래서 집에서 놀면서 남이 집수리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 가서 일당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루에 가면 무조건 하루에 오천 원이란 말입니다. 수리하고 미장해 주고 그런 개별 인력들은 지금도 많고 그래요. 그런 것은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말만 내가 내일 집수리 하겠는데 사람이 좀 없을까 하면 말을 떼기가 바쁘게 기본 합숙생들 많은데요. 그래서 돈없이 개별 인력 하는 사람들은, 재간있는 사람들은 합숙하고 있고 그래요.(사례35)

브로커를 통해서건 고용자를 통해서건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은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경력 등이 중요 기준으로 작용하나, 무엇보다 연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나부터도 내가 누구를 시키자고 하면, 누가 직원 부하를 시킨다고 하면 특징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곱게 생긴 것을 찾는다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런 것을 위주로 하지 나이 같은 것은 상관없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해관계요. 내가 누구를 써서 얼 만큼 이해가 되겠는가에 따라서 나이가 상관없고 그래요. 상사가 끌어오는 데, 개별적으로 끌어오는 데도 거기에는 체계가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고 하면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걸쳐서 이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쓰는 식으로 그래요.(사례18)

무엇보다 사장이나 고용주의 이해관계와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주목할 것은 갈수록 개인의 능력 위주로 고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북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과 연출관계이다. 즉, “다 인맥관계로 해서 오죠. 어느 사람이 미장을 잘한다고 하면 그렇게 쓰죠. 그리고 아는 사람 없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있다. 그러면서 연출로 해서”(사례35)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정상노동이 주변화되고 각종 일당 및 능력제 노동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맥 및 연줄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북한사회에 노동계층 분화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 정도, 시장 활동 능력과 결합력 정도, 권력 친화력 정도, 노동능력 및 생산성 정도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생활수준별 계층이 뚜렷해진 것이다. 특히, 2003~2004년 노동계층 내부에 생활수준에 따른 계층분화가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 2. 지식인계층의 일상생활: 부업, “거두매”, 지식 판매, 비법과 뇌물, 공동생산과 직업세

북한에서 지식인계층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도출판 부문에 걸쳐 주민들의 이데올로기 재생산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생산·전달을 담당해왔으며, 그에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은 모든 계층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지식인계층은 경제난으로 인해 이전 시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 절에서는 경제난 이후 지식인계층의 일상생활과 생존의 방식을 부업, “거두매”, 지식 판매, 비법과 뇌물, 공동생산과 직업세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지식인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신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 가. 지식인계층의 사회적 위상

북한에서는 지식인을 의미하는 ‘인테리’를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으로 정의한다.<sup>107</sup> 즉 직업적으

I
II
III
IV
V

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망라한 개념으로서, 국가주권이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구별되는 집단이 아닌 사무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교사, 의사, 작가, 과학기술자 등이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의 범주를 구성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노동은 교육, 의료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문학작품 창작, 보도와 같은 문화·이데올로기적 영역, 기타 과학기술 분야 등 연구개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한 사회체계의 질서를 옹호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비판자로서의 지식인은 기존의 가치체계에 저항하고 대안적 질서를 모색한다. 반면 기능인으로서의 지식인은 특정한 권위구조를 합리화하는 정당화의 논리를 창출해내고 자신들의 능력을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사용한다. 북한에서 지식인은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 계층으로서 다른 계급에 봉사하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지식인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을 하는데, 지식과 기술은 일단 사람에게 체득되면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봉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식인은 이중성과 동요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본다.<sup>108</sup>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지식인은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라 … 책상머리에서 연구를 하고 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근로자”<sup>109</sup>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의 한 성원”이라고 규정된다.<sup>110</sup> 그러나 지

107-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364.

108- 이교덕, “북한의 지식인관과 북한변화에서의 지식인의 역할,” 『북한조사연구』, (2002년 7월), p. 317.

109-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1978년 10월),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72.

110- 위의 글, p. 157.





식인의 정신노동은 생산실천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노동의 과정이 개별적이며 노동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혁명성이 부족할 수 있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11</sup> 지식인들은 또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들을 “혁명의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사상의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본다.<sup>112</sup> 즉 지식인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주체인 동시에 끊임없는 통제와 사상적 개조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1990년대 소연방이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식인의 이중성 문제는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의 주요 원인이 지식인들의 반혁명화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노선을 견지하지 않으면 지식인 집단이 “큰 우환거리”로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13</sup> 1992년 12월에는 북한정권 출범 후 최초로 ‘조선지식인대회’가 개최되어 “지식인들이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의를 천명했다.<sup>114</sup>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지식인들은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배급 이외에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고, 사회적 위신 때문에 상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지식인계층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던 집단이었다. 이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구부릴

<sup>111</sup>-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5.7),”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 268.

<sup>112</sup>-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텔리정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79.

<sup>113</sup>- 『로동신문』, 1997년 11월 19일.

<sup>114</sup>- 차용현·서광웅, 『조선로동당 인텔리정책의 빛나는 역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p. 535.

줄도 몰랐고, 직장생활을 고지식하게 하던 사람들”(사례5)이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의 생계를 국가가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지식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담론이 확산된다. 여기서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는 것은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를, “당의 충실한 방조자”는 “당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을, “당의 훌륭한 조연자”는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제기하는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활동가”를 의미한다.<sup>115</sup>

최근에는 ‘붓대중시사상’을 천명하면서 지식인의 이중성과 동요성보다는 혁명성, 즉 당의 사상문화적 과업을 달성하는 “사상문화전선의 전초병과 기수”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붓대중시사상’이란 선군정치 시대에 총대로 상징되는 군사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붓대로 상징되는 대중을 계몽하고 각성시키는 지식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제국주의자들과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의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편의 좋은 노래와 글은 천만자루의 총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이다.<sup>116</sup> 2007년 11월에는 다시 전국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지식인들의 사명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력의 근본핵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117</sup>

<sup>115</sup>- 위의 책, p. 452.

<sup>116</sup>- 위의 책, pp. 527~531.

<sup>117</sup>- 『로동신문』, 2007년 11월 30일.



북한 사회에서 지식인계층은 지식인이 갖는 이중적 속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지식인 고유의 비판적,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당 정책의 집행과 사회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제난 이전 시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국가 배급망에 의존해 생활해왔고 배급과 사회복지면에서 노동자나 농민 등의 기층 민중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지식인계층의 삶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경도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이들 “국가적 혜택을 받고 살던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나갔다.

## 나. 지식인의 생존 방법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핵심축이 되는 지식인들에 대한 식량 배급은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편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완전히 중단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급이 전면 중단되었던 고난의 행군기에 지식인들은 배급이 아닌 다른 생존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지역에 따라 의사, 교원 등 일부 지식인 집단에게는 배급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sup>118</sup>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에 정착된 삶의 방식들은 2000년대 이후로도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어 갔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지식인의 일상생활을 대표하는

<sup>118</sup> 사례40의 증언에 의하면 회령 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교원들에게 배급이 100% 제공되었으며, 이와 함께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좋은 벼들에 의하면 2007년에 대부분의 직장들이 배급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의 교사와 의사들에게는 한달에 옥수수 15kg 정도의 배급이 제공되었다고 한다. 『오늘의 북한소식』 제59호.



키워드는 부업, “거두매”, 지식판매, 비법과 뇌물, 공동생산과 “직업세”이다.

### 1) 부업: 시장과 연계된 생계 대책

경제난으로 배급이 중지되자 노동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자체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경제난 시기 공장과 기업소는 가동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떠나 장사 등의 생계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만, 교사나 의사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은 노동의 속성상 일터에 긴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에 고지식하게 일터를 지킬 것만을 고집하다가 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는 지식인들을 목도하면서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경제난 초기에는 언젠가는 배급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아침에 지각할까봐 막 엄청나게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만 충실한 것은 “어리석은, 그릇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사례5). 일부 지식인들은 이직이나 전업을 함으로써 직장 출근이라는 부담감 없이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노동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이나 노동시간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시장과 연계된 활동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즉, 교사, 의사, 연구자 등의 본업 이외에 장사라는 이중, 삼중의 직업생활을 영위한 것이다. 지식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본업 이외에 수행하고 있는 장사 등 부업 경험을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녁에 와서는 술도 해보고 옆집에서 사탕하는 거 배웠다 해가지고 그것 도와주고 또 사탕하는 것도 배워서 집에 와서 사탕도 해보고. 저는 밤잠 자지 않고 그랬어요.(사례5)

병원 안에서도 중앙 배급가지고 딱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의사하면서 자기가 장사할 수가 있어요. 의사하면서 그런 장사하는 선생님들도 더러 있고 교두약 나오면 통째로 받아가지고 장사꾼들에게 넘겨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리운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엔 또 땅이 많아요. 자기일 하면서 농사를 조금씩 지어서 생활에 보태는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 딱 직업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중 삼중 겸직하면서 일해요.(사례40)

담임 없는 선생들은 혹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교원들은 바다에 나가요. 낙지잡이라든가 낙지철에는 두달, 석달 동안 나가고 그 보충수업을, 이쪽 선생이 앓거나 장사 떠났을 때 보충수업을 해준다. 계약은 학교하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갔을 때 중국 장관지 있잖아요, 말하자면 북조선은 레자라고 해요. 그 장관지로 살 걸 계약하고 간단 말이에요.(사례21)

이렇게 본업 이외의 직업활동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은 일반적으로 본업 수행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배급에 맞먹거나 이를 능가한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지식인 가구의 월 수입 사례를 보면 대학 교원 노임 220원, 부인 노임 180원, 장사 150원(설문 12: 대학 교원, 2003년 기준, 함경남도 함흥, 40대), 연구원 노임 3,500원, 장사 2만원 내지 10만원(설문 39: 연구원, 2006년 4월 기준, 평안북도 신의주, 40대), 교원 노임 2,800원, 장사 12,000원(설문 30: 교원, 2005년 5월 기준, 함경남도 함흥시, 40대) 등으로, 시장과 연계된 부업을 통해 취하는 경제적 이득이 본업의 대가로 받는 노임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7·1경제조치 이후 물가 상승과 시장 활성화로 인해 지식인계층 한달 노임의 실질적인 구

I  
II  
III  
IV  
V

매력은 쌀 몇 kg그램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급이 100% 지급되지 않는 이상은 본업 이외의 별도의 부업을 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형편이다.

교원, 의사, 연구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일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장과 연계된 부업이 보다 용이하다. 예를 들어 다음 증언과 같이 작가나 기자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역, 전속, 이런 작가들은 장사를 좀 뛰어나니, 나도 장사를 좀 다 했거든요. 구실이야 취재 좀 가본다지요. 구실은 그건데 사실은 나도 자식이 있고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장사하러 다녔었죠. 그러니까 가서 취재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지도 취재는 취재죠. 나름대로 그 처참한 현실 열악한 거 이래 다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보면서 또 내가 장사할건 장사 해가지고 오죠.(사례24)

기자는 삼개월까지 분기증명서라는 걸 해줍니다. 1분기, 2분기 이렇게 분기증명서라는 걸 내주는데 전국 각지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걸 아주 기자한테는 유리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다닐 수가 있죠. 북한에서 기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건 우선 내가 양강도 기자다 하면 자기 돈에서 아무 데나 가서 먹고 잘 수가 있어요. ...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 농촌에 식량을 구하러 간다, 아니면 장사를 간다, 가을철 같은 때에는 잣을 캔다든가 여름철에는 고사리를 거둬들인다든가 이럴 때에는 취재 목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면서도 자기가 그 신분증만 내놓으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간다, 내가 장사목적이 아니라 취재목적이다 하면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자간에서도 기자신분증을 내놓으면 특별히 검문검색을 안 합니다. 그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례38)

기자와 같이 사회적 이동이 용이하고 시간 조절이 가능한 직업은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본업이 장사라는 부업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학 교원들 경우에도 실습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사금 채취를 한다거나(사례42), 다른 지방으로 공장실습을 나가면서 장사끼리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한다.

## 2) “거두매”: 관계망에 의존

교원이나 의사와 같은 경우에는 일터에 긴박되어 있고 개인적인 시간의 활용이 어려워 상거래행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들 직업군의 지식인들은 직업상의 관계망에 의존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생계를 유지해나간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교원이다. 교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경제난 이후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감소되면서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학생 개인이 소비하는 학습용품 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 학교의 책걸상과 시설의 개보수, 학교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드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이전 시기에는 국가가 제공하였던 공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떠안게 되었다. “학교꾸리기”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사 개축 및 보수, 교구비품 수리, 건물 도색, 운동장 정리, 도로 포장, 화단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도 학생과 학부모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학교 관리·운영 비용과 파철, 파동, 폐지 등의 “거두매”(사례21)를 통해 확보되는 물품이나 금전의 일부를 교원들의 생계유지에 활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자동원 이외에도 교사가 권력과 재력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의존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롯한 생활상의 편의를 얻는 방법 또한 교원들의 주요한 생계 수단이 되고 있다. ‘좋은 벼들’에 의하면 도시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이 순번제로 돌



아가며 선생님들의 식량을 대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청진 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돌아가며 순번제로 일인당 쌀 1kg씩을 학교에 내서 선생님들의 식량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119</sup>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학부모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교원들의 주요한 생계 원천이 됨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이 못 거두기, 병 거두기, 돈 내기 이런 거 한단 말이예요. ... 기본 방식이 뭐인가? 거두매 방식이란 말이예요. 학교에서 유리 비닐방막 뚫 것도 있고 유리 깨진 것도 있고. 우리가 한심하다고요. 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장이라는 게 유리, 이번에 학교에서 일습으로 교체해야 된다거나 빵끼칠해야 된다거나 횃가루 칠해야 된다거나, 이런 계기점을 준다구요. 그 계기점을 노리고 담임선생들이 학생들을 뜯어가 횃가루 부탁하면 횃가루 아니라 돈 내게 한다구요, 그 계기점을 노려서. 그 돈 내는 거 거둬서, 횃가루는 횃가루대로 들어오고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그럼 돈은 돈대로 갈아버리고서리 그 횃가루 가지고 횃가루 칠하고.(사례21)

학부형 부모위원장들도 애들이 담임선생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나온다, 못 가르쳐 준다 그러면 발동이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배급을 보장해 주고, 옷을 지어내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어차피 학부모 형들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교단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사례14)

대학에서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이 “거두매”를 통해 교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집단적이거나 개인적인 흥정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시험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준다거나, 학생이 장사를 가기 위해 장기간 결석

<sup>119</sup>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9호.

하는 것을 용인하는 대가로 현물이나 돈을 교원들에게 제공한다.

의사나 기자들도 자신의 고객이나 취재원 등 직업상의 관계망을 통해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다. 의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의 주민들에게 치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나 식량을 제공받기도 하고, 권력과 재력이 있는 고객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이나 식량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도 한다.

내가 담당하는 구역이 그러니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구역에서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이 생일이라든지 무슨 대사가 있다든지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나를 다 초청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왕진이라는 것도 많이 가고 또 해산 방조 많이 다녔어요.(사례32)

시간이 걸리니까 금방 금방 하는 건 아니니까 빨리 해달라, 잘 해달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좀 관찮은 분들이 오다보니까 그나마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술담배를 좀 많이 갖다주고, 여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쌀, 비누, 기름 거의 그런 쪽으로 애들도 갖다주라고 간식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좀 많게 돼요. 그렇게 도움 받는 편이죠, 거의.(사례20)

북한에서도 기신기신기자라고 하는데. 그게 기신기신 기어다닌다, 먹을 것을 찾아 기신기신 찾아든다고 기신기신기자라고 하는데요. 기자들은 대체로 농장이라든가 자기 어떤 생산을 하는 단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OO농장이다 이러면 내가 그곳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취재를 하러 나가는데, 왜냐하면 그곳 작업반장이나 관리원장을 잘 알아야 내가 낚새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부식물이라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나가면 그 곳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생활방식이예요.(사례38)

직업상의 관계망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받는 것 이외에도 교원이나 의사가 부업으로 장사를 할 경우에 학부모나 병원의 고객을 통해 장사 원료를 싸게 구입한다든가 상품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I
II
III
IV
V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기자재나 약 등을 거래하기도 한다(사례32, 사례5, 사례21). 이러한 거래는 무상증여, 교환, 편의 제공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sup>120</sup>

이러한 관계망은 주고받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교사-학부모(또는 학생), 의사-환자라는 관계가 현재적으로 성립될 때만 작동가능한 관계망이어서, 이직시에는 더이상 그 관계망을 통한 거래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망의 존재는 이들 지식인들이 자기 직장을 이탈하지 않고 남아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된다. 지식인들은 사회적 체면에 민감하고 장사수완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장사를 하겠다고 직장을 이탈할 경우에도 “약착같이 장사를 한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된다”(사례14). 극단적인 경우에는 장마당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취직하기도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자기 초소를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식인의 특성상 장사와 같은 생계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쉽지 않고, 직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망을 통해 생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직장과 직업에 대한 충실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이와 같은 속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05년에 병원 출근율 70%. 병원 자체도 또 인텔리 집단이고 또 거기를 떠나서는 다른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생산직보다 높아요. 거기는 나와야지만 자기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니깐. 의사나 간호사, 그 사람들은 또 환자를 통해서 자기 생계가 유지되니까요.(사례14)

---

<sup>120</sup>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교사가 부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편의의 제공을 학부모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교사의) 여편네가 장사하는데 말하자면 기계를 판단 말이에요. … 야 뭐 부탁한단 말이에요. 어느 학부형에게야 무슨 기계 부분 있는데, 그것 좀 가져오라 그래라, 뭐 좀 가져오라 그래라.”(사례21)

지식인들이 직장을 통해 맺는 관계망에 자신의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관계 자체의 속성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교원과 학부모라는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학생의 학업지도와 관련된 교육적 측면이어야 하지만, 교원이 이 관계망에 생존을 의존하게 되면서 교육적 관계를 대신하여 사적인 거래관계의 특성이 부각된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 주민의 증언은 교사-학부모 관계의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이 사람(교원)들은 돈은 국가에서 노임을 주는 거니까 자기 명예가 사람의 경쟁심 아니에요? 우리 학급에서 최우등생이 열명이 나왔는데 저 학급에서는 열다섯명이 나왔다면 그것이 열 받아서 사람들이 그 경쟁심으로 진짜 학생들도 앉혀놓고 밤새서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처지는 어떤가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재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이해적 관계예요.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하겠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형들, 힘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내가 저 학생을 잘해주게 되면 저 학생의 부형한테서 얼마큼 얻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측면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것이 그렇게 달라졌죠.(사례18)

교원이나 의사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환자를 진료해야 하므로 노동시간을 준수해야만 한다. 공장 노동자들 같이 출근 확인만 한 후에 장사 등의 개인적인 일을 하러 간다거나 노동시간을 이용해 집안일을 보는 것과 같은 노동시간의 사적 점유가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일과 후에도 사회적 노동에 동원되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 비해 장사 등의 부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 장마당에 나가 앉아서 판매하는 장사는 할 수 없고, 술, 빵, 사탕 등의 가내생산품을 제조해서 상인에게 넘기거나 특정 시기에 휴가를 받아 임산물이나 수산물 채취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상업활동





을 한다.

2005년까지 북한에서 교원으로 생활했던 주민(사례5)의 생활시간을 검토해 보면 오전 4시 30분에 기상해서 7시까지 두시간 삼십분을 아침 식사와 출근준비 등 가사 업무에 할애한다. 오전 7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해서 오후 7시 경까지 독보, 학교 수업과 다음날 수업 준비, 학습경연 준비, 회의, 교정 풀뽑기 작업 등 직무를 수행한다. 오후 8시경에 집에 도착해서 10시까지 두시간 동안 가사일과 식사 등을 한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데는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침 출근길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 그날 판매할 물건을 넘겨주고, 퇴근길에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그날 판매한 것에 대한 수금을 하고 상품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날 납품할 상품의 재료를 사는 등 장사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가사일을 마친 밤 10시 이후에는 술이나 사탕 등 다음날 판매할 상품을 만드는데, 이 시간은 보통 밤 1시까지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루에 적어도 네시간 이상을 개인 장사와 관련된 일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까지 함경북도 온성에서 약사로 근무했던 다른 주민(설문 16)도 아침 6시에 기상해서 가장 먼저 시장에 매대를 가지고 있는 상인에게 자신이 만든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고 8시에 직장에 출근해서 7시까지 근무한 후에, 퇴근 직후에 그날의 판매상황을 파악하고 주문을 받은 후 귀가한다고 한다. 귀가 후 밤 12시까지 식사 및 휴식을 취한 후 12시부터 새벽까지 장사를 위해 국수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직장 근무 시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장사를 위한 활동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 이외에 사적인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지식인들은 노동시간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기관의 관리자와 '홍정'함으로써 장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

간을 확보한다. 다음 사례들은 노동시간의 전유와 시간을 둘러싼 흥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저희들은 그저 저녁에 6시까지의 개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저희들도 무엇인가 가정적으로 요구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내기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많이 하죠. 저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어머니가 어쨌네, 시아버지가 어쨌네, 구실을 계속 그렇게 잡지. 나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낮시간에 어느 누구를 만나야겠다, 내가 (장사) 계획한 게 잘 안됐다 그러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자전거타고 급히 갔다 오는 거죠. 갔다는 무조건 저녁에 총화시간에는 앉아야 되니까 갔다가 또 오죠.(사례5)

낙지 잡으면 마지막에 와서 다 내라는데 안 낸 거죠. 말하자면 밀쳐나가기 때문에. 안내고 어떻게 하는가? 저녁에 쓱 가서 교장선생님 집 가서 술병이나 돈 천원 들고가서 내 이만원 벌었다고. 원래 바치기는 오만원에서 십만원 바쳐야 되는데 한 천원 이천원 어치 들고 가서 술이랑 안주 두루두루 사가지고 함께하면 한 삼사천원 된단 말이에요. 가서 앉아 먹으면서. 교장이 또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먹어야지. 실태가 이렇게 뻘해, 야 못해 미안하다. 그러니까 담임 없는 비정규직. 담임 있는 사람들은 혹시 학급 맡겨 놓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말하자면 심히 약한 부분, 제일 너절한 교원들.(사례21)

사적으로 활용할 시간의 흥정은 기관 관리자와 개별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개별 구성원들은 그 대가로 장사로 취득한 수익금 중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납입하기도 한다. 일부 학교나 병원에서는 기관장이 번갈아가면서 결근을 하고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눈감아주거나 최소한의 근무 인원만 남기고 일찍 퇴근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구성원 전체에게 확보해주시기도 한다. 진료소 소장을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오전에만 병원을 열어 치료를 하고 오후에는 각자 “살 궁리를

I
II
III
IV
V

하라”고 하면서 자유시간을 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일년에 15일 주게 되어있는 휴가를 약초채집 명목으로 40일간 주어 이 기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사례14).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식인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기본적인 휴식시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으로서의 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와 설문에 응했던 지식인들 중에서 개인의 여가시간을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근무시간 이외에 장사 등의 부업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여가는 물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휴식도 취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근무시간에 행하는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교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일상생활과 생활시간 구성의 변화가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른 시간이라는 게 집에 가서 뭘하기도 바빠요. 우선은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책 펴놓고 공부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시늬는 내요. 집에 가면 책은 꺼내놔요. 이렇게 생활 습관이 그렇죠. 시늬는 하는데 볼 시간은 별로 없고. 장작을 패든지 집 사람 들어오기 전에 저녁밥 지어 놓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집에 가면.(사례42)

새벽까지 사탕을 만들죠. 밤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밥을 안먹고 그냥 자요. 내가 만약에 보충수업에 들어가서 좀 하다가 학생들이 선생들의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밤을 새웠겠다 이러면, 선생님 오늘 오후에 간단히 하고 뭐 어쩍시다, 이러거든요.(사례5)

생활시간 구성의 변화에 따른 공적 업무의 질의 하락은 교원뿐만이 아니라 의사, 기자 등 다른 지식인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

다. 생계유지에 활용할 시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병원의 근무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출근을 해서도 “나가서 벌어서 강냉이 한 뒷박이라도 살 궁리”를 하느라고 검진과 치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사례32). 기자들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기자 급수 승급이 기자로서의 명예나 입당 등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지만, 지금은 급수가 높아져봤자 써야 될 글의 분량만 많아지고 이점이 없기 때문에 승급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모든 걸 무난히 넘긴다”는 목표를 가질 뿐 “글을 가지고 살려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사례38).

### 3) 지식 판매: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 생계유지

지식인들이 종사하는 정신노동의 특성 중의 하나는 육체노동자들이 다루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다룬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은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병원, 연구소와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사회 전체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지식인들이 행하는 정신노동과 공적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급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국가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을 꾸려갈 수 없게 되자 지식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기술을 사적으로 판매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일반 상행위자가 시장에서 소비재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듯 이들은 정보와 지식을 판매하거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지식상인인 셈이다.

지식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는 교원들에 의한 개인교습이다.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의 등장이라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90년대 중후반이다.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은 90년대 이전에도 예체능 분야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뚜렷한 양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개인교습은 주로 대학 교수, 중학교 교원, 과학원 연구사, 김책공대, 이과대 등 중앙대학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일과 후에 두세 시간 정도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교습은 주로 예체능 과목이나 제1 중학교 및 대학교의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력이 떨어지는 제대군인 출신의 대학생들이 대학 교수들에게 개인교습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사례34).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개인 지도는 교원의 의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돈을 받지 않고 집단적, 개인적으로 보충수업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화되었고, 자기 학생들에 대해 돈을 받고 개인교습을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사례34). 이공계통 대학의 경우 교원 중 절반 정도가 교직과 개인지도를 병행한다는 증언도 있다. 이제는 교원들이 “교수로서의 활동보다는 저녁에 돌아와 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가르쳐서 거기서 부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하나의 삶의 지혜”라고 말할 정도로 개인지도가 일반화되었다. 교원들에게 노임은 90년대에는 개인지도의 대가로 식량이나 옷 등 생활필수품을 지급 하였고 “생각해서 주면 받고” 그랬는데,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는 “배웠으면 일정하게 물질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대부분 돈으로 지급을 하고, 얼마를 준다는 것이 “시내에서부터 촌에까지 전달”이 다 되었다고 한다.<sup>121</sup>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교습 이외에도 공학전공의 대학교원들



이 기업소의 기사들에게 기술혁신안, 창의고안 등을 의뢰받아 금전적 대가를 받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사례34). 기술혁신이나 창의고안 실적은 기업소의 기술자들이 간부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기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사들의 경우 의술을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료 행위는 병의 진단, 치료나 출산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인 경우도 있지만 피임, 낙태수술과 같이 북한 사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의료 행위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료 행위를 의뢰하는 환자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높고 자격이 있는 의사를 선호한다고 한다.

TV와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고 컴퓨터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전기전자 계통의 기술자들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공학, 컴퓨터,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은 컴퓨터 강습 및 수리, TV 등 전기기기 수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최근 ‘황색바람’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방송방식이 다른 한국의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TV, 비디오를 “다매체”로 개조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TV와 비디오 기기를 수리하는 기술자들이 남한의 CD와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전기기기 수리 등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삼아 크게 장사를 하거나 입당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음을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항에서 (TV를) 배로 싣고 오거든요. 단번에 그 당시에 15만원, 그 당시 돈으로 15만원, 통으로 사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손질을 해서. 일본에서는 중계방식이 북한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개조를 해서, 손질을

<sup>121</sup>-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53.



해서 시장 도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 또 돈 돌려서 하고. 처음에는 자체로 집에 초대받거나 이 사람들이 가져다주면 손질해서 돌려주고 돈 받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 전에는 돌아다니면서 농촌에 나가면 전동기도 손질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돈 좀 축적되고 해서 이것도 하고.(사례1)

옛날에 토대가 나빠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머리가 좋지만 대학을 못 갔던 이런 사람이 약전했어요. 북한은 이런 기술이 하도 열악하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일본산 차를 수리한다든가 컴퓨터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사들이 자습을 해서 외국어 다섯 개 나라를 소유하고 그렇게 하던 것이, 이런 기술을 하면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입당하지 못하던 그 대대로 오던 이 사람이 10만원 투자해서 당원이 되었죠.(사례14)

예술적 재능도 상품화가 가능하다. 기악 분야의 개인교습과 같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문화상품을 만들어내어 사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이웃의 관혼상제 때 선물로 주던 예술작품도 이제는 “내 힘이 들어가는” “돈”이 되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사례5).

직업상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상거래에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판매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정보를 갖고 있는 관료층에게서 볼 수 있는 생존방법이다. 예를 들어 항만 관리를 하는 관리직에 종사했던 한 관료는 항만에 배가 출입하는 정보를 자신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인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자신이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장사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한 경험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급제다 이랬다 이러면 쌀, 식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보도 배급 준다니까요. ... 배가 언제 들어오고, 일단 나갈 으면 이제 달러 값이 오르겠구나, 이뎨 외화장사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갖다가 물건을 팔아야지만 자기가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들어 온다 나간다 하는 시간에 벌써 외화 값이 오를 거 같으면 안 팔거든요. 안 팔고 가만히 있든가,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돈을 또 꾸단 말이에요. ... 배에 만약 중고 자전거가 들어온다 하면 장마당엔 자전거가 많잖아 요. 많이 풀리니까 장마당 값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만약 자전거 장사한다 해도 그 자료를 벌써 알았다면 자전거를 이제 팔 아내버린다고요. 더 많이 들어오니까 값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용하지 요,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알려주고 대신에 술이라도 얻어먹자든가 같 이 모여서 그런다든가, 또 내가 알아주는 대신에 자전거 파는데 협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몇 퍼센트씩 해서 주기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사례27)

경제난 이후 지식인들의 일과시간의 변화를 추적해보면 지식이나 기 술의 사적 판매가 주로 퇴근 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999년 3월까지 함남 금야군에서 중학교 교원을 했던 주민(설문 45)의 일과를 보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여 저녁 식사 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세시간씩 학생들의 개인교습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교습은 보통 학생들이 집을 찾아와서 매일 두세시간씩 진행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2007년까지 청진에서 기업소의 기술부원으 로 일했던 주민(사례34) 역시 오후 7시에 퇴근하여 8시부터 11시까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부업을 했다고 한다.

#### 4) 비법과 뇌물

자신이 직업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망에 의존하거나 지식과 기술을 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 지점에서 일어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다반사

I
II
III
IV
V



이다. 국가가 병원에 지급하는 약품을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려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의사들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약품 절도 행위가 문제시 될 경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사례20),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집단적으로 용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위법행위이나 관행상으로는 적법행위로 인식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법적으로는 금지되지만 관행상으로는 용인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빠가 (진료소) 소장을 하면서 체계를 어떻게 바꿨는가하면 오후에는 진료를 하지 않아요. UN약을 오빠집에 몽땅 가져다 댔어요. 그렇게 하고 약국과 협의해서 열흘치(씩 병원에 지급했어요). 출근이 되어서 오빠가 뭐라고 회의 때 얘기 하나면, 환자를 위해서는 무조건 당에서 주는 이 약을 전달을 해라, 떼어 먹지 말고 전달을 하라고. 처방에 의해서는 환자한테 이 약이 가라. 선생들이 자꾸 처방을 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거든요. 오후에는 집에 가서 가정을 도우라. 그래서 아줌마들이 장에 나가면 같이 장에 나가고. 그런데 그것이 본보기가 된 거예요. 왜 소장이 기업을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오후에는 쉬자, 이렇게 되면서 다른 병원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의사들이 살게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약을 이제처럼 선생들에게 얼마의 양을 줘요. 몰래 도둑질하는 것보다, 환자들에게 이만큼을 주고 의사들에게 어느 만한 양을 줘서 팔면 이 돈이 생활에서 의사로서는 쓰겠다고 하면서 도둑질하지 않게 줘요. 그 약을 팔아서 쓰라고 기업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게 더 좋다고 그래요. 봉사는 봉사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소장이 합의하에 약을 의사들에게 주고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보태서 오후에는 방과 후에, 장사를 하면서 약을 팔아서 보태서 사니까 지장 없이 자기 의사생활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사례36)

위의 사례에서 진료소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구술자의 오빠는 의사들이 병원의 약품을 절도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지장

을 겪는 상황에 부딪힌다. 의약품의 절도가 빈발하는 원인은 의사들이 병원에서 지급되는 노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시장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진료소장은 두 가지 조치를 내린다. 하나는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오후 내내 다른 생계 활동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 지급되는 약의 일부를 의사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나머지 의약품들을 “몰래 도둑질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가가 병원에 지급하는 의약품을 집단적으로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절도를 막은 이 조치는 보기에 따라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해결책이 인정을 받아 다른 병원에도 확산이 되었다는 것은 병원의 의약품을 환자 치료에 쓰지 않고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국가의 배급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생계가 막막한 의사들에 대한 일종의 “배급”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기술의 사적 판매 행위도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의료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피임과 낙태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낙태는 물론 피임시술도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안면이 있는 구역 진료소의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청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부문 내에서 산부인과는 특히 “떡을알이 있고 살만한 집”이라고 한다(사례40). 일정한 돈을 가지고 와야 시술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낙태는 많으면 쌀 10kg 가격인 만원, 피임은 몇천원 정도이고, 가정주부보다 미혼인 경우가 돈을 더 받는다는 증언(사례32, 사례40)으로 미루어보아

I
II
III
IV
V

위법행위의 대가는 위법성의 정도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의 경우 부정입학이나 성적홍정의 대가로 받는 뇌물이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금전 거래가 따르는 개인교습은 “철저하게 비법”이어서 적발될 경우에는 “보고서 1년감”일 정도로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이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서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개인교습을 하는 걸 다 알아도 인민반에서 “고자질하는 건 없다”고 한다(사례34). 부정입학이나 성적홍정은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크지만 현재 북한의 대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90년대 이전에도 안면관계를 통해 대학에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블라트(blatt)’라고도 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편의 교환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학과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입학이나 성적홍정은 주로 현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뇌물이 거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전의 관행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뇌물을 써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지역과 대학의 급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30%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방 대학의 교원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2004년을 기준으로 주요 중앙대학은 60%, 지방대학은 70~80% 정도의 학생이 크건 작건간에 안면관계나 뇌물을 통해 입학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22</sup> 다음의 증언은 대학 입시에서 뇌물을 통한 부정입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대학 입시 때는 아주 힘 있는 집 놈들은 대학 학장, 초급당 비서, 당 비서, 간부과장, 대학 노른자위한테 그냥 찢러요. 그건 성적이 높든 낮든

---

<sup>122</sup> - 이에 관해서는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pp. 181~188 참조.

오케이니까. 우리는 하층 통일을 하자. 힘 없으면 상층에 붙지 말고 하층끼리 통하자. 하층 통일하자. 그게 뭐냐하면 시험 감독이 있잖아요. 시험 감독을 구워삶아 놓는 거예요. ... 우리 딸이 이번에 너희 대학에 시험을 보는 데 수험 번호가 몇 번이다. 어떻게 하자. 그것을 들어 줄라면 내가 직접 문건에 손을 못 대는 거고 오직 개가 시험 보는데 따라 들어가가지고 컨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 보통 하층통일할 때는 한 달 월급정도 받아요.(사례42)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진급이나 졸업시험에서 개인적, 집단적으로 대가를 받고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시험 성적을 높여주는 것은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또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인 사례도 볼 수 있다고 한다.

### 5) 공동생산과 “직업세”: 기관 차원의 대책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생계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 병원 등 기관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기관 구성원이 공동경지에서 공동작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을 기관 운영이나 구성원들의 식량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학교 등의 기관에서는 부근의 소토지를 경작하거나 비배관리를 통해 옥수수, 콩, 감자 등의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생계를 보조한다. 토지 경작에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업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함경북도 청진의 어느 대학에서는 90년대 이전부터 기숙사 학생들의 부식용 채소 재배를 위해 학교 부근에서 경작했던 1만 5천평 정도의 채소용 부업지 이외에, 90년대 중반에 수십정보, 즉 십여만평의 부업지가 배당되었다고 한다(사례42). 이는 국가가 교원과 기숙사 학생들의

I  
II  
III  
IV  
V

식량 배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생산해서 먹으라”면서 할당해준 것으로 학교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휴일을 이용하여 다같이 경작지에 가서 옥수수, 감자, 김장용 채소 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농번기에는 강의를 한주 쉬면서 경작을 하기도 했다. 여기서 소출한 곡식과 채소를 교원들과 기숙사 학생들에게 공급했지만 종자, 비료 등으로 드는 비용과 운송비와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중단하였다고 한다.

평안북도 식주에서는 2000년도에 중학교마다 임대 토지를 주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게하여 교원들에게 6개월분의 식량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또 ‘한 학교당 2000마리 토끼기르기 운동’을 벌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교원들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사례13).

다른 사례로 함경북도 회령시의 한 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이후 농장에서 비배지를 할당받도록 해서 소출의 70%는 유치원에서 쓰고 30%는 농장에 납입했다고 한다(사례14).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유치원의 전 교직원이 비배지에 가서 경작을 하고, 농번기에는 오후 3시부터 유치원에는 교원 한명만 남아 아이들을 돌보고 나머지 인원은 밭일을 했다. 옥수수 이외에는 농장에 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콩, 조, 수수 등 기타 곡식들을 재배하여 원아들의 급식과 교원의 식량으로 썼다고 한다.

기관 공동의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분배하는 방식 이외에 당에 기관 정원 증원을 요구하여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고 직장의 적이 필요한 사람들과 교섭하여 직장의 적을 유지하게 해주는 댓가로 일정한 돈을 받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구성원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취업대상자가 소속 직장이

없는 무직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에 취업을 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장사를 하는 경우에도 직장에 적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여분의 정원을 확보한 기관은 직장의 적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직함을 주고 대신 일종의 “직업세”를 받아 분배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한다. 추가적인 정원 확보가 기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장사 수단이 되는 것이고 기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현직작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기관의 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흥정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도당에 가서 작가들 실태를 자꾸 말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편지 한명만 더 달라, 먹여살리는 후방사업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당에서 어떻게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행정을 통해서 하나 더 줍니다. … 자리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늘여, 처음에는 겨우 하나 받았는데 내가 오기 전까지 그게 여덟명인지 일곱명인지 되더라구요. 그건 작가가 아니죠, 행정직원이죠. 그 사람은 뭘하나 했더니 돈 가진자들 받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비축해가지고 자리에서 한때에는 간부노릇하다가 부정축재했던 어쨌든 쫓겨난, 눈알이 빙빙 도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단이 좋고 북한은 직업이라는 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노는 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집에서 쉰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자유가 없잖아요. 돈은 있지, 하는 것마다 자기 감시하고 이렇게 하니깐, 그러니까 이걸 작가동맹 위원장들이 그런 걸 타산합니다. 우리 작가동맹에 경리부분에 자리를 만들어 들어오면, 경영이라는 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전국적으로 여행증명서는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그 증명서 떼기 쉬우니까, 이런 조건. 그리고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동맹 위원장 가서 계약체결을 하는 거죠. 이 직업을 줄테니까, 다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해라. 하되 한달이면 한달, 당신은 부역에 불땀감을 해결해라. 당신은 뭐 쌀을 얼마만큼 해결해라. 그만큼 내려놓고 나머지 세금받는 식이죠. 말하자면 직업세를 받는 셈이죠.(사례24)

I

II

III

IV

V

## 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긍심의 하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이후 지식인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하향이동하였다. 임금과 복지 등의 측면에서 일반 노동계층에 비해 나은 “국가적 혜택을 받고” 높은 직업지위와 사회적 존경을 누렸던 지식인들은 “국가적 혜택”이 사라지고 시장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빨리 적응하지 못해 경제적 하류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를 들자면 북한에서 교원은 사회주의 사회를 발전시켜나갈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직업적 혁명가”로 규정되어왔는데<sup>123</sup>, 이제는 교원이 아니라 “교원의 아내가 혁명가”라는 자조어린 말이 등장하고 있다(사례 42). 교원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지 못해 곤궁한 교원의 가정을 꾸려가는 그들의 아내가 혁명가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지식인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생존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식인계층 내에서도 경제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업 이외의 시장과 연계된 부수적인 경제활동 정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관계망 구축 정도, 사적으로 판매 가능한 지식과 정보의 소유 여부, 소속 기관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지식인계층 내의 경제적

---

123- “직업적 혁명가”란 혁명을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보고 혁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육 자체가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혁명의 일부로 여겨지므로 이를 담당하는 교사는 하나의 직업인을 넘어서서 혁명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혁명가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교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글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교원은 단순히 지식이나 전달하는 사람, 밥벌이를 위하여 교단에서 지식과 기술을 ‘상품’으로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 한생을 바쳐 나가는 사람이다.” 한선희·김영준 편, 『교육심리』 (평양: 교원신문사, 2001), p. 370.

격차가 발생한다. 경제력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적응능력이다. “과학적인 열의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식인보다는 본인이나 가족이 “수단이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교수자리 앉아서도 그걸 가지고 품을 잡는다”(사례24).

판매 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사적으로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에 대한 “자기관리”를 잘 하는가도 경제적인 성공의 요소가 된다. 개인 교습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교원의 성공 요인에 대해 한 북한 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 주변에 동무아이들도 보면 그걸로(개인 교습으로) 엄청 잘 살아요. 자기 이미지가 저 교원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잘하면 “저 교원한테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한단다” 그러면 부형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불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찾아와서 “선생님 날 배워주세요” 이러기도 하고. …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는 거는 자기관리죠.(사례5)

또한 지식인들이 활용가능한 관계망에 따라 경제적 차이가 발생한다. 경제력이 있는 고객을 상대하는 지식인들은 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의사들 중에는 급이 높은 병원이나 당간부들이 이용하는 병원의 의사, 교원들 중에는 당간부를 교육하는 당학교 교원 등이 그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경제력 있는 학부모와의 관계망 구축 여부에 수입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학교교원은 소속 대학이나 담당 교과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난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 과학, 영어와 같은 주요과목이나 예체능 교과 담당 교원들은 개인교습을 통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역사나 정치사상 과목 교원들은 개인교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편이다. 대학의 경우에 김일성종합대학과 같은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I  
II  
III  
IV  
V



국가적 지원도 클 뿐 아니라 간부 대상의 성적 관리 목적으로 중앙당 간부와 등에서 제공하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sup>124</sup>

소속 기관에 따라서도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기관 운영을 잘하여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기관장의 능력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해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특수한 대학들은 그 부형들하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교원들한테 주기도 하고 지금 다 자체로 먹여 살리라는 때가 돼가지고 각 대학마다 다 틀려요. 이 대학이 돼서 생각지도 않던 대학이 엄청히 잘 급으로 가는 대학도 있고,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저 대학은 왜 저렇게 못사나 이런데 그 대학은 그 대학은 급으로 못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관에 있는 책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처럼 너무나 교원으로써 오래 썬 사람이 기관책임자를 하면 돌릴 줄을 모르잖아요, 고지식하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죠.(사례5)

지식인계층의 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직업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에 생존을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위신과 존경도도 하락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관계의 활성화로 인해 경제력과 생활수준이 향상된 주민들이 많이 생겨난 데 비해 지식인들의 경제적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에 지식인층이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들이 학식과 지적인 권위, 도덕성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가치들은 시장관계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고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요소인 돈의 중요성만이 강조되면서 경제력이 취약한 지식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하락하게 되게 된 것이다.

---

<sup>124</sup>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61호.



뿐만 아니라 교원이나 의사 등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던, “깨끗하고 공지가 있는” 삶을 살던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업으로 장사를 하거나 학부모와 고객들에게 돈과 물품을 요구하고 성적거래를 하는 등 “위신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지식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존경심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음식을 이렇게 얹어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절대로 장사는 못하게 하고, 장사는 자본주의입니다,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음식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사는 아이들이 음식 파는 선생님들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선생님들 지위가 푹 떨어지죠. ... 뭐 선생인지 일반 형님이 지나가는지.(사례21)

지위라, 떨어지지요. 교원들의 생활수준이 괜찮게 되면 학생들한테 손을 안 내밀잖아요. 학생들 방조를 많이 받으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축되잖아요. 그게 흠이지요. 그게 교원이 권위가 있고 품위가 서려면 학생들과 일정한 간격이 보장되어야 하잖아요.(사례13)

지식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했다는 점은 결혼상대자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드러난다. 대학 교수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일부에서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상대자 선택과 같은 실질적인 일에 부딪혔을 때 지식인들은 기피대상이 된다. 여성들은 “남자가 대학 교원이다, 선 볼 자리 나섰다고 하면 머리를 기웃기웃”한다고 한다. “보기는 좋은데 자기가 시집가가지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사례 42). 경제난 이후 남편을 “풍경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학교수인 남편은 “조금 보기 좋은 풍경화”일 뿐 실질적인 생활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전 시기 지식인들의 사회적 권위는 “빈 껍데기”가 되었지

I
II
III
IV
V

만, 한편에서는 이와는 다른 종류의 권위와 위신이 생겨나고 있다. 주민들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식인들이 제공하는 사적인 서비스의 직접적 소비자가 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기초한 권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체계가 형애화되면서 실력있는 의사에게 사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의사를 모르고는 못산다는 관념” 때문에 “당일꾼이나 행정일꾼들에게 인사는 안 해도 의사한테 꼭 인사를 하고”(사례40), “집에 대사가 있으면 초청도 하는”(사례32) 풍토를 볼 수 있다. 교원의 경우에도 자녀들의 개인교습을 부탁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교원들에 대해 “학부형들의 열정과 열도가 많이 강하다”고 한다(사례5).

지식인의 위신의 하락은 이들이 종사하는 일이 주로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대중에게 이를 전달하고 후속세대에게 전수하는 역할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서 지식인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통치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담당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 교원, 작가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의 긍지감이라는 건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첫째로 군대나 보위부나 안전부나 교원이나 이런 기관은 철저하게 위대한 장군님을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 모셔서 학생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충성과 효성의 귀감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한다, 여기서 긍지감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장군님을 뒤편 먹으라고 뒤에 앉아 그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긍지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척 봐도 알잖아요.(사례21)

한 85년도까지는 작가라 하면 괜찮게 봤거든요. 점차적으로 점점 별로로 되어지더니 90년대부터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더라고요. 어디가서 이야기하다가 “어디 작가인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근데 뭘 쓰세요?” 그 물음에 작가들이 함부로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마음이 곱기 때문에 그 말에서 상처를 받아요. 자신감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죄스러움조차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데.(사례24)

지식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신의 추락이 단지 경제적 측면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식인들의 사회적 지위의 하락은 동시에 이들의 지위를 뒷받침했던 국가적 권위와 “권력의 추락(사례 38)”이기도 하다.

기능적 지식인으로서 북한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반면, 지식인들 내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한 자각과 북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싹트고 있다. 경제난과 시장 확대 과정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간 왕래의 증가, 외부 사회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국내 정보 소통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십여년간에 걸친 자생적 시장화의 경험과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일부 주민들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로서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기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사례38)의 증언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에 양강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20년 후를 대비한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았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김정일 사후에 북한 사회도 자본주의 체제로 수렴해갈 수 밖에 없으며 그 때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면 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증언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지식인들 속에서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능적 지식인에 머무르던 북한의 지식인계층이 사회와 생활경험의 변화 속에서 비판적 지식인의 기능을 담보해 나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권력엘리트계층의 일상생활: 제도기생

권력엘리트는 당과 국가기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간부를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현재 북한의 권력엘리트 실태와 이들의 생활상 및 일상의 의식을 살펴보고, ‘제도기생’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 권력엘리트계층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의식과 행위 유형을 평가한다.

#### 가. 권력엘리트의 정의와 집단구분

북한에서 권력엘리트는 간부급 중에서도 일정 직급 이상의 간부로 규정할 수 있다. 당조직의 경우 부장-국장-과장-부원의 직제 중에서 중앙당 과장급이상을 엘리트라고 볼 수 있다. 지방당의 경우는 책임비서급을 엘리트라고 볼 수 있다.

당체계 외는 내각의 경우는 국장급 이상을 권력엘리트로 볼 수 있다. 내각 국장급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간부과에서 임명하며 해당 당조직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다. 국장급 이상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해당 당조직에서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당 간부과에서 관리하는 간부들을 엘리트라고 볼 수 있다. 군대에서는 장성급인 여단장급 이상이 엘리트들이다.

엘리트 중에서도 핵심 엘리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핵심엘리트는 북한에서 약 680여명을 지칭한다. 600명에 포함되는 핵심간부는 당 조직지도부, 선전부, 대남사업부 부서들, 그 다음에 대외관계 부서들로서 예를 들어보면 대사로 파견 나간 사람들 등이다. 군부대에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군행정에서는 작전지도부 등이 포함된다. 작전지도부 구성원들은 전시에 작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 라인이다. 작전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구성원들입니다. 국가보위부에서는 상층부원 6명 정도로서 종합본부장, 발전본부장 1~6번 정도까지를 포함한다(사례29).

## 나. 일상생활의 엄한 감시·통제와 경제난의 이증고

북한에서 간부들은 일반주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특권을 가지지만 그들의 생활은 고달픈 측면도 있다. 엄격한 감시통제 체제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상급(장관급)은 오전 오후 한번씩 중앙당 조직지도부에 행처와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고 자유가 없다고 한다(사례33).

시간적으로도 통제가 엄하다. 행정간부들은 여덟시까지 직장에 도착한다. 아홉시부터 행정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도착하는 시간부터 당에서 행적을 기록한다. 어느 간부가 몇시에 도착해서 아홉시 행정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조직비서가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조직비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원들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간부들이 일찍 나와서 하는 일은 주로 독보회를 조직하는 일이다. 독보회에서는 노동신문 보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당 위원회에 가서 자기가 당일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홉시부터 행정사업을 시작한다(사례33).

I

II

III

IV

V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도 간부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1993년말 3차 7개년계획이 실패한 이후, 즉 김일성 사망 전후에 경제가 무너졌고 국가에서 규정된 공급체제도 무너졌기 때문에 간부들의 생활도 어렵게 되었다.

경제난 이후 간부들의 경제생활은 상당한 정도로 달라졌어요. 특히 김일성이 사망 전후로 해서 3차 7개년 계획 실패 이후부터 경제가 완전 파산 상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파산상태로 넘어 갔으니깐 국가에서 규정된 그런 공급체제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위원회에서 외화벌이 기관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외화벌이 회사를 크나 작으나 다 하나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그 외화벌이 기관 또는 부, 부업 기지를 가지고 지금 경영한단 말입니다. 그런거 가지고서 생활에 보탬을 하죠.(사례33)

이런 상황에서 하층간부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서민층의 장사꾼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간부도 있지만 하층에 붙어서 뜯어먹을 데도 없는 간부들은 어디가서 먹고 살 데가 없다고 한다. 간부들의 경우는 출근해야 되니까 부인이 장사를 못하면 굶게 된다고 한다(사례29).

뜯어서 겨우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뜯어서 아주 갑부가 되거나 생활에 무슨 넉넉해지거나 그런 차원이 못되니까. 겨우 지금 정말 이악하게 정말 겨우 겨우 살아가죠.(사례29)

권력엘리트들의 직급별 생활양식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위 간부들은 생계 조달에 주력하지만 고위급 간부들은 현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을 사리는 보신에 주력해야 한다. 부장 정도 되면 보신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고 한다. 부장급은 생계유지에 신경을 쓰는 생활 형으로 갈 수 없는 까닭은 감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대신 충실성,

충성심은 옛말이고 보신에 주력한다. 보신에 주력하는 경우는 창발적 의견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창발성을 낸 사람들의 후과가 다 나쁘기 때문에 창발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 다. 권력엘리트계층의 생계 벌이와 생활 실태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가내수공업 또는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권력엘리트들도 배급을 받기는 하지만 고위급을 제외하고는 배급량이 부족하여 장사나 그밖의 방식으로 생계 벌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산 배정도 잘 안되기 때문에 각 부·위원회에서 외화벌이 회사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다. 크고 작은 외화벌이 기관, 부업기지를 운영한다. 그것으로 예산도 충당하고 생계에 보탬도 한다.

권력 엘리트중에서도 국장급 이하는 자기가 어떻게 생계비를 버느냐가 일차적 관심이다. 생계를 위하여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는 일탈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가담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유형은 국가 기관의 운용과정에서 물자의 유용, 외화벌이 과정에서 이익금 유용, 뇌물 수수 등이다. 북한에서 시장이 공식 배급체제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있는 간부들은 시장과 결탁하여 돈을 많이 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암시장 등 사적 부문에 기생하여 과외수입을 얻는 경우도 많다. 가령, 안전원, 보위부원 등 단속요원이 장사꾼과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간부들은 장사 단속하는 핑계로 주민들에 접근하여 뇌물을 받아 먹고, 골동품 단속한다는 핑계로 골동품을 압수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척 하면서 자기가 횡령한다고 한다.

둘째 유형은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 물자를 횡령하는 것이다. 북한이

I

II

III

IV

V



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병원에 의약품이 없어서 진료가 불가능한데 항생제 등 의약품이 들어오자마자 권력있는 당일꾼들이 빼내어가서 암 시장에 판매한다고 한다. 아프지도 않은 간부들이 친척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약을 빼내어 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의사들은 북한 전체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한다고 한다.

셋째 유형은 북한은 군부대를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 기업소, 학교 등 각 단위별로 자체 외화벌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화벌이 종사 간부들이 외화벌이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의 액수를 조작하여 일부를 중간에서 착복,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행태이다.

네 번째,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생계 조달 방식은 국가물자의 유용이다. 국가기관 그 자체의 운영과정에서 원자재의 일부를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 기관 성원끼리 공식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어느 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생존하자면 그 국을 위해서 그 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소집단이죠. 소집단적인 행동으로 나눠먹어요. 예를 들어서 현지지도 나가면서 시멘트, 목재를 얻으면 그것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지요. 이런 일은 혼자 못하거든요. 그거 국에서 공동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또는 기업소의 경우 철근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목재가 있을 경우 목재 팔아서 철근을 구입하지요. 그러면 목재를 수송하는 과정에 일부를 유출하여 돈을 만든다고요. 부, 위원회끼리 서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부, 위원회에서 거래를 해서 돈을 벌면 그 기관의 국장에서부터 부원까지 다 이득을 봅니다. 각 부·위원회에 다 그런 특수한 조건들이 있으니깐 그 특수한 조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부원들이 사는 것이지요.(사례33)

간부들의 관심은 생계벌이가 일차적이고 기관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계를 벌 것인가를 궁리한다고 한다. 혼자가 아니라 그

집단, 국 또는 과 단위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며 이것이 생계별이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자기국 산하에서 지도하는 아래 단위들과 공생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궁리한다고 한다.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이런 방식의 생계조달을 하게 된 것은 7·1조치 이후 실리주의의 영향이기도 하다. 7·1조치를 계기로 기관과 기업소가 서로 상업 거래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소가 서로 상업거래를 하게 된 것은 경제난 이후 당에서 자재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에서 원자재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당의 과업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당에서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법적인 방법으로 목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당적 요구가 있지만 당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느냐,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력갱생으로 해내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거래의 방식은 모두 암거래이다. 시장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기업소 및 기관간의 암거래가 많다. 국가재산이 암거래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암거래 방식에 의한 상거래는 생산효율성이 대단히 낮다. 상당수 물자가 뒤로 유출, 유용되기 때문에 사회주의보다 생산성이 더 낮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사회주의로 복귀를 기도한다고 볼 수 있다.

### 1) 빈부 차이의 심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직장이 달라도 같은 직위이면 보수와 대우가 같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제가 붕괴되면서 국가가 대우나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 국가의 능력이 상실되자 소



속기관, 기업소, 소속단위의 능력에 따라 자력갱생하게 됨에 따라 간부의 생활수준도 소속단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가령, 해운성 국장과 건설감독성의 국장을 비교하면 하나는 큰 부자이지만, 하나는 가난하다. 해운성 간부들이 잘사는 것은 해운성이 항구와 선박 가지고 있어서 외화벌이를 잘 하기 때문이다. 체신부도 잘사는 부서에 속하는데 국제통신국을 가지고 있어서 통신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생산공장, 광섬유공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통신이 당, 군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적인 배려를 해주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규모도 다른 성보다 크다. 이에 비해 제일 못사는 곳이 건설감독성, 국토성 등이다. 경제난 때문에 건설부문이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직급별 권한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권력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담당하는 직무의 차이에 의해서이다. 각 부·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생활수준이 천지 차이이다. 외화벌이 부업기지가 잘되는 곳은 잘 살고 외화벌이를 못 하는 곳은 못 살기 때문이다.

돈벌이가 어려운 부·위원회에 있으면 국장이 부원들보다 못사는 경우도 있다. 가령, 건설부서의 제1국에서는 건설대상에 대한 감독을 한다. 가령, 건설현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는데 품질이 나쁘지만 통과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현장의 시멘트, 목재 등을 국에 준다. 국은 그것을 기차와 연결해서 팔아서 물물교환을 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부원들은 사무실에 있는 국장보다 잘 살수도 있다. 부원들은 넉넉히 받아먹고 일부만 국장에게 상납하기 때문이다.

잘사는 부·위원회에서는 상층이 잘 살 수 있다. 권력 순위에 의해서 상층부가 우선적으로 물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원 부장급의 경우 승용차가 있기는 한데 휘발유는 소량만 배급받

는다. 나머지는 자체 해결해야 한다. 각 기관의 외화별이 기관에서 기관장의 휘발유를 보장해주거나 운전수가 부업운전을 뛰어 휘발유 벌어야 한다.

외무성도 잘살지 못한다. 국이 너무 많고, 간부도 너무 많아서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공급은 다르다. 과장급만해도 주 공급을 한다. 식량공급, 주택분배에서 우선권이 있다. 원래 천리마시대에는 당일군이 제일 못살았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당일군의 권위가 높아지고 대우가 좋아졌다. 창광거리 주택은 당일군 아파트로 지어졌으며 일반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2경제 사람 일부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층짜리 아파트의 크기는 140m<sup>2</sup> 이상이며, 중앙당 부부장급은 280m<sup>2</sup>이다. 당간부와 성간부의 차이가 심해졌다.

지방간부의 경우 군당책임비서의 형편이 좋은 편이다. 중앙당 과장급보다 잘 살며, 시당책임비서보다 잘산다. 군당비서가 잘사는 이유는 이들이 직접 토지를 장악하고 있으며, 농사를 통해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못살아도 군당책임비서는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다.

전에는 시당, 도당책임비서가 잘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시, 도 공업이 죽어서 자기 생활에 보탬 수 있는 단위가 없고, 시당책임비서는 권한이 간접적이기 때문이다. 시, 도당 책임비서는 군에 내려가서 한차씩 얻어서 온다. 군당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시, 도 당책임비서가 잘 살기 어려운 것은 시, 도에는 특수기관이 많으나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군대, 2·8비탈론 공장 등 특급기업소에 대해서는 시당의 권한이 없다. 중앙당에 있다가 처벌을 받아 시당, 도당에 내려가면 생활수준이 툭 떨어진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식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기관의 비중도 먹는데서



차이가 난다. 북한에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다. 간부들은 점심시간에는 100% 도시락을 먹는다. 잘사는 기관·단위에서는 구내식당이 있고 구내 식당에서는 국과 반찬을 제공한다. 쌀은 국가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 도시락 밥을 가져와야 한다.

못사는 부·위원회에서는 국수를 먹는다. 부식물 공급이 힘들고 배급을 쌀로 주기 힘들니 옥수수 국수 누르는 기계로 옥수수 국수를 만들어서 간부들에게 점심때 공급한다. 외교부에서는 사람이 많기에 옥수수 국수를 준다. 국장급 간부에게는 양을 더 많이 주는 정도이다. 이것이 중앙급 행정기관의 일상생활이다. 당기관은 다르다. 당기관에서는 아예 중앙당 식당에서 밥을 준다.

## 2) 권력엘리트의 생활수준의 하락과 중간간부층의 붕괴

북한의 경제난은 권력엘리트들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고 중간간부층을 붕괴시켰다. 80년대까지 김일성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선전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이밥에 고기국 먹는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공약하였다. 김일성은 현 지지도를 거의 농촌부문에 집중하였고, 농사문제, 축산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사례29).

배급이 규정대로 주어질 때는 중하위 간부만 되어도 풍족하게 살았다. 배급물품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힘들이지 않고 챙겨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배급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층이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이전의 집단주의체제에서는 중간간부들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공급하는 체계에서 중간에 떼어먹을 것이 있었다. 당일군, 행정일군, 실무일군과 연합하여 권력을 남용하여 물자를 대규모로 뺏아먹었다.

과거에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무제한 행사하였으나, 이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먹을 알’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오히려 밑에서부터 얻어먹는다. 특히 하층 공무원은 밑에서 얻어먹는다. 밑에서 얻어먹는 것은 먹어도 푼돈이며 얻어먹는 것도 보잘것이 없다. 겨우 연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중간간부층이 그래서 붕괴되었고 심지어 소멸되었다. 북한사회의 권력엘리트계층은 상층과 하층으로 완전히 양극화되었다. 뜯겠다는 사람과 뜯기지 않겠다는 사람으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중간간부가 뜯어먹는 방식이 교활해졌다. 뜯어먹기는 하지만 하층이고 뜯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북한에 중간층은 없어지고 상층, 하층뿐이며, 상층 600명 외에는 모두 하층이라고 인식한다.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층이 되었다는 것이다. 술만 먹으면 불평불만이 크고, 빨리 변하라는 것이 그들의 희망사항이다. 북한에서는 서민은 고난의 행군시기 죽었고 지금은 하층 간부층이 죽어나간다고 말한다고 한다. 북한 간부층의 실태를 잘 드러내주는 말이다.

### 3) 권력엘리트의 권위상실

경제난은 권력엘리트들의 권위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공장가동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회주의 계획부문의 경제가 마비되자 북한 내각의 행정조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행정조직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총리, 상, 국장, 과장이 별 역할이 없을 정도이고 사회적 위신과 권위의 실추로 이어진다.

내각이 돈이 없어 구걸행각을 한다고 한다. 내각이 경제를 살리고 권위를 가지려면 자금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배급이나 타먹고 눈치보고



비위맞추는 행정기구에 불과하고 한다. 북한에서는 현재 부·위원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으며, 현장에 내려가서 지도할 것이 없다고 한다. 각자 알아서 비공식부문에서 사는 상황에서 내각이 지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각의 위신과 권위도 없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내각 간부들의 생활도 매우 어려워졌다.

내각총리도 서민입니다. 조금 좀 이색적이죠?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그 사람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거든요. 그 사람 내 일전에도 보니까 해외 돌아다니면서 경제 살리겠다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이 일전 있어요, 무슨 그 사람 믿어줄 만한 무슨 그 사람한테 지반이 있어요? 아무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각이 무슨 돈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죠. 지금 내각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근본적으로 백성이 먹지를 못하니까 쌀 달라고 제철소 조금 돌리려고 콕스 좀 먼저 달라고 비라리 하는 거 밖에 없어요. 내각이 그러니 아무것도 없다니깐요. 내각이 권한을 가지자면 내각이 경제를, 인민경제를 살려서 근본적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내각이 우선 자금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기술적 진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어떻게 경제를 살립니까? 그 내각 자체가 배급이나 타먹고 하루하루 눈치나 보면서 비유나 맞추는 행정 기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해서 밑에서 올려 바치는 뇌물이나 조금씩 먹고 잔명이나 유지하지요.(사례29)

#### 4) 특권층의 일상생활

이러한 권력의 양극화 상황에서 특권층은 있다. 김정일 측근 680여명이 고위공직자 특권층이다. 북한의 노멘클라투라이다. 이들은 조직지도부, 군부의 정치권, 군권 장악하는 세력, 중앙당 조직지도부, 선전부, 대남사업부서, 당의 대외관계부서, 군부의 총정치국, 행정에서는 작전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상층 6명 정도이다.

특권층은 다른 층과 답을 쌓고 산다. 옛날 왕조정권에서 양반, 상놈

구분되듯이 지금 북한 상층과 서민이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특권층은 북한이 반동적이라고 비판한 사치, 허영을 누리고 있다. 극소수 600명의 사치꾼들이 가장 값진 물질적 부를 향유하고 있다. 일본에서 들어온 참치, 스위스 고급시계, 일본산 세이코, 독일의 벤츠를 향유한다. 눈에 띄는 자동차는 미국산, 일본산을 배격한다면서 독일차를 쓴다. 일본산, 미국산은 배제하는 사치를 부린다. 그러면서도 개인이 소장하는 시계, 취미 기호품 등은 미, 일의 고급품을 쓴다. 그들은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지금 끼고 다닌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각종 진귀품, 물개, 녹용, 산삼 등을 소비한다. 무역부 산하 25호 총국에서 생산하는 금, 은, 달러, 유로를 소비한다. 총성의 당자금으로 올린 것을 상층부가 소비한다. 사치한 물질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같은 층에서 한다. 상층부는 사치한 생활이 외부로 드러날까봐 울타리를 높이 치고 폐쇄적인 서클 내에서 산다. 울타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들의 일상은 대외비밀로 붙여져 있다. 일부일처제 원칙도 없고 집도 몇 개씩 가지고 있다. 북한돈은 사용하지 않고 달러와 유로화로 산다. 최근 북한에서 외화품이 많이 일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니 해외 나가서 돈 버는 틈을 많이 만들고 있다. 결혼의 최우대 조건이 해외진출이다. 해외진출은 돈을 섬겨 바쳐야 가능하다고 한다.

### 라. 새세대 엘리트의 일상의 의식

북한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양분되어 있고 지배층에서도 2세대와 3세대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 김정일 세대가 혁명2세대라고 불리는데 이들 2세대와 현재의 40~50대인 3세대는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새세대 엘리트들은 자기생활 환경에 만족 못하고 변화를 추구

I

II

III

IV

V



하는 세대이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세대육성을 바로 하는 것인데 북한의 새세대는 아무리 교양학습을 많이해도 믿지 않는다. 식의주 문제때문이다. 의식주를 김일성이 식의주라고 바꾸었으나 식의주라고 해놓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와집에 이밥에 고기국의 공언이 공허한 망상이 되었다.

지금 제일 일차적으로 내가 가장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1세대, 2세대가 지금 거의 정치적 기반에서 밀려났다기보다는 거의 소멸 되죠. 지금 그 사람들이 끝나가고 있고 3세대에 정권 이양을 해주는데 3세대가 정권 이양을 받으면서 구세대 1, 2세대가 넘겨준 권력의 기반이라든가 경제적 구축이라든가 이것이 다음 3세대에 넘겨져 가는데 3세대는 더는 낡은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사상적 배경이나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기반 배경들이 자기네 대에 와서 유지를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전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이제 거의가 다 이전처럼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위에서 사람들 간부사업도 하고 그 기반을 확대 강화해서 자기 구축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제 먹기 살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이전 애들이 다 돈버는데 환장하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일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세대에 앞으로 내가 내 기반을 유지하려면 지금과 같은 구조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 권력형을 유지하려면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요.(사례29)

혁명2세대들의 가치의식은 현재의 경제난을 회복하여 좋았던 사회주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3세대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일, 중국의 개혁개방 등을 역사적 사실로 체험한 세대이다. 북한의 경제난을 북한체제의 본질로 체험한 세대이다.

2세대는 소멸 중이고 3세대가 정권이양을 받으면 권력이 더 이상 낡은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3세대는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2세대는 사회주의 국제연대주의를 추구하지만, 3세대는 민족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관심이 크다. 2세대는 사회주의가 영원할 것으로 인식했으나 3세대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민족이 기주의로 나간다고 인식한다. 2세대가 중시한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제연대주의는 완전 소멸하였다.

예전에는 소련하고 중국에 대한 그 사회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아무리 대국주의를 뿌리 뽑는다 해도 그때 당시는 사회주의권에 대한 그 사상적 포로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사회주의 사회가 기울어지다보니까 중국도 형식적으로는 일당제원칙이지만 경제권은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도입했거든요. 개혁 개방에 대한 등소평 이론을 내놓은 후로. 근데 북한은 현재 중국이 80년도에 등소평이 개혁개방 리론을 내놓은 다음에 92년도에 북한도 점진적인 경제개선 체계로 많이 이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20년후 2002년도에 중국의 현실을 지켜보고 개진 현대화 리론을 그때 비로소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 개진 현대화 리론을 내놓은 것이 이제처럼 이론이 제일 부합되는 김정일이 이거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권력 엘리트들이 엘리트 상층이 이대로 나가지 못한다. 개진이 되야 빨리 발전된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걸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사례29)

이전에 사회주의 사람들이 사회주의권에 살아 있을 때에는 사회주의가 솔직히 승승장구하리라고 사회주의 경제시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리라고 타산을 했어요. 그제 2세대까지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사상이 허물어진 다음부터 권력상층이 전문가형 엘리트들이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인식부터 지배세력이 계산을 철저히 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미국이나 다 지금, 그 사람들이 결국 민족이 기주의로 나가잖아요. 자기 민족 이익을 위해서 모든걸 다 집중시키고 정책방향 여기에다가 다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이 모든 구성은 자기 민족의 이익에 복종시키고 있어요.(사례33)

I
II
III
IV
V

3세대는 가족 개념이 강하다.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가족에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족이 생산의 단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배급품의 질은 낮아도 근심 걱정이 없었다.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걱정해야 한다. 현재의 부모들은 자식 대를 생각하여 경제가 회생되는 문제에 관심이 매우 크다. 간부들이 뇌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들 대를 대비한 것이다. 돈을 축적해 놓으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간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뇌물에 대해 불법의 개념이 없으며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3세대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후계구도에도 관심이 크다.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경제는 못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한다. 후계자를 빨리 세우는 것이 북한의 해결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신격화는 못하며 신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덜하며, 담이 없는 후계자가 나서야 개혁개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한을 분산시켜 후계자에 넘기자는 것이다. 이것이 간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개혁·개방해서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이 살 길이며, 다른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3세대는 남북교류에도 관심이 크다. 3세대는 철저한 전쟁 의식이 없으며 동족끼리 싸움하겠다는 의식이 별로 없다고 한다. 남쪽 사람들은 잘살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피하고 있다고 보고, 북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고 그리고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자면, 즉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남북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켜서 남측이 빨리 지원해 줄 것을 저쪽에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은 기대 정도가 아니다. 나도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그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빨리 문을 열어 가지고 남북경제의 가장 빠른 최대한으로 빠른 전진을 이룩할 것을 위에 사람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세대교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교류 빨리 활성화되길 인정하고 있거든요.(사례29)

새세대는 자기만의 물질적 부를 누리려한다.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재산이 집인데 북한에서 집은 전인민적 소유로 되어 있다. 내것이 없다고 김정일 것이라고 본다. 내가 가진 것이 내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개인주의 소유욕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뜻이다. 의식이 변화하여 시대가 전진하는데 정책은 과거를 추구한다고 본다.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는 과거를 고집한다고 본다. 북한의 새세대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자체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는 추세가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시장경제하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본다.

북한의 3세대 간부들은 흙담장은 큰비 오면 무너진다거나 개미가 담장에 구멍을 뚫으며, 담장이 무너진다고 본다. 북한 엘리트들은 이러한 비유법을 많이 쓴다고 한다. 직접 표현을 못하니 비유법으로 정권을 야유한다고 한다. 멍멍이, 낮전등 등의 비유를 쓴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도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여 낮전등이라는 비유를 쓴다고 한다.

#### 마. 아래계층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인식

북한에서 자주 “승냥이와 여우만 남았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승냥이는 당과 권력자이고, 여우는 그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승냥이와 여우가 대결한다고 본다. 북한이 그 정도까지 왔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세부담, 세대부담, 세유부담” 등에 시달린다고 한다. 말단 동사무소

I
II
III
IV
V

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내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망할 수 있다고 김정일이 발언하였다고 한다.

위로부터의 이러한 착취 때문에 피지배계층의 불만이 심하다. 북한의 간부들이 주민들의 이러한 불만을 알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이 자기 정치에서 불가피하게 계급을 나누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총부리를 돌려 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급을 갈라 두가지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량난 때문에 사상이 이완되고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반항심을 더 조장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 잘못한다는 생각이 더 든다, 정부가 식량 안주니 먹고 살자고 하는데 총살이라니, 배고파서 소잡아먹었는데 총살이라니, 총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점심이 생기고 정부에 대하여 반항심 생긴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북한은 또 전 북한 주민들에게 군인처럼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군가를 적극 배워 부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전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준전시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긴장의 고조를 통한 대내적 통합을 기도하고 있다. 군부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병영화와 같은 경직된 구조로 전환해가고 있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sup>125</sup> 북한 주민들은 계층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간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이 증대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의 불만은 주로 김정일 이하의 권력엘리트들에게 지향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층은 백성들의 이러한 불만과 잠재적 폭발성을 충

---

<sup>125</sup> - 서재진,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내구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참조.

분히 인식하고 있다. 북한지도부가 폐쇄주의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총부리를 돌려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가능성은 일부의 복잡군중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인민대중에 동시에 기대된다. 북한의 권력엘리트층은 자신들의 배타적 특권행사와 백성들에 대한 억압정책이 야기시킨 사회갈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대중들의 반발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 바. 의식의 변화와 제도기생

북한 권력엘리트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의식과 행위 유형은 제도기생(institutional parasitism)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조직을 이용한 부정부패·횡령에 가담하여 합법적 암거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을 이용한 암거래는 단순히 생계별이라고만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계별이 방식은 권력엘리트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법적인 생계별이와 동시에 체제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추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제도기생이라는 이 개념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정권변화의 동태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사회주의체제가 일견 겉으로는 평온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갑자기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각이다.

딩(X. L. Ding)은 등소평시대 중국에서 저항운동이 모든 제도권의 조직 속에서 일어났다고 보았다. 제도권의 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의 사람들이 제도내의 인맥과 자원, 조직을 활용하면서 중국의 체제 비판운동을 주도하였다고 보았다.<sup>126</sup> 북한에서도 시민운동 조직이 없기 때문

<sup>126</sup>-X. L. Ding, *The Decline of Communism in China: Legitimacy Crisis, 1977~*

에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이런 측면에서 오류이다. 우리는 북한의 권력엘리트계층의 일상생활을 통해 북한에서도 제도권의 조직과 엘리트 중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전체주의체제인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에서와 같은 자발적 조직의 결성이 불가하다. 그러나 체제파탄 상황에서 제도권 조직들의 정치적 지향이 변화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당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기관과 조직들이 점진적으로 대항엘리트에 의하여 이용되기 시작하여 오히려 원래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제도권내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체제개혁적 활동을 하기위해서 기존의 공공기관과 조직을 이용하여 개혁운동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시민사회라고 일컬었던 현상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국가기관이 변질된 제도기생적 현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조직들간에는 방대한 연락망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들과 매우 유사하다. 사회주의 체제 내의 조직들은 사회주의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며 사적 인맥의 형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시민사회화(societalization of state constituents) 라는 말은 사회주의정권의 상층부가 사회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사회의 성원들이 정부의 동원기관을 사상표현의 도구로서 변질시키거나 당과 국가에 대항하여 행동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의 시민사회화는 바로 제도기생의 한 측면이다.<sup>127</sup>

---

19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35.

<sup>127</sup> - *Ibid.*, p. 32.

제도기생 현상은 개방적인 인사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때 특히 일어나기 쉽다. 개방적인 성향의 사람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경우 하부 조직원들은 조직의 직함이나 자금, 설비를 당 국가에 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아진다. 개방적인 성향의 사람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면 그 조직은 마치 자발적 결사체처럼 기능하여 저항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단위조직이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과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을 갖는다. 정치적 출세, 승진, 임금, 주택, 의료보험, 육아, 직장이동 등을 주로 단위조직이 결정한다. 정치적 분위기가 풀리면 개방적인 사람들은 저항운동의 모험을 감행할 것이고, 정치적 분위기가 경색되면 조직의 우두머리는 저항운동원들에 대하여 위로부터의 압력을 해소해 주거나 정치적 박해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러한 단위조직은 중국에서 반체제들의 온상이 되었다. 결사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단위조직이 반체제의 온상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sup>128</sup>

제도기생주의는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양분적 도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하나의 분석틀로서 제도기생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 침투 현상, 공식조직, 반공식조직, 비공식조직들의 상호 침투 현상, 정치와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볼 수 있게 한다. 흔히 사회주의 연구자들은 국가가 사회에 침투해있는 측면만을 보기가 쉽다. 그러나 사실은 사회주의 사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조종하는 체제를 얼마나 교묘하게 조종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항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국가구조를 침식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놓는다. 국가와 사회의 이러한 상호침

<sup>128</sup> - *Ibid.*, p. 57.

I
II
III
IV
V



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잘 조직화되어 있고, 전능하며,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사회주의 정권들이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붕괴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북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제3세대 엘리트들은 국가기관을 생계별이를 위하여 일탈적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북한 기관과 기업소가 이미 상업적 거래를 시장원리에 따라 개혁개방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제3세대가 보다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북한의 정책방향은 개혁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4. 신흥상인계층의 일상생활: 경쟁, 범죄, 뇌물, 규칙 변화

북한에서 신흥상인계층은 ‘고난의 행군’ 초기 굶주림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북한 당국의 일련의 시장 허용 정책으로 ‘경제적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중 일부는 경제적 상층으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상인계층 내부에서 일정한 분화가 일어났다. 이 절에서는 북한에서 상인계층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들의 일상생활을 경쟁, 범죄, 뇌물, 규칙 변화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 상인계층의 형성과 변화

###### 1) 초기 상행위와 시장참여자의 증가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만 해도 상업 행위는 북한 사람들에게 낮게



평가되고 백안시되는 행위였다. 무엇보다도 장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공산주의적 인간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5년 중반부터 불어닥친 혹독한 식량난은 많은 북한 주민들을 시장으로 내몰았다. 심층면접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에 “여우하고 승냥이만 남았다”는 말이 널리 퍼졌다고 구술했다. 여기서 여우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을 가리키고, 승냥이는 ‘깡패처럼 돈을 빼앗는 이’를 지칭한다. 그만큼 북한 사회 전체가 부족한 식량을 앞에 두고 큰 혼란에 경험했다는 말이다. 북한 사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의 ‘공동체’를 지향하던 사회 흐름이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흐름으로 크게 바뀌게 됐다(사례15).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말 할 여지가 없이 살다가 2001년 되니까, 북한에서는 순수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그때 얼마나 많이 굶었겠어요? 그 당시 생활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밑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 전에는 장사를 못 하게 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마음대로 장사를 했던 말이지요. 그리고 2000년 고난의 행군 끝나고서도 장사를 풀어 놔어요. 풀어놓다보니깐 장사를 해서 모두 떨쳐나섰지요.(사례22)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장사에 나서는 것”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여전히 “상행위는 나쁜 일”이라는 관념이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주로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장사에 뛰어들었다. 노인 계층은 장사를 해도 이들에 대한 규제가 약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판도 젊은 이들을 대할 때와는 달리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29</sup>

I
II
III
IV
V

안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 직장에서 일 하다가 로임타고 배급타고 하다가, 장사를 하면 얼굴이 아주 뜨거웠단 말이에요. 낮가죽이, 비위가 천한 인간으로 본 단 말이에요. 보통 각오 안 하고는 안돼요. 내 새끼를 위해서 나는 각오해야겠다. 낮가죽이 뜨겁다는 얘기를 들어도 창피해도 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지요. 창피해 하면 못해요. 다 직장만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장사를 하게 되면 천하고 못 할 짓이라고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할머니들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낮가죽 두꺼운 사람 아니면 창피해서 안 했지만 늙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먼저 했다고요.(사례19)

이에 반해 젊은층에서는 처음에는 장사를 멀리 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강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19도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장사를 할 것을 권하지 않았다. “그 때에는 젊은 아이들은 장마당에 얼굴 팔기 싫어했다”며 당시는 “내가 희생해서 조금 벌어오자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19는 곧 자신의 자녀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한다.

딸들도 할 줄 모르지만 끌고 다녔어요. 힘이 있으니까 짐이라도 지워줘야지요. 내가 다 벌어들여 먹을 수 없고, 젊은 아이들은 할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또 창피해서, 젊었으니까요,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하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얼굴 창피하다고 안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다녔어요.(사례19)

사례19의 지적대로 “장사에 관여하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례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

<sup>129</sup> - 사례8의 어머니는 80년대부터 청진 시내 외화별이 상점에서 물품을 가져와 시골에서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사례8의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 암마가 연세가 계셨으니까 농촌에 농장에서 통제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는 늙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내가 너네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좋다고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다. 처음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장사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주로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끌어들이었으나, 차츰 일반적인 젊은이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사례19). 시집가기 전 친정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살기가 괜찮았다는 사례26은 시집간 뒤 “생활하기 바쁘고 굶기도 하는” 상황이 계속 되자, 스물 여덟에 직장을 그만 두고 장사를 시작했다. 청진에서 단고기국집을 운영했던 사례10도 결혼하기 전 식품품 공장에 다녔었는데, 차츰 장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공장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는 생활을 해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 2) 장사 밀천의 조성

처음엔 시장에 참여한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작은 밀천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사적소유가 없는 세월을 오래 경험한 이들에게 당장 큰 자본이 있을 리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제일 먼저는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나가서 서로 물물교환해서 쌀을 바꿔 먹는” 데서부터 장사를 시작했다(사례24).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 이만큼 빵을 한 개 구워 팔아서 1원 이득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 있고, 죽는 건 죽고 하니까 수백만씩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산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의 돈이 그래도 산사람에게 모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밀천을 잡았죠.(사례24)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장이 점차 형식을 갖추어감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종자돈이 필요하게 됐다. 단순히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시장 참여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종합시

I
II
III
IV
V

장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시장에서 판매대<sup>130</sup>을 사야 하는 데 이것이 적게는 20만~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장사를 하면 몇 달 만에 그만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장사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사례10).

하지만 판매대만 얻는다고 해서 장사 준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장사할 품목에 따라서는 판매할 물품을 구입할 추가 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남시장에서 식료품 장사를 했던 사례17은 자본이 부족해 수남시장에서 의류판매를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한다. 의류는 수남시장에서 가장 판매가 잘 된 아이템 중 하나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릿세 외에도 몇십만원이 더 필요했다고 한다. 사례17이 판매한 식료품 같은 경우는 외상으로 물품을 가져다주고 판매 뒤 물건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이도 가능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시장도 종자돈의 차이에 따라 그 수익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점차 종자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sup>131</sup>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양강도에서 작가생활을 한 사례24는 그 구체적 사례로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여온 사람들, 러시아 벌목장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여온 사람” 등을 꼽았다.

우선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사례28의 경우는 러시아

<sup>130</sup> - 북한 주민들은 시장의 판매대를 ‘탁’이라고 부른다.

<sup>131</sup> - 시장 진입 비용은 어떤 아이টে를 가지고, 어떤 규모로 장사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사례15는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율을 10% 정도로 잡았다. “10%는 장에 갈 수가 없어요. 밀천이 없잖아요. …90% 이상은 잘 살든 못 살든 다 시장에 나가 붙어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사례15의 이런 주장은 ‘메뚜기’ 등 공식시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소규모의 장사행위들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에 벌목공으로 5년간 나가 있으면서 자본을 축적한 경우다. 두 번째는 무역회사에서 외화벌이꾼으로 근무했던 사례18처럼 북한 내에서 밀천을 마련하는 경우다. 사례18의 경우 노동자로 근무할 때 노동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후방과'에 근무한 덕으로 벌을 치는 것을 배웠다. 사례18은 이 인연으로 몇 년 동안 벌을 쳐 꼴을 모아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밀천을 벌어들여 북한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밀천을 마련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이 돈을 보내줘 장사밀천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장사 밀천에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터민들이 중국으로 돈을 보내준 뒤, 이를 다시 '중국 친척'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을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 오고, 또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친척들이 돈을 보내준다는 것은, 사실 다 한국에서 나온 돈인데 중국 친척들이 내다 준다고 그래요.(사례23)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친척들이)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제 삼자를 통해서 보내줘서 살아요. 그런데 국가를 통해서 가면, 국가에서 다 잘라서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삼자를 통해서 가잖아요. 중국을 통해서요.(사례39)

새터민들은 특히 남한에서 100만원 정도만 북한에 송금해준다면 추가적인 송금 없이도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상행위를 함으로써 먹고 살만한 자금이 된다고 말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현재 북한 내부의 시장환율을 고려할 때 보통 남한 원화에 3배를 곱하면 북한 원화가 되

I
II
III
IV
V

는데, 남한 돈 100만원이 북한돈 300만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사 밀천으로 충분하다는 말한다(사례39).<sup>132</sup>

이밖에 돈이 없는 경우도 신용으로 돈을 빌려 장사에 뛰어들기도 한다. 장사가 잘 되는 경우, “‘탁’을 사서 약 3~4달, 4~5달만 장사를 하면 빌린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사례10).

### 3) 시장의 허용과 상인계층의 ‘시민권 획득’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늘게 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과연 이런 새로운 현상을 허용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북한 당국이 초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데 대해 제재도 심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여자들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하면 보위대 대원들이 그 여자를 구타하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는 일들도 잦았다는 것이다(사례21). 하지만, 극심한 식량난은 결국 북한 당국에게 이런 새로운 현상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북한이 차츰 시장에 대해 허용하는 정책을 펴 나간 것을 시기적으로는 1997년, 장소적으로는 양강도 혜산 등 국경도시로 본다.<sup>133</sup>

---

<sup>132</sup> - 대중국 밀무역을 하면서 ‘중국 친척’이 돈을 보내면 북한 주민에게 돈을 전달하기도 했던 사례26은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돈이 들어갈 때는 30%를 수수료로 제한다”고 구술했다. 따라서 남한에서 100만원을 보낼 때 북한에 실제 전달되는 돈을 북한돈 210만원 정도인 셈이다.

<sup>133</sup> - 이에 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우리 국경지역들 같은 경우에, 혜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장사의 고향이라고도 말하는 곳이죠. 모든 새로운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지금도 역시 같아요. 어떤 자연지리적, 지리학적으로 유리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거죠.”(사례24); “97년도에 조금 경제가 돌아서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장경제로 다 넘어갔잖아요…정부자체가 백성들이 자꾸 굶어죽어나가니까 97년부터는 점차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확대시켜나가게 된 거예요. 지방에서 먼저.”(사례9)

고난의 행군 때 너무 먹고살기 힘들니까, 서로서로 시장에 막 나가다 보니까 그때 통제를 막 하다가, 좀 풀어놨잖아요. 97년, 98년, 이때는 살만한 사람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좀 풀리고 활성화가 좀 많이 되었다고 봐야죠. 웬만한 거 다 봐주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게 하고 정말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품목들만 좀 못하게 하고. 그러고는 서로서로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건 좀 더 나아졌다고 봐야죠. 고난의 행군을 넘겨서 그때부터는 좀 활성화가 됐어요.(사례20)

처음엔 이렇게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시장 목인 방침은 점차 평양으로 까지 확대됐다. 평양에서도 “2000년도 넘어가면서 평양 사람들이 각 구역마다 장마당을 하나씩 세웠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평양에서도 배급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sup>134</sup>

평양의 구역마다 장이 다 있는데, 그 것을 국가에서 허가한 장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지방에서도 오고 사방으로 와서 새끼마니까, 안전원들 몇 명이서 그것을 단속 못하니까, 그냥 움직였다가 잡히는 놈들은 잡히고 안전원들 온다 그러면 들고 뛰고 그러면서 쫓기면서도 해요. (물건을 안전원에게) 떼이면서도 하는 거죠. 그 것을 몇 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통제하다 못하니까 장마당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보게 했단 말이에요.(사례19)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북한 당국 사이에 밀고당기는 싸움은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새터민들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장을 다 풀어놓고 아무

<sup>134</sup> - 사례19, 사례9도 이에 대해 평양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늦게 ‘고난의 행군’이 닥쳤다고 증언한다. 물론 평양에 그 이전에 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성신장’ 같은 경우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었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한다. 평양시 선교구역에 위치한 성신장은 평양시의 주변구역에 위치해 농촌지역이 가까운데다, 대동강역까지 옆에 있어 통제하기가 힘든 구역이라고 한다.

I
II
III
IV
V



거나 다 하도록” 통제를 없앤 조치로 기억한다(사례10).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은 시장에서의 장사 행위를 허용했고, 2003년 3월에는 종합시장을 설치해 이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장사 행위가 잠정적으로 합법화된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의 장사행위가 그 동안 공식적으로 ‘불허’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돼온 것과 비교한다면, 시장 상행위가 ‘경제적인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 상인계층의 구성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장사행위가 2002년 7·1 조치를 통해 승인된 것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일어난 일이 ‘장사행위의 다양화 및 전문화 현상’이다. 장사 행위가 단순히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상인계층이 장사행위의 다양성에 기초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가) 외화벌이 일꾼

외화벌이 일꾼은 북한 상인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자랑하며, 상인계층의 사회적 신분 향상에 견인차 구실을 해온 집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각종 감찰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다.

외화벌이 회사들이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된 회사들을 말한다. 외화벌이 회사는 1990년대 초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나(사례7),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그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평양에 있는 노동당에서부터, 각종 군부대나 행정기관 등까지 모두 외화벌이 사업에 나섰다.<sup>135</sup>

이렇게 북한의 각 기관들이 다투어 외화벌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높

은 수익성 때문이다. 청진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했던 사례7은 1년 소득이 한때 1만 달러가 넘었다고 밝힌다. 보통 종합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상인들의 경우, 월 평균 소득 및 지출이 월 30만원(약 100달러)에 그치고 있음을 생각할 때, 1만달러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sup>136</sup> 이에 따라 외화벌이 일꾼은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는 등 풍족한 소비생활을 누리는 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등 북한의 상층 소비생활을 주도하기도 한다(사례10).

하지만, 이들은 또 북한 감찰기관의 주요한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만지면서, 대중국 밀무역에 나서거나 북한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사회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감찰기관들은 1997년과 2001년에 외화벌이 업체에 대한 대규모의 감찰을 벌여 많은 유명 외화벌이 회사와 불법행위를 한 외화벌이 회사를 정리하고, 관련자들을 단련대 등에 보내기도 했다(사례28).

#### 나) 종합시장 내의 상인계층

북한의 종합시장에서 자기 개인의 판매대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상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다. 2003년 3월 북한이 종합시장 허용 방침에 따라, 현재 북한에는 각 구역마다 종합시장이 한 두 개씩 설치돼 있다.<sup>137</sup> 북한의 종합시장은 2003

<sup>135</sup> - 사례34는 한창 많았을 때는 청진 시내에만 300개의 외화벌이 업체가 존재했다고 한다.

<sup>136</sup> - 모든 외화벌이 일꾼들이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니다. 역시 청진에서 외화벌이 회사에 다닌 사례17의 경우 외화벌이회사에서 한달 월급으로 쌀 40kg 짜리(혹은 20kg 짜리) 한 포대와 돈 3만~4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차이는 두 사람의 직급과 특히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했는가에 따라 갈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7은 당시 자신의 주된 수입이 일본차를 몰래 중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얻어졌다고 밝힌다.



년 3월 출범 당시에는 공업제품까지 판매가 허용되는 등 크게 활성화됐는데, 내부는 각각의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상인들이 모이도록 구분돼 있다.

네. 그러니까 쌀 파는 사람 따로, 옷 파는 사람 따로, 국수 파는 사람들 따로, 생활필수품 파는 사람들 따로 그렇게 배치해요. 생활필수품을 파는 사람들은 한 줄에 20명 정도씩 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 파는 곳은 3개의 줄에 못 앉아도 50~60명, 70명 까지 앉을 수 있어요.<sup>138</sup>(사례30)

이렇게 종합시장 내에 판매대를 얻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일상적인 상거래의 많은 부분이 이 종합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시장 내의 상인계층은 일정 정도의 부를 축적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종자돈이 존재해야 한다.

#### 다) 메뚜기

메뚜기는 자본력이 약해 종합시장에 못 들어가고 종합시장 밖에서 좌판 등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가리킨다. 이들을 메뚜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속원이 단속을 나올 경우, 이리 저리 자리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모습이 메뚜기를 닮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

<sup>137</sup> - 평양의 경우 애초 구역마다 장이 하나씩 존재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2개씩으로 늘었다고 한다(사례19). 또 각 동에는 이 외에도 ‘골목장사’이라 불리는, 서너명이 앉아서 물건을 파는 작은 시장들도 존재한다(사례30).

<sup>138</sup> - 사례30. 이런 종합시장 중에서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청진의 수납시장이다. 이 수납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고”, “집도 잘 만들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위에 다 씌우”는 등 시장의 모습도 현대적으로 꾸며졌다는 것이다(사례7).



네. 장날에 나가 팔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도망치면서, 달아나면서 했거든요. (시장에서 팔려면) 장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장세를 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몰래 다녔어요. 그러다가 뺏기면 그날은 망하는 거죠. 아마 한 80~90%는 장세를 안내고 할 거예요.(사례39)

이런 메뚜기 상인은 같은 식료품이라도 종합시장 내에서 파는 것보다 1~2월 정도 싸게 팔기 때문에 북한 서민들도 많이 이용한다.(사례39)

#### 라) 달리기(되거리)

북한에서 ‘달리기’(혹은 되거리)는 지역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가령 중국 상품이 풍부한 청진과 농산물 가격이 싼 황해도 지역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한 예다.

네. 일부 간부의 부인들을 비롯해 여자들은 달리기를 한단 말입니다. 돈을 좀 꺾어서, 남편이 보위부나 당일군이면 돈을 꺾어서 물건을 사서 기차로 운반을 하는 장사. 이 기본 달리기를 여자들이 많이 해요. 직접 시장에 앉아서 팔지는 않지만 시장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사례7)

이 달리기를 다른 말로 ‘행방’이라고도 하는데,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잦은 출장 등으로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자본이 적은 상인계층에서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똑똑이

똑똑이는 되거리의 일종이지만, 특히 적은 자본으로 소규모 물건을 갖춘 뒤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가리킨다.

I
II
III
IV
V

이들은 주로 농촌을 돌며 곡물 등과 공산품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똑똑이’라는 말은 이 상인들이 개별 주택을 방문해 ‘똑똑’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똑똑이’는 장사를 하는 장소에 따라 ‘지방 똑똑이’, ‘평양 똑똑이’ 등으로 불린다. ‘평양 똑똑이’는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sup>139</sup>

지방 사람들 평양 와서 똑똑이 하고 평양 사람은 지방 가서 똑똑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집을 똑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사례39)

특히 똑똑이와 같은 유형의 상업행위는 고난의 행군 시작 전에도 농촌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됐으며, 수익률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사례19는 1992년 한 농촌에서 당시 8원짜리 속옷을 가지고 가서 kg당 20~30원 했던 쌀과 바꾸기도 하는 등 마진도 좋았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단속에 걸려 물건을 다 빼앗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sup>140</sup>

## 나. 시장의 확대와 상인계층의 분화

북한에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개설로 상인계층이 ‘경제적 시민권’을 얻은 이후,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돼 갔다. 우선 시장참여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평양의 경우 기존에는 각 구역마다 시장이 하나씩 존재했지만, 2005년부터는 각 구역의 시장이 두 개씩으로 늘어났다(사례19).

<sup>139</sup> - 사례19, 사례31은 똑똑이 같은 행상의 필요성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농장원들은 식량을 지었는데, 공업품을 사러 나가려면 한 70리를 걸어가야 하거든요. 여기는 무엇을 사려면 차를 타고 횡 갔다 오면 되지만 우리는 교통수단이 힘들어서 가지고 해도 힘들어요.”

<sup>140</sup> - 이에 따라 사례19의 경우 피머하는 법을 익혀, 우선 피머를 해주면서 물건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압수의 위험을 경감시켰다고 한다.



그 전에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90년도는 사람들이 한번 고난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제 난 것, 오늘 난 것, 애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장사한다고 움직이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 장사를 하니까 이윤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한 일이랄 것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나만 이것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오거든요.(사례7)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인계층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다수의 상인들은 시장에서 점점 이윤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평을 하게 됐다. 청진에서 단고기국집을 했던 사례10의 경우도 시장이 ‘목인’됐던 1997년과 시장이 ‘허용’된 이후인 2007년을 비교할 때, 2007년도에 오히려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1997년 장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하루에 개를 한 마리씩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됐으나, 2007년에는 열흘에 한 마리를 팔 정도로 장사가 안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진 수남시장 근처의 식당들이 30여개에 이를 정도로 늘었기 때문이다(사례10).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요. 간판을 처음 걸었으니까요.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을 괜찮게 하고 잘한다고 하고, 이 식당이 단고기가 괜찮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 한 마리씩 팔았죠. (사례10)

그런데 2007년도에는 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열흘에 개가 한 마리 나갔나 싶어요. 또 돼지 대가리 5kg짜리도 열흘에 나갔는데요. 그렇게 별이가 안 되었는데요.(사례10)

하지만, 이런 경쟁의 격화 속에서도 일부 상인계층은 더욱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시장참여자가 늘면서 시장의 분화가 빠르게 일어

I
II
III
IV
V

난 것이다.

### 1) 거상의 출현

이런 시장 분화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거상’이라고 불릴 만한 상인계층의 출현이다. 이들은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풍족한 소비생활을 누리는 한편<sup>141</sup>, 시장에서도 독점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북한 거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청진 남강판매소의 홍춘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외화별이사업체 남강판매소 대표인 홍춘이 사업수완을 발휘해 큰 부를 축적했으며, “홍춘이가 쌀을 안낸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청진시 쌀값이 올라갈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청진 남강판매소 소장 이름이 홍춘인데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오늘 밤 홍춘이가 내일 쌀 내지 말라고, 내일 일단 쌀을 출하시키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날이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왜냐면 남강판매소가 독점해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쌀을 안내면 가격이 오르죠. ... 당연히 오르죠. 시장의 장사꾼들도 오늘 남강판매소가 쌀을 안낸다고 하면 이것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700원에 팔던 것을 750원, 800원 막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것들은 조급해서 쌀값이 오르면 다른 물건도 다 오르겠네, 이러죠. 그러면서 파동이 엄청나게 심해요. 아침의 쌀값과 저녁의 쌀값 차이가 심하고 그래요.<sup>142</sup>

<sup>141</sup>- 사례38은 주길레와 차태화라는 두 거상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뒤 물까지 중국에서 수입해 먹을 정도로 풍족한 소비생활을 누렸다고 지적한다.

<sup>142</sup>- 사례17. 그런데, 이렇게 큰 재력을 갖춘 리홍춘 소장 등 남강판매소 관련 일꾼 총 5명이 지난 7월 15일 비공개 처형됐다. 좋은벗들, ‘청진, 리홍춘 사건으로 분위기 냉랭,’ 『오늘의 북한소식』 198호. 홍춘 사장 등은 이미 2008년 4월초 비사그루빠(비사회주의 검열그룹) 검열에 걸려 구속되었으며, 2008년 6월에는 “중앙에서 남강판매소장을 ‘역적 취급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처형이 예정되었다고 한다. 문성희, ‘북 무역회사 간부, 쌀값 폭등 주범 몰려 처형 위기,’ 『테일리엔케이』, 2008년 6월 17일 (<http://www.dailyink.com/korean/read.php?cataId=nk06000&num=57566>: 검색일 2008년 10월 19일). 남강판매소는 북한 인민군 7총국 산하 남강무역총국 무역지사이다. 남강무역총국은 청진 이외에도 남포, 함흥 등 각 도에 무역지사들을



이런 거상들은 외화벌이 사업을 하거나, 종합시장에서 판매가 잘되는 종목의 판매업을 하는 등으로 부를 축적한다. 북한의 거상들은 주로 외화벌이 업체를 통해 배출된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사업규모를 키울 수 있고, 또 자동차 되거리, 골동품 및 빙두 판매 등 불법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사례37)<sup>143</sup>. 또 종합시장을 통해서도 일정 정도의 자본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먹는 장사, 옷이나 신발, 그릇·사발 같은 품목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판매가 잘되는 품목이라고 한다. 사례37은 종합시장에서도 특히 그릇 매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힌다.

내가 보니까, 제일 잘 팔린 것이 그릇이더라고요. 그릇매대. 사발이요. 큰 다라랑 그런 것 말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그릇들이 정말 잘 팔린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이제 생활이 조금 있으니까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신식으로 사니까 그런 매대가 잘 팔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신발이 잘 팔려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큰소리치면서 살죠.(사례37)

## 2) 시장 실패자: 몰락하는 상인들

하지만 어떤 시장이든 승자만을 배출하지는 않는다. 시장에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게 마련이다. 북한 시장에서도 남강판매소 홍춘이와

---

두고 있으며, 광물자원과 통나무, 해산물들을 수출해 건설자재를 들여오는 것이 기본 임무라고 한다. 인민군 7총국은 ‘공병국’이라고도 불리며 군사시설 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전문 건설 부대라고 한다.

<sup>143</sup> 이 가운데 빙두란 북한 내에서 제조돼 판매되는 마약이다. 회령의 외화벌이사업체에 근무했던 사례37은 북한 외화벌이사업체들 중 정상적인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 보다는 이렇게 골동품, 자동차, 빙두의 중국 판매 등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구술했다.



같은 부자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시장에서의 장사행위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양산하기도 한다. 특히 이런 시장 몰락자들은 적은 자본으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한심하지요. 신발 한 켤레도 외상 주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면 내가 여기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물건을 준다고요. 내 옆에서 어디 안 가니까 오늘 파는 것 보이면, 판매한 돈을 조금 빼앗긴단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외상주면 그걸 판 돈을 자기 이득금만 먹어야 하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발의 원천까지 싹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또 남편이 아이들 학교 돈 내라고 하면 그 원천까지 다 쏟아 바치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본전 달라고 하면 못 준단 말이에요.(사례19)

사례14는 이런 시장실패자들이 특히 교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교직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장사를 해 보겠다며 “해임을 받아서” 시장에 뛰어들지만, “오래전부터 장사를 시작해 악착같이 한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된다”는 것이다. 사례14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시장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교직으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시장은 또 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입는 상인계층이 그런 예다. 사례26은 해삼 사기를 당해 사업을 망친 사례를 들려준다. 어떤 상인이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청진 근처의 바닷가에서 해삼을 사왔는데, 이것이 “검은 고무에다 무엇인지를 섞어서 만든” 가짜 해삼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상인은 밑천을 잃고 “장사하기 바쁜”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북한 상인들이 중국과 무역을 할 때도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 상인들의 경우 국제적인 상행위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 말도 서툴기 때문에 중국의 사기꾼들에게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아는 언니가, 여권을 떼고 중국에 들어 왔는데 북한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9월이면 1년이거든요. 왜 못 나가냐 하면 장사하러 들어 왔다가 돈을 몽땅 떼였어요. 중국에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 언니가 당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언니는 한족말을 모르니까 조선족을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사례39)

시장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이 생계의 터전이며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 구실도 해왔다. 이에 따라 90% 정도의 주민들이 시장과 관련을 맺고 생활할 정도로 북한에서 시장이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에서 사업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차츰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다시 돌아갈 직장도 없는 탓에 점차 북한 사회의 큰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 다. 상인계층의 일상

북한의 상인계층은 북한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올 정도로 경제력을 자랑하게 됐지만, 대다수 상인계층의 일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들은 종합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북한의 시장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기도 한다. 또 급작스럽게 부를 축적하면서 각종 사찰기관의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북한 상인계층의 이러한 일상을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한다.

### 1) 경쟁: ‘휴일 없는 생활’과 ‘살인적 노동강도’ 경험

북한에서 상업행위에 종사했던 심층면접 대상자 중 대다수는 북한의

I
II
III
IV
V

상업행위가 굉장히 강한 노동강도를 요구한다고 증언한다. 이는 일반적 인 노동자 계층이 “남한에 비할 때 노동강도가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인계층의 일상을 살펴보면, 거의 휴일 없이 일하며, 하루 일과도 껌껌해진 뒤에야 마치고, 또 일과 중에도 옆의 상인들과 치열하게 경쟁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의 여유도 갖기 어렵다. 우선 상인계층에게 쉬는 날을 찾기가 어렵다. 이들은 자신이 하루를 일하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절 등에도 판매에 나설 정도로 긴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종합시장에서는 1주일 중 하루를 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메뚜기나 툇툇이 등 자본력에서 훨씬 취약한 상인계층은 이런 휴식날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티브이도 불이 잘 안오니까, 보도도 우리는 크게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영화관에 갈 새도 없고, 명절날에도 그저 버느라고요. 나가서 벌어야지요. 명절 날에는 더 잘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가 있지 노는 날이라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화요일 쉬는 날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겨우 그 날이 휴식일이 되었지 그게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도 365일 계속 장마당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사례10)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계층의 경우에도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sup>144</sup> 특히 상인계층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시장에서 쉬는 날은 밀린 가사일을 처리하느라 더 한층 바쁘다. 더욱이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꿈도

---

<sup>144</sup>-사례10. “화요일에는 오전에 정규화가고, 오후에는 세탁하고 밀린 빨래들 하고, 집이라는 것이 매일 일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을 거들 새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을 거두고 그래요.”

꾸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까 휴식을 한다고 그러죠. 휴식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봄이면 봄휴가 가을이면 가을휴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걸요. 또 내가 어디 가서 놀려고 하면 그만한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만한 돈을 벌면 괜찮겠는데 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가족휴가라는 것이 없어요.(사례25)

매일매일 장마당에서 벌이는 판매행위도 기록하지 않다. 많은 상인들이 우선 정해진 퇴근시간도 없이 날이 어두워진 이후에야 판매를 마칠 정도로 심한 경쟁 속에 처해 있다(사례39). 또 판매시간에는 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사례19는 시장에 있는 동안 상인들이 “판매하는 동안 내내 목을 길게 빼고 어떤 손님이 내 물건을 사나 긴장해서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 2) 범죄: 불규칙한 생활 속 여성상인 대상 범죄 기승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휴일 없는 생활과 강한 노동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달리기 등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생활의 불규칙성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달리거나 행방으로 불리는 되거리 행위에 종사하는 행인들의 경우, 지역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벌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철도 사정 때문에 이 여행은 오랜 시일이 걸리며, 행방들은 이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큰 어려움은 교통수단에서 온다.

I
II
III
IV
V

치량하더라고요. 장사를 하는 게 수월치 않아요. 우선 교통이 불편해서.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차가 제시간에 다니지 않으니깐 그 행방 짐을 쥐고 그러니까 거저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것 가져다가 거기 가서 좀 팔게 되면 이윤이 좀 떨어지고 올 때에는 그 돈으로 거기 것 사다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벌거든요. 짐을 마대 같은 배낭을 몇 개씩 들고 다니죠. 차라도 제시간에 다니면 좀 괜찮잖아요. 연착이 되니까 사람이 피곤해요.(사례41)

우리는 보통 청진서 평양까지 가자면 원래 정시대로 제대로 가게 되었던 20시간이면 가요, 전차도. 그러나 지금 보통 가면 한 일주일, 닷새 걸려요. 어째 그런가? 전기차가 쪽 가다가도 예를 들면, 서울역이면 서울역 딱 서게 되게 되는데, 언제 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전기 오게 되면 그냥 떠나다가도 또 무슨 고성이면 고성 가서 딱 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흘, 나흘 걸려서 계속 가요.(사례32)<sup>145</sup>

여성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연착되는 기차뿐이 아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례6은 특히 기차 여행 중에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재미보고, 희롱하는” 성추행범이 많다고 한다. 또 행방을 다니면서 남자 협력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다. 험한 기차여행길에 큰 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각종 범죄까지 횡행하는 상황이니, 남자 협력자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길게는 한달 이상 계속되는 여행 속에서 두 사람이 정분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북한에서는 이들을 ‘8:3 부부’라고 부른다고 한다. 행방을 다니는 사람들이 공장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혼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사를 나가다 보면 남편하고

---

<sup>145</sup>- 이에 대해서는 사례6도 “기차로 한 번 돌면 5일씩 갑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계속 자면서 졸면서 이러면서 가지요”라고 증언한다.



장사를 나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가 관계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지요. 이를 8·3부부라고 합니다. 8·3부부가 되면, 어차피 남자들이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들통이 나거나 그러면 죽어도 못 사는 거죠.(사례6)

이런 상황이니 일반적인 남편들의 경우, 행방을 떠나는 자기 부인들을 의심스런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다. 심한 경우는 남편의 의치증으로 파경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 3) 뇌물: ‘일탈’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뇌물’도 늘어

북한 상인계층의 생활은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무시로 넘나드는 생활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 당국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일수록 더 많은 수익성이 나오는데다, 시장참가자가 꾸준히 늘면서 경쟁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례26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경우는 대부분 비행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비행이 없고는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외화벌이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농토산물 등을 수출해서 수익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불법행위를 안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 상인들이 꼽는 수익성이 좋은 대표적인 비법행위들로는 ‘골동품 판매’, ‘자동차 되거리’, ‘빙두 판매’ 등을 꼽을 수 있다. 1992년께부터 시작된 자동차 되거리는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에게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준 대표적인 불법 무역거래다. 자동차 한 대를 중국에 넘길 경우 많게는 1,000달러까지 수익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sup>146</sup>

<sup>146</sup> - 자동차 되거리는 주로 일본 중고 자동차를 수입해 중국에 넘기는 사업으로 1993년에 합법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자동차 되거리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공식적인 자동차 거래가 미진했던 탓에,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일본 차를 북한을 통해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동차

I
II
III
IV
V

네. 이익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걷어치우고, 차를 했어요. 차가 한 달에 10대만 들어와도 엄청 폭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작고, 외화벌이에 떨어지는 과제란 것이 사실 작아요. 자동차 되거리는 합법으로 하다가, 이후 그것을 막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불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교두를 통해서 못 나오고, 교두라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사장이 몰래, 중국 대방한테 두만강에서 약속을 해서, 두만강 경비초소로 들어와서 돈을 주고 차를 가져가고 그랬어요. (사례37)

북한의 골동품을 불법적으로 중국에 파는 것도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자동차 되거리와 비슷하다. 사례35은 “93년도 그쯤에도 보니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골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골동품 밀거래의 높은 수익성을 강조한다. 자동차 되거리와 골동품 판매가 시들해지면서, 이후에 등장한 대표적인 비법행위가 빙두 판매다. 마약의 일종인 빙두 판매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크게 활성화됐다 최근 북한 당국의 강화된 감시 활동으로 조금 위축된 상태라고 한다(사례37). 하지만 이 빙두가 “두만강만 넘어가면 대폭 리윤”을 남긴다.<sup>147</sup>

외화벌이업체는 자동차 되거리, 골동품 판매, 빙두 판매 외에도 북한 내에서 쓰이는 생필품을 밀거래로 들여오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두(세관)를 통한 공식적인 무역은 수입의 품목과 수입량을 규정한 ‘와크’라는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나 그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25는 북중 무역에서 밀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양강도 계산 같은 경우는 밀수없이는 못 살 정도”라고 지적한다. “모든 것이 다 중국으로 무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밀수가 끊기면 모든 것이 막힌다”는

---

를 생산하게 되면서 차츰 북한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을 막았다. 하지만, 중국의 밀수업자로부터는 한동안 주문이 이어져 불법적인 자동차 되거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사례28).

<sup>147</sup> 사례4는 그 이윤이 들어간 비용의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것이다.<sup>148</sup>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춘과 같은 불법이 버젓이 저질러지기도 한다. 사례10은 2007년 탈북할 시점에서 원산시가 개인식당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개인 외화벌이가 식당을 하면서 가라오케를 운영”했는데, 그곳에서 19살부터 23살까지의 젊은 여성들을 고용해서 매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활동이 일상화되다 보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뇌물구조가 형성된다. 밀무역이나 도강 등을 막아야 하는 국경경비대가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례35는 북한에서 밀무역이나 도강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수록 뇌물의 크기도 높아진다고 말한다. 사례35는 한번 밀무역 등을 위해 중국에 갔다 오는데 최고 한국돈 50만원까지 뇌물을 써야 한다고 구술했다.<sup>149</sup>

이런 구체적인 비법행위가 아니라도 상인들의 일상이 뇌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 가령 지역간 이동만 해도 그렇다. 북한에서는 지역간 이동을 할 때는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평양을 방문하거나 청진보다 북쪽인 함경북도 지역이나 양강도의 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승인번호’가 별도로 요구된다.

내용증명서. 혹은 출장증명서에다 이름 이렇게 다 쓰고 함북도 무산군

<sup>148</sup> - 사례25는 밀수가 막히면 외화벌이업체의 수익이 막히고, 그렇게 되면 장마당 경기가 죽는 등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밀수가 안되면 모든 장사가 안되거든요. 우리 장사가 안되면 온 장마당의 장사가 안돼요. 음식도 안나가고 그렇게 돼요. 중국만 없으면 우리 계산 같은 경우는 죽어요.”

<sup>149</sup> - 이와 관련하여 사례35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돈을 지금은 완전히 형편없이 받아 먹는단 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번 건너갔다 오자고 하면 50만 원 정도요.” (사례35)



이부 직인을 받아야 해요. 이게 일반지역에 갈 때는 그냥 증명서인데, 평양을 가야 할 때에는 빨간 줄을 긋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사례6)

빠른 이동이 보장될 때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인계층에게는 이 증명서가 빨리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얼마나 빨리 증명서가 나오는지 바로 뇌물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뇌물액수가 2,000원 정도가 되면 보통 보름 걸리는 승인번호가 하루만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평양에 가겠다하면 승인번호가 떨어져야만 가거든요. 승인번호 신청해 가지고 보름만에 나오고 승인번호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 있잖아요 청진 간다든가, 원산 간다 이런 건 승인번호를 안 받아도 되는데 수도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승인번호 떨어져야 가구요. 그답에 비무장지대 같은데 그런데도 승인번호 떨어져야 해요. 내가 대사를 한다면 미리 전에 15일 전부터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돈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취급하는 여자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냈거든요. 내가 타지방, 그러니까 같은 함북도에서 함북도 관내에 갈 때는 2,000원만 내면 다음날 증명서를 받아요.(사례11)

이런 급행료는 같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건네진다. 시장에서 옥수수 국수장사를 했던 사례30도 국수를 빨리 뽑기 위해 “씨비”라고 불리는 급행료를 줬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10원을 줄 때 사례30은 30~40원을 주고 남보다 빨리 국수를 뽑았다는 것이다. 정전이 잦은 북한 실정상 조금만 지체하면 전기가 나가 국수를 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업의 허가권도 각종 뇌물과 관련돼 있다. 사례6은 자신이 식당을 낼 때 들어간 뇌물액수가 약 1만원에 이른다고 고백한다. 상업부 상업부장, 급양지도원, 안전기관, 위생방역소 등 한 개 사업을 시작할 때 걸



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4) 규칙 변화: ‘허용’과 ‘불허’가 반복되는 생활 탓에 불안정성 증가

북한 상인계층은 또 북한 당국의 잦은 정책변화 때문에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 등 생계의 안정성도 높지 않은 상태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이후 몇 년 동안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었으나, 2005년과 2006년을 지나면서 다시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 변화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던 일부 상인계층은 사업이 불허되면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사례26은 화면반주음악실을 인수해 큰 피해를 본 사람을 경우를 소개한다. 2005년에 북한에서는 화면반주음악실을 허용할 정도로 규제가 약화됐으며, 이때 사례26의 지인들이 2005년 초 개인당 30만~50만원 씩 투자해 화면반주음악실을 꾸린 다음 두 달여 만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화면반주음악실을 넘겼다. 하지만, 그 뒤 화면반주음악실이 불법화되면서 이 인수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2007년 하반기부터 40대 미만의 미혼 여성들은 종합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종합시장 내의 판매대 가격이 내리는 등 상인계층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 잦은 판매 허용 품목 변화도 북한 상인계층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공산품의 경우, 2003년 종합시장이 출범할 때 허용됐던 품목인데,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런 품목에 투자했던 상인들의 경우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식당을 운영한 사례10이 겪은 잦은 식당 명칭과

I
II
III
IV
V

관할 기관 변경은 북한이 시장정책이 얼마나 가변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사례10은 1998년 ‘협동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업을 처음 시작했다. 협동식당은 국영식당에 한달에 2만~3만원씩 입금시킨 뒤 영업권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1년 뒤인 1999년 이 협동식당을 불허했다. 그 뒤 사례10은 “꿈수를 써서” 식당의 소속을 청진시 포항구역 국영상점 산하로 옮겼다고 한다. 허가를 받은 명목은 ‘자반매대’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례10은 1년만에 또다시 상점의 허가 내역을 ‘8·3 작업반 떡·빵 바꾸는 집’으로 바꿨다. 역시 정책변화로 국영상점 산하에 있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떡·빵 바꾸는 집’은 지역 인민위원회에 돈을 내고 8·3 작업반 자격을 얻은 것이다. 사례6은 2002년부터 또다시 상점의 관할을 ‘축산가내반’이라는 곳으로 바꿨다. 식당에서 나온 음식찌꺼기를 축산가내반에서 키우는 돼지에게 공급하고, 또 1년에 돼지를 한 마리씩 축산가내반에 내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판매 품목은 언제나 단고기였다고 사례6은 말한다.

이렇게 자주 정책이 바뀌는 데 따라 상인계층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가령 청진시 수남시장에서는 시장규제가 강화되는데 맞서 2008년 초 집단적으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 상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장규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간다. 가령 위조 결혼증명서는 젊은 여성 상인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자구 노력이다. 미혼 여성들의 시장 상행위를 막는 정책이 나오면서 일부 여성 상인들의 경우 가짜 결혼식 사진을 마련해 직장을 사직하고 시장에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가짜 결혼식 사진을 만드는 것은 40살 미만의 여성이라도 남편이 있는 경우는 “물건이나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만, 미혼인 여성들의 경우 노동단련대에 넣는 등 “무조건 법에서 잡아넣기” 때문이다(사례35).

## 5. 여성의 일상생활: 부양, 출혈노동, 여권, 자립, 차별, 홀로서기

북한여성들에게는 따라 배워야 할 두 여성이 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이며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다. 북한여성들의 “영원한 구감”으로 일컬어지는 강반석과 김정숙의 모범적인 역할에 대한 학습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강반석 따라 배우기’보다 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 ‘김정숙 따라 배우기 사업’ 등이 더 강화되었다. 북한문헌<sup>150</sup>을 통해보면 강반석과 김정숙은 남편에 대해 순종적·헌신적인 아내였고 자식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을 가르치며 교육에 정성을 다한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의 전형, 곧 전통적인 “조선여성”의 전형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강반석과 김정숙은 그들 자신이 혁명가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를 테면 강반석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강毅한 의지와 숭고한 인품”을 지닌 여성혁명가의 전형이며, 김정숙 역시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에 기여”하고 김일성이 제시한 “새 조국 건설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는 데 기여”한 혁명가로서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될 만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귀감적 역할이 시사하는 바, 북한여성들이 강반석과 김정숙에 대한 의무적인 학습을 통해 부여받는 역할은 ‘혁명가로서의 역할’과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로서의 역할’이다.

<sup>150</sup>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98~10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39, pp. 713~714;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평양: 인문과학사, 1968), pp. 18~23;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자』 (평양: 조선청년사, 1967); 금성청년출판사 편, 『공산주의 녀성혁명가 김정숙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3); 인문과학사 편, 『혁명의 어머니』 (평양: 인문과학사, 1976) 참조.

사실상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되기 이전까지 북한여성들은 온갖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면서 별다른 저항이나 불만 없이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집 안팎에서의 주어진 역할 수행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 체제와 제도에 대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국가가 요구하는대로 혁명가로서의 역할과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나가며 평범한 일상 속에 안주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심화, 지속되어 온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의 일상생활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가족단위로 식량문제 해결의 부담을 떠맡게 되면서 여성들의 일상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 시기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의 키워드는 부양, 출혈 노동, 여권, 자립, 차별, 홀로서기이다. 이하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을 살펴본다.

## 가. 부양: 가족부양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가장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가족부양의 책임이 떠맡겨진 데에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는 등 집안일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적인 성역할 분담의식과 남자가 장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기본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와 같은 성역할 분담의식 및 사회적 통념은 북한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여성들의 가족부양 부담을 보다 더 기증시킨 현실적·직접적인 요인은 경제난의 악화, 지속으로 인한 공장 기업소의 가동 중단이다. 원자재 및 전력 부족, 설비 낙후 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고 직장

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노동법 규정에 따라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만 했으므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떠맡게 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내용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을 끝낸 2000년 이후에도 여성들의 대부분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해 힘쓰는 경제활동은 장사를 비롯하여 텃밭·패기밭 경작, 집짐승 기르기,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봉사업 활동 등 다양하며 이들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경제난 이래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가장 보편화된 사경제활동인 장사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개인들의 상행위가 공식 허용되고 시장이 공식화·합법화(2003.3)됨에 따라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전업주부는 물론 직장여성들의 대부분도 장사에 나섬으로써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제재가 발동하기까지 하였다. 북한당국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40세 미만, 또는 49세 미만 여성의 장사를 금지하고 직장에 나가라는 방침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sup>151</sup> 그러나 특히 식량난 이래 가족부양을 떠맡은 여성들에게 있어 장사는 거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므로 연령 제한에 걸리는 여성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연로한 부모나 50대, 60대의 아는 여성들을 앞세워 장사를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여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당국의 제재 이전에도 “처녀들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미혼 여성들의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녔지만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되면 가족부양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고

<sup>151</sup>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110호.

장사에 나섰다고 한다.

여성들인 경우에는 처녀시절에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주부가 되면은 그때에는 가차없이 직장에서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사례4)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해서 미혼의 직장여성들이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계유지의 절박함 때문에, 또는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의 직장여성들도 퇴근 후에나, 아니면 휴일에 장사를 하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에 나서기도 한다. 한 예로 농사를 짓는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살던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직장생활에는 불만이 없었지만 “생존 자체가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 두고 장사를 하여 부모를 부양했다.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생존 자체가 힘들니까, 그게 일차적인 요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 그래서 한 2년 동안 다시 직장을 나와서 장사를 하면서 생존을 유지했어요. … 저희는 직장을 다녀서 먹고사는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먹고사는 문제를 장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사례4)

결혼 안한 것(여성)도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시집을 가기 전에 일해요.(사례25)

미혼의 직장여성들 가운데는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짜 결혼식”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 결혼을 하면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 결혼식 사진”을 찍어 직장에 제출하며, 이에 대해 별로 일감이 없는 직장에서는 결혼 관련 공식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퇴사를 허락한다는

것이다(사례35). 그러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출근으로 처리되므로 많은 직장여성들이 직장에 적을 두고 개인 장사를 한다. 이른바 '8·3가내반'이다. 8·3가내반을 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은 휴식일, 또는 정기 휴가 등을 활용해 장사를 하기도 한다. 농촌 여성들은 농사에 바빠서 장사에 나서기가 어렵지만 미혼의 젊은 여성들은 장사하러 다닌다.

(농촌) 아가씨들이 거기는 전부 장사를 해요. 공장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가씨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 장사를 보내요. 그래요. 그러다가 또 나이차면 시집 보내주고 그래요.(사례31)

장사를 통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고 나아가 부의 축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여성들은 이전과 달리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장사에 나서고 있다. 이를 테면 식량난 초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도덕적·윤리적 의식 때문에 생계가 막막해도 장사하기를 주저했던 여성 교원이 급기야는 압록강 국경연선에 가 담배 등 중국에서 들어오는 밀수품을 사가지고 와서 학부형들을 통해 밀매하는가 하면(사례13), 국가적인 특혜를 누리는 당 간부의 아내도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부를 위해 장사에 여념이 없다.

여성들이 장사에 나서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생계유지, 곧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농장 분조장으로 일했던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당원이며 분조장인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에 나가 장사하는 분조원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으며, 이는 분조원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 없는 농장일보다도 장마당에 나가 장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장원들이나 농장원들은 그렇죠. 직장원들이 나가 일해서 쌀을 주거나 월급을 주면 통제를 단단히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안 그래요? 내 가정이라면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장마당에 나가야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나를 세워놓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내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자기 새끼를 살려 먹여야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사례23)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그날그날 장마당 장사로 적은 돈벌이를 하며 연명해 나간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수익이 높은 장사를 하여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한 여성들도 드물지 않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는 물론 친정식구들의 어려운 살림을 도와주며 나름대로의 여유 있는 일상을 즐긴다.

북한여성들이 장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소량의 먹을거리와 옷가지 등 생활용품을 가지고 매일 장마당에 나가 판매하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공산품이나 지역 특산품 등을 싸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장사하는 이른바 ‘행방’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날그날 장사를 하여 하루를 연명할 정도의 푼돈을 모으는 장마당 장사와는 달리 이곳저곳 지역이동을 하며 장사를 하는 ‘행방’은 때로 큰돈을 모을 수는 있으나 그때그때의 시세 변동으로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으며 신변안전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한다.

장마당에서 그지 지국이 앉아서 버는 여자들은 괜찮아요. 차타고 다니다가 사고 날 일도 없고, 차타고 잡화들이 장사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여럿이 됩니다. 사고라는 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술한 몇 백만 원 돈이 다 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들은 다니지 마라, 딱 앉아서 해라, 못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지국이 앉아서. 이 다니는(행방) 여자들은



특업이에요. 그저 벌 때는 콧 벌고 거꾸로 설 때는 콧 거꾸로 서고 그래요. 시세가 달라지니까.(사례41)

여성들은 주로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여 적정한 옷돈을 얻어 파는 ‘되거리 장사’를 한다. 예를 들면 무역단위가 많아서 외국으로부터 오는 물품 가격이 싼 청진에 가서 상품을 가져다가 운반비 등을 붙이고 이윤이 남도록 적정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것이다(사례4). 되거리 장사 물품은 대개 중국산과 북한산이며 북한산은 주로 식품류이다. 일부 여성들은 국경연선지역에 가서 중국 상인들과 맞상대하여 물품을 거래하며, 중국에서 밀수한 금속, 약초, 파고철 등을 장마당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한 예로 평안북도 삭주에 살았던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함흥에 가서 낙지를 사다가 국경연선의 밀수지역에 가서 팔고, 그 판매대금으로 밀수품을 사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거래하였다고 한다(사례13). 또한 여성들은 공산품을 가지고 농·어촌에 가서 농산물·수산물과 교환하거나,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매대에 놓고 장사를 한다(사례22).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개인상행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여성들은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주문을 받아 옷을 만들어 파는 “옷 재봉”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샅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숙식을 제공하는 부유한 가정에 들어가 아이들의 보모, 또는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들도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일이기 때문에 고용한 사람의 친척으로 위장하고 지낸다. 많지는 않으나 북한여성들 사이에는 이른바 중국 가폐(가짜돈)와 미국 달러 등을 가지고 하는 돈 장사도 있다. 이들은 ‘되거리 장사’나 매대 장사, 또는 다른 종류의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에 비해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며 돈의 쓰임새도 큰 편이다. 중국 가폐를 가지고 돈 장사를 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

I

II

III

IV

V

여성의 경우에는 매월 수입이 80만 원 정도였으며 부식물 준비에만 십 수만 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신의를주쪽에서 어떤 장사도 했느냐면, 중국 가폐 있지 않습니까? 그 인민폐 가폐, 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밀수하느라고. 그 가폐를 중국 사람들이 몰래 돈에다 끼워가지고, 가폐를 써서 못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는 이가 신의를주 쪽에서 왔는데 그 가폐를 걷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폐가) 많이 돌아다녀요. 내가 그 한 장당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 ... 하루에 20만 원 정도 조선 돈으로 번적도 있었어요. 생각 외로 공돈, 이제 보세요, ... 9천원에 받아온 거 만5천원에까지도, 어떤 금액에서 그러니까 6천원 먹게 한 셈이 되잖아요. ... 난 못해 본 장사 없는 거 같아요.(사례11)

북한여성들이 적지 않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돈 벌이 가운데는 한 해에 몇 차례씩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여성들에게서 돈을 받아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고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거액의 수입에 끌려 남자들과 함께 비법적인 장사를 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들의 장사는 그 규모와 장사 품목에 있어 다른 여성들의 장사와는 크게 다르다. 이 여성들은 외화벌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표고버섯, 송이버섯, 고사리 등을 취급하는 공식적(합법적)인 사업보다도 주로 빙두, 골동, 차 등과 같은 매매가 금지된 품목들을 밀매하며 거액의 수입을 올린다. 이들은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밀매하는 수완이 탁월하다. 또한 수입액이 높은만큼 돈의 쓰임새도 장사하는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다. 이를 테면 이러한 여성들은 주로 달러나 중국 돈(인민폐)을 사용하며 넓은 단독주택에서 산다.

나는 북조선 돈이라는 것은 못 써보고, 크게 안 쓰고, 달러랑 인민폐를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내 집을 하나 크게 독집으로 쓰고요.(사례37)

외화벌이를 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넓은 단독주택에서 옷장, 책장, 텔레비전, 냉동기, 세탁기 등 5장 6기를 비롯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컴퓨터 등을 가지고 살면서 시장에는 나오지 않고 “판매원”을 두고 장사를 하는 여성도 있다. 이들은 시장에 여러 개의 매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 있는 판매원을 고용하여 집의 창고에서 물건을 내다가 장사를 한다.

차는 공식적으로 개인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어느 기업소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끌고 다니고요. … 단위 기업 그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그렇죠. … 그런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돈을 벌었으니까요. 마누라들이 돈을 벌어서 외화벌이에 넣어 두고 차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놓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 차까지 가지고 있는 아줌마들은 (시장 매대에) 앉지도 않죠. 그런 자리에 앉지도 않고 판매원을 쓴단 말이죠. (이런 아줌마들은) 정말 능력 있고, 판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썼다는 거죠. (시장에 매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창고처럼 물건을 내보내고 그렇게 했죠. 자기 집에서 도매처럼 창고에서 물건을 내보냈다는 거죠.(사례37)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성을 도구화하는 여성들도 점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가 제한적이고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극히 어려울 때 매춘은 이념이나 제도를 뛰어넘어 여성들에게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고 할 때,<sup>152</sup> 이에 대해 북한여성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매춘행위로 생계가 유지

<sup>152</sup>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62.

I
II
III
IV
V

되고 나아가 부의 축적도 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일신의 안락과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서 성을 도구화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춘이) 옛날에는 진짜 없었는데 지금은 많죠.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래요. 역전, 공원 그런 곳이요. 처녀들이 많죠. 그 다음에 과부, 이런 사람들이요. 북한에 이제는 살기 힘드니까, 어느 남자한테 시집가자는 것이 없어요.(사례35)

“나쁘다”라고도 안하고, “요즘 세월이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 “세월이 이렇게 되었고 이런 사람 정말 많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난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사례4)

북한여성들의 수입 및 지출 규모와 소비내역은 직업, 또는 경제활동의 내용, 장사 규모와 수완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수입액이 적은 여성들은 우선 가족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돈이 남으면 생활용품이나 옷을 구입하며, “중고매대”를 이용하여 일본산이나 한국산 중고제품, 또는 부유층들에게서 흘러나온 값비싼 생활용품을 비교적 싼 값에 구입하기도 한다.

철따라 그렇게 못 사입죠. 먹고 나머지를 사 입어야 되니까... 2년에 한 번씩이나 해서 철에 맞는 옷을 사 입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동복 같은 것은 보통 5년까지 입어요.(사례25)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여성들은 식생활비보다 집을 치장하고 옷, 신발,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인다. 이들은 북한산이나 중국산보다도 일본산이나 한국산을 선호하며, 최근에는 값도 비싸고 구입하기도 어려운 (아랫동네) 한국산이 여성들 사이에 가장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식생활비는 얼마 안 들어요. 집치장 하는데, 옷 입는데, 신발 사 신는데, 이런데 많이 들지요. … 신발 한 켤레가 2만원, 우리 조선 돈으로 2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쌀 한 키로에 7백 원인데 그런 것을 사 신으니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짜리. 뭐 화장품, 애들 옷. 애들도, 국내산도 중국 산도 안보는 거예요. 꼭 본산제(일본제), 아니면 한국제품으로. 우리는 아랫동네라고 하거든요. 남한을.(사례13)

또한 부유하게 사는 여성들은 집에서 먹고 자는 가정부를 두기도 하며, 가 정부는 친척으로 위장하여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적발될 것에 대비한다.

우리 시집 같은 경우도 아줌마 두고 썼었어요. 저기서는 그런 걸 상상을 못하는데. 큰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해가지고 그냥 큰 어머니 해서 불렀는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사례20)

(집이) 단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땅도 300평이란 말입니다. … 거기서만 농사를 해도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꿀 정도도 못되니까 사람을 쓴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막 써도 일이 없는데, 우리 북조선은 그렇게 사람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친척이라고 해서, 우리 작은엄마라고 해서 사람을 썼습니다.(사례37)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북한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화장과 간편한 복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옷, 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북한 여성들은 ‘살결물’(스킨), ‘크림’, ‘피아수’(파운데이션), 립스틱 등으로 가벼운 화장을 하고 주로 바지를 입으며 일하기 편한 복장을 한다. 한 예로 함경북도 지방도시에 서 사무직 여성으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1년에 한 번 정도

I

II

III

IV

V

치마를 입었을 뿐 계절에 관계없이 늘 바지 차림이었으며 봄·가을엔 점퍼, 겨울엔 두꺼운 동복을 입고 지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외부기관 사람들과 만나 계약을 맺는 업무를 담당했으나 양복 정장은 “불편해서 안 입고, 제일 편한” 점퍼를 주로 입었다(사례4). 북한 당국은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데 대해 “조선여성답지 못한” 차림새라고 하여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바지를 입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2006년, 2007년에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평양시내에서도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며 밝은 원색의 바지 정장 차림을 하거나, 바지에 운동모를 쓰고 멋을 낸 여성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 나. 출혈노동: 과도한 노동과 건강 악화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 주부로서의 역할과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는 데 따른 북한여성들의 이중 노동 부담이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식량난, 경제난 이래 소수의 부유층 여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여성들의 일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노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장사 등 경제활동을 씬 없이 하면서도 밥 짓기, 빨래, 청소 등의 일상적인 집안일과 남편 시중,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 환자 간호, 빨감 마련 등에 몹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또한 경제난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여성들의 노동 부담은 나날이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여성들은 오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일어나 밥을 지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남편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는다. 가족들의 아침식사와 집안일을 간단히 끝내고 나면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온다. 여름철에는 9시 이후, 겨울철에는 7시쯤이 된다. 집에 돌아와서는 역시 탄불에 밥을 지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이후에는 다음 날 장사 준비와 일상적인 집안일 등을 한 후 밤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장사를 하는 여성들은 하루 2~3시간씩 잠을 자며, 직장여성인 경우에는 밤잠을 거의 못자고 장사거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나무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탄을 놓고 밥솥을 올려 밥을 짓는다. 일부 가정에서는 중국제 전기밥솥이 있어도 전기사정이 여의찮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탄불에 밥을 짓는다. 때맞춰 마음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 검열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굳이 전기밥솥을 사용하려는 여성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기다리다가 전기가 들어올 때 밥을 지으며 전기 검열하는 시간을 피해 새벽 2~3시에 한다.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전기밥솥은 가사노동을 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팻감 마련을 못했을 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다.

전기검열에 걸리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쓰도록 허용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중국제 밥가마요. 그것을 쓰는 경우는 벌금처리 된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새벽에 (전기검열) 돌지 않을 때 일어나서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도시락을 싸서 세대주를 내보낸단 말입니다. (전기검열) 도는 것은 아침 6시부터 해서 7시 사이에 돈단 말입니다.(사례10)

쓸데없이 밤에, 새벽에 불을 준단 말이에요. ... 그러면 나무 같은 팻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기밥가마 있잖아요, 그게 중국에서 들여와요. 그러면 그 안에, 거기다가 밥을 하고 그래요. 자지 않고 눈을 뜨고 기다리고 그래요. 그 안에 밥을 해놓으려고 그렇게 하죠.(사례13)

I
II
III
IV
V



여성 농장원(농민)들은 대개 오전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먹고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농장에 출근하여 8시부터 현장 노동을 하고 저녁 8시쯤에 퇴근한다. 그 사이 2시간 동안 주어지는 점심시간에는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밀린 집안일도 한다. 여성 농장원들은 열흘에 한 번씩 맞는 휴식일에도 장마당 장사에 나선다.

그때는 장마당에 가요. 장날이란 말이에요. … 매일 시장이 열렸지만 우리 농장원들은 그저 그렇게 밖에는 못 쉬었던 말이에요. (장마당까지는) 걸어서 30, 40분 걸려요. 우리네는 차란 것도 없고 그래서 메고 걸어야 돼요. 자기 것을 다 팔고, 사고 들어오는 거예요.(사례23)

지역이동을 하며 장사를 다니는 여성들은 짧게는 몇 날, 길게는 수십 일에서 수개월 동안 집을 떠나 생활한다. 함경북도 무산에 살았던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평양, 개성 등을 다니며 장사를 하느라 20일 동안 을 집밖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사례6). 열차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산에서 평양까지 장사를 다녀오면 5일 정도 걸리며, 온성에서 평양까지는 하루, 또는 2~3일이 걸린다. 때로는 목적지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기차를 타고 지역이동을 하며 장사를 다녀온다. 이때에 여성들은 식사와 세면, 그리고 특히 용변하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신변안전과 장사 짐 분실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인해 극심한 긴장상태에서 지내게 된다.

장사를 하는 게 수월치 않아요. 우선 교통이 불편해서, … 차가 제시간에 다니지 않으니까, 그 행방 짐을 쥐고 그러니까, … 짐을, 와대 같은 배낭을 몇 개씩, … 연착이 되니까 사람이 피곤해요.(사례41)

(기차타고) 멀리, 앉아서 가다보면 다리 붓고, 허리가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불편한 점, 혹시 장사 짐인데 이거 훔쳐 가면 어떻



계 하나.(사례4)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들은 사회차나 군대차를 이용하며, 먼 거리를 장사 짐을 지고 걷기도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기차를 타지 않고 양강도 혜산에서 평양을 오가며 장사를 다니는데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으며 “검열 단속 구간”에서는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산을 타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사례25)

집안일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을 위해 장사 등 경제활동을 하느라 노동 부담이 큰 북한여성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나 이마저도 조직생활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는 전업주부나 직장여성이나 다르지 않다. 식량난 이후로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sup>153</sup> 조직생활이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편이라고는 하나 일상화된 생활총화, 학습, 노력동원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좀처럼 쉴 틈이 없다. 생활총화는 주, 월, 분기, 연간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학습은 매주 한 차례 실시하며, 이 외에도 특별지시 전달을 위한 특별회의 소집이 있다. 또한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적게는 한번 정도의 노력 동원이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도로 건설 현장에 나가 모래·자갈 나르기, 도로 닦기 등을 한다. 이른바 ‘농촌 전투기간’에는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 종일 동원되어 모내기 등의 일을 하기도 한다. 생활총화, 노력 동원 등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일정액을 여맹에 납부하며, ‘행방’을 가거나 규모가 큰 장사를 하는 여성들 중에는 아예 일년치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행방을 가거나 큰 장사를 하는 것, 이만한 돈이면 입금시키고 조직생활도 안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동에 입금을 시킵니다.

<sup>153</sup> -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31세부터 55세까지의 일반여성인 가입대상이며, 전업주부인 ‘가두녀성’과 요양 등으로 노동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가입한다.



...(입금)시키면 일체 일 년 동안 정규화 한 번도 참가 안한다 말입니다. 생활총화든지 동원이든지 전부 참여 안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고 참가 안하자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동원을 가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동원가라면 여기에 가고, 저기에 동원가라면 저기에 가고 그렇습니다.(사례10)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여맹 조직생활은 지역에 따라, 또는 여맹 간부의 의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여맹위원회의 권한 및 통제가 심한 편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거의 일 년 동안 생활총화를 거르기도 했다고 한다(사례16). 이와 같은 실태는 조직생활에 불참하기 위해 일 정액을 납부하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납득할만하다. 여맹에 따라서는 장마당 장사를 하느라 조직생활에 불참하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생활을 하는 날은 아예 장마당을 폐쇄 조치하고 생활총화, 학습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2006년부터 ‘가두녀성’이 급증함에 따라 여맹의 통제가 강화되었는 바, 조직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장사 활동을 규제하였다고 한다.

2006년부터 가두가, 여맹이, 집에서 노는 여자들의 머리수가 더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직장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두가 더 많아져서 여맹이 굉장히 강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정규화를 참가하지 않으면 그 (시장의)탁을 내놔야 한단 말입니다.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어느 장마당이나 화요일이면 문을 다 닫아야 된단 말입니다. 화요일에 자기 구역에, 자기 동에 가서 조직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생활총화를 하고.(사례10)

그러나 여맹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조직생활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식량난 이전에는 “엄격하지는 않았어도 규범적으로” 조



직생활을 진행하였으나 식량난 이후로는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진행되었는 바, 여맹위원장이 여맹원들의 어려운 생활을 적극 감안하여 생활총화나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식량난 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그때는 대게 좀 조직이 썩 때니까, 원활하게 조직체가 움직일 때니까, … 엄격하진 않아도 규범적으로는 했어요. … 점차점차 어려워지니까, 다 사정이 그러니까 어찌겠냐, 그냥 책임자가, 위원장이 그냥 한마디 하고 그리고는 그냥 살면서 사는 얘기, 이번에는 어디 갔었다, 이런 수다를 앉아서 떨다가 오는 거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위원장이 알아서, 그냥 그날 온 사람 명단 적고 간단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짚막하게 한 글씩.(사례8)

북한여성들은 ‘아침 식전 동원’이라고도 하는 ‘가두노력동원’에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는 하루 일과 시작 전에 각 세대별로 양어장 파기, 사적관 건설 등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 돌 나르기, 모래 운반, 김 매기, 모내기 등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동원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역시 현금 납부를 해야 하며, 이는 ‘세부담’<sup>154</sup> 중의 하나이다. 농촌에서는 ‘식전작업’이라고도 하며 오전 6시에 나가서 30여 분 정도 수로파기 등을 한다(사례 23). 직장여성들은 8시간 노동 후 ‘사회작업’에 동원되어 1시간, 또는 2시간씩 일을 한다.

가두노력 내려가지고, 아침에는 출근만 하면 괜찮은데, 세대마다 세부담이라는 거 있거든요. 일체 거기에 대한 보수는 없구요, 의무적으로 아침 식전동원이라고 합니다. 양어장 건설하면 시기별 당의 방침 관철하기

<sup>154</sup> - ‘세부담’이란 노력동원이나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물품 제공 요구 등에 대해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라서는 ‘세유부담’, ‘세대부담’, ‘세외부담’이라고도 한다.

위해서 세대별 1명씩 동원돼 가지고 약 1시간씩 양어장 파기 동원되고, 또 사적관 건설이라고 하면 막돌 나르기. 세부담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례11)

소수의 부유한 여성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집 안팎에서의 과도한 노동에 지쳐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다. 이들은 바쁜 중에 틈이 나면 텔레비전 시청이 고작이다. 그러나 부유한 여성들은 말 그대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긴다. 이들은 배터리 충전을 해서 가전 제품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피아노 개인교습도 받고 한국 DVD도 여유 있게 즐긴다.

그래도 퇴근해서 와서는, 저희는 전기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전기 오는 시간에 밧데리(배터리) 충전을 해서 조명을 다 보고, 티브이, 냉장고 다 돌리고 그랬거든요. 색 티브이는 전기가 많이 들어서 못 보니까 조그만 흑색 티브이를 보고 디브이디도 빌려서 보고, 집에 항상 피아노 있고 그래서 항상 피아노 가정교사가 매일 와 있었으니까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피아노 가정교사가 집이 바로 옆이니까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문화생활도 많이 하죠. 한국 디브이디 보지 말라는 것도 계속 보고 그랬어요.(사례17)

위의 내용들과 같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력에 부담이 될 만큼의 노동을 하는 북한여성들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노동이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실상 1990년대 이래 심화,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인해 많은 북한여성들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sup>155</sup> 이와 같은 영양 상태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

<sup>155</sup> - 2002년 UNICEF · WFP가 북한당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영양실태 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의 조사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약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순 외, 『2008 북한인권백서』

노동을 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이 나빠지며 가족부양의 책임 증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배가되는 것이다. 또한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여성들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떨어지고, 영양부족 상태에서의 수태로 인해 유산, 또는 사산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모성사망비(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아 10만 명 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는 67명으로 세계 60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아사망률(생후 1년 미만 영유아 1,000명 당 사망 수)은 42명이고, 여성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각기 다른 연령대의 출산율과 같은 비율로 아이를 낳게 될 경우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아이들의 총 수)은 1.94명으로 세계 전체 평균 2.56명보다 낮다.<sup>156</sup> 또한 경제난에 따른 의료보급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잘못된 피임 및 낙태를 시도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중국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피임기구를 잘못 사용하거나 낙태수술은 불법이므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로 낙태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면 국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이 40살까지 무조건 아이를 3명 이상 낳게끔 되어 있으나 날로 심해지는 식량위기로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기에 절대다수가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피임을 하고 혹시 임신이 되면 병원에 찾아와서 무조건 낙태를 해 버린다.<sup>157</sup>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44.

<sup>156</sup> -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p. 87.

<[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icators/e\\_indicator1.pdf](http://www.unfpa.org/swp/2007/english/notes/indicators/e_indicator1.pdf)>.

아이를 낳고 싶어도 왜 못 낳는가, 먹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못 낳아요.  
(소파수술은) 불법이에요, 최근에 불법으로 되었어요. 김정일이가 아이  
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죠. …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가만 해요.(사례32)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의류 공급도 중단됨에 따라 속옷 부족 및 불결  
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중국제  
속옷을 구입해 입는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은 되도록 오래 입기  
위해 면제품보다는 잘 헤지지 않는 나일론으로 만든 속옷을 구입해 입  
으며, 다른 사람이 입었던 속옷을 구해 입는 여성들도 있다. 이와 같이  
나일론 속옷이나 불결한 속옷을 오래 입는 경우에 부인과 질병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리  
를 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들이 ‘위생대’(생리대) 부족으로 인  
해 비위생적으로 생리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군들에게는 생리대  
가 공급되고 부유한 여성들과 지역이동을 하며 장사를 다니는 일부 여  
성들도 중국산, 또는 북한산 생리대<sup>158</sup>를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생산량  
이 아주 적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제 천’이나  
‘인조 천’을 사용한다.

94년도부터 군부대에서는 남한에서 같이 위생대 있잖아요, 생리대, 그  
게 공급되거든요. … 군부대 애들이 생산해가지고 하면서 장마당에 쪼  
금 쳐서 나왔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 그게 60원 타는 월급에서 20원  
했다면. 열 개짜리 한 개가 20, 그 달에 값이 올라서 지금은 500원, 700  
원 하거든요. 그니까 월급 2500원 타는데서 700원 제하면, … 진짜 부담  
이죠.(사례11)

생리처리 문제가 많이 불편하죠. … 제가 평양에서 살 때만 해도 생리대

---

<sup>157</sup> - 정선희(가명: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의료현실,” 『화해와 나눔』 (2008 여름호), p. 31.

<sup>158</sup> -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평양에 생리대 생산 공장이 하나 있다.

를 썼어요. …(80년대부터 평양에) 생리대 만드는 공장이 있었죠. … 지방까지는 안내려오고, 내려 왔어도 그걸 전부 회전할 수 있는 수량도 없었고, … 중국제 생리대는 좀 나은 게 있었는데 좀 비쌌어요. 그래서 사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천으로 쓰고.(사례4)

## 다. 여권: 가부장권의 약화와 여성에 대한 의식 변화

일반적으로 북한의 가정에서 부부관계는 남편 중심의 수직적 관계이며 ‘세대주’라 불리는 남편은 절대적인 가부장권을 행사한다.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가정에서 여성은 남편에 대해 종속적인 지위에 있으며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제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실태는 “근절되어야 할 봉건 유교사상의 잔재”인 남존여비사상이 아직도 북한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단위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종래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서 일단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남편들이 장사에도 나서고, 밥 짓기, 청소, 아이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며 아내의 노고를 분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여성들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가부장권의 약화를 시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북한의 가정에서 가부장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데에는 식량난, 경제난이 근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떠맡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세대주’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이다. 첫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집 안팎을 뛰어다니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고마운 마음에서이다.



둘째, 직장에 다녀도 생활비를 벌어들일 수 없는 가장을 대신하여 아내가 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안일과 아내의 장사를 돕는다. 셋째, 식량난 이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여성들이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유사한 사태 발생을 우려하여 집안일과 장사를 돕는 등 아내에 대해 적극 배려한다. 넷째, 주민들 사이에 빈부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아내의 일을 도와 가정살림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이다.

그 대신 전반적인 흐름은 뭔가 하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도와줘요. 이게 고난의 행군이 만들어 놓은 그 뒤끝이, 남자가 여자들이 불쌍한 걸 알고. 흔히 보통 집들 다 그래요. … 여자 혼자 힘으로 힘이 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밥새도록 남편이 불도 때주고 껌배기 밀가루 반죽도 같이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사례38)

우리 남편도 살림이라는 것은 할 줄도 몰랐는데 제가 전역 각지로 장사를 다니면서 사니까 살림을 저절로 하게 되고 그랬어요. … 가정 살림,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남자들이 그 전에는, 배급 줄 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배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아예 여자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니까, 장마당에 나가 앉아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하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다 밥 하고 집을 거두고 그랬지요. 애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사례22)

2000년도 전에는 가정이, 북한 남자들이 술을 먹고 여자들을 잘 때리거든요. … 자기 부인 때리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렇게 여자를 홀시하고 괘시하고 천대하고 엄청 그랬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게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아졌냐고 하니까, 나도 살기 힘들는데 내가 구태여 때리는 남편하고 살아서 뭐하겠어요, 그래서 갈라진 가정이 많더라고요.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자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그런 가정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사례30)

식량난, 경제난에서 비롯된 가부장권 약화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크게 보면 가부장권이 약화되었다는 의견과 여전히 가부장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부장권이 더 강화되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각 가정에 따라 가부장권 행사의 양상 및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며, 두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감에 따라 경제력을 가진 여성들의 발언권이 보다 강해졌다는 사실이다.

여자들이 활동을 세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좀 세지요. 발언권도 있고 여자들이 장사를 잘 못하는 집은 잘 못 살고, 여자들이 장사를 잘 하는 집은 잘 살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권한이 올라가게 되지요.(사례22)

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가정에서 제기 되는 일도 일인이 주도합니다. 모든 일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 92년 결혼할 때하고 사업(경제활동) 후에 발언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사례 12)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이 점차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의식변화는 가족부양을 위해 헌신적·희생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민과 고마움이 근원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 시청과 중국을 오가며 듣고 본 여성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변화의 속도를 더하였다.

우리는 여자 하는 일 따로 있고 남자 하는 일 따로 해야만 했고, 그답에 집안에서 부엌일에 남자가 나서면, 저거 진짜 여자한테 주어 산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면서는 사람들이 문화적 식견도 좀 달라진 거 같아요. ... 아주머니가 장마당 나가서 장사하잖

I
II
III
IV
V

아요, 그러면 저녁 퇴근시간에는 짐 받으러, 나그네들이 직장에서 퇴근했다가 자전거를 끌고 장마당에 다 와서. 여느 때 같으면 상상도 못 하죠, 부끄러워서 일일이 장마당 들고 나와서 할 게 못돼요. … 나그네가 밥 다 해놓고 대부분은, … 다 집집마다 달라도, 그래도 드라마 영향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주방일은 여자가 한다하는 인식이 좀 깨진 거예요. 발전한 거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도 지펴주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부엌에 남자들이 나서는 그런 게 그닥 부끄럽지 않은 일로 되구요. (사례11)

(남존여비사상이) 중국에서,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여자들의 권위는 남한여자 못지않거든요? 여자들이 남편 쫓아내잖아요. 남편 패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 남편 말은 말이 아닌 거예요. 경제권을 여자가 쥐고 있으니까, 막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 굉장히 쇼크로 다가왔다가 이 집 가도 그렇고, 저 집 가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가 그런 세상이구나, 조금씩 그렇게 사회를 알아가니까, 남자가 가까스로 결혼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무지몽매했던 껍질을 벗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굉장히 제가 의지적으로 바뀌어요.<sup>159</sup>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는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는 소설작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곧 식량난 이후 북한의 공식 가치지향에 있어 남녀 동등한 수평적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더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소설은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발표된 작품들이다. 소설에는 생활고를 겪는 아내에 대한 연민과 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집안일을 돕는 남편들의 모습,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타박하고 핀잔을 퍼붓는 아내, 그리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오히려 아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남편의 모습들도 그려져 있다.<sup>160</sup>

<sup>159</sup> - 제철소 전기공, 함경북도 청진, 30대 남성, 1997년 1월 탈북.

<sup>160</sup> - 안홍윤, “회초리,” 『조선문학』 (2001.8); 윤경찬, “푸른 꿈,” 『조선문학』 (2003.2);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 (2001.5);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2001.9); 김문창, 『열망』 (평양: 문화예술종합출판사, 1999) 참조.



그러나 수령을 아버지로 한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체제구조가 시사하듯이 아직도 북한사회 전반에는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으며, 따라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생활의식,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에 있어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현상들을 종래의 가부장적 생활의식과 성역할 분담성·고정성의 약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여성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세대주’로 받들고 산다.

북한은 여기와 달라요. ... 아직도 북한은 봉건적인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서 남편을 많이 가꿔주고 이런 형태예요.(사례40)

5시에 일어나서 밥부터 하죠. ... 또 한쪽 켠에 앉아서 남편 구두를 닦아야 되고, 오늘 남편이 나가야 될 걸 책상에 놔 두어야 되고, ... 저 같은 경우는 라이터나 담배까지도 다 챙겨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 차비를 하는 거죠.(사례5)

(2007년) 그때 2,000원 벌어서 쌀을 한 kg 사지 않으면 안돼요. 쌀을 한 kg 사면 어느 집이나 같은데, ... 대부분 쌀을 한 kg 사서 세대주 도시락만 싸고요.(사례10)

여성에 의한 가족부양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오히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화된 사례들도 있다. 가정폭력은 아내가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존심이 상한 남편,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일상적인 과음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 그리고 ‘행방’을 다니는 아내를 의심하여 대화보다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의해 발생한다.

I

II

III

IV

V

## 라. 자립: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식량난으로 인해 떠맡겨진 가족부양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과도한 노동 및 건강악화를 초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나가면서 가족의 생계유지는 물론 부의 축적도 가능해지는 등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점차 높아진 것이다. 북한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특히 장사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강화되었다. 여성들은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사회 공적·사적 연결망 활용, 자금조달, 이윤배가, 수지타산에 따른 상품선택 등 나름대로의 장사 수완 내지 요령을 터득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경연선을 포함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중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상인들과 거래하고, 남자들과 함께 외화벌이라는 명목으로 비법적인 밀수품 밀매매를 하는 대담성도 키웠다. 여성들은 장사를 통해 가족부양을 하고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었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르기보다는 국가적 수요 내지 요구에 따라 이른바 ‘혁명가로서의 역할’과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남자(가장)의 경제력에 의지하고 살았던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능력을 쌓고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북한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식량난으로 인해 본격화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자립능력 제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해서 평가되어야 한다.<sup>161</sup> 첫째,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은 무엇보다도 가족부양이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여성 자신의 의지로 중단하기 어렵다. 둘째, 경제활동

<sup>161</sup>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 변화』, pp. 90~91.



량이 증대됨에 따라 가족의 생계유지는 물론 부의 축적도 가능해지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과 성폭력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는다. 셋째, 일부 여성들이 범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나 이윤 추구 등의 비법적 행위는 식량난 이전에 북한여성들이 지녔던 건전한 직업의식을 변질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같은 행위는 여성들로 하여금 왜곡된 직업의식을 형성케 할 수도 있다. 넷째,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음식 장사, 또는 농산품·공산품 등의 단순한 물품 거래를 할 뿐 전문지식이나 세련된 기술, 또는 오랜 숙련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이전에 북한여성들이 지녔던 직업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 마. 차별: 틀에 박힌 성 차별적 직장생활

북한 주민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국가계획에 의한 사회 부문별 노동력 배치 원칙에 따라 취업 및 직장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취업 및 직장 배치에서의 성 차별은 직종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난다.<sup>162</sup> 여성들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되며, 이로써 보건, 상업, 보육, 교양, 교육, 체신, 문화 등 상대적으로 여성 특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이 야기된다. 북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한 예로 남녀가 각각 50%씩 근무하고 있는 함북 온성의 한 공장 기업소에서는 여성들이 생산 기계를 돌리고 남자들은 원료 준비를 담당한다(사례4). 300명 규모의

<sup>162</sup> - 이금순 외, 『2008 북한인권백서』, p. 227.

직물공장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고 있으며 소수의 남자 근로자들은 기계설비, 수리, 보일러 가동 등 공무를 담당한다(사례16).

직업 및 직장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북한여성들에게도 선호하는 직업과 배치 받고 싶어 하는 직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적 연고, 이른바 ‘안면관계’라든가, 또는 뇌물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하며, 가고 싶은 직장 및 부서로 가기 위해 체력적으로 무리한 중노동도 감수한다. 그런가 하면 많지는 않지만 직장에서 좋은 부서, 편한 자리에 앉고 싶어 여성 스스로가 당 간부나 직장 상사에게 성을 상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을 노려 당 간부나 직장상사가 승진, 또는 입당을 미끼로 성적 대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양정사업소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처음엔 일했어요. 쌀 포대 매는 일을 했어요. 힘들고, 7개월 동안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 쌀을 공급해주는 공급소에만 들어가면 이런 매는 일은 없어요. 매는 일은 없고 또 살아가기는, 정말 제가 살아가기는 정말 좋죠. 쌀을 창고에 넣어놓고 사니까, 그리고 또 배급을 정상적으로 타고 하니까, 그 직업을 따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사례41)

그런 경우는 더러 있는 거 같아요. ... 말은 모두 그렇게 해요. 옆에서 누가 뭐, 저 사람은 누구랑 관계가 좋더니 뭐 어떤 자리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은 해요.(사례4)

북한 여성들의 직장 출근과 퇴근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대체적으로 오전 7시 30분, 또는 8시 출근하며 6시, 또는 6시 30분에 퇴근한다. 무역 회사 기술지도원이었던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으며(사례9), 광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통계원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했다고도 한다(사례6). 직장이 가까운 데 있는 여성들은 걸어서 출·퇴근을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여성들은



자전거, 또는 통근기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통근버스는 없다(사례6). 직장생활은 일상적인 ‘독보’로 시작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초상화를 담아놓는 일도 근무 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일상적인 주요 과제이다.

모시는 사업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청소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요. 모시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보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초상화 있잖아요. 방마다 다 모셔져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모셔져 있는데 그 보위함이 따로 있어요.(사례11)

독보는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노동신문 사설, 당면 정세 및 당 방침 해설 등을 가지고 당 비서가 약 20~30분 정도 진행하며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한다. 독보가 끝나면 당일의 과제 할당 및 지시를 받고 제각기 현장으로 가서 담당업무를 시작한다. 점심식사는 집에서 마련해 간 ‘벤토’(도시락)로 해결하며, 직장이 집에서 멀지 않은 여성들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다. 직원식당이 있는 일부 직장에서는 ‘현장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도 한다. 점심시간은 대개 12시부터 1시, 또는 1시 30분까지이며, 협동농장에서는 2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잡담을 하며 휴식을 즐기는 시간이 별로 없으며, 특히 현장에서 3교대제로 일하는 생산 노동자들은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도 없이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을 휴식 없이 일한다.

8시간 노동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노동법에 뭐 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점심시간 빼놓고 쉬고 뭐 그런 건 없고, … 현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은 3교대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12시에 나와서 점심시간도 없이 8시까지, 8시간 딱 돌리고, 4시까지 돌리고, 또 4시에 나온 사람들이 밤 12시까지 일하고 들어가고.(사례4)

I
II
III
IV
V



그러나 직장에서 맡은 업무에 따라서는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는바, 공장 기업소에서 '기술준비원'<sup>163</sup>으로 일하며 외근이 많았던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근무시간도 나름대로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그냥 기술 준비하는 일이었으니까 저한테는 자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지령을 받잖아요, 저는 일 자체가 공장에서 7시간, 8시간 딱 있어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외부에 나가서 많이 어떤 체결(계약)을 하는 이런 일도 많았죠.(사례4)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은 거의 없으며 생산월말에 생산총화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상금으로 식사를 함께 하거나, 명절 때에 기업소에서 나누어 주는 돼지고기 등을 차려 놓고 함께 나누어 먹는 정도이다(사례4). 이런 때에는 여성들도 술을 한두 잔 나누어 마신다. 직장여성들은 생일에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며 부모님 생신 때에도 직장동료나 이웃사람들을 초대한다. 식량난이 심각했을 때에는 이러한 초대가 어려웠으나 2000년대 들어서 살림이 나아지면서부터는 이전과 같이 친구나 직장동료, 이웃사람들을 초대하여 자리를 함께 한다.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전혀 못할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문화가 더욱 많이 살아났어요.(사례4)

퇴근 후 여가활동은 거의 없다. 미혼의 직장여성들은 근무를 마치면

---

<sup>163</sup> - 사례4에 의하면 '기술 준비원'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을 말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석탄, 원자재 등을 사전에 수치로 파악하여 안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공장 집으로 돌아가 텔레비전 시청, 독서 등을 하거나 집안일을 돕다가 잠자리에 든다. 동네에서 친구를 잠깐 만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쉬는 날에 만난다. 기혼의 직장여성들은 일상적인 집안일과 자녀 돌보기 등으로 퇴근 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생일 초대나 퇴근 후의 일과가 북한의 직장여성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직장여성들의 대부분은 전업주부와 다름없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퇴근 후에도 장사 등 부업 활동을 하느라 바쁘고 힘들게 지낸다. 또한 퇴근 후에 동원되는 ‘사회작업’으로 노동 부담에 시달린다. 직장여성들은 하루 근무를 마치고 나서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두 시간씩 풀 뽑기, 양어장 건설, 분토과제 등 ‘사회작업’을 수행하며 작업과제는 시기별로 주어진다. 겨울에는 퇴근 후의 사회 작업이 없는 편이지만 대신 의무적으로 할당된 인분을 내야 한다. 예를 들면 겨울 3개월 동안 종업원 1인당 2.5톤의 분량을 내야하며, 아니면 돈으로 환산하여 할당량을 완수해야 한다.

여덟 시간 일하고 뒤 끝에 또 모입니다. 사회작업이라고 하는데요. 2시간 해가지고. 일체 보수 없는 작업에다가, ... 무슨 여름철에는 풀 뽑기 해라, 무슨 또 양어장 건설하는데 또 해라, ... 겨울에는 크게 건설이야 못하잖아요, 그때는 그 대신 아침에 지도원들이고 뭐고 무조건 1인당 10키로그램씩 하루에 나올 때 바께쓰 하나씩은 인분, 그렇게 생산합니다. ... 그게 의무적으로 겨울 3개월 동안 1인당 과제가, 종업원 1인당 두톤 오백이고 그렇거든요. ... 돈 내가지고 인분 인출하는 그런 표 있는데 형식으로 얼마, 톤당 돈으로 삼니다.(사례11)

북한여성들은 직장에서 받는 14일의 정기휴가를 특별한 가족행사가 없으면 연말에 한꺼번에 사용하며 대개는 집에서 쉬거나 장사를 하며 지낸다. 또한 여성들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산전(60)·산후

I
II
III
IV
V

(90) 휴가 150일을 받게 되며 이때에는 집에서 해산과 육아 준비를 한다. 매주 한 차례의 휴식일과 국가명절 공휴일에는 밀린 집안 청소, 빨래 등의 '위생 사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쌓인 이야기도 나누며, 한국 CD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한다.

직장에서의 생활총화도 주별, 월별, 분기별, 연간 등의 생활총화로 각각 실시된다. 생활총화는 조직에 따라 요일이 다르며 대체적으로 30분 정도 진행된다. 생활총화가 부담스럽기는 하나 직장여성들은 대부분이 참가한다.

생활총화라는 것이 우리가 내 놓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활총화의 법이 무조건 내 비판을 하고 호상비판을 하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체로가 호상비판을 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매일 퇴근을 하는데 무슨 잘못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달마다 하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대부분 참가 하는 거예요. 참가해 가지고 그저 앉아 있으면서 짚어서 하라하면 하는 거고, 자기 성격인 거예요. ... 준비된 사람부터 하라고 말은 해요. 초급위원장이 생활총화 준비된 사람부터 말하라고 이리거든요. 그러면 앉은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서서. 그런 사람들은 재깅재깅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죽어라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저 나와서 하기도 하고. 초급위원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총화마다 틀려요.(사례16)

생활총화 때에 하는 자기비판의 주요 내용은 출근해서 아침 청소하기 전에 해야 하는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 이른바 '모시는 사업(보위사업)'을 게을리 했는 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며, '호상비판'도 미리 상대방과 말을 맞추어 놓는다(사례11). 학습은 직장에 따라서 매주 1회, 또는 2회 실시하며 한 시간 이상씩

진행한다. 일급기업소, 상급기업소에는 공장 안에 ‘사상연구실’이 있으나, 그 외의 지방산업공장 기업소들은 지역 ‘사적관 연구실’에서 학습을 진행한다(사례16). 학습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위대성 교양, 김정숙 관련 교양사업, 공장기업소 평가 관련 강연제강, 새로 발표된 가요 해설, 선군정치의 우월성 선전 등이다.

직장여성들 역시 농번기에 농촌 지원을 나간다. 그러나 생산을 하지 않는 공장, 기업소가 농촌 지원을 나가며 생산을 하는 공장, 기업소에 대해서는 농촌 지원이 면제된다. 농촌지원은 대개 5월 들어서 주변 농장으로 거의 한 달 동안 나가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온다.

농번기에 당연히 “전 균등적으로 농사에 집중하자”, 위에서 조치가 내려 오니까 당연히 생산을 안 하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농촌 지원을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생산을 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 라인이라고 해서 그래도 많이 면제 되었어요. 그런데 생산을, 만약에 자체가 떨어지면 못 한다, 이게 완전히 확고해지면 그 군에서도 가만히 안 놔두죠. 그 공장 생산 안 한다 그러면 그 공장도 어디 농장에 내보내서 농사 시키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일했어요. 공장에서. 참 농촌일 나가기 싫어서 모두 생산한다는 걸 참 좋아했어요.(사례4)

## 바. 홀로서기: 독신 선호와 이혼율 증가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 ‘선택’이라기보다 의무수행에 가까운 생활의 필수 과정이며, 북한여성들은 결혼에 있어 적극적·능동적이기보다는 소극적·수동적이다. 남성우월주의, 남성중심주의가 만연해 있고 전통적인 ‘조선녀성’의 미와 부덕을 강조하는 북한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을 천시하며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하기보다 남자로부터 배우자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통념 때문에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는 20

I
II
III
IV
V

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가 중대한 의의를 지니며 독신이나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탈적 행위이다. 그러나 식량난,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에서도 30대 미혼여성이 드물지 않고, 여성들 사이에 독신 선호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는 이혼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들이 독신을 선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식량난,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가 근원이다. 어려운 살림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도 벅찬 형편에 결혼해서 가족부양의 책임까지 떠맡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여성들의 독신 선호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평양에도 30대, 40대의 독신 여성이 많아졌다고 한다.

아가씨들도 여기처럼 웬만하면 시집을 안가자고 하고, 웬만큼 돈이 없는 남자라면 안 가려고 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집을 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사례25)

북한에 이제는 살기 힘드니까, 어느 남자한테 시집가자는 것이 없어요.  
(사례35)

북한에서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가족법 제20조). 이혼 사유도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흠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족법 제21조)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성격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되면서 북한에서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에 의한 이혼제기가 많아졌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남편에 의한 이혼은 대부분이 아내가 장사를 다니며 다른 남자와 사실혼의 관계로 지내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제기

된다고 한다.

남편하고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니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 거래가, 관계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지요. 남자가, 여자가. 8.3부부라고 합니다. 8.3부부가 생겨나서부터, 어차피 남자들이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들통 나거나 그러면 죽어도 못 산다.(사례4)

여자들은 혼자 장사 다니면 또 힘들잖아요. 남한테 그 자기 돈과 그런 걸 물품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가 다른 사람, 친구 남편, 자기 잘 아는 사람 아저씨하고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라면 불륜이 생기죠. 그렇게 생기느라면 둘이 도망간 걸로. 2001년도인지 2002년도인지, 그 때 공식적으로 그걸 다 이혼시켜주었어요. (부화 사건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주고 이혼 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해주고. 너무 또 많으니까.<sup>164</sup>

아내에 의한 이혼은 대부분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제기된다. 앞에서 밝혔듯이 북한여성들은 경제력이 없는 남편이어도 ‘세대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따라서 경제적인 무능력만을 탓해서 헤어지려는 여성들은 많지 않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남편이 일상적인 과음과 가정폭력으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아내가 ‘행방’을 다니는 사이에 남편이 외도를 하면 여성들은 이혼을 제기한다.

술을 마시고 우리 쪽 북한남자들은 대변에 손부터 나와요. 성격이, 벌써

<sup>164</sup> - 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 30대 여성.

말투가 벌써 다른데요. 어쨌든 좀 급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사례41)

버는 것은 없는데 남자들이 술을 좋아하면 그 가정생활이 박살이 나요. 북한 사람들의 결함이 그거예요. ... 거기는 벌어도 그렇게 먹을 처지가 못 되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술을 좋아하면, 어쨌든 술 좋아하는 집안은 그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생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 한 70%는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괜찮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유지하고요, 보통. 그래서 중국에 넘어 온 여자들은 그래서 넘어 온 거예요. 남편들이 그래서 갈라지고, 생활 유지하기 힘들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넘어 온 거예요.(사례31)

옛날에는 부화했다 서로 좋아했다 하면 막 떠들고. 부화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봐요. ... 아주머니들은 행방 떠나면 며칠간 자리 비우잖아요. 그니까 아내가 벌어드는 돈에 나그네는 사는 게 좀 괜찮잖아요. 부유하면 딴 여자를 보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막 망신스러워요. 근데 이제는 보통 일도 많았어요.(사례11)

식량난 이후의 이혼율 증가에는 배우자의 행방불명도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식량난 이후 북한에서는 배우자의 행방불명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신고 후 3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사례 41).



# IV

## 일상생활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역으로 이러한 일상세계의 변화는 북한의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북한의 일상세계의 변화가 북한 사회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단정적으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체제의 변화에는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상의 변화가 사회구조적 변화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할지를 관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네 가지 요소들을 살펴본다. 일상의 변화와 사회 체제의 변화를 매개하는 네 가지 요소는 행위자들간의 관계 변화의 척도인 계층구조의 변동과 관계망의 변화, 권력과 주민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배와 저항, 포섭과 공존의 관계를 의미하는 통제와 저항, 행위자의 행동 양태의 변화로 연결될 개연성을 잠재한 주민의식의 변화이다.

## 1. 계층 구조의 변동

경제난 이전 시기의 북한의 계층구조는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기준보다는 성분이라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구분되었다. 북한은 1970년 주민등록사업 시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관리해왔으며, 1990년대부터는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로 분류하고 있다.<sup>165</sup>

<sup>165</sup> - 기본군중에는 혁명가·혁명가 가족, 영예군인, 집권자, 영웅·공로자, 제대군인 등이 포함되며, 복잡군중은 계급적 토대, 사회정치생활 경위, 가정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계층으로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및 가족, 월남자 가족, 지주가족, 부농가족 등이 포함된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종파분자 등이 해당한다.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56~58.

경제난 이후에는 개인별 소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러한 정치적 기준에 의한 계층구조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계층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북한 주민 일상생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시장 활동 여부와 장마당 물자유통에 대한 접근 정도, 활용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의 보유 여부, 초기 자본 등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계층별 소득의 격차는 고난의 행군을 경유하면서 200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4~2005년경에는 경제적 계층이 “완전히 갈라졌다.”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소득과 소비수준에 대한 계량적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계층의 구분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대체적인 계층 분포와 계층 구분의 주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하면 2000년대 이후 경제적 계층은 상층, 중간층, 하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상층 중에서 최상층을, 하층 중에서도 최하층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계층 분포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2005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상층 5~15%, 중간층 30~40%, 하층 50~60% 정도, 농촌 지역에서는 상층은 극소수, 중간층 20~30%, 하층 70~80% 정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상, 중, 하층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소비수준, 그 중에서도 식생활 수준과 예비식량 보유 여부이다. 상층은 “쌀밥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 중간층은 “식량이 있어서 쌀밥 아니면 강냉이밥이라도 떨구지 않고 먹고 사는”, “배고픈 고생은 안 하는” 사람들이다. 하층은 “죽 먹는 날도 있고 밥 먹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

“풀죽이나 이어나가는” 사람들이다. 예비식량 보유 여부로 본다면 예비식량의 여유가 거의 없는 가구를 하층, 최소한 며칠 분 이상의 예비식량을 확보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가구를 중간층, 자가식량 구득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가구를 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66</sup> 계층 구분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북한 주민들이 계층 구분에 관해 어떠한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집이라고 상류층에 속하고, 다음에 그런대로 완전히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대로 먹고 사는데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은 먹는 것을 완전히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쓰는 데에서 말하자면 자유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 상층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됐다, 그러면 중산층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빈민이고 그렇죠.(사례4)

소비수준도 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sup>167</sup> 북한이탈주민들은 장바구니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가구의 지출 수준으로 계층을 구분하면 2007년 기준으로 하루 생활비 1만원 이상이면 상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달 생활비 30만원 이상이면 상층, 그 절반인 15만원 정도면 중층, 하층은 10만원 미만으로 볼 수

<sup>166</sup>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 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2008), p. 11.

<sup>167</sup> 중국의 사회계층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에도 계층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점차 경제적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의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경제적 기준은 첫째, 재산, 소득과 소비, 둘째, 주택 소유와 생활자원으로 최근 북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계층 구분의 경제적 기준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생활자원은 살아가는 데 편리함을 주는 유형, 무형의 자원으로 거주 유형, 내구 소비품, 교통, 통신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자원을 기준으로 중국의 계층구분을 했을 때 빈곤계층이 4.7%, 중하계층이 23.4%, 중간계층이 44.9%, 중상계층이 22.0%, 부유계층이 5.0%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도희, 『전환시대의 중국 사회계층』 pp. 48~55.



있겠다.<sup>168</sup> 중층의 하루 생활비 5천원은 3인 가족의 하루 식량인 쌀 2kg과 약간의 부식물과 연료를 사기에 빠듯한 금액이다.<sup>169</sup>

생활비 규모뿐만 아니라 소비 내용도 계층별로 차이가 난다. 주택의 규모와 형태는 집주인의 경제력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주요 지표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가에 의한 주택 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고, 경제적 계층에 따른 주거지역의 분화도 일어나고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의 거래가가 높은 부유층 거주지역이 형성되면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집의 규모뿐만 아니라 집의 위치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권력에 따라 양분되었던 주거지가 이제는 주민의 정치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초로 해서 서열화되는 중층적 분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70</sup> 북한 이탈주민들은 주택의 규모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가구를 비롯한 집안의 꾸밈새를 보면 경제력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업소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승용차, 오토바이, 일제 야마하 피아노, NTSC와 PAL 방식을 다 지원하는 일제 “다체계 TV”와 CDP, 최신 기종의 컴퓨터 등이 상류층의 상징이다. 이러한 고급 ‘중기’와 가구는 아니더라도 5장 6기를 제대로 갖추고 사는지가 중간층과 하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계층별 소비의 분화와 소비를 통한 자신의 정체감 확인 및 과시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소비하는 물품은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

---

<sup>168</sup> - 좋은 벼들에서는 상층은 월 100만원, 중층은 월 10~15만원, 하층은 월 3~4만원 지출(좋은 벼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5호; 한영진은 도시주민 월평균 생활비 5만~10만원, 30만~150만원 지출이면 상층으로 보고 있다. 한영진(2007), “북한의 사회 계층과 의식 변화,” 북한연구소, 『북한』, 2007년 5월호, p. 101.

<sup>169</sup> - 이는 2007년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2008년에는 쌀값이 두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달라져야 한다.

<sup>170</sup>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pp. 342~344.



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담배이다. 남성의 경우 “담배가 그 사람을 결정해” 준다. “고향 이상은 피워야 하고, 말보로 정도면 완전 자빠지고, 마일드 세븐은 잘사는 축에 낀다는” 것이다. 국내 담배도 대성담배공장 담배냐 평양담배냐에 따라서 “급이 다르다”. 일반 노동자들은 “누구나 피는 해당화, 아니면 뽕튀기, 말아서 피는 잎담배”를 피운다.<sup>171</sup> 여성들의 경우에는 옷차림이나 화장품이 계층별 소비의 분화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본산을 입는지, 한국산을 입는지, 중국산을 입는지에 따라 계층이 구분되며, 상류층의 경우 “브랜드 명품, 이런 상표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한다(사례24).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입었는지도 자신이 속한 계층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으면 아무리 옷의 질이 좋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데 한 벌 큰 맘 먹고 장만한 것”으로 간주된다(사례38).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의식주 생활의 차이와 소비 취향의 분화는 현재 북한의 계층 구분의 경제적 기준이 소비양식과 취향이라는 계급 구분의 문화적 기준과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부르디외(P. Bourdieu)는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소비 패턴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물질적 조건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 자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별 문화적 특성이 계층의 성

<sup>171</sup>- 사례3, 사례15, 사례28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담배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우리집단에서도 왕따 당하는, 제일 자기 잘산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양복 주머니에 담배 두개 만들어 가지고 당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쪽 권에선 물주리 담배 꺼내주고, 여과 담배, 필터 달린 거, 그걸 꺼내주고, 일반사람한테는 필터 없는 담배 주고.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처세술이 벌써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남성들의 경우에 담배를 건네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질의 담배를 건넸다는 이 사례는 기호품의 취향이 소속 계층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I
II
III
IV
V

격과 계층관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의식주의 취향, 문화활동과 스포츠, 소비품 선호의 취향 등이 사회계층 형성의 기초가 된다. 부르디외는 소비 취향을 사치 취향과 필요 취향으로 구분하고 계층에 따라 이러한 취향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계층별 소비 취향의 차이는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다.<sup>172</sup>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월소득 60만원으로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설문사례50(함경북도 청진, 노동자, 2007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월지출액 55만원 중 51% 정도를 식비로 소비하고 있고, 식비의 43%를 월 4회 정도의 가족 외식을 위해 쓰고 있다. 이 이외에 피복비로 11%, 주거비로 15%, 자녀 교육비로 14%를 소비하고 있다. 소비 내역을 보면 기호품인 술과 담배, 가전제품 및 가구, 학용품, 청량음료 등 자녀 간식, PC방 비용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공장의 옥수수 배급과 소토지에서 수확한 식량 등으로 연명한 <설문사례34(함경북도 온성, 노동자, 2006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활비의 80%이상을 주식과 부식 등 기본적인 식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복비, 주거비 등에는 거의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 중간계층 이하의 대다수 주민들이 필요 취향의 소비 형태를 갖고 있음에 비해 경제적 상위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치 취향’의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173</sup>

<sup>172</sup> - ‘사치 취향’은 필요로부터의 거리, 자유, 또는 자본 소유가 보장해주는 용이함에 의해 규정되는 물질적 존재조건의 산물이다. ‘필요 취향’은 필요의 산물로 바로 그 필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P. Bourdieu,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上』 (서울: 새물결, 2005), p. 324.

<sup>173</sup> - 2004년에서 200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영훈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소비내역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6%이다. 식비의 61.8%가 주식비, 27.4%가 부식비, 10.8%가 외식비로 쓰인다. 식비 이외에 피복비로 23.5%, 주거비로 1.0% 등이 쓰인다.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p. 7.

그렇다면 계층 구조 변동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양상을 통해 드러난 계층구조 변동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임금 이외의 소득원이 가계소득의 주를 차지하면서 소득 분포의 스펙트럼이 넓게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통한 공식적인 소득 이외에 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생계의 방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계층구조가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난 이전과 비교할 때 평균적 소비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생활수준의 절대적 차이는 더 벌어졌다. 극소수이지만 엄청난 자본을 집적한 최상위층 계층이 출현하였고, 이들의 생활 수준은 일반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의 계층적 지위는 시기적으로 통제와 강화와 이완을 반복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그다지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배급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붕괴됨으로 인해 극빈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비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의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계층간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암시장 경제와 공공 권력의 유착을 통해 당간부 등 전통적 권력엘리트계층의 일부가 정치적 권력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의 권력엘리트계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하급관료들의 경우에는 시장 질서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 대다수의 지식인계층과 마찬가지로 관계망에 기생하는 생존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중층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웠던 도시 노동자들 속에서 개인적 장사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계층상승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I
II
III
IV
V



셋째, 경제적 계층 상승의 계기는 다양하다. 외국 거주 친척의 도움 등으로 인한 초기 자본, 시장경제 진출 시기, 개인적인 장사능력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적응력 및 감각, 정보 능력, 장사에 필요한 재화 및 시장 진입 관련 이권 확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에 필요한 정치권력과의 관계망 등이 경제적 계층 상승 여부를 기늴하는 변수가 된다. 북한의 경제적 계층들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구주의 수입, 보유재산, 학력처럼 상호연계된 경험적 지시자들의 총합적 경계 설정에 의해 계층적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고,<sup>174</sup>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층구조 변동의 특성을 밝히고 향후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치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구조와 식량과 현금의 보유 정도 등의 경제적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계층구조를 매개하는 제 요인의 작동방식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sup>175</sup> 추후 이에 관한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174-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 분화,” p. 9.

175- 최봉대는 경제적 계층분화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장사능력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연줄에 주목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매개요인이 북한 주민들의 계층적 위치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 도시주민의 경제적 계층 분화를 촉진하는 사적 부문의 시장화가 기존의 정치적 지배질서를 침식하는지, 아니면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기존 지배질서 사이에 어떤 다른 성격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주목한다. 최봉대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체계는 기존 정치적 신분체계와 시장화에 추동되는 경제적 불평등체계가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 두 불평등체계는 밀접한 내적 연관성을 지닌다. 도시가구들의 계층체계 간 ‘계층적 위치의 이동’이 정치적 신분체계에 의해 개별가구들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매개로 해서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적 신분체계의 하층 가구로 내려갈수록 시장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이 별로 없는 반면에, 중간층 가구로 올라올수록 유력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갖고 있다. 강력한 비공식적 연결망자원을 동원하는 데 유리한 중간층 이상이 경제적 상층 가구의 다수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사적 부문의 시장화 진척에 따른 경제적 계층분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상승의 형성이 정치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경제난과 시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관계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공동체적 관계망, 사적 관계망, 공적 관계망으로 구분한 장세훈의 논의를 기준으로 최근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계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공동체적 관계망은 개인, 국가, 사회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형성된 소규모 집단에서 집단의 집합적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주로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맺어지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가리킨다. 사적 관계망은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그 구성원들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비인격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맺어가는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공적 관계망은 국가사회 내에서 형성된 관료제적 조직체계가 시민사회로 침투해서 위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sup>176</sup>

북한에서는 식량과 주택의 배급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을 직장과 지역사회내의 공적 관계망에 긴박시켰다. 또한 인민반 조직이나 직맹, 여맹, 청년동맹 등 각종 근로단체, 당 조직 등 강력한 관료적 관계망을

---

신분체계에 기반한 기존 지배질서를 공세적으로 잠식해나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치적 신분체계의 중하층 지위에서 경제적 상층의 지위로 오른 가구들이 이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 이상에 위치한 비시장적이거나 반시장적일 수도 있는 후견자들의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한 보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층은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과정에서 경제적 잉여의 생산적 참여자가 아닌 약탈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생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적 부문의 비공식적 시장화와 경제적 계층분화가 북한체제이행의 동력으로서 지니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봉대, 위의 글, pp. 35~36.

<sup>176</sup>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2005), pp. 106~107.

형성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해왔다.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붕괴는 공적 관계망의 속박으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배급제라는 공적 관계망을 통한 통제의 물질적 기반이 와해되자 기존의 공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사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이를 대체하였다. 기존의 심리적, 도덕적, 사회적 결속이 해체되고, 국가배급을 대체하여 주민들의 주요한 생존의 방법으로 등장한 시장의 상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의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가내에서 여러 가지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사람, 수공업생산자들에게 원료를 제공하는 사람, 가내생산품을 넘겨받아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 중국 등지에서 물건을 반입하는 사람, 도매업자, 소매상 등 거래망과 연동되는 인적 관계망은 북한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관계망의 중심축을 이룬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북한의 주민들이 원료 판매, 상품 생산, 상품 판매, 소비를 연결하는 생산과 유통의 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적 관계망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의식이 그룹을 형성하지 못하면 너도 못살고, 나도 못산다는 그런 인식이 짝트게 되었거든요. 여기처럼, 글로벌처럼. ... 생산지와 중간단계, 그리고 소매까지 라인이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인이 법적으로 승인은 안 되었지만, 장사의 모든 것이 기업의 규모를 갖춰간다는 것을 느껴요.(사례1)

사적 관계망의 힘이 커지면서 공적 관계망과 공동체적 관계망이 이에 포섭되거나 변질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sup>177</sup> 기업소의 직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건설노동인력 조달방식과 유사하게

---

<sup>177</sup>- 위의 글, p. 126.

작업반장이나 고참노동자를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 개인고용노동에 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직장의 공적 관계망이 이윤 추구를 위한 사적 관계망에 포섭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사가 부업으로 장사를 할 경우 학부모들을 통해 원료의 구입이나 상품 판매에 도움을 받거나, 의사가 병원에 지급되는 약을 유용하여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로 볼 수 있다.

장세훈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의 도시주민들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적 관계망을 사회적 자본으로 적극 활용하는 양태를 ‘공박적 관계망’이라 명명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에 이러한 ‘공박적 관계망’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것으로 변화되면서 더욱 더 사적 관계망으로 포섭되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 동창, 친구 관계와 같은 공동체적 관계가 사적 관계망과 중첩되고 변질되는 모습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sup>178</sup>

내가 (동창들과 만나서) 행표가 이리이러한게 되는데 너는 어떠한 걸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걸 서로 교환하는 거죠. …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인맥관계를 하는 거죠. … 친구들도 만난다는 그 자체가 만날 때는 다 장사든 뭐하든 꺼리가 있어서 만나지 환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은 없죠.(사례5)

사적 관계망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관계망과 중첩되어

<sup>178</sup> 함택영·구갑우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사적 영역의 성장에 의한 공적 영역의 침식을 저지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제도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 위한 국가적 기획의 일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함택영·구갑우는 1990년대 후반에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시장화를 매개로 한 사적 영역이 형성되었고, 어떤 식으로든 공적 영역과 제도화된 수준에서 관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함택영·구갑우, “북한의 공과 사,”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p. 30. 관계망의 성격 변화 역시 이러한 사적 영역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다.

가는 것은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시장경제활동에서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관계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경제적 이득이라는 근대적 관계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sup>179</sup>

한편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 배분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점에서 활발한 경제적 계층구조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에 물화된 제3의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안정적 연결망이 생산요소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이 생산적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낳기 때문이다.<sup>180</sup> 사회적 자본은 계층 내부의 교환을 통해서 얻는 사회적 관계이며 그 핵심은 관계를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혈연관계, 친구, 동문, 동향, 이웃, 특정한 소집단, 당파 구성원 자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어느 계층이 사회적 자원을 가진다는 것은 일정한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이고 긴밀하고 배타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인 동시에 계층에 속한 한 개체가 사회적 연계를 통해 획득하는 자원과 능력이다.<sup>181</sup>

2000년대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은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계층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사와 연계된 관계망 이외에도 혈연

179 - 이우영, “북한 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p. 168.

180 -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출판, 2003), p. 356.

181 - 김도희, 『전환시대의 중국 사회 계층』 (서울: 폴리테이아, 2007), p. 46.



관계와 안면 및 뇌물을 매개로 한 관료와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망이 된다. 혈연관계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등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계보조나 장사 밑천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질서에 진입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 내의 친인척 관계망은 중국과의 국경무역에서 거래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난 이전 시기에 “수치”였던 해외 친척과의 연계망이 현재에는 당원 지위보다도 더 “갈망”하는 대상이 되었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현재 북한 사회에서 해외 친척과의 연계망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까지만 해도 성장하면서 해외에 친척이 있는 것이 그냥 수치였어요. 아버지가 귀국민이라는 것이 수치였고, 아버지가 노동당원이 아니라는 것이 수치여서 저는 늘 아버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이 해외에 친척이 있기를 바래요. 지금은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해외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못살고 그래요. 수입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쓰니까 해외에 친척이 있기를 갈망하고 이제 당원이 아니어서 사람값을 못한다는 이런 의식이 없어졌어요.(사례14)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 한가지 관계망은 주민들에게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와의 관계망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외화벌이 책임자 등의 상행위 주체와 검열 및 통제단위인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 소속 관료들간에 형성되는 관계망이 재산 증식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 이익의 규모가 클수록 관계대상의 직위가 높으며, 권력구조 내에서는 당과 검찰 간부들이 주된 교섭의 대상이 된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비공식 네트워크인 ‘블라트’의 범주에

I
II
III
IV
V

속하는 것이지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나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이익을 매개로 한 사적관계망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통제와 일상의 저항

일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사회는 정치권력의 지배가 빈틈없이 관철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공간 도처에서 지배의 손길을 피해 체제가 요구하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과 일상적 저항의 움직임으로 생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비올라(L. Viola)는 스탈린 집권기의 소련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탈린 집권기 주민들의 저항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는 광범위한 연속체의 일부일 뿐이며, 사회활동상의 대응에는 수용, 적응, 순응, 무관심, 내면으로의 도피, 기회주의, 적극적 지지가 망라되어 있으며, 이러한 태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 개인의 내부에서도 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82</sup> 이러한 지적은 비단 스탈린 집권기의 소련뿐만 아니라, 나치 시기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나 북한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국가의 통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으로, 협력, 참여, 동조, 순응, 타협, 유보적 수용<sup>183</sup>, 묵인, 무관심, 무시, 거리두기, 거부, 항의 등 적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저항 사이의 다양한 대응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

<sup>182</sup> - Lynne Viola(ed.), *Contending with Stalinism*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p. 1.

<sup>183</sup> - ‘유보적 수용’은 쿠틀케가 나치 지배하의 노동자들의 일상을 분석하면서 사용했던 용어로,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가급적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구축하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경제난 이전 노동과 여가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보장될 때 사회적 통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협력과 순응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극한적 일상’의 상황이 도래하자 주민들의 대응은 사적 영역으로의 도피나 일탈, 일상속의 저항 쪽으로 이동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적 통제에 대한 일탈과 일상적 저항의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한 타협 및 흥정과 비법행위, 밀수나 마약 등과 같은 강력한 위법행위, 자본주의 문화를 사적으로 향유하는 행위, 정치교육이나 생활총화 등 사상적 통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 등이다.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권력의 통제와 감시는 더욱 파편화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권력의 동의를 분절시키고 파편화하는 동인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조건의 충족 문제이다.<sup>184</sup> 성실한 직장생활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일탈적 행위들을 통해 생계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비법적인 경지를 경작한다든지, 기업소에 일정한 돈을 납부하고 출근을 면제받아 장사를 한다든지, 개인고용노동을 한다든지, 기업소의 원료나 자재, 생산물의 일부를 절도한다든지 하는 행위이다. 일부에서는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식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원자재 절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이 절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례9). 이러한 행

<sup>184</sup> 김중욱, “지배-대중의 관계와 북한연구,”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제1회 북한일상생활연구 토론회 자료집), pp. 49~50.





위는 그것이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화 된다. “원래는 비법인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면 그렇게 산다”(사례31)는 말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이러한 일탈행위는 주민들에게는 일탈과 위법의 의미가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당연한 자구책의 의미로 다가온다. 국가가 주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사와 비법행위 등의 개인적 방도를 모색했던 것이 생존을 위한 소극적 대응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생존을 위한 일탈행위에 대한 적극적 정당화는 북한의 주민들이 국가적 담론을 변형시켜 재전유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sup>185</sup>

생계유지를 위한 일탈행위는 대부분 상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작게는 상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하거나 시장의 매대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서부터 크게는 대외무역의 허가권을 취득하거나 불법적인 상품의 밀거래를 위해서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생계를 위한 일탈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응하여 상행위, 특히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 시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시장 운영시간 제한, 판매품목 제한, 장사 연령 제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장사 연령은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어려울 때는 상향조정되었다가 식량사정이 호전되거나 시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하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7년 12월부터는 45세 이상만 장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하였고, 일부

---

<sup>185</sup> 이 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는 공식 담론과 교차한다. 2002년에 간행된 리신현의 소설 『강계정신』을 통해 북한의 지도부는 개인적 생존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의 자력갱생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공장과 국가를 희생 시킴으로써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킨 귀중한 보배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이와는 반대로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국가를 희생시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40세 미만의 여성들에게 모두 장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시장이 확대되고 상행위가 주민들의 생계 유지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확산되는 점을 우려하여 북한 당국에서는 최근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강연 제강 “장사하지 말데 대하여”에서는 “시장 장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근본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시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빈부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민들이 “말은 직종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자”고 권고하고 있다.<sup>186</sup> 이에 최근에는 시장 참여연령 제한 등의 통제조치에 대해 주민들이 단속원들에게 달려들어 집단적인 항의의사를 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sup>187</sup>

일탈과 일상의 저항의 두 번째 유형은 절도, 밀수, 도박, 마약 등 국가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이다. 경제난 이후 절도와 공공재산 유용을 위한 사회적 일탈행위가 증가하였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는 완화와 강화 사이를 오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법적 처벌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포용 정책을 폈다. 2004년경부터는 대외사조 유입에 따른

<sup>186</sup> - 이승용,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평화재단, 제21차 전문가포럼 자료집), p. 4.

<sup>187</sup> - 이러한 사례는 주로 “좋은벗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08년 3월에는 청진에서 시장 안의 판매대 철거에 대해 수천명이 모이는 집단적 항의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항의 인파가 몰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전 시기에도 청진 지역에서 장사 단속에 대한 집단적 항의 사태가 종종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사례21)으로 미루어볼 때 장사단속과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V

주민 동요 및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경연선 지역에서 집중검열을 비롯해서 각종 검열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7년경부터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2008년 2월 초부터 국경연선지역에서 정치학습을 통해 인신매매, 자식의 한국 도주, 중국·한국·일본으로부터 현금 수수, 손전화기 통한 중국과의 연락, 마약 장사 및 밀수, 무직, 무단 숙박 등 7가지 비사회주의의 검열 요강 전달했다.<sup>188</sup> 특히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휴대전화 사용, 도강, 간첩 행위 등 관련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등지로 중국 등지로 정보를 유출하는 통로가 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국경변 전 지역에 걸쳐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전파탐지기와 교란기를 설치하고 있다.<sup>189</sup>

또한 당기관, 보위기관, 안전부 등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단속하는 ‘비사그루빠’를 조직해서 조직해서 분기별로 대대적인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지역의 개인집을 대상으로 한 숙박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국경지역에서는 기업소와 기관마다 보위지도원과 별도로 봉쇄지도원을 배치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상한 사건들을 감시하고 “국경감시 망일지”에 기록,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핸드폰 사용, 유언비어 유포, 월경, 가정지물을 팔거나 재산정리, 수상한 사람 출입, 밀수(과동반입물, 유색금속), 빙두 등 마약, 남한 비디오 시청 등 15가지 조항이 감시 및 보고의 대상이 된다(사례40).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약의 일종인 빙두 판매망과 연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자, 이에 관한 법적 처벌을 높일 데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이 하달되었다. 이

<sup>188</sup>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112호.

<sup>189</sup> - 이승용, “북한 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 생존권,” p. 11.

에 보안서에서 빙두 그루빠를 조직하여 빙두 등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빙두 3kg 이상 판매자 총살 등 마약거래량에 따른 처벌 기준도 명료화하고 있다.<sup>190</sup> 그런데 마약 판매와 밀수 등의 위법행위는 외화벌이 기업의 이윤 획득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 강화를 통해 마약거래가 쉽사리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다.<sup>191</sup>

최근 여러 가지 비사회주의적 비법행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발시에도 웬만한 경우에는 뇌물과 연줄을 통해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단, 마약이나 골동품 밀수 등과 같은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정치권력과외 확실한 연계망이나 거액의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사례37). 이렇게 같은 위법행위를 했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속에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다 비법은 같은 비법행위인데, 국가에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주면 괜찮은” 것으로 인식된다(사례35).

일상의 저항의 세 번째 유형으로 정치교육과 조직생활 등 정치적 동의 창출 기제의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북한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각종 직맹, 여맹 등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통치에 대한 끊임없는 동의를 구하는 ‘호명’의 기제가 어느 사회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당, 근로단체의 조직생활과 정치교육이 완전히 이완되었다. 생활총화와 정치교육의 출석률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회의와 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완이 최고조에 달했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sup>190</sup> -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제102호; 제112호.

<sup>191</sup> - 한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북한에서 마약을 하는 것은 다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증언한다(사례35). 이 이외에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직접 마약을 취급했다는 증언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을 거쳐 200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정치교육 체계가 재정비되고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화의 진전과 자본주의 사상 유입 등에 따른 체제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생활이나 정치교육은 경제난 이전과 같은 정도로 복구되지는 못하고 있다. 정치교육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조직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사례12)부터 “한달에 한번씩 얼굴 보이고 돈을 주고” 생활총화 참석을 면제받는 사람(사례5), “참여하기 싫어서 기어서 간다”는 사람(사례13)에 이르기까지 참여도의 분포도 다양하다. 정치교육과 생활총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함경북도 농촌지역에서 2005년 말까지 농근맹 해설강사로 일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사례30)은 당시 정치학습이나 생활총화의 평균적인 참석율이 50% 이하였다고 증언한다. 생활총화 회의 대신 각자 생활총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해서 검열을 대비한 기록만 남기는 경우(사례11)도 있고, “위원장이 한마디 하고는 그냥 사는 얘기, 수다를 앉아서 떨다가 오는” 경우(사례8)도 많다고 한다. 2007년 기준으로 한달에 몇천원에서 1만원 정도를 내면 여맹등의 조직생활에 불참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증언도 있다(사례10, 사례16).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볼 때 시기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이전 시기와 같이 내실있는 정치교육과 주민들의 성실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교육제도, 사회조직, 대중매체와 문화예술작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지배이데올로기를 부과하며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일상의 정치화’를 시도한다. 경제난 이전에도 주민들은 이러한 과잉정치화의 시도에 대해 순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결여된 형식적 생활총화나 시간 때우기식의 정치학습을 통해 지배자가 부과한 규율화의 시간을 헛되게 소비함으로써 지배와의 거리두기를 해왔다. 이러한 거리두기가 경제난이라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권력이 끊임없이 ‘일상의 정치화’를 시도한다면 주민들은 최소한 요구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실제로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개인적 돈벌이나 여가와 같은 사적 영역으로 자신의 진정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정치의 일상화’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비사회주의 행위’ 중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소위 ‘황색바람’이라고 하는 금지된 자본주의 문화를 사적으로 향유하는 행위이다. 중국 상인을 통해 비디오기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지방의 대도시와 국경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을 접하는 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의식 약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아래 테이프”라고 불리는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국경지역이나 함흥, 청진 등 대도시에서는 일종의 유행처럼 퍼져있다. “단속하는 사람들도 그런 물 먹어서” 탈북하는 사례가 있고, “리는 좀 드물지만 시내 사람들은 거의 100% 다 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사례2, 사례40). 보통 TV나 비디오기기를 수리, 판매하는 사람들이 테이프를 대여, 판매하는데, 주민들은 시장에서 누가 판매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쉽게 빌려보거나 구매할 수 있다.

불법 영상물의 유통이 행해지는 공간은 학교, 아파트, 직장 등 일상생활의 공간이다. 중학교나 대학교 학급에서 학생들끼리 CD를 교환해서 보는 일이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2월 경에는

I
II
III
IV
V

청소년들 속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과 서울말씨 모방, 남한 가요 부르기 등이 유행하자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 제1중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책가방검사를 실시했는데, 남한 영상물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CD가 두 마대나 나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한다.<sup>192</sup>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들도 어느 집에 새로운 CD가 있다는 걸 알면 집으로 찾아와서 보자고 하고, 여러 부로 나뉘어진 드라마를 서로 나누어 구입해서 바꿔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녹화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바꿔보도록 중간에서 중개하기도 한다(사례5, 사례38).

남한 영상물 시청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북한 당국은 2007년부터 남한의 영상물 시청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승용에 의하면 2007년 6월 4일에 “남조선 록화 테이프와 불법으로 규정된 테이프를 엄하게 단속할 데 대하여”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전국에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6월 6일부터 CD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불법 CD를 압수하고, 입수경위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7월에 함경북도 회령, 온성, 무산 등지에 공포된 인민보안성 포고문에서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소탕전이다. 전자다매체, 컴퓨터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등을 통한 반사회주의 사상 류포를 막기 위해 이런 시설들을 일체 다 없애고, 필요한 경우 국가출판물보급소에 서만 승인 판매를 허용한다. 돈벌이 목적으로 차려놓았던 봉사소 형식의 식당, 노래방, 전자오락실, 컴퓨터방을 모두 폐쇄한다. 포고가 나간 이후부터 위반자는 타 지방으로 이주시키거나 추방과 함께 모든 것을 무상몰수하며련관단위는 직위 여하에 관계없이 엄벌에 처한다”고 공포하고 있다.<sup>193</sup> 실제로 2006년까지는 단속에 걸려도 뇌물을 주면 관참

<sup>192</sup> 안연옥, “북한을 흔드는 자본주의 ‘노랑물,’” 현인에 엮음, 『북한사회』, 창간호, 2008, p. 39.

있는데, 2007년부터는 시청 현장을 들키는 경우에는 교회소를 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한다(사례40).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민들이 유일한 여가생활의 방법으로 남한 영상물을 비롯한 자본주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일상의 정치화’에 대한 또 하나의 보편적인 대응 양식이다. 이는 정치적 저항의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비해 매우 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대응방식이다. 그러나 외부세계, 특히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일상적인 대응 양식은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 중에는 남한의 영상물을 접했을 때 “진짜 저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사례31), “아니 못산다는 나라가 오히려 옷 입고 하는 거 보면 좀 생각하곤 다른데?”(사례20), “야, 저 별세상이다. 정말 우린 언젠가 저렇게 되나?”(사례11) 생각하고, “남한은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되었구나,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것을 지향하는”(사례2) 사람들도 생겨났다.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차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정치교육을 통해 주입된 것만을 사실로 알고 생활해왔던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영상물을 접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이것을 자신이 접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비교하고 판단한다. 특히 드라마를 통해 남한 사회의 발전상을 접하고 이를 동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드라마와 영화 시청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여가생활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193 - 이승용, “북한 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p. 15.





“국가에서 모르게 이렇게 머리가 많이 트는”(사례41)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사적 영역으로의 후퇴’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의미연관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자아중심성으로의 퇴행”<sup>194</sup>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4. 국가에 대한 불신과 금전만능주의 심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의 하나는 생계비를 벌고 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구입하는 기본적인 생계유지 방식이 배급제와 국가공급망 활용이라는 국가의존형에서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과 시장 판매상품 구입이라는 시장의존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존방식의 변화는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상생활의 변화에 수반된 주민 의식의 변화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국가에 대한 불신과 금전만능주의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50년간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왔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파산한 국가는 더 이상 주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주민들은 국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각자가 살 방도를 강구해야 했다. 이 시기에 국가가 정치교육이나 공식담론을 통해 호소한 바대로 자신의 일터를 충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굶어죽거나 가난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국가가 금지한 상업행위에 일찍 뛰어들어든 사람들 중에는 자산을 축적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

<sup>194</sup> -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김학이 옮김, 『나치시대의 일상사』 (서울: 개마고원, 2003), p. 377.

현실의 변화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과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얻게된 가장 확실한 신념이 “이제 국가를 바라면 죽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사례13, 사례14). 일부에서는 국가의 방침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저리’라고 비아냥거리기에 이르렀다.<sup>195</sup>

2000년대 들어 경제적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지역이나 군수부문 노동자 등 일부 부문에서는 배급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국가배급은 “주면 좋고, 다섯끼를 준다, 두끼를 준다 그러면 받아갈 뿐이지, 거기에 가서 매달려 있는 경우는 없는”(사례3)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일부 외화벌이 기업소 등에서는 이전 시기에 국가가 지급했던 일상적인 식량이나 명절 공급, 노동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국가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있다.<sup>196</sup>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제는 북한 주민의 인식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가족, 개인이 소속된 기업소가 이전 시기 개인의 생존에서 국가가 담당하던 자리를 대체하였다. “국가에 의지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노력해서 살 생각”을 하는 것이며, “내 삶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사례14, 사례13, 사례3).

<sup>195</sup> - 사례21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인민들이 비웃는단 말이예요. 저거 머저리, 교원들 끼리도 그런단 말이예요. 저 머저리, 장군님 따라하다가 굶어 죽는 꼴 봐라, 허약이 와가지고, 병들어 썩어지는 꼴 봐라, 손가락질하고요.”

<sup>196</sup> - 일부 외화벌이 기업소에서는 이전 시기에 국가가 지급했던 일상적인 식량이나 명절 공급, 노동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국가 대신 지급하고 있다. 사례7은 기업소에 의한 배급 및 인센티브 지급 실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 외화벌이 사업소는 배급을 주죠. 외화벌이는 국가 양정배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소장들이 이윤을 잘라서 자기 직원들을 주죠. 원래 국가계획에 의해서 양정사업소에서 배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장들이 인원수에 맞게, 한달에 가족이 몇이다. 그렇게 줬죠. 우리는 가족까지 다 줬으니까. … 쌀 전부 타고, 자전거 타는 것이, 연간 총화할 때 어느 집은 냉장고 탔구나, 어느 집은 TV탔구나, 그러면서 흥이 나죠.”

경제난 이전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사고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나의 안위가 분리되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정부는 정부끼리, 우리는 우리끼리“(사례24)라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되듯이 개인과 가정이 국가와 당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안전망으로부터 튕겨져 나와 겪어야 했던 고달픈 일상의 경험은 이들을 국가와 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심리적 이유(離乳)의 계기로 작용했고, 그 분리의 원심력은 시장화 추세와 더불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가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당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은 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언설보다는 꾸밈이나 신세한탄의 형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이런 나라 확 없어져라, 무너져라”, “이 나라가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전쟁이나 확 나라”는 식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한다(사례31, 사례30, 사례35). 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주민의 반 정도인 하층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말한다고 증언한다(사례30). “세월이 그런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는 “많이 눈을 감아준다”(사례31)는 또 다른 증언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말이 좀 통하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오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신세한탄식의 비판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회의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의존성의 약화와 함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시장의 질서를 피부로 느끼면서 주민들은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인

식의 혼란도 겪게 된다. 배급이 나오던 때를 “그전에, 사회주의 때, 그 때”(사례24)라고 구분해서 부른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작동되었던 시기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시장의 질서가 침투해 있는 현재를 구분하여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시장의 합법화, 활성화를 경험하면서 북한 “내적으로는 자본주의 체계가 섰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북한이탈주민도 있다(사례 18). 이런 판단은 북한 사람들의 사고가 사상을 중시하는 것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바뀐 데에도 기인한다(사례8).<sup>197</sup>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십여년간의 자생적 시장화의 경험과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로서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거나(사례40), 지도층이 바뀌면 개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사례6).<sup>198</sup>

물론 이러한 인식에는 지역적 편차가 크다. 국경연선 지역과 같이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잦은 지역, 외부 정보의 유입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간에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외부 정보로부터 상대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국가

<sup>197</sup> - 사례8은 그러한 예로 “그 전에는 당에 충실한 사람들끼리만 잘 어울리고, 뒤 백두산 출기를 탄 사람들만 이렇게 그렇게 뻗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고 여유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을 예로 든다.

<sup>198</sup> - 사례6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대표적인 예이다. “때때로 말이 서로 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면 지붕만 내려 앉으면 내려 앉겠는데 지붕이 내려앉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이 무너지면 내부는 자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한테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가 생겼어요.”

I
II
III
IV
V

지도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은 중대한 정치적 범죄로 취급되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조직적인 저항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다.

일상생활의 변화가 수반하는 또 한가지의 주민 의식의 변화는 금전만능주의적 사고의 확산이다. 금전만능주의적 사고는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실성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사고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상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상행위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데서 나온 행동으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경제난으로 인해 상행위가 생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기 이전까지만 해도 장사는 “되게 천하고 못할 짓”이고 “보통 각오 안하고는 안되는 일”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사례19). 1990년에 발표된 북한의 소설에서는 ‘장사군’이라는 칭호를 ‘더러운 이름’이라 표현하고 있다.<sup>199</sup>

하지만 상거래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과 상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주민의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보장 제도가 사실상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것은 오로지 돈이었고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사였다. “예전엔 장사하는 것을 미천한 등급으로 낮게 보았지만, 요즘은 장사 안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말할” 정도로 “장사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었다.<sup>200</sup> 연줄과 뇌물을 통해서라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장사를 금지시켜도 “잡아가려면 잡아 가라, 우리는 장사한다”고 할 정도로 장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상행위는

---

<sup>199</sup> - 김용한. “마지막 낚시질,” 『조선문학』 1990년 8호, pp. 42~44.

<sup>200</sup> - 노동자 출신 북한이탈주민(2003. 3 탈북, 양강도 혜산) 2006년 증언.

I
II
III
IV
V

기피의 대상에서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 변화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진 넉넉한 경제력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다.<sup>201</sup>

북한 주민들은 또한 다양한 장사의 경험을 통해서 돈의 중요성과 운영 원리를 체득하게 되었다. 미술을 전공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준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혁”이었다고 말한다(사례5). “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 돈을 어떻게 굴리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 시기에는 무상으로, 또는 약간의 현물을 받고 제공했던 서비스와 재화의 제공에 가격이 매겨졌다. 2000년대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시장에 쏟아져나오는 각종 상품은 물론이고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의사가 별도의 진료를 한다거나 개인의 재주를 활용하는 일들에 모두 “공정가”가 매겨지기 시작했다. 일례로 90년대에는 개인지도의 대가로 식량이나 옷 등 생활필수품을 지급하였고 “생각해서 주면 받고” 그랬는데,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는 “배웠으면 일정하게 물질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대부분 돈으로 지급을 하고, 얼마를 준다는 것이 “시내에서부터 촌에까지 전달”이 다 되었다고 한다.<sup>202</sup> 이제 북한에서 “공짜라는 것은 없으며,” 시간까지도 돈으로 계산되기에 이르렀다(사례 14, 사례1). 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일상생활에서 시장의 영향력 확대는 상호 강화작용을 하면서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의 이행<sup>203</sup>을 촉진하고 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예전에는 당·군·정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

<sup>201</sup> - 북한에서는 이미 상인이라는 말이 잘산다는 말과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황해남도에서는 ‘브로커’라는 말이 부자를 표현하는 일반명사로 쓰인다고 한다(사례39).

<sup>202</sup>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53.

<sup>203</sup> - 이영훈, “북한의 화폐경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p. 130.

에 있는가였다면, 최근에는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가로 바뀌었다고 한다. 금전만능주의는 애국에 대한 개념까지 바꾸고 있다는 것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예전에는 사상이 강한 사람이 애국자로 불렸는데, 현재는 돈 있는 사람이 애국자로 불린다는 것이다. “장사를 했던 사기를 쳤든 뭐 어떻게 했든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웅”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다(사례7).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국가가 아닌 자기 개인이 책임진다는 인식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반역자”이며, “아무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애국자”, “잘 사는 건 애국자고 못 사는 건 반역자”(사례15, 사례24)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즉 이는 국가와 당과 수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애국자이고 잘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쓰든지 돈을 잘 버는 것이 곧 애국이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고의 일대전환이다. 다음과 같은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이러한 금전만능주의적 사고가 어느 정도로 심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당원이 아니어서 사람값을 못한다는 이런 의식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당원이 아니니까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 돈이 있으면 이제는 살아나는 세상이다. 머저리도 돈만 있으면 용이 된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권력이 곧 돈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권력보다도 돈이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사고, 재부도 다 누린다는 의식이 확고하게 지배되었어요.(사례14)

돈이 있어야 “사람값을 하고”, 돈이 있으면 지식도, 권력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금전만능주의의 확산은 간부의 사회적 지위도 크게 떨어뜨렸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돈이 있어야만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사례14는 “있는 사람이 간부하기하고



없는 사람이 간부하기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어도 인격체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었던 입당조차도 이제는 “돈을 투자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sup>204</sup> 상업행위 등을 통해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아들을 돈으로 보위부 등 권력기관에 넣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사례9). 사례25는 노동당에서도 도당 책임비서, 시당 책임비서 아래로는 모두 이렇게 돈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증언한다. 이렇게 당에서도 돈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것은 “네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끌어 올리면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상인들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미천한 등급”에서 “권력가의 집안”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법조차도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달리 집행된다는 점을 점점 많이 느끼게 됐다고 한다. 인민반 생활총화 불참이나 장사를 하기위한 회사 결근과 대학교 결석과 같은 비법행위에도 돈 거래가 수반되었다. 적발시 노동단련대나 교화소 등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불법행위도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된다. 사례22는 “무슨 일이 제기돼서 국가에 걸리는 일을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찢러 주고 무사히 또 하지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걸리면 교화도 가고 그런다”며, 북한사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I

II

III

IV

V

<sup>204</sup> - 사례25는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주면 당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여 ‘아래로부터’ 진행된 북한 일상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계층별로 수집·정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일상 경험을 재구성하고, 그 특징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II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양식을 하루 일과와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0년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배급제와 직장 및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생활체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경제난 이전 시기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직장에서의 노동, 휴식과 여가 등의 재생산, 가사노동, 사회동원과 정치학습 등 정형화된 하루 일과의 양식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축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직장에서의 생산노동시간이 자리잡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생산 현장의 질서가 복구되어 가는 가운데 배급의 안정성 여부와 상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계층별, 직업별, 개인별로 하루 일과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전력과 자재 문제로 인해 공장의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노동생활은 생계해결 문제에 밀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력과 자재가 불안정하게 공급되는 공장상황에서,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작업조건이 구비되면 정상적인 노동을 진행하고, 작업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정상 노동업무 대신 주어지는 농업노동과 동원노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장에서 배급을 책임지지 못하기에 오후에는 개별 장사에 치중하거나, 생계를 위한 사적인 돈벌이 노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따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더라도 생산직 노동자들처럼 노동현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의 노동시간 역시 직장의 기본 과업 수행

I
II
III
IV
V

뿐만 아니라, 배급 대신 각 기관 및 기업소에 할당된 농지 경작이나 가축 기르기, 개인적 장사 등 기초적 생계유지를 위한 시간으로 구성된다.

농민은 노동자들에 비해 자율적 시간을 갖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1980년대와 유사한 일과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식량난 이전 일과와 가장 큰 차이는 조합에서 인정해준 개인농지나 자신이 산간지역 등에 일군 개인토지에서의 사적 농사 시간이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녁총화 시간이 줄어들거나 학습회 및 강연회 횟수가 줄거나 토요일 집중학습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단위 농장의 식량상황과 농장간부들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는 지식인계층의 일과는 직장 노동시간을 형식적이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시기와 유사한 일과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계층의 경우에도 배급 유무와 교장, 연구원장, 병원장 등 각 기관 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 특히 오후작업 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을 생존을 위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전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일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나, 식량난 이후에는 생계비를 벌기 위한 노동을 한다.

관료층의 하루 일과에서는 시장관련 통제, 비사회주의 검열, 마약 및 도박 등 각종 범죄 및 불법적 행위 처벌과 관련된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다.

직장을 나가지 않고 소규모 상행위를 통해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주체는 대개 북한의 가정주부들인데, 이들은 각종 동원사업과 가사노동, 가족생계를 위한 장사를 하는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낸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여가 생활은 크게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장생활과 장사 등의 부업이라는 이중적인 경제생활을 영위 하느라 별다른 여가를 즐기기는 어려우며, 특히 여성들은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여가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 생활과 관련해서는 최근들어 남한 비디오 시청이라는 새로운 여가 활용 방식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의식주 생활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입고, 자는 행위는 그것 자체가 일상생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결과,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식의주 생활은 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식의주 생활이 계층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의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북한 주민들의 월수입이 수 백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여전히 몇 천원으로 한달 가계를 꾸려야 하는 주민들도 존재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에 따라 식의주 생활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질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식생활을 살펴보면, 상층에 속한 북한 주민들은 외식을 즐기고 오징어나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을 사먹는 데 주저함이 없다. 하지만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부식물을 풍족하게 사먹는 데는 제약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하층으로 내려가면 옥수수 국수 1kg으로 온가족이 식사를 하거나, 술 찌꺼기나 목지가루 등으로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 역시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의 상층 사람들은 ‘멋’을 중시해 한 벌에 100달러가 넘는 일제 옷이나 기타 외국 옷을 철 따라 사 입는 반면, ‘싼 가격’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I
II
III
IV
V

중산층 사람들은 중국산 의류의 주요 소비층이 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하층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새 옷을 사입는 것도 힘들어 하며, 상층 사람들이 입다 버린 옷을 구해 입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주택의 규모나 위치를 결정하는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당·정·청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주택 소유에서 큰 준거가 됐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북한에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등장하면서 주택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상층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택을 단순히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집을 소유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Ⅲ장에서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계층, 직업별로 구분되는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존전략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을 노동계층, 지식인계층, 권력엘리트계층, 신흥상인계층,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000년대 북한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는 ‘비법’, ‘생존’, ‘일당’, ‘브로커’이다. 그 주요 특징은 첫째, 정상 노동생활의 주변화, 둘째, 비공식적 생존시스템 작동, 셋째, 일당과 주변 직업, 넷째, 자생적 노동시장 형성이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의 생존위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추고 ‘ 스스로 생존하라’는 당국의 지시와 더불어, ‘합법과 비법이 공존하는 노동계층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구조화되면서 전력 및

자재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은 장사나 가내작업, 각종 일당 노동 등을 통해 하루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즉, ‘직업에 따른 정상노동이 주변화’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나 농민들은 비공식 생존시스템을 형성했다. 또한 기관 및 작업장의 상대적 독립성과 함께 하층관료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공장에서는 ‘8·3노동자’로 등록하거나 현금으로 출근을 대체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십여 년간 정상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직업 노동세계’는 와해되고 있으며, 일당제, ‘비법적인 사회적 묵인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한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변적 노동의 고용 체계를 연결하는 “브로커”가 노동시장의 거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고난의 행군을 경유한 후 북한 체제가 지역의 각 단위별 노동조직 운영을 관장할 수 없게 되면서, 중앙권력의 암묵적 묵인과 아래로부터의 생존전략이 맞물려, 즉 생계해결을 위한 노동조직 운영과 하층관료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계층 내에서 사회적 자본 및 그 유용능력, 개인별 생산성 정도에 따른 분화가 일어나고, 일상의 불평등이 북한 노동계층의 생활양식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지식인계층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도출판 부문에 걸쳐 주민들의 이데올로기 재생산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생산, 전달을 담당한다. 경제난 이전에 지식인 계층은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 존경을 누려왔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지식인계층은 삶의 위기에 봉착했고 이

I
II
III
IV
V



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생존의 방법을 모색했다. 지식인계층의 일상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부업, “거두매”, 지식 판매, 비법과 뇌물, 공동생산과 직업세이다.

지식인들은 노동의 속성상 일터에 긴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급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이나 노동시간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시장과 연계된 부업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개인교습, 개인적 치료, 전기기기 수리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기술을 사적으로 판매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이 직업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망에 의존하거나 지식과 기술을 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지점에서 일어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의사들이 개별적 피임과 낙태시술을 하거나, 교원들이 부정입학과 성적홍정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받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개별적으로 생계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 병원 등 기관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학교 등의 기관에서는 부근의 소토지를 경작하거나 비배관리를 통해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여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생계를 보조한다.

경제난 이후 지식인계층의 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직업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에 생존을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위신과 존경도도 하락하였다. 지식인계층의 사회적 위신 하락은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이들이 종사하는 일이 주로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대중에게 이를 전달하고 후속세대에게 전수하는 역할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기능적 지식인으로서 북한 지식인들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한편, 지식인들 내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한 자각과 북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싹트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엘리트는 중앙당 과장급 이상, 지방당 책임비서급 이상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간부를 의미한다. 권력엘리트 중에서도 당 조직지도부, 선전부, 대남사업부, 대외관계 부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작전지도부 등에 680여명의 핵심엘리트가 포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간부들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생활한다. 경제난 이후 국가에서 규정된 공급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간부들의 생활수준은 하락하였다. 특히 중간간부 이하 하층간부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져 중간간부층이 붕괴되었다고 말할 정도이다.

직급별 생활양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하위간부들은 생계 조달에 주력하지만 부장급 이상의 고위급 간부들은 현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을 사리는 보신에 주력해야 한다. 권력엘리트 중에서도 국장급 이하는 자기가 어떻게 생계비를 버느냐가 일차적 관심이다. 생계를 위하여 부정 부패라고 볼 수 있는 일탈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권력엘리트들은 배급을 받기는 하지만 고위급을 제외하고는 배급량이 부족하여 장사나 그 밖의 방식으로 생계 벌이를 하는 것은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이다. 소속기관, 기업소, 소속단위의 능력에 따라 자력갱생하게됨에 따라 간부의 생활수준도 소속단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각 부별로 예산 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각 부·위원회는 대부분 외화벌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

경제난은 권력엘리트들의 권위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 부문의 경제가 마비되자 북한 내각의 행정조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위신과 권위가 실추되었다.

I
II
III
IV
V

권력엘리트는 내부적으로 2세대와 3세대가 양분되어 있는데, 이들은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3세대는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북한 권력엘리트계층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의식과 행위 유형은 ‘제도기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권력엘리트들은 불법적인 생계별이를 하고 있는 동시에 체제의 모순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제3세대 엘리트들은 국가기관을 생계별이를 위하여 일탈적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제3세대가 보다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북한의 정책방향은 개혁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신흥상인들은 ‘신흥’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북한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계층이다. 이들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시장이 형성·허용되고 확산되어온 과정과 밀접히 연관된다. 즉, 이들은 ‘고난의 행군’ 초기 굶주림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일련의 시장 허용 정책으로 ‘경제적 시민권’을 얻었다. 또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상층으로 진출하게 된 상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장사가 보편화하면서 상인계층 내부에서도 일정한 분화가 일어났다. 즉 외화별이 회사에 다니거나, 종합시장 내에 판매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반면, 적은 자본으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든 사람들은 시장밖에서 ‘메뚜기’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 이어가기도 한

다. 이런 상인계층의 분화 가운데 눈 여겨봐야할 것은, 북한의 쌀값을 들었다놓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거상’들도 존재하게 됐다는 점이다.

신흥상인계층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경쟁, 범죄, 뇌물, 규칙 변화이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현재 북한 상인계층의 삶은 한마디로 ‘불안정’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우선 이들 상인계층은 ‘사회주의 북한’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치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한 첫 번째 집단이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상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른 상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 ‘휴일 없는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불규칙한 생활’과 특히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또한 이들을 괴롭히는 요인들이다. ‘불규칙한 생활’은 특히 ‘달리기’나 ‘되거리’로 불리는, 지역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상인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필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데,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 탓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짐을 많이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범죄도 이들을 괴롭히는 요인이다.

상인계층은 또 자칫 ‘범죄자’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7·1 조치로 상인계층이 ‘경제적 시민권’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시장이 여전히 계획경제의 틀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진행되는 장사행위와 북한 당국의 규정 가운데 충돌하는 것이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 상인계층은 이런 충돌을 ‘뇌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뇌물은 상인계층의 일상에서 이미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북한 당국은 상인계층의 이런 ‘일탈’과 ‘뇌물’을 매개로 언제나 이들을 압박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따라 시장 허용의 내용과 범위를 시시때때로 조정하면서 이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상

I
II
III
IV
V

인계층은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고난의 행군’을 끝낸 2000년 이후에도 북한여성들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여성의 일상생활의 키워드는 부양, 출혈노동, 여권, 자립, 차별, 홀로서기이다. 가족부양을 위해서 여성들이 하는 가장 보편화된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여성들은 주로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여 적당한 옷돈을 얻어 파는 ‘되거리 장사’를 한다. 또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전통적 주부로서의 역할과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는 데 따른 북한여성들의 이중노동 부담이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경제난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여성들의 노동 부담은 나날이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체력에 부담이 될 만큼의 노동을 하는 북한여성들은 건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노동이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한편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단위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종래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서 일단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남편들이 장사에도 나서고 집안일도 하며 아내의 노고를 분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여성들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가부장권의 약화를 시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사회 전반에는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으며, 따라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생활의식,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여성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세대주”로 받들고 산다.

식량난으로 인해 떠맡겨진 가족부양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과도한 노동 및 건강악화를 초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나가면서 가족의 생계유지는 물론 부의 축적도 가능해지는 등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점차 높아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취업 및 직장 배치에서의 성 차별은 직종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난다. 북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는 2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독신이나 이혼은 있을 수 없는 일탈적 행위이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에서도 30대 미혼여성이 드물지 않고 여성들 사이에 독신 선호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들에 의해 제기 되는 이혼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

IV장에서는 각 계층별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성을 갖는 사회계층의 변동,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통제와 일상의 저항, 주민 의식의 변화라는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양상을 통해 계층구조 변동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임금 이외의 소득원이 가계소득의 주를 차지하면서 평균적 소비수준은 상승했지만 계층 간 생활수준의 절대적 차이는 더 벌어졌다. 이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비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하위계층의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계층간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암시장 경제와 공공권력의 유착을 통해 당간부 등 전통적 권력엘리트계층의 일부가 정치적 권력을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I
II
III
IV
V

한편, 경제적으로 중층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웠던 도시 노동자들 속에서 개인적 장사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계층상승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셋째, 외국 거주 친척의 도움 등으로 인한 초기 자본, 시장경제 진출 시기, 개인적인 장사능력과 시장질서에 대한 적응력 및 감각, 정보 능력, 장사에 필요한 재화 및 시장 진입 관련 이권 확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에 필요한 정치권력과의 관계망 등이 경제적 계층 상승 여부를 가늠하는 변수가 된다.

경제난과 시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관계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배급제라는 공적 관계망을 통한 통제와 물질적 기반이 와해되자 기존의 공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사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이를 대체하였다. 기존의 심리적, 도덕적, 사회적 결속이 해체되고, 국가배급을 대체하여 주민들의 주요한 생존의 방법으로 등장한 시장의 상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의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사적 관계망의 힘이 커지면서 공적 관계망과 공동체적 관계망이 이에 포섭되거나 변질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 배분의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점에서 활발한 경제적 계층구조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권력의 통제와 주민들의 저항의 양상과 관련해서는 경제난 이후 국가가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의 대응은 사적 영역으로의 도피나 일탈, 일상속의 저항 쪽으로 이동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통제에 대한 일탈과 일상적 저항의 양상은 생계유지를 위한 타협 및 흥정과 비법행위, 밀수나 마약 등과 같은 강력한 위법행위, 자본주의 문화를 사적으로 향유하는 행위, 정치교육이나 생활총화 등 사상적 통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국가의존형에서 시장의존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의 두드러진 양상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금전만능주의의 심화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이나 조직적인 저항행위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야기한 생존의 위협과 일상의 파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존재의 안정과 새로운 삶의 방법을 모색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주민들은 직장일에 충실한 대신 근무시간을 유용하면서 개인 장사에 몰두한다거나, 관계망과 뇌물을 활용한 비법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거나, 친지들끼리 모여서 정치적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단속 대상인 남한의 대중문화를 비밀리에 향유하는 등 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간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권력의 지배질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지배권력에 대해 “비틀기와 횡단을 반복하는 미시전복의 유격전”<sup>205</sup>을 펼친다.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행위와 사회적 관계와 의식의 차원에서 지배와 저항은 편재해 있고 동시에 작동한다. 이것이 일상의 이중성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 국가권력의 지배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은 저항보다는 동의와 순응 쪽에 치우쳐있었다. 최근 일상생활의 변화는 그러한 스펙트럼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이 반드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북

<sup>205</sup>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p. 236.





한 주민들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회적 일탈행위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생계 보조와 고용 창출, 심리적 불만 해소 등의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에서의 욕구 충족의 통로를 열어놓음으로써 일상형의 저항의 정치적 진화는 성공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비공식적, 비합법적 활동과 행위들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체제전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끊임 없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제도적 규제를 가한다.

또한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일상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배와의 거리두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의 일상화’ 또는 ‘일상의 탈정치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견 주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들의 관계와 행동의 방식을 규정하고, 생각을 주조해온 거대국가라는 ‘체계’로부터의 이탈로, 체계에 의해 침식된 ‘생활세계’의 복원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국가를 대체하여 급속하게 지배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또 다른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 일상생활의 시간적 리듬과 먹고사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맺기의 양상과 사고방식까지도 단기간에 변화시키고 있다. 즉 현재 북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의 탈정치화’의 동력과 방향은 ‘시장지향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힘이 북한의 국가권력에 맞서는 힘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국가권력과 시장의 착종을 통해 국가가 시장의 영향력을 흡수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내 문헌>

-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 민음사, 1998.
-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서울: 선인, 2006.
- 김귀옥 외.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 당대, 2000.
- 김도희(2007). 『전환시대의 중국 사회계층』.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김승철.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서울: 자료원, 2000.
-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출판, 2003.
-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북한 일상생활연구의 접근방법 모색』. 제1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학술회의 자료집, 2008.
- 르페브르, 박정자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 \_\_\_\_\_.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05.
- 마페졸리 & 르페브르 외 저. 박재환 외 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2002.
- 박재환 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 서울: 해남, 2002.
- 부르뒤, 최종철 역. 『구별짓기 上』. 서울: 새물결, 2005.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 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 서재진·조한범·장경섭·유팔무.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 서  
울: 생각의 나무, 1999.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사회문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양문수. 『북한의 노동』.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서울: 사회문화연구  
소, 2001.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금순 외.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이기춘 외.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금융경제연구원, 2007.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임지현·김용우. 『대중독재 3』. 서울: 책세상, 2007.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  
일연구원, 2003.
-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서울: 통일  
연구원, 2006.
- 좋은 벗들. 『북한 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 \_\_\_\_\_.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 \_\_\_\_\_. 『사람답게 살고 싶소』. 서울: 정토출판, 1999.
-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우리식 문화’를 알아야 북한이 보인다』.  
서울: 당대, 2000.
-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_\_\_\_\_.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4.

포이케르트, 김학이 역. 『나치시대의 일상사』. 서울: 개마고원, 2003.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1997.

### <북한 문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금성청년출판사 편. 『공산주의 녀성혁명가 김정숙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3.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백 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평양: 인문과학사, 1968.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 연구소. 『경제사전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 『경제사전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인문과학사 편. 『혁명의 어머니』. 평양: 인문과학사, 1976.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자』. 평양: 조선청년사, 1967.

차용현·서광웅. 『조선로동당 인테리정책의 빛나는 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최희열.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한선희·김영준 편. 『교육심리』. 평양: 교원신문사, 2001.

<외국 문헌>

- Andrle, Vladimire. *Workers in Stalin's Russia: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ing a Planned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 Anne Phillips. *Universal Pretensions in Political Thought*, in M. Barrett & A. Phillips (eds), *Destabilizing Theory: Contemporary Feminist Debates* (Polity Press: 1992).
- Barrett M. *Women's Oppression Today*, London: Verso, 1980.
- Balibar, E. *Culture and Identity in John Rajchman(ed.) The Identity in Question* (London: Routledge, 1995).
- Ding X. L. *The Decline of Communism in China: Legitimacy Crisis, 1977~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Eberstadt &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 S.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 C: 1990.
- Eberstadt &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92).
- Elsenhans, Hartmut. *Equality and Development* (Bangladesh: 1992).
- Filtzer, Donald. *Soviet workers and De-Stalin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2).
- \_\_\_\_\_.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London: Pluto Press, 1986).
- Gersc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spective* (Cambridge: The Belknad Press of Harvard Univ. Press,

1962).

Hellbeck J. *Revolution on my Mind: Writing a Diary under Stalin* (Mass., 2006).

Herbert Hirsh. *Genocide and the Political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Chapel Hill & Lon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Hobsbawm E.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Cambridge Univ., 1990).

Jowitt, Kenneth. *New World Disorder: The Leninist Extinction* (California Univ., 1992).

\_\_\_\_\_.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of Romania, 1944 ~1965* (California Univ., 1971).

\_\_\_\_\_. *The Leninist Response to National Dependency* (California Univ., 1978).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2).

Lane, David. *The Rise and Fall of State Socialism* (Cambridge: Polity Press, 1996).

Luce Irigaray.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 (C. Burke & G. C. Gill(tr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Lynne Viola(ed.). *Contending with Stalinism*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Nee, Victor & Stark, David.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89).

- Nove, Alec.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 Picchio, Antonella. *Social rep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abor market* (Cambridge Univ. Press, 1992).
- Post, Ken & Wright, Phil. *Socialism and Underdevelopment* (London/New York: Routledge, 1989).
- Rigby, T. H & Feher Ferenc. *Political Legitimation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 Sarah Davies. *Popular Opinion in Stalin's Russia* (Cambridge: 1997).
- Sheila Fitzpatrick (ed.). *Stalinism: New Directions* (London: 2000).
- Sheila Fitzpatrick.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21 ~1934* (Cambridge, 2002).
- \_\_\_\_\_.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s* (New York: 1999).
- Stephen Kotkin.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California: 1995).
- Thleen, K. & Steimo, Sven. *Structuring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2).
- Walder, Andrew, G.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 2. 논문

### <국내 문헌>

- 김기봉. “주체사상과 ‘일상의 정치화.’”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2008.
-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육사고 연구노트 제9호』. 1998.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종욱. “지배-대중의 관계와 북한연구.”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2008.
- 문기상. “일상생활사.” 『역사연구』. 제57호, 1995.
- 박영자.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80년대): 공장과 가정의 정치사회와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04.
- \_\_\_\_\_. “북한 일상생활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통일문제연구』. 겨울호, 2004.
- \_\_\_\_\_. “북한의 생체정치.” 『현대북한연구』. 2005.
- \_\_\_\_\_. “북한 지방정권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2005.
-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화협 정책위원회 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오름, 2003.
-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안병직 외 지음.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2002.



- 이교덕. “북한의 지식인관과 북한변화에서의 지식인의 역할.” 『북한조사연구』. 2002년 7월.
- 이승용. “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평화재단. 『제21차 전문가포럼 자료집』. 2008.
- 이영훈. “농민시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경제』. 서울: 한울, 2005.
- \_\_\_\_\_. “북한의 화폐경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이우영. “북한 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 『전남사학』. 제25집.
- \_\_\_\_\_.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2004.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2004.
- 정선희. “북한의 의료현실.” 『화해와 나눔』. 여름호, 2008.
-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 최봉대.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 2003.
- \_\_\_\_\_.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 2008.
- 한영진. “북한의 사회 계층과 의식 변화.” 북한연구소 『북한』. 제425호, 2007.
- 함택영·구갑우. “북한의 공과 사.”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 홍 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



연구센터. 『제2회 북한 일상생활연구 토론회 발표 자료』. 2008.

### <북한 문헌>

김용한. “마지막 낚시질.” 『조선문학』. 1990년 8호.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체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김일성저작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7).”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변월녀. “푸르른 대지.” 『조선문학』. 2001.9.

안홍윤. “회초리.” 『조선문학』. 2001.8.

윤경찬. “푸른 꿈.” 『조선문학』. 2003.2.

정해경.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조선문학』. 2001.5.

### <외국 문헌>

Barrett M. & M. Mckintosh. “The Family Wage: some problems for feminist & socialism?” *Capital & Class*, Vol. 11, 1980.

Coleman J.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 1986.

Hiroaki Kuromiya. “Political Youth Opposition in Late Stalinism.” *Europe-Asia Studies*, Vol. 55, No. 4, 2003.

- Mincer J. & P. Solomon.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74.
- Noonan N. C. “Two Solution to the Zhenskii Vapros in Russia and the USSR- Kollontai and Krupskaja: A Comparison.” *Women and Politics*, Vol. 11, No. 3.
- Sheila Fitzpatrick. “Ascribing Class: The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in Soviet Russia.”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65, No. 4, 1993.
- Skocpol, T. “Why I am a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olity*, Fall, 1995.
- Turner R. “Some Aspects of women’s amb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0, 1964.

### 3. 기타

『로동신문』.

『오늘의 북한소식』.

연구총서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저	9,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 협동연구총서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	----------------------	-----	------	---------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2006	2005 독일통일백서	8,500원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선홍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문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월간 북한동향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Studies Series

비매품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i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를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연구총서 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9 788984 794689 93340  
ISBN 978-89-8479-468-9